

이사야 53 장 주해

AN EXPOSITORY STUDY ON ISAIAH 53

이 창배 지음

2011

키드바로 주경연구소

글 저작권© 2011 이 창배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저자와 출판사의 허락 없이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 책을

학문의 길을 가도록 지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수 서문교회 최선재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바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5-11)

머리말 *iii*

I 서론적 고찰 **1-9**

이사야서의 주제: 종으로서 이스라엘	1
종의 노래와 여호와의 종	6

II. 본문 주해 **31-66**

본문과 번역	31
본문 전체의 구조 분석	37
각 연의 구조 분석	39
문예적 기교	41
원문	50
번역문	53
문예적 기교 설명	56

각절 주해 **67-169**

 첫째 연: 사 52:13-15 주해 **67-81**

사 52:13 주해	70
사 52:14-15 주해	72
첫째 연 요약 정리	80

 둘째 연: 사 53:1-3 주해 **82-98**

사 53:1 주해	85
사 53:2 주해	90
사 53:3 주해	93
둘째 연 요약 정리	97

 셋째 연: 사 53:4-6 주해 **99-118**

사 53:4 주해	102
사 53:5 주해	107
사 53:6 주해	112
셋째 연 요약 정리	116

 넷째 연: 사 53:7-9 주해 **119-138**

사 53:7 주해	122
사 53:8 주해	126
사 53:9 주해	132

넷째 연 요약 정리	137
다섯째 연: 사 53:10-12 주해	139-169
사 53:10 주해	145
사 53:11 주해	151
사 53:12 주해	158
다섯째 연 요약 정리	166
참고 문헌	170

머리말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눅 24:26)”라고 반문하시며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눅 24:27).”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 날 저녁에 함께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 24:44-48).”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리고 “성경” 그리고 “기록된 것(눅 24:46-47)”은 모두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들이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한 청사진은 사 52:13-53:12 에 제시되어 있고 예수님의 미래의 승귀에 대한 청사진은 단 7:13-14 에 제시되어 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직역: 그 사람의 아들]”로 즐겨 부르셨다. “인자”는 다니엘 7 장에 묘사된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신 칭호이다. 단 7:13 의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는 어구는 인자 같은 이가 신인 것을 보여준다. 예수님이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상에서 고난의 종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사 52:13-53:12 에 잘 묘사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사 53 장을 염두에 두고 하신 대표적인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막 10:45).”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고난 당하고 죽임을 당할 사 53 장의 고난의 종이 감당할 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아셨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기록한대로(눅 18:31)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실 것(마 17:9; 막 9:9, 31; 눅 9:22; 24:7)”을 거듭 거듭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고난 받은 후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아셨다. 예수님은 단 7:13-14 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죽으신 후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자의 우편에 앉으시며(마 26:64; 막 10:45; 눅 22:69) 구름을 타고 아버지의 영광으로(마 24:30; 25:31; 막 13:26; 14:62; 눅 21:27) 천사들과 함께 와서 심판을 하실 것(마 16:27)”을 말씀하셨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 53:12 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으신(눅 22:37)”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빌립은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재무장관이 사 53:7-8 을 읽고 있던 본문을 통하여 그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마태(27:38)와 마가(15:27)와 누가(23:32-33, 39-42)가 예수님이 강도(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록한 것은 바로 사 53:12 처럼 범죄자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은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시 110:1).”라는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른 것을 지적하셨다. 베드로는 이 시편 말씀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좌정을 설명하였다(행 2:34-36; cf. 히 10:12-14).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시 118:22 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의 신분을 가르치셨다(마 21:42; 막 12:10; 눅 20:17).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였다(행 4:11; 벘전 2:6-8).

본 주해는 예수님 자신이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였고 신약의 저자들이 그리스도의 실재성을 체험한 후 그 관점에서 구약을 읽으며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 것을 따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청사진을 제시한 본문인 이사야 52:13-53:12(네 번째 종의 노래)를 석의하고 강해한 것이다. 본 주해를 쓰는데 있어서 BDB, KB, TWOT, NIDOTTE 등의 사전, GKC, GBH, IBHS, WHS 등의 히브리어 문법서, 그리고 특히 Young, Oswalt, Motyer 의 주석들에 진 빛은 이루 말할 수 없다. Young 의 *이사야 주석*과 *이사야 53 장*은 석의하고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길을 잘 보여 주었고 Oswalt 의 *이사야 주석*은 이사야서 전체를 중심 주제 중의 하나인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었고 Motyer 의 *이사야 주석*은 노래 전체의 문예적 구조를 파악하고 Young 과 Oswalt 의 책들과 함께 각절을 석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리적 고난과 대속적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승귀에 대한 가장 명백한 예언의 말씀인 사 52:13-53:12 을 석의하고 강해하는 본 주해가 모든 읽는 이에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11 년 부활절에

이 창배

사 52:13-53:12 주해

I. 서론적 고찰

이사야서의 주제: 종으로서 이스라엘¹

1. 이사야서는 세 가지 다른 시대 배경을 갖고 있다. 이사야 1-39 장의 배경은 이사야의 생존 기간(739-701 B.C.)이고, 이사야 40-55 장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605-539 B.C.)이고, 이사야 56-66 장의 배경은 귀환과 회복기(539-400 B.C.)이다. 66 장으로 이루어진 이사야서는 1-5 (6)장, 7-12 장, 13-23 장, 24-27 장, 28-35 장, 36-39 장, 40-48 장, 49-55 장, 56-59 장, 60-66 장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사야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종의 문제는 사 40-55 장에서 밝히 드러나지만 다른 부분에도 암시되어 있고 이사야 전체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종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멸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하도록 하셨다.
2. 종이란 주제적 관점에서 **1-5 장**은 책 전체의 서론이다. 1-5 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자고하며 범죄한 백성이므로 결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나 **40-48 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빛과 복이 세상에 임하게 하는 도구라고 선언되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증거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이 제기된다: 어떻게 이같은 이스라엘(1-5 장)이 그같은 이스라엘(40-48 장)이 될 수 있는가? 이사야의 나머지 부분은 이 질문의 해답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해답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7-39 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묘사되고, 40-66 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묘사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빠진 **6 장**은 이사야 전체 구조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6 장**은 1-5 장에 제기된 질문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실제적인 답이며 **7-66 장**은 보다 구체적인 답을 제공한다. **6 장**과 나머지 장들을 간단히 비교하여 보면 **7-39 장**은 6:1-5 처럼 하나님의 위엄과 백성의 죄를 다루고, **40-55 장**은 6:6-8 처럼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과 능력을 언급하며, **56-66 장**은 6:9-13 처럼 용납하지 않으려는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이 되려고 애쓰는 현실을 드러낸다.
3. 이렇게 이사야서는 1-5 장의 교만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공의를 베풀고 이방의 빛이 되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6 장의 이사야처럼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어쩔 수 없는 상태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부름에 순종하며 종의 사명을 감당할 때만(7-66 장)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7-66 장**을 좀 더 세분하면 이렇다. **7-39 장**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하나님 대신 열방을 의지하는데 있으며,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40-48 장**은 죄로 인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¹ J. N. Oswalt, *The Book of Isaiah 1-39*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6), 54-60.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보여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꺼이 신뢰할 동기를 부여받는 것을 말한다. **49-55 장**은 죄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꺼이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 참된 종이 될 수 없으며, 오직 백성의 죄를 지고 고난 받는 이상적인 종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56-66 장**은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대조하면서 고난의 종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말하고 있다. 종으로서 이스라엘이란 주제에 비추어 7-66 장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피면 아래와 같다.

4. **7-39 장**은 신뢰라는 주제를 반복하고 있다. 남왕국 유다가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 주제는 대조를 통해 밝혀진다.

1) 7-39 장은 첫 부분(**7-12 장**)과 마지막 부분(**36-39 장**)에서 아주 비슷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며 수미쌍관법을 보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두 왕들의 뚜렷한 대조를 보여준다. 외적의 침략에 직면하여 유다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윗못 수도 끝 세탁업자의 밭 큰 길(7:3; 36:2)에 있었을 때 아하스는 사람을 의지하였으나 히스기야는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대조를 이룬다. 두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며 틀을 이루는 부분들은 참된 종의 자격의 선결조건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2) **7-12 장**은 아하스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보다 앗수르가 더 잘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믿은 것을 말한다. 이 부분에서 이사야는 앗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멸망에 이르는 길임을 지적하면서도,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하심으로써 그리고 교만이 아니라 인애로 나라를 다스릴 왕을 주시므로써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이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사야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그는 자기 백성을 열국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가? 그의 영광이 어떤 인간 나라의 것보다 큰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열국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긍정적이다.

3) **13-35 장**은 7-12 장의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이사야가 주장한 것에 대한 실현을 제시하며 열국을 심판하시고 천지의 주재가 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강대국을 의지하는 일의 어리석음을 지적한다.

① **13-23 장**은 열국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다. 11 장과 12 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하며, 13-23 장은 동쪽에 있는 바벨론(13-14 장)으로부터 서쪽에 있는 두로(23 장)에 이르기까지 열국이 하나님의 심판아래 있음을 말한다.

② **24-27 장**은 13-23 장의 구체적인 묘사에서 보다 일반적인 묘사로 전환하며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 대해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말한다.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안전하게 거할 것이며(26:3-6)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27:12-13).

③ **28-33 장**은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방의 빛이 되는 대신 열국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줄 인간적 지도력을 의지하고 있는 문제를 다룬다.

애굽을 의지하는(30:1-7; 31:1-5) 것을 포함하여 인간적인 지도자들을 의지하는 것의 어리석음이 지적되는 한편 어리석은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왕 곧 공의와 평강으로 다스릴 왕에 대한 약속이 제시된다(32:1-8; 33:17-22).

④ **34-35 장**은 13-33 장의 교훈을 요약한다. 34 장은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자신과 세상을 파멸하게 하는 것임을 보이고 35 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풍요와 복과 거룩의 동산에 자신을 두는 것임을 밝힌다.

⑤ **7-35 장**을 통해 우리는 잘 짜여진 학습경험을 하는 인상을 받는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앗수르를 의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답으로 아하스가 앗수르를 택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13-35 장**은 하나님만 신뢰해야 한다는 바른 답의 선택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한 교재 역할을 한다.

4) **36-39 장**은 7-12 장에서 먼저 치른 시험(pre-test)에 실패한 아하스와는 달리 히스기야가 13-35 장이 주는 교훈대로 과연 하나님만 의지할 것인가 하는 나중에 치른 시험(post-test)에 합격하지만 그 후에 바벨론을 의지하려는 연약함을 보이며 실패한 것을 다룬다. 이렇게 **36-39 장**은 신뢰문제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는 한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뢰가 생활양식이 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인간의 죄성을 보여준다.

①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험에 합격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의 답을 제시하는 한편 하나님은 앗수르를 치심으로써 자신이 신뢰할만한 분이심을 보여 주신다(**37 장**).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7-9 장에 제시된 약속된 메시아인가? 이 문제의 답은 부정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연장되었어도 죽을 인간이며(**38 장**),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바벨론 사람 앞에서 부를 뱉내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름으로써(**39 장**) 히스기야가 메시아가 아닌 것이 드러난다.

②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을 보임으로써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보였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단회적이며 생활양식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종이 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그의 백성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한 번 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종, 이방의 빛이 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은 여전히 강대국에 자신을 의지하려 하였다.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단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 이상의 무엇을 요구한다. 이 문제의 답을 찾는데 6 장은 다시 도움을 준다. 6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나 부정한데서 구원받은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을 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할 목적으로 이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을 본다.

③ 이렇게 **36-39 장**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우리의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보여 주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근거를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인도한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그의 종으로 사용하기를 좋아하시는가? 아니면 이사야처럼 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엄청난 간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저 있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비추어 보면 **36-39 장**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연결하는 중추 부분이다. 다른 한편으로 위협이 되는 강대국의 관점에서 보면 **36-39 장**은 지금까지 앗수르가 유다의 위협이라고 생각한 유다 왕국 사람들에게 바벨론이 진정한 위협이라는 것을 밝히는 역사적인 중추 부분이기도 하다.

5. **40-66 장**은 종에 대한 세 가지 남은 문제의 답을 제시한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40-48 장**)이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49-55 장**)이다. 세 번째 문제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종으로서 우리의 삶의 특징들은 무엇인가(**56-66 장**)이다. 7-39 장과 비교하여 40-66 장은 앗수르의 위협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와 회복기를 바라보는 역사적 상황의 변화와 이사야서의 신학적 전개로 인해 강조점의 전환이 일어난다. 40-55 장은 일들의 전혀 새로운 양상을 언급한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성전이 훼파되며 유다의 좋은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 “하나님은 앗수르에 대한 승리를 보이셨지만 바벨론의 신들에게 지거나 우리 죄에게 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방의 빛이 되기는커녕 이방 나라의 종이 된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1)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40-48 장**)? 이사야는 **40-48 장**에서 바벨론의 신들은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으며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귀한 백성이란 것을 강조한다. **40 장**은 서론으로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강조한다. **41-48 장**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바벨론에 적용하여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 멸망할 것을 예언하며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에 기인한 것임을 보여준다. 바벨론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 동기를 부여받는다.

2)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49-55 장**)?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 멸망되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어 이방의 빛이 될 수 있는가? 즉 바벨론의 멸망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인가? 보다 깊은 속박 때문에 이스라엘이 본토에서든 바벨론에서든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누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 하는 이스라엘을 죄의 속박에서 건져낼 수 있는가? 죄성을 지닌 백성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49-53 장**이 준다. 바벨론이란 육적 속박으로부터 구원받는데 고레스가 필요하듯이 죄라는 영적 속박으로부터 구원받는데 고난받는 이상적인 종(49:1-

6; 50:4-10; 52:13-53:12)이 필요한 것을 밝힌다. **49-53 장**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고난 받는 메시아의 사역인 것을 밝힌다. **54 장**은 하나님의 참된 종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보이며 **55 장**은 죄와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노래한다. 메시아적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위엄에 비추어 9 장과 11 장에 예언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 49-53 장에 예언된다.

- 3) 불완전한 세상에서 종으로서 우리의 삶의 특징들은 무엇인가(**56-66 장**)?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이 종이 될 기초(basis)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종이 될 동기(motive)를 부여하고, 하나님께서 고난 받는 종을 주신 것이 종이 될 길(means)을 준 것이라면 이제 한 가지 문제 즉 실제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는 문제가 남는다. 6 장은 다시 이 문제에 해답을 준다. 이사야가 부정함에서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에 기뻐하며 만족하기 위한 것이었던가? 결코 아니다. 이사야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도록 하기 위해, 바꾸어 말하면 이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고 희미하지만 동물 제사보다 더 효과적인 속죄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아는 것과 역사의 무대 위에서 이방 사람 앞에서 이 진리대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열방 앞에서 이 진리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빛이 비쳐지도록 하는 순결한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 의미하는 궁극적인 것이다. 이 주제가 **56-66 장**에 전개되면서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대조된다.
- 4) 인간의 무능을 강조하는 **56-59 장**은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구하는 것이 형식적인 의(legalistic righteousness)가 아니라(56:1-8; 58:1-14), 하나님의 속성이 종의 삶 전체에 미쳐 헌신과 공의로 나타나는 것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밝힌다(57:14-21; 59:16-21).
- 5) 하나님의 전능을 강조하는 **60-66 장**은 한때 자기의 영광을 구했거나(9:9-10) 열방의 영광에 유혹되었던 자들이 영광의 유일한 참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인간과 함께 나눌 그 날을 바라보는(60:7, 9, 13, 19; 62:2; 66:19) 것을 밝힌다. 하나님은 압제자들 앞에서 그의 종들을 변호하시며(65:8-16)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65:17-25). 종들이 부족하고 의롭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63:1-65:7).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에 서서히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맡기고 그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6.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이사야서는 우리를 자기 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성호와 속성을 잘 계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는 영광스러우시며,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며, 겸손하며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는 신실하시며, 용서하시며,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데 있어서 철저하시다. 그는 우리로 우리의 자립을 포기하고 그만을 의지하도록 부르신다.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로 그와 같이 되게 해 주시기 때문이다.

종의 노래와 여호와와의 종

1. 종의 노래들

- 1) 19 세기 말에 독일 학자 버나드 뚴은 사 **42:1-4; 49:1-6; 50:4-9; 52:13-53:12** 을 따로 떼어 주전 8 세기의 이사야가 아니라 1 세기 이상 지난 제 2 이사야의 것이라고 생각했다.² 이 네 부분은 후에 종의 노래들(servant songs)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카이저는 뚴이 종의 노래들을 후기의 작품으로 본 것은 본문의 증거나 보수학자들의 연구들에 의해 지지받지 못함을 지적한다.³ 보수주의 학자들의 판단에 의하면 종의 노래들은 주전 8 세기의 이사야의 것이고 전체 문맥에 들어 맞으므로 굳이 따로 떼어서 후기의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
- 2) 종의 노래라고 하는 본문의 범위가 뚴이 말한 것보다 더 확대되기도 하고 다른 종의 노래가 추가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카이저는 괄호를 사용하고 한 노래를 추가하며 **42:1-4[9]; 49:1-6[13]; 50:4-9[11]; 52:13-53:12; 61:1-3** 을 종의 노래들로 보았다. 그로간(837, 845)은 61:2 과 63:4 이 주제적 연결을 고려하며 61:1-3 과 63:1-6 을 각각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종의 노래로 볼 가능성을 언급했다.
- 3) 처음 세 노래들 그리고 61:1-3 과 63:1-6 은 다음과 같다.

- ①[사 42:1-4] (1)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2)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3)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 ②[사 49:1-6] (1)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2)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 화살통에 감추시고 (3)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4)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5)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6)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² Bernhard Duhm, *Das Buch Jesaia: übersetzt und erklär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92).

³ Water C. Kaiser, "Identity and Mission of The 'Servant of the LORD'" in Darrell L. Bock and Mitch Glaser, eds. *The Gospel According to Isaiah 53* (Kregel: 2012), 87.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③ [사 50:4-9] (4)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5)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6)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뱀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8)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들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9)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④ [사 61:1-3] (1)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2)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cf. 눅 4:17-21)

⑤ [사 63:1-6] (1)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2)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으냐 (3)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4) 이는 내 원수 밟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5) 내가 본즉 도와 주는 자도 없고 붙들여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6)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4) Young 은 종의 노래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말한다.⁴

- ① 42:1-4 에서 여호와와 종은 성취할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자로 제시된다.
- ② 49:1-6 에서 종의 사명이 다시 제시되고 그의 사역에 있을 커다란 어려움들이 암시된다.
- ③ 50:4-9 에서 그 종 자신이 자기가 직면할 고난에 대하여 말한다.
- ④ 52:13-53:12 에서 종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제시된다.

5) Motyer 는 종의 노래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⁵

Song 노래	42:1-4	49:1-6	50:4-9	52:13-53:12
Type	Biography	Autobiography	Autobiography	Biography
유형	전기적	자서전적	자서전적	전기적

⁴ E. J. Young, *The Book of Isaiah* vol. 3 (Grand Rapids: Eerdmans, 1972), 335.

⁵ J. Alec Motyer, *The Prophecy of Isaiah* (Downers Grove, Ill: IVP, 1993), 15.

Servant's 종의	Task 임무	Task 임무	Commitment 헌신	Completion of Task 임무 완성
Endowed with 부여받음	Spirit and Word 성령과 말씀	Word 말씀	Word 말씀	φ
Experiencing 경험	φ	Despondency 의기소침	Suffering 고난	Suffering 고난
Tailpiece 부속	42:5-9	49:7-13	50:10-11	54:1-55:13

① 첫 번째 노래(42:1-4)와 두 번째 노래(49:1-6)의 경우 뒤따라 나오는 것(42:5-9; 49:7-13)은 하나님께서 종의 임무를 확인해 주시고 임무의 성공을 약속하신 것이다. 세 번째 노래(50:4-9)와 네 번째 노래(52:13-53:12)의 경우 뒤따라 나오는 것(50:10-11; 54:1-55:13)은 종과 종이 행한 일에 대하여 반응하도록 초청하는 것이 나온다(Motyer, 443-444).

② 카이저처럼 첫 번째 노래를 42:1-9, 두 번째 노래를 49:1-13, 세 번째 노래를 50:4-11 로 확대하면 네 번째 노래(52:13-53:12)만 부속된 부분(54:1-55:13)이 뒤 따라 온다. 모티어(444)에 의하면 네 번째 노래 다음에 부속된 것(54:1-55:13)은 종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대한 반응, 곧 예를 들어, 노래하라(54:1), 장막터를 넓히라(54:2), 잔치에로 나아오라(55:1), 여호와를 찾으라(55:6)는 반응을 촉구한다.

2. 구약과 이사야서에 사용된 “종”

1)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와 종, 하나님의 종”이란 칭호

①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와 종(יהוה וְעַבְדָּי; אֲבוֹנָי) 에베드 아도나이)”이란 칭호는 모세(17 번: 신 34:5; 수 1:1, 13, 15; 8:31, 33; 11:12; 12:6; 13:8; 14:7; 18:7; 22:2, 4, 5; 왕하 18:12; 대하 1:3; 24:6), 여호수아(2 번: 수 24:29; 사 2:8), 다윗(2 번: 시편 18 편과 36 편의 표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1 번: 사 42:19 cf. 사 54:17 여호와와 종들[복수]) 등에 총 22 번 사용되었다.

②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에베드 엘로힘])”이란 칭호는 모세(4 번: 대상 6:49; 대하 24:9; 느 10:29; 단 9:11),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단 3:26), 다니엘(단 6:20), 요셉의 형들(창 50:17), 귀환민(스 5:11) 등에 사용되었다.

③ 구약에서 여호와 혹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 속격이 붙은 “나의 종, 당신님의(=개역개정 주의) 종, 그의 종”이란 어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스라엘, 모세, 갈렙, 다윗, 욥, 스룹바벨, 싹, 선지자들, 왕들, 이스라엘 백성 등에게 사용되었다.

• 당신님의 종

-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출 32:13);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신 9:27)
- 주의 종 선지자들 (스 9:11; 단 9:6)
- 주의 종 모세 (8:53; 느 1:7, 8; 9:14); 모세가 자신을 주의 종으로 부름(출 4:10; 민 11:10)

- 주의 종 다윗 (삼하 7:26; 왕상 3:6; 8:25; 대상 17:24; 대하 6:15, 16, 17, 42; 시 132:10)

• 그의 종

-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 (출 14:31 cf. 수 9:24; 11:15; 왕상 8:56; 사 63:11[페시타역과 소수 사본 [아브도]; cf. BHS [아모]]; 시 105:26)
-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 (왕상 14:8)
- 그의 종 엘리야 (왕하 10:10)
- 그의 종 가드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 (왕하 14:25)
- 그의 종 다윗 (왕상 8:66; 왕하 8:19; 시 78:70; 144:10)

• 나의 종/내 종 [개역개정에서 “나의”와 “내”가 통일되지 않고 나오는 것은 유감스럽다.]

- (모세: 6 번) 나의 종 모세 (수 1:7; 왕하 21:8) / 내 종 모세(민 12:7, 8; 수 1:2; 말 4:4[MT 3:22])
- (다윗: 26 번) 나의 종 다윗 (1 번: 왕하 19:34) / 내 다윗 (26 번: 삼하 3:18; 7:5, 8; 왕상 11:13, 32, 34, 36, 38; 14:8; 왕하 19:34; 20:6; 대상 17:4, 7; 시 89:3, 20; 사 37:35; 렘 33:21, 22, 26; 겔 34:23, 24[2 번], 25; 37:25)
- 나의 종 선지자들 (왕하 9:7; 렘 26:5; 슥 1:6) / 내 종 선지자들(렘 7:25; 29:19; 35:15; 겔 38:17)
- 나의 종 이사야 (사 20:3)
- 내 종 갈렙 (민 14:4)
- 내 종 읍 (읍 1:8; 2:3; 42:7, 8)
- 내 종 싹 (슥 3:8)
- 내 종 스룹바벨 (학 2:23)
-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렘 25:9; 27:6; 43:10)
- 나의 종 야곱 (사 41:8; 44:1, 2, 45:4; 렘 33:10) / 내 종 야곱[이스라엘] (사 42:19; 44:21; 렘 46:27, 28; 겔 28:25; 34:25) Cf. 레 25:55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 이사야서에서 단수형 “종”이 나오는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24 번+? 1 번[사 63:11]).⁶

⁶ http://www.obinfont.ro/docs/tpnt/tpntrex/hugenberger_messiah.pdf 3 쪽, 각주 6. [= G.P. Hugenberger, “The Servant of the Lord in the ‘Servant Songs’ of Isaiah: a Second Moses Figure” from P.E. Satterthwaite, R.S. Hess, G.J. Wenham, eds., *The Lord’s Anointed. Interpretation of Old Testament Messianic Texts* (Baker, 1995) 105-140.] 휴겐버거에 의하면 이사야서에서 단수형으로 총 25 번 즉 “나의 종[아브디]”은 15 번(20:3; 22:20; 37:35; 41:8, 9; 42:1, 19; 43:10; 44:1, 2, 21; 45:4; 49:3; 52:13; 53:11) 나오고, “그의 종[아브도]”는 4 번(44:26; 48:20; 50:10; 63:11[cf. BHS 아모 “그의 백성” → 아브도 “그의 종” (소수 사본, 시리아역)] 나오고, “종[에베드]”은 6 번(24:2; 42:19; 44:21; 49:5, 6, 7) 나온다. 휴겐버거는

① “나의 종/내 종[아브디]”: 15 번 (cf. “나의 종/내 종” 44:21b [에베드 리]; 49:6 [리 에베드])

- 20: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삼 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 22:20 그 날에 내가 할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아김**을 불러
- 37:35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 41:8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 41:9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 **42:1**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종의 노래 I]**
- 42:19a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 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 같이 맹인이겠느냐)
- 43:1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 44:1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 44:2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라
- 44:21a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아브디]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에베드 리]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 45:4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 **49:3**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종의 노래 II]**

단수로 나오는 총 25 번 가운데 12 번(41:8, 9; 42:19[두 번]; 43:10; 44:1, 2, 21[두 번]; 45:4; 48:20; 49:3.)은 종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모두 40-53 장 안에서 나온다고 설명한다.

참고로 오스왈트(Oswalt, *Isaiah 1-39*, 49 n. 13)에 의하면 “여호와의 종, Servant of the LORD”이 반복되는 중심주제로 나오는 사 40-55 장으로 한정해서 말할 때 “여호와의 종” 혹은 “나의 종, 나의 종” 혹은 “그의 종”으로 약 20 번, 구체적으로 밝히면 사 41:8(나의 종), 9(나의 종); **42:1**(나의 종), **19**(여호와의 종); 43:10(나의 종); 44:1(나의 종), 2(나의 종), 21(나의 종), 26(그의 종); 45:4(나의 종); 48:20(그의 종); 49:5(그의 종), 6(나의 종); 50:10 (그의 종); 52:13(나의 종); 53:11(나의 종); **54:17(여호와의 종들)**에 나온다.

- 52:13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종의 노래 IV**]
 - 53:11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종의 노래 IV**]
- ② “그의 종[아브도]”: 3 번(+1 번 [63:11] 페시타역, 소수 사본 → ISV “Moses his servant”) (cf. “그의 종” 49:6 [르에베드 로])
- 44:26 **그의 종**의 말을 세워 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
 - 48:20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 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 50:10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 **종의 노래 III**]
 - 63:11(cf. BHS [아모] “그의 백성” → 소수 사본, 페시타역 [아브도] “그의 종”)
 - KJV: Then he remembered the days of old, **Moses, and his people,**
 - NIV: Then his people recalled the days of old, the days of **Moses and his people**
 - ESV: Then he remembered the days of old, of **Moses and his people.**
 - NASB: Then **His people** remembered the days of old, of **Moses.**
 - HCSB: Then He remembered the days of the past, the days of **Moses and his people.**
 - ISV: Then they remembered the days of old, **of Moses his servant.**
 - 개역개정: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 새번역: 그들은, 지난날 곧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 ③ “종[에베드]”: 6 번
- 24:2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 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 42:19b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 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 같이 맹인이겠느냐
 - 44:21b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아브디]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에베드 리]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 49:5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르에베드 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종의 노래 III**]

- 49:6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리 에베드]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종의 노래 II]**
- 49:7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르에베드 모실림]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 종의 노래 II]**

3) 이사야서에서 복수형 “종들”[רַבָּדִים/רַבָּדִים]이 나오는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17 번).⁷

- ① [사 14:2]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תַּיְהוֹדֵשׁוּתִי מֵרַבָּדִים] **남종들**과 **여종들**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 ② [사 36:9]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앗수르 왕 산헤립]의 **종**[원문 종들]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 ③ [사 36:11] 이에 엘리아김과 셉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랍사게]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 ④ [사 37:5]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 종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 ⑤ [사 37:6]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앗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 ⑥ [사 37:24] 내가 **내**[앗수르 왕 산헤립] **종**[원문 종들]을 통해서 주를 훼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 ⑦ [사 54:17]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⑧ [사 56:6]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원문 종들]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 ⑨ [사 63:17]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⁷ 휴겐버거(각주 7)는 복수형 “종들”이 53 장 이전에는 나오지 않으며 54:17 에서 시작하여 11 번 나온다고 했으나 53 장 이전인 14:2; 36:9, 11; 37:5, 6, 24 에도 나오고 있다. 휴겐버거는 54:17 에서 시작하여 11 번 나오는 복수형 “종들”은 모두 개종된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56:6 [cf. 56:3 רַבָּדִים 네하르,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고 설명한다.

- ⑩ [사 65:8]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 ⑪ [사 65:9]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 ⑫ [사 65:13]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주릴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 ⑬ [사 65:14]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우므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프므로 울며 심령이 상하므로 통곡할 것이며
- ⑭ [사 65:15] 또 너희가 남겨 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춥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 ⑮ [사 66:14]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와 그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3. 이사야서에서 “종”의 정체가 분명한 구절들

1) 이사야서에 “종”이 어떤 인간(들)의 종인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

- ① [사 14:2]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와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גִּבּוֹרֵי מִצְרָיִם] **남종들과 여종들**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 ② [사 36:9]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앗수르 왕 산헤립]의 **종**[원문 종들]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 ③ [사 36:11] 이에 엘리아김과 셉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랍사게]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 ④ [사 37:5]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 종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 ⑤ [사 37:6]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앗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 ⑥ [사 37:24] 내가 네[앗수르 왕 산헤립]의 **종**[원문 종들]을 통해서 주를 훼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 ⑦ [사 49:7]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2) 이사야서에서 “나의 종/내 종”이 고유명사와 동격을 이룰 때 그것은 그 인물을 가리킨다.

- ① [사 20: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삼 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 ② [사 22:20]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아김**을 불러

- ③ [사 37:35]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 3)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와 **종**”은 42:19 에 한 번 사용되었고 맹인같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여호와와 **종들**”은 54:17 에서 한 번 사용되었고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
- ① [사 42:19]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 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와 종** 같이 맹인이겠느냐
- ② [사 54:17]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와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 4) 이사야서에서 53 장 이후에 복수형 “**종들**”은 54:17(“여호와와 **종들**”)에서 시작하여 11 번 나오며 “**그의 종들, 나의 종들, 주(=당신님)의 종들**”은 모두 (개종된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56:6)을 가리킨다.
- ① [사 54:17]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와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 ② [사 56:6]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원문 종들]**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 ③ [사 63:17]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시 돌아오시옵소서
- ④ [사 65:8]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 ⑤ [사 65:9]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 ⑥ [사 65:13]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주릴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 ⑦ [사 65:14]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우므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프므로 울며 심령이 상하므로 통곡할 것이며
- ⑧ [사 65:15] 또 너희가 남겨 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춧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 ⑨ [사 66:14]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와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5) 이사야 40-53 장에 나오는 “나의 종” 혹은 “그의 종”은 대부분(즉 네 개의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것을 제외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⁸ 이 경우 “종”은 죄악된 이스라엘, 이상적인 이스라엘, 회개한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가리킨다.⁹

- ① [사 41:8-9]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 ② [42:18-25] 18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19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 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와 같이 맹인이겠느냐 20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21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22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23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24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나 우리가 그에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2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달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 ③ [사 43:1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 ④ [사 44:1-2, 21, 26] 1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2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룬아

⁸ 휴겐버거(pdf, 5)에 의하면 Duhm(*Das Buch Jesaja übersetzt und erklärt* [HKAT 3/1, 4th ed.;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22 (1st ed. 1892)] 311.)은 종의 노래들 밖에서 “종”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지만 종의 노래들 안에서 종이 개인을 가리키는 점에서 네 개의 종의 노래들이 다른 부분과 구별된다고 말했다.

⁹ 사 40-55 장은 죄 많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나라들에게 구원의 빛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할 참된 종이 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뜻을 행하도록 종으로 선택되었지만(41:8-9; 44:21) 소경 같고 귀머거리 같은 종이 되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했다(42:18-25).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그의 종 야곱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48:20).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할(사 49:5-6; 53:5, 11) 고난의 종 메시아(49:5; 53:8)를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깨끗해지며(54:8), 하나님의 종이 되고(54:17),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증인과 이방의 빛(55:4-5)이 되게 하실 것이다.

- [54:8]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 [54:17]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55:4-5] 4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5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 . . 21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 . . 26 **그(=여호와)의 종**([아브도] cf. 개역: 내 종)의 말을 세워 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종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 ⑤ [사 45:4]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 ⑥ [사 48:20]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 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4. 종의 노래들(42:1-4[9]; 49:1-6[13]; 50:4-9[11]; 52:13-53:12)에 나오는 “나의 종” 혹은 “그의 종”의 정체

- **[노래 I] 사 42:1** 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 . 6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 **[노래 II] 사 49:3**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 . 5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 . 6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7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르에베드 모실림]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 **[노래 III] (+ 사 50:10)**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 **[노래 IV] 사 52:13**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 . . 53:11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나의 종” 혹은 “그의 종”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개인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

① 종의 노래들에는 “종”이 집합적 백성과 구별되는 개인으로 보이는 구절들이 있다.

- 사 49:5-6 은 하나님의 백성 “야곱” 혹은 “이스라엘”(cf. 사 48:1)과 구별되는 한 개인 곧 여호와와 **종**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종은 태에서 나올 때부터(49:1) 선택받고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49:3)이라고 불리웠다.¹⁰ 49:3의 “나의 종, 이스라엘”은 49:5의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49:6의 “야곱의 지파들,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들”과 구별되는 “그의 종(49:5)”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49:5) 이방의 빛으로 구원을 땅끝까지 베푸는(49:6) 사명을 받았다. 따라서 두 번째 노래의 “나의 종, 그의 종”은 백성을 가리키는 야곱과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한 개인이다. 사 49장에서 “이스라엘”이 한 개인(49:3)과 백성(49:5)에 대해 사용된 것은 다른 구약책들에서 “이스라엘”이란 용어가 개인적 족장 야곱과 그의 후손인 백성 둘 모두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사 48:1]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사 49:1-6] (1)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오므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오므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2)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날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3)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4)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녕히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5)나는 여호와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오므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6)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 사 42:3에서 종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되고 있다.

[42:3 새번역]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 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 사 42:6과 49:8에서도 비슷한 대조가 암시된다. 여기서 종은 그가 “백성을 위한 언약(a covenant for the people)”이 될 것이라고 약속받는다. 42:6에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이 나란히 나오는 것에 유의하면 “백성”은 종이 섬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종은 렘 31:30과 겔 34:24와 37:26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새 언약이 될 것이지만 만일 종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언약이라면 그는 “백성”과 구별되는 개인이다.

[42:6]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¹⁰ Hugenberger, pdf. 5, n. 11: 맛소라 본문에 나오는 49:3의 “이스라엘”에 대해 의문시하는 학자들도 있지만(Mowinckel, Orlinsky) Kenn 96을 제외한 모든 히브리어 사본들, 두 사해 사본 1QIsa^a와 1QIsa^b, LXX (except LXXQ,534, which read lacwb in place of Israhel), the Targum, the Vulgate, and the Peshitta의 지지를 받는다. 더 어려운 독법(lectio difficilior)을 보이는 맛소라 본문의 이스라엘을 원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49:8]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 사 53:8 에서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진” 종은 “내 백성[아미] cf. 그의 백성 [아모] 1QIsa^a”과 동일시될 수 없다. 여기서 종이 백성이라면 끊어진 종 곧 죽은 백성이 살아 남아 있는 셈이 되므로 종을 백성과 동일시할 수 없다.

[사 53:8]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 ② 이사야서에서 2:3; 3:6; 4:1; 53:1 등에서처럼 화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갑자기 나오는 1 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는 항상 1:9; 16:6; 24:16; 32:2, 20; 42:24; 59:9-12; 63:16-19; 64:3-11 에서처럼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다. 네 번째 노래에서 사 53:6 은 “우리”와 구별되는 “종”을 보여주고 있다.

[사 53:6] 우리 모두는 양 같이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다.

- 53:6 은 선지자 자신이 백성과 함께 “우리”로서 또 하나의 종을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53:6 에서 대명사 ‘우리’와 ‘그’에 유의하여 읽으면 종으로 언급되던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된 여호와의 종의 존재를 보게 된다. 이 종은 소경과 귀머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의로운 남은 자들도 아니다. 이 종은 바로 이상적인 종, 순종하는 종이다.
- 이스라엘과 길 잃은 양의 비교는 시 95:7-10; 119:176; 렘 50:6 에도 나온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인정한다(6:5; 59:11-13; 64:5-9). 따라서 원문에서 53:6 을 감싸는 “우리 모두[쿨라누]”가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일 수 없고 백성과 구별되는 개인일 수밖에 없다.

- ③ 종의 노래들에서 여호와의 종은 죄가 없음에도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 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 여호와의 종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뱀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50:5-6)”라고 고백한다.
-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 여호와의 “종”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을지라도(53:9)”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 의가 종말적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것일지라도(1:26f.; 32:16f.; 53:11; 60:21; 61:3, 10f.; 62:2, 12) 이사야 선지자는 반복적으로 동시대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겪는 죄 많은 백성인

것을 강조한다(1:26f.; 32:16f.; 53:11; 60:21; 61:3, 10f.; 62:2, 12). 이 점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하여 언급된다(43:22; 46:3, 12; 48:1, 8; 53:6, 8; 55:7; 58:1ff.; 63:17; 64:5-7). 이러한 구절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전혀 다르므로 죄많은 백성과 죄없는 종은 동일시될 수 없다.

- 네 번째 노래에서 묘사된 종의 모습은 선지자 이사야가 묘사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구상의 어떤 존재의 모습과도 다르다. 이것이 종과 이스라엘 백성을 동일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다. 사 53:10-12 에서 종이 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누가 할 수 있으며 지구상의 어떤 존재가 할 수 있겠는가?

10 여호와의 뜻은 그를 부수시며 그를 아프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의 영혼이 속건제를 드리면

그가 씨를 보며 날들을 길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뜻이 그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11 그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그는 빛을 볼 것이고

자기 지식으로 인해 그는 만족해 할 것이다.

의로운 자인 나의 종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12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그 많은 사람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는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는 그가 그의 영혼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범죄자들과 함께 자신을 헤아려지게 하였고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고

범죄자들을 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이다.

- ④ 요약해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가리키고 있는 본문들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그 백성의 죄 때문에 무고하지만 순종적으로 고난을 당하고(53:4-12), 야곱/이스라엘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가져오는(49:5-6) 존재이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사 49:6 에서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처럼 사 49:3 에서 한 번 여호와의 종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은 종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받았던 사명을 충실히 완수할 때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만 했던 모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¹¹

¹¹ Hugenberger, 7: In summary, although surrounded by texts that refer to corporate Israel as a servant, the servant of the servant songs, who innocently and obediently suffers for the transgression

⑤ 종은 주인을 섬기는 자인데 종의 순종이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종의 이상형에 더욱 가까이 접근한다. 여호와와 종을 삼각형이나 원뿔에 의해 표시하면 아랫부분에 이스라엘 전 백성이 있고, 중간 부분에 의로운 남은 자들이 있고, 그 정점에 백성의 아픔을 짊어지고 슬픔을 담당하며(53:4)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종 한 사람이 있다.¹² 정점에 있는 이 종은 백성과 구별되는 존재로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며(53:10)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여호와와 종이다.

2) 휴겐버거는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종을 집합적 이스라엘(corporate Israel)로 보는 입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설명한 후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종을 개인(an historical, future, or ideal individual) 으로 보는 입장들을 셋으로 나누어 이사야 자신을 포함한 선지자적 인물, 메시아를 포함한 왕적인 인물, 제사장적인 인물)으로 보는 해석을 평가하고 어느 하나도 종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나서 휴겐버거는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종을 선지자적, 왕적, 제사장적 역할을 포괄할 수 있는 제이 모세(a second Moses)와 동일시하는 입장이 가장 바르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제사장적 존재, 왕적 존재, 선지자적 존재 중 어느 하나로 제한하면 종의 모든 측면을 포괄할 수 없으므로 모세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사역한 것이 예표하는 마지막 “모세와 같은 선지자,” 곧 제이 모세가 바로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종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주장한다.¹³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원래의 청중들에게 일어난 적이 없다고 하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휴겐버거에 의하면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종을 제이 모세로 해석하는 것은 흔히 그러하듯이 미리 메시아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서도 신약의 메시아적 해석에 대한 실질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장점도 있다.

6. 종의 정체에 대한 신약의 해석

of the people (53:4-12) and who brings salvation to the Gentiles and restores Jacob/Israel to Yahweh (49:5-6), is not to be equated with corporate Israel. By allowing him to share the servant designation of corporate Israel, however, and in one verse even the name 'Israel' (49:3), the prophet may be suggesting that this one is everything Israel should have been, as he faithfully fulfils the role to which Israel had been called.

¹² Hugenberger, 7, n.17: the frequently cited pyramid analogy of F. Delitzsch, according to which the 'servant' designation is used of Israel as a whole (the base of the pyramid), it is used also of the purified remnant of Israel (the middle section), and it is used finally of the coming saviour (the apex), who is the embodiment of Israel (*Isaiah*, II: 174f.).

¹³ 선지자적, 왕적, 제사장적 인물로 보는 각 입장의 장점과 문제점 그리고 제이 모세로 보는 입장의 타당성을 보다 자세히 보려면 본서의 부록으로 실어놓은 G.P. Hugenberger, “The Servant of the Lord in the ‘Servant Songs’ of Isaiah: a Second Moses Figure” from P.E. Satterthwaite, R.S. Hess, G.J. Wenham, eds., *The Lord's Anointed. Interpretation of Old Testament Messianic Texts* (Baker, 1995) 105-140. = http://www.obinonet.ro/docs/tpnt/tpntrex/hugenberger_messiah.pdf 의 번역을 참고하라.

- 1)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종의 사명으로 보았고 그 사명의 성취를 위해 자신이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고 예언하셨고 그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여호와의 종과 같이 대속적인 것으로 여기셨다.¹⁴ 겿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수난 곧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고난의 종의 사명을 성취하셨고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것을 인치셨다. 이사야 53 장에 비추어 고난의 종으로서 자신의 사명과 죽음을 보신 예수님의 자기 이해는 그들의 메시아를 이사야 53 장의 고난의 종으로 보는 초대 교회의 이해의 뿌리이다. 초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명을 완수하신 후에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을 따라 종의 노래들을 예수님께 적용하였다.
- 2) 예수님께서 사 52:13-53:12 의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이해하신 것을 보여주는 신약의 구절들을 살펴보면 한 개의 직접 인용 구절, 두 개의 분명한 암시 구절, 두 개의 가능성 있는 암시 구절이 있다.¹⁵
- ① 눅 22:37 을 보면 예수님은 사 53:12 을 70 역이 아니라 맛소라 본문에서¹⁶ 직접 인용하셨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금요일 밤에 제자들에게 사 53:12 이 자신에 관한 것이고 자신이 그것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을 시인하시고 그의 고난을 예고하시는 여러 구절들에서처럼 성경에 기록된대로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공식을 사용하시며 백성의 죄책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의 이미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청사진이었던 것이다.
- 사 53:12 범죄자들과 함께 자신을 헤아려지게 하고
 - 눅 22:37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 ② 막 10:45(마 20:28)과 막 14:24(마 26:28; 눅 22:20)에서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자신을 이해하신 것을 분명하게 암시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여호와의 종처럼 백성을 위한 대속적인

¹⁴ R. T. France, *Jesus and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1982), 132.

¹⁵ 이 구절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France, *Jesus and the Old Testament*, 114-130 을 참고하라.

¹⁶ 사 53:12 와 눅 22:37 의 원문과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MT 사 53:12: הַמִּצְטָרִיף אִתּוֹ (NASB) And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LXX 사 53:12: καὶ ἐν τοῖς ἀνόμοις ἐλογίσθη and he was numbered among the transgressors

눅 22:37: λέγω γὰρ ὑμῖν ὅτι τοῦτο τὸ γεγραμμένον δεῖ τελεσθῆναι ἐν ἐμοί, **τό Καὶ μετὰ ἀνόμων ἐλογίσθη**. καὶ γὰρ τὸ περὶ ἐμοῦ τέλος ἔχει. (NASB) "For I tell you, that this which is written must be fulfilled in Me, 'AND HE WAS NUMBERED WITH TRANSGRESSORS'; for that which refers to Me has [its] fulfillment."

죽음이었다. 종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백성을 의롭게 하는 은택을 가져왔다.

- 막 10: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 막 14:24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③ 막 9:12 와 마 3:15 에서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자신을 이해하신 것을 어휘적으로 암시하셨다.¹⁷

- 막 9:12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 마 3:1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3) 예수님은 사 53 장의 종의 고난에 비추어 자신이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다. 막 8:31; 9:31; 10:33-34 과 병행 구절을 참고하라.

- 막 8:31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 막 9:31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삼 일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 막 10:33-34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4) 윌킨스는 사 52:13-53:12 이 신약에 직접 인용된 것과 복음서에 암시되거나 개념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을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제시하고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마태가 예수님을 사 53 장의 종으로 본 관점을 자세히 설명하였다.¹⁸

① 신약에 직접 인용된 것

¹⁷ France 는 그의 책 *Jesus and the Old Testament* 123-125 쪽에서 3 개의 가능성 있는 암시들(three possible allusions) 가운데 눅 11:22 을 포함하여 다루지만 눅 11:22 이 개념적 병행이 없고 어휘적 유사함이 인상적이지 못하다고 하였다. 그는 그의 책 130 쪽의 결론 부분에서 하나의 공식적 인용(one formal quotation), 두 개의 분명한 암시(two clear allusions), 그리고 [셋이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어휘적 암시 구절(two other possible allusions)이라고 했다.

[눅 11:22]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¹⁸ Michael J. Wilkins, "Isaiah 53 and the Message of Salvation in the Gospels," in Darrell L. Bock and Mitch Glaser, eds. *The Gospel According to Isaiah 53* (Kregel: 2012), 109-131. 도표는 113 쪽과 114 쪽에 나온다.

이사야	신약
52:15 LXX	롬 15:21
53:1 LXX	요 12:38
	롬 10:16
53:4	마 8:17
53:7-8 LXX	행 8:32-33
53:9	벧전 2:22
53:12	눅 22:37

② 복음서에 암시된 것

이사야	복음서
52:13 (lifted up 들리다)	요 3:14; 8:28; 12:32
53 (Moses and all the Prophets 모세와 선지자들)	눅 24:27
53 (suffer and rise 고난당하고 일어나다)	눅 24:46
53 (delivered over/into 넘겨지다)	마 17:22 (+ 병행구절)
53 (delivered over/into 넘겨지다)	마 20:18 (+ 병행구절)
53 (delivered over/into ; it is written 넘겨지다; 기록되다)	마 26:24 (+ 병행구절)
53 (delivered over/into 넘겨지다)	마 26:45 (+ 병행구절)
53:2 (like a root 순/즐거처럼)	마 2:23
53:3 (suffer, contempt 고난당하다, 멸시)	마 17:12b; 막 9:12b
53:4 (derided and mocked 조소당하고 조롱당하다)	마 27:39-43 (+ 병행구절)
53:5 (chastement 징계)	마 26:67
53:6-7 (sin of all 모든 사람의 죄)	요 1:29
53:7 (life of shephard for sheep 양을 위한 목자의 생명)	요 10:11, 15, 17
53:7 (remained silent 잠잠하다)	마 26:63; 막 14:61
53:7 (remained silent 잠잠하다)	마 27:12
53:7 (remained silent 잠잠하다)	마 27:14; 막 15:5; 요 19:9
53:7 (remained silent 잠잠하다)	눅 23:9
53:9 (grave with wicked 악인과 함께 할 무덤)	마 26:24
53:9 (rich man 부자)	마 27:57
53:10-12 (bore the sin of many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다)	마 20:28; 막 10:45
53:11 (righteous one make righteous 의로운 자가 의롭게 하다)	마 3:15
53:12b (divide the spoil 전리품을 나누다)	눅 11:22
53:12b (divide the spoil 전리품을 나누다)	눅 23:34

53:12d (numbered with transgressors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려지다)	마 27:38
53:12d (numbered with transgressors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려지다)	눅 23:33
53:10, 12c (soul to death 죽음에 이른 영혼)	마 26:28; 막 14:24; 눅 22:20

5) 키르히헤벨은 마가복음에 “인자”가 언급된 14 번 중의 9 번이 사 52:13-52:13 에 “기록된” 대로(막 9:12; 14:21) 고난의 종을 묘사하며 이 9 번의 “인자” 사용이 사 52:13-53:12 의 순서를 따라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설명한다.¹⁹

이사야	마가복음
52:13	8:31; 9:9
53:3	9:12
53:6b	9:31
53:8a	10:32b-34
53:10a	10:45
53:12c	14:21(2 번), 41

6) 대럴 복에 의하면²⁰ 사 53:7-8 을 직접 인용한 행 8:32-33 은 사도행전에서 히브리 성경을 직접 인용한 유일한 예이고 가장 긴 인용으로서 종이신 예수님의 비하와 무고한 고난을 강조하며 (사 53:12 을 직접 인용한) 눅 22:37 이 암시하는 것을 보다 명시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사 53 장의 고난의 종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본문 곧 명시적인 예언 성취의 본문이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관리에게 가르친 것을 통하여 누가는 거부당하는 가운데서 묵묵히 받아들인 종의 부당한 고난과 죽음이 거부하는 자들을 포함한 그 백성을 위한 것임을 독자들이 깨닫기를 원했다. 예수님이 수세기 전에 묘사되고 예언된 종일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에 언뜻 보기에 이상한 측면이 있는 것도 그 묘사의 일부이다. 부당한 십자가 처형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하와 부활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변호가 나란히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편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님의 수욕은 실제로 그를 거부했던 사람들까지도 위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였다. 종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잠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연결시킨다.

¹⁹ Gordon d. Kirchhevel, “*The “Son of Man” Passages in Mark*” in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9 (1999): 184.

²⁰ Darrell Bock, “Isaiah 53 in Acts 8,” in Darrell L. Bock and Mitch Glaser, eds. *The Gospel According to Isaiah 53* (Kregel: 2012), 133-144.

7) 에반스는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서에 예언된 여호와의 종이란 주제가 베드로, 바울, 요한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에게 준 영향을 살피며 사 52:13-53:12 이 신약의 서신서들에 인용되거나 암시된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²¹

베드로에 의한 사 52:13-53:12 의 인용과 암시	
이사야	베드로 전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 설교
52:13	행 3:13; 4:27, 30
53	벧전 1:11
53:4	벧전 2:24
53:5	벧전 2:24
53:1, 5-6 (+52:7)	행 10:43 (+ 행 10:36)
53:6	벧전 2:25
53:7	벧전 2:23
53:9	벧전 2:21-22; 4:1
53:12	벧전 2:24
바울에 의한 사 52:13-53:12 의 인용과 암시	
이사야	바울서신
52:15 (+ 64:4)	롬 15:21; 고전 2:9
53:1 (+ 52:7)	롬 10:16 (+ 롬 10:15; 고후 5:20)
53:4-5	롬 4:25
53:7	고전 5:7
53:8-9	고전 15:3
53:11	롬 5:19
요한과 히브리서에 의한 사 52:13-53:12 의 인용과 암시	
이사야	요한 복음과 요한 서신 그리고 히브리서
53:1	요 12:38
53:6-7	요 1:29
53:10	요일 3:5
53:12	히 9:28

²¹ Craig A. Evans, "Isaiah 53 in the Letters of Peter, Paul, Hebrews, and John," in Darrell L. Bock and Mitch Glaser, eds. *The Gospel According to Isaiah 53* (Kregel: 2012), 145-170.

II. 본문 주해

본문과 번역

1. BHS Isaiah 52:13-53:12

ישעה 52

13 הנה ישכיל עבדי ירום ונשא וגבה מאד:

14 כאשר שממו עליו רבים כן-משחת מאיש מראהו ותארו מבני אדם:

15 כן יזה גוים רבים עליו יקפצו מלכים פיהם כי אשר לא-ספר להם ראו ואשר לא-שמעו

התבוננו:

ישעה 53

1 מי האמין לשמענו וזרוע יהוה על-מי נגלתה:

2 ויעל כיונק לפניו וכשרש מארץ ציה לא-תאר לו ולא הדר ונראהו ולא-מראה ונחמדהו:

3 גבזה וחדל אישים איש מכאבות וידוע חלי וכמסתר פנים ממנו גבזה ולא חשבגהו:

4 אכן חלינו הוא נשא ומכאבינו סבלם ואנחנו חשבגהו נגוע מפה אלהים ומענה:

5 והוא מחלל מפשענו מדכא מעונותינו מוסר שלומנו עליו ובחברתו נרפא-לנו:

6 כלנו כצאן תעינו איש לדרך פנינו ויהוה הפגיע בו את עון כלנו:

7 נגש והוא נענה ולא יפתח-פיו פשה לטבח יוכל וכרחל לפני גזייה נאלמה ולא יפתח פיו:

8 מעצר וממשפט לקח ואת-דורו מי ישוחח כי נגזר מארץ חיים מפשע עמי נגע למו:

9 ויתן את-רשעים קברו ואת-עשיר במתיו על לא-חמס עשה ולא מרמה בפיו:

10 ויהוה חפץ דכאו החלי אמ-תשים אשם נפשו יראה זרע יאריף ימים וחפץ יהוה בידו יצלה:

11 מעמל נפשו יראה ישבע בדעתו יצדיק צדיק עבדי לרבים ועונתם הוא יסבל:

12 לכן אחלק-לו ברבים ואת-עצומים יחלק שכל תחת אשר הערה למות נפשו ואת-פשעים נמנה

והוא חטא-רבים נשא ולפשעים יפגיע: ס

[음역]

52:13 히네 야스킬 아브디 야룸 브니싸 브가바흐 므오드

52:14 카아세르 삼우 알레하 라빔 켄-미시하트 메이시 마르에후 브토아로 미브네 아담

52:15 켄 야제 고임 라빔 알라브 이크프추 물라힘 피헴 키 아세르 로-쑤파르 라헴 라우 바아세르
로-삼우 히트보나누

53:1 미 헤에민 리시무아테누 우즈로아 아도나이 알-미 니글라타

53:2 바야알 카요네크 르파나브 브하쇼레시 메에레츠 치야 로-토아르 로
블로 하다르 브니르에후 블로-마르에 브네흐르데후

53:3 니브제 바하달 이심 이시 마흐오보트 비두아 홀리 우흐마스테르 파님 미메누

- 니브제 블로 하샤브누후
- 53:4** 아헨 홀라예누 후 나싸 우마흐오베누 스발람 바아나흐누 하샤브누후 나구아 무케 엘로힘 움우네
- 53:5** 브히네 므홀랄 미프샤에누 므두카 메아보노테누 무싸르 실로메누 알라브
우바하부라토 니르파-라누
- 53:6** 쿨라누 카촌 타이누 이시 르다르코 파니누 바아도나이 히프기아 보 에트 아본 쿨라누
- 53:7** 니가스 브후 나아네 블로 이프타흐-피브 카쎌 라테바흐 유발
우흐라헬 리프네 고즈제하 네엘라마 블로 이프타흐 피브
- 53:8** 메오체르 우미미시파트 루카흐 브에트-도로 미 여쏘헤아흐 키 니그자르 메에레츠 하임
미페샤 아미 네가 라모
- 53:9** 바이텐 에트-르샤임 키브로 브에트-아시르 브모타브 알 로-하마스 아싸 블로 미르마 브피브
- 53:10** 바아도나이 하페츠 다크오 헤헬리 임-타쎌 아삼 나프쇼 이르에 제라 야아리흐 야뎀
브헤페츠 아도나이 브야도 이출라흐
- 53:11** 메아말 냐프쇼 이르에 이스바 브다토 야츠디크 차디크 아브디 라라빔 바아보노탐 후 이스볼
- 53:12** 라헨 아할레크-로 바라빔 브에트-아추뎀 여할레크 샬랄 타하트 아세르 헤에라 라마베트 나프쇼
브에트-포시뎀 님나 브후 헤트-라빔 나싸 블라포시뎀 야프기아

2. 개역개정 [사 52:13-53:12]

(52:13)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14)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15)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53:1)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그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9)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10)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몹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3. *ESV* Isaiah 52:13-53:12

52:

13 Behold, my servant shall act wisely;^b
he shall be high and lifted up,
and shall be exalted.

14 As many were astonished at you—
his appearance was so marred, beyond human semblance,
and his form beyond that of the children of mankind—

15 so shall he sprinkle^c many nations;
kings shall shut their mouths because of him;
for that which has not been told them they see,
and that which they have not heard they understand.

53:

1 Who has believed what he has heard from us?^a
And to whom has the arm of the Lord been revealed?

2 For he grew up before him like a young plant,
and like a root out of dry ground;
he had no form or majesty that we should look at him,
and no beauty that we should desire him.

3 He was despised and rejected^b by men;
a man of sorrows,^c and acquainted with^d grief;^e
and as one from whom men hide their faces^f
he was despised, and we esteemed him not.

4 Surely he has borne our griefs
and carried our sorrows;
yet we esteemed him stricken,
smitten by God, and afflicted.

5 But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upon him was the chastisement that brought us peace,
and with his wounds we are healed.

6 All we like sheep have gone astray;
we have turned—every one—to his own way;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 7** He was oppressed, and he was afflicted,
yet he opened not his mouth;
like a lamb that is led to the slaughter,
and like a sheep that before its shearers is silent,
so he opened not his mouth.
- 8** By oppression and judgment he was taken away;
and as for his generation, who considered
that he was cut off out of the land of the living,
stricken for the transgression of my people?
- 9** And they made his grave with the wicked
and with a rich man in his death,
although he had done no violence,
and there was no deceit in his mouth.
- 10** Yet it was the will of the Lord to crush him;
he has put him to grief;^g
when his soul makes^h an offering for guilt,
he shall see his offspring; he shall prolong his days;
the will of the Lord shall prosper in his hand.
- 11** Out of the anguish of his soul he shall seeⁱ and be satisfied;
by his knowledge shall the righteous one, my servant,
make many to be accounted righteous,
and he shall bear their iniquities.
- 12** Therefore I will divide him a portion with the many,^j
and he shall divide the spoil with the strong,^k
because he poured out his soul to death
and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yet he bore the sin of many,
and makes intercession for the transgressors.

Footnotes:

b 52:13 Or *shall prosper*

c 15 Or *startle*

a 53:1 Or *Who has believed what we have heard?*

b 3 Or *forsaken*

c 3 Or *pains*; also verse 4

d 3 Or *and knowing*

e 3 Or *sickness*; also verse 4

f 3 Or *as one who hides his face from us*

g 10 Or *he has made him sick*

h 10 Or *when you make his soul*

i 11 Masoretic Text; Dead Sea Scroll *he shall see light*

j 12 Or *with the great*

k 12 Or *with the numerous*

4. 번역²²

- 사 52: 13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cf. 52:3, 5)]
“보라! 나의 종이 슬기롭게 행할 것이니
높아지고 받들어지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 14 많은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경악했던 것처럼
—그렇게도 한 사람으로 볼 수 없도록 그 모습이 망가졌고
그 모양이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도록 망가졌기 때문에—
- 15 —그렇게도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피뿌릴 것이기 때문에—
왕들은 그에 대하여 그들의 입을 다물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야기된 적이 없는 것을 볼 것이고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 사 53: 1 누가 우리의 들은 것을 믿었는가?
여호와와 그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 2 그는 그의 앞에서 결순처럼 자라났고
마른 땅에서 돌아난 햇순처럼 자라났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늠름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볼 때 흠모할만한 멋진 모습도 없었다.
- 3 그는 멸시를 당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슬픔의 사람이요 아픔을 아는 자였다.
그는 사람들이 외면해 버리는 자처럼 멸시를 당했고
우리마저도 그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 4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아픔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가 대신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 5 참으로 그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찢리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부서졌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을 맞았기에 우리가 치유를 얻었다.

²² 원문에 보다 가깝게 번역한 번역문은 문예적 기교를 다루는 부분의 번역문을 참고하라.

- 6 우리 모두는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다.
- 7 그는 학대를 받았다. 고난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리고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 8 그는 체포와 심문을 당하고 처형 받으러 끌려갔다.
그 세대 중에 어느 누가 생각했겠는가?
산 사람들의 땅으로 그의 끌어집이
내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천벌이 그에게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 9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매장되었으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매장되었다.
그것은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이다.
- 10 여호와와 [자신이] 그를 부수며 아프게 하는(혹은 찌르시는) 것을 뜻하셨다.
그의 영혼이 속건제를 드리면
그가 씨를 보며 날들을 길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뜻이 그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 11 그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그는 빛을 볼 것이고
자기 지식으로 인해 그는 만족해 할 것이다.
“의로운 자인 나의 종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 12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그 많은 사람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는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는 그가 그의 영혼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범죄자들과 함께 자신을 헤아려지게 하였고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고
범죄자들을 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이다.”

본문의 근접 문맥²³

1. “보라, 나의 종을 . . .”이라는 여호와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종의 노래(사 42:1-4[9])에서 종은 완수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자로 묘사된다. 그는 백성을 위한 언약과 이방을 위한 빛이 되어(42:6)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방에 공의를 세울 것이다. 두 번째 종의 노래(49:1-6[13])에서 종은 여호와께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부르시어 맡긴 사명을 자신의 말로 설명한다. 종은 여호와와 영광을 자기 속에 나타낼 참 이스라엘(개인, 49:3)로서 야곱 곧 이스라엘(백성, 49:6)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이방의 빛으로 여호와와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할 사명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종이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49:4).”라고 말할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종의 노래(50:4-9[11])에서 종은 자신의 말로 여호와께서 주신 사명 곧 여호와와 깨우침을 받고 곤고한 자들을 말로 돕는 그의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고난을 말한다. 종은 등대림 당하고 수염이 뽑히고 침뱀을 당해도(50:6) 물러서지 않고 부끄러워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을 고난에 내어 주는 과정에서 여호와와 도우심을 체험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종이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을 고난이 암시되고(49:4; cf. 49:7) 서술되었지만(50:6) 종의 고난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네 번째 종의 노래(52:13-53:12)에 이르면 고난의 보다 더 상세한 설명과 고난의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진다. 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맡시킨 백성의 죄악 때문에 부서지고 백성의 범죄 때문에 찢리고 죽는 고난을 받았다(53:5-6). 이러한 종의 대속적 고난을 오해하지 않도록 네 번째 노래는 첫째 연을 시작하고 마지막 다섯째 연을 마감할 때 여호와께서 종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고 종의 승귀를 묘사하는 것이 틀을 이룬다. 이러한 종의 대속적 고난에 기초하여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서 백성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시고(사 54:10) ‘온 땅의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의 만민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다(55:3). 이렇게 종에게 맡겨진 이중 사역 곧 백성을 위한 언약과 이방을 위한 빛(42:6; 49:6)이 되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회복시키고 땅 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사역은 성취된다.
2. 네 번째 종의 노래(52:13-53:12)는 앞 선 세 개의 노래들처럼 그것의 근접 문맥과 아주 잘 어울린다. 네 번째 종의 노래 앞에 나오는 사 51:1-52:12 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각각 두 번씩 부르며(51:1, 4, 7) 시온-중심적이고 온 세상적이고 의로운 구원의 약속을 “들으라”는 세 개의 명령들(51:1-8)과 각각 두 번씩 명령형을 사용하며(51:17 “꺾지어다, 꺾지어다”; 52:1 “꺾지어다, 꺾지어다”; 52:11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약속된 복들의 실재를 경험하라는 세 개의 명령들(51:17-52:12)이 서로 상응하고 그 중간에 구원의 약속이 실체가 되게 하는 여호와와 팔의 행동 촉구(51:9-11)와 그에 대한 여호와와 응답(51:12-16)이 들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²³ Young, *Isaiah Fifty-Three*, 11; Motyer, *Isaiah*, 402, 422-423; House, *Old Testament Theology*, 286-292; Fee and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Book by Book*, 183-184.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잘 들으라고 명하신다(51:1-8). 이에 선지자는 여호와께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요청하고(51:9-11),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응답하신다(51:12-16). 그래서 선지자는 “꺾지어다, 꺾지어다”하고 이스라엘의 반응을 촉구하며(51:17-21) 진노의 잔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을 말한다(51:22-23). 그러므로 다시 “꺾지어다, 꺾지어다”하고 명령받은 시온은 다가올 제이 출애굽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 한다(52:1-6). 이 위대한 제이 출애굽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것(52:7-10)과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하고 선지자가 촉구하는 대로 도망치듯 황급히 나올 필요가 없는 백성의 출바벨론(52:11-12)으로 절정에 이른다. 이렇게 사 51:17-52:12 은 약속을 듣고 기다려지는 구원(A 51:1-8)과 누리게 될 이루어진 구원(A' 52:17-52:12) 사이에 선지자의 여호와의 팔을 통한 제이 출애굽 촉구와 여호와의 긍정적인 반응(X 51:9-16)이 축을 이루는 구조를 갖는다. 구원의 약속을 들으라고 세 번 명하신(사 51:1-8) 여호와께서는 제이 출애굽의 요청을 받으실 때(51:9-11) 그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51:13-16)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주의하며 구원을 누릴 것을 세 번 명령하신다(51:17-52:12).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약속된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명시되지 않은 질문에 답을 주시는 듯이 네 번째 노래의 첫 번째와 세 번째 단어를 통해 “보라, 나의 종이!”(52:13)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제이 출애굽을 위해 행동을 촉구받은 바 있는 여호와의 팔(51:9)을 네 번째 노래의 둘째 연을 시작하는 사 53:1 에서 만난다.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팔로 나타난 종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53:5; 54:10), 백성 가운데 공의를 세우고(53:11; 54:17), 온 세상을 향해 여호와께 돌아오는 회개(55:5-6)와 여호와께로 평안히 인도받을 순례(55:12)를 촉구한다. 실제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55:12 에 사용된 동사 [야차]는 52:11-12 에서 바벨론에서 나올 것을 두 번 명하는 말씀을 따라 백성이 차분하게 나오는 것을 묘사할 때 나왔던 동사이다. 들으라고 했던 에덴의 회복에 대한 약속(51:1-2)은 55:12-13 에서 성취되어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으로 나오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네 번째 종의 노래를 시작하는 “보라, 나의 종이!”이라는 어구는 51:1 에서 시작되는 일련의 명령들의 절정이고, 51:1-8 의 구원의 약속과 51:17-52:12 의 복들의 체험이 종의 사역에 달려있음을 주목하도록 한다. 네 번째 종의 노래에 묘사된 종의 사명 완수를 통해 누릴 복을 노래하라는 초청으로 시작하는 54 장은 세 개의 이전 언약 곧 아브라함 언약(54:1-3)과 모세 언약(54:4-8)과 노아 언약(54:9-10)을 반영하고 시온의 미래의 영광으로 가득찬 이미지들로 표현되어 있다(54:11-17). 떠날 것을 명령받은 바벨론에 있는 포로민들(52:11)이 여기 시온에 있게(54:11) 된 것은 바로 52:13-53:12 의 고난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이다.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열국에게 종을 통해 이루신 은혜로운 구원을 값없이 받아 누리도록 초청하시고(55:1-7) 그분의 주권과 깨뜨릴 수 없는 말씀에 근거하여(55:8-11) 초청에 반응하는 자들의 운명에 큰 반전이 있을 것을 선언하신다(55:12-13).

3. 네 번째 종의 노래에 묘사된 대로 종은 그의 구원 사역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고 죄를 제거하고 공의를 세우고 가족을 만들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종은 그의 사명을 완수했다. 여기에 어떤 것도 더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종의 사역에 대하여 반응하는 일이다. 사 53:10-12 에 묘사된 종의 승귀는 새 시대의 도래를 바라보게 하며 찬양과 회개의 반응으로 인도한다. 여호와께서는 54:1 에서 종이 행한 일에 대하여 “노래하라”고 초청하시고, 55:1 에서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종이 값을 지불하고 베푸는 잔치를 즐기라고 하시고, 55:6-7 에서 만민에게 악행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사죄의 기쁨을 누리라고 초청하신다. 여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여호와의 환영의 열기를 담은 초청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의 것이 되는 복을 즐기라는 초청이 있다. 종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회복하고 이방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이중 사역을 완수했다. 54 장은 모이는 가족(54:1-3)과 회복되는 성(54:11-12)의 이미지를 통해 시온 중심이 암시되고 시온을 위로하는 것이 주를 이루지만 장막터를 넓히는 것(54:2)에는 열국이 암시적으로 포함된다. 그렇다면 55 장에서 모든 목마른 자와 모든 악한 자에게 종이 이룬 사역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은 시온과 온 세상을 포함한 그 넓혀진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라는 초청이 된다. 이스라엘은 출산하지 못했고(54:1) 여호와의 진노를 체험했고(54:8) 고난을 당했고(54:11) 위로가 없었다(54:11; cf. 40:1-2). 그러나 창조주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 보호해 주실 것이므로 그들은 위로를 얻을 수 있다(54:4-8, 11-17). 하나님은 이 언약이 노아 언약처럼 영원하고(54:9; cf. 창 9:8-17) 기회에 있어서 보편적일 것임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언급하시므로 이방인의 구원을 견고하게 하신다(55:3). 다윗 언약은 영원하고 한결같은 인애에 기초하고 있으므로(55:3), 이제 열국은 굴복의 관계(참고, 삼하 22:44-46)가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갖는 새로워진 세상을 만날 것이다. 55:3-5 에 묘사된 다윗과 같은 존재에게 부과된 임무는 40-55 장의 나머지에서 묘사된 종의 임무와 동일하다. 여기서 다윗 같은 왕과 고난의 종이 합쳐지며 종은 왕 같고 제사장 같고 선지자 같다. 이 구원의 수단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할 수 없다(55:10-11). 이러한 종을 주신 여호와를 찾는 자(55:6-9)는 누구나 값없이 주어지는 완전한 용서를 받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55:12-13).

본문 전체의 구조 분석

1. 모티어는 네 번째 종의 노래(52:13-53:12)에 대하여 삼중 구조 즉 수수께끼(A¹)-계시(B)-해답(A²)이라는 구조를 제시한다.²⁴ 다음은 중앙집중적 구조를 보다 드러나게 하기 위해 모티어의 B 를 X 로 바꾸고 세 부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소문자를 첨가한 것이다.

²⁴ Motyer, *Isaiah*, 423.

A¹ Enigma: exaltation and humiliation (52:13-15)

The Lord's testimony to his Servant (13) merging (14)

into a description of the Servant's suffering and of reactions to it

B Revelation: human testimony, based on divine revelation,

- A 수수께끼: 승귀와 비하(52:13-15)
 a 여호와와의 종에 대한 증언(13)
 b 종의 고난과 반응에 대한 묘사(14-15)
- X 계시: 신의 계시에 근거한 사람의 증언
 종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사실과 의미의 증언(53:1-9)
 x 목격되고 오해된 고난(1-3)
 y 설명된 고난(4-6)
 x' 자발적이고 부당한 고난(7-9)
- A' 해답: 대속적 고난을 통한 승귀(53:10-12)
 b' 종의 고난에 대한 설명(10-11b)
 a' 여호와와의 종에 대한 증언(11c-12)

1) A(제 1 연 52:13-15)—A'(제 5 연 53:10-12)

- ① 네 번째 고난의 종의 노래는 여호와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종에 대한 증언으로 시작하고(**a** 52:13) 마치는(**a'** 53:11c-12) 것으로 되어 있다. 여호와와의 증언이란 외곽틀(**a-a'** 52:13 vs. 53:11c-12) 바로 안쪽에 그 종이 경험하는 것을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또 하나의 틀(**b-b'** 52:14-15 vs. 52:10-11b)이 들어 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제 1 연(A 52:13-15)과 제 5 연(A' 53:10-12)은 시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으로서 여호와께서 “나의 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증언 **a**)과 그 종이 경험하는 것들에 대하여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것(묘사/설명 **b**)에 유의할 때 증언—묘사—설명—증언 즉 **a-b-b'-a'**라는 역순대구를 이루는 틀을 이루고 있다. 제 1 연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과 그 종의 고난과 이에 대한 반응을 묘사하며 수수께끼를 던진다. 제 5 연은 종의 고난을 설명하는 것과 여호와께서 그의 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수수께끼의 해답을 준다.

witnessing to the fact and meaning of
 the Servant's suffering and death (53:1-9)

B¹ Suffering observed and misunderstood (1-3)

B² Suffering explained (4-6)

B³ Suffering, voluntary and undeserved (7-9)

A² Solution: exaltation through sin-bearing suffering (53:10-12)

The explanation of the Servant's suffering (10-11b) merging
 into the Lord's testimony to his Servant (11c-12)

② 증언-묘사의 수수께끼 부분(A 52:13-15, 제 1 연)과 설명-증언의 해답 부분(A' 53:10-12, 제 5 연)에 공유되는 어휘는 מְרַבֵּם[라빔] “많은”(52:14a, 15a//53:11c, [12a,] 12e)이다. 사실 “많은 many”이란 핵심 단어는 이 두 부분에만 나온다. A의 מְלָכִים[몰라힘] “왕들”(52:15)과 A'의 מְרַבֵּם[라빔] “존귀한 자”(53:12a)와 אֲחֻזֵּי[아추짐] “강한 자”(53:12b)는 어떤 학자들에 의해 동일한 지시 대상으로 간주된다.

2) X(53:1-9): 제 2 연(x 53:1-3)—제 3 연(y 53:4-6)—제 4 연(x' 53:7-9)

① 수수께끼(A 52:13-15)와 해답(A' 53:10-12)이라는 바깥틀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중앙의 계시(X 53:1-9) 부분도 전체 노래의 A-X-A'처럼 그 자체로 x-y-x' 즉 제 2 연(x 53:1-3)—제 3 연(y 53:4-6)—제 4 연(x' 53:7-9)라는 중앙집중적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제 3 연이 전체 노래의 중앙에 오며 핵을 이루고 있다.

② 계시 부분(X 53:1-9)의 바깥틀을 형성하는 제 2 연(x 53:1-3)과 제 4 연(x' 53:7-9)은 종에 대한 이야기 부분으로 제 2 연은 종의 출생과 삶을 말하고 있고 제 4 연은 종의 심문, 죽음 그리고 장사를 말하고 있다. 제 2 연과 제 4 연은 각각 두 번의 직유를 사용하는데 제 2 연은 식물 이미지(botanical imagery)를 사용하고(53:2) 제 4 연은 동물 이미지(animal imagery)를 사용한다(53:7). 구체적인 어구를 밝혀 말하면 x(53:2)에서 종은 결순 같고(קָיִינִי[카요네크]) 햇순 같은(שֶׁרָשָׁה[하쇼레시]) 모습으로 묘사되고 x'(53:7)에서 종은 어린 양 같고(הַשֶּׁבַע[카세]) 양 같은(לְקָרְהֶל[흐라헬]) 모습으로 묘사된다.

③ 계시 부분의 중앙에 오는 제 3 연(y 53:4-6)은 노래 전체의 핵으로 종의 고난이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만 할 고난인 것을 잘 설명하며 수수께끼의 해답 부분(A' 53:10-12)을 잘 준비시키고 있다. 계시 부분(X)의 중앙이요 전체 노래의 핵심이 되는 부분(y 53:4-6, 제 3 연)과 수수께끼의 해답 부분(A' 53:10-12 제 5 연) 사이에 공유되는 어휘는 다음과 같다.

- “아픔”: חֲלָהּ[홀라에누] 4 절, חֲלָהּ[헤헬리] 10 절
- “부서지게 함”: מְדַכָּה[므두카] 5 절, דָּכָא[다크오] 10 절
- “깊어짐”—“담당함”: נָשָׂא[나싸] 4 절—מְבַלֵּם[스발람] 4 절, מְבַלֵּם[이스볼] 11 절—נָשָׂא[나싸] 12 절
- “떠맡기심”: מְפָגֵי[히프기아] 6 절, מְפָגֵי[야프기아] 12 절(“떠맡으며 기도하심”)

2. 버기는 여호와의 선언(A-A' 52:13-15; 53:11c-12)이 종에 대한 보고(B 53:1-11b)를 감싸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화자의 관점에 유의하며 “내”가 말하는 부분(A 여호와의 선언)과 “우리”가 말하는 부분(B 53:1-6)과 “그”에 대하여 말하는 부분(B' 53:7-11b)과 “내”가 말하는 부분(A 53:11c-12)으로 나누고 종에 대한 보고인 “우리” 부분과 “그” 부분을 좀더 세분하여 다음과 같이 나눈다.²⁵

²⁵ Ronald Bergey, “The Rhetorical Role Of Reiteration In The Suffering Servant Poem (Isa 52:13–53:12)” in *JETS* 40/2 (1997): 179. (http://www.etsjets.org/files/JETS-PDFs/40/40-2/40-2-pp177-188_JETS.pdf)

- A "나의 종"의 성공과 승귀 (I 52:13-15 첫째 스탠자)
- B1 "우리"는 그를 별로 귀하게 보지 않음 (II a 53:1-3 둘째 스탠자 첫째 스트로피)
- B2 "우리"를 위한 그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인정 (II b 53:4-6 둘째 스탠자 둘째 스트로피)
- B'1 "그"가 무고하지만 고난당하고 죽음 (III a 53:7-9 셋째 스탠자 첫째 스트로피)
- B'2 "그"의 고난은 여호와의 뜻에 의한 것임 (III b 53:10-11b 셋째 스탠자 둘째 스트로피)
- A' "나의 종"의 성취와 상급 (IV 53:11c-12 넷째 스탠자)²⁶

3. 골딩게이와 페인은 다음과 같은 역순 대구 구조를 제시한다.²⁷

- A 52:13-15 My servant will triumph despite his suffering
내 종이 그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것이다
- B 53:1 Who could have recognized YHWH's arm
누가 여호와의 팔을 인식할 수 있었을까
- C 53:2-3 He was treated with contempt
그는 멸시를 당했다
- D 53:4-6 The reason was his suffering for us
우리를 위한 그의 고난에 대한 이유
- C' 53:7-9 He did not deserve his treatment
그는 그런 취급 당할 이유가 없었다
- B' 53:10-11a By his hand YHWH's purpose will succeed
그의 손에 의해 여호와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
- A' 53:11b-12 My servant will triumph because of his suffering
내 종이 그의 고난 때문에 승리할 것이다

4. 수누크지언도 골딩게이와 페인과 비슷한 역순 대구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²⁸

버기는 Watson의 용어를 따르며 52:13-15을 first stanza라고 하고 53:1-6을 second stanza라고 하고 53:7-11b를 third stanza라고 하고 53:11c-12를 fourth stanza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second stanza를 둘로 나누어 53:1-3을 first strophe, 53:4-6을 second strophe라고 했고, 또 third stanza도 둘로 나누어 53:7-9를 first strophe, 53:10-11b를 second strophe라고 했다. 참고로 말해 둘 것은 아래에서 논의하는 문예적 기교에서는 버기의 네 단락 구분(I-IV)을 따르고, 각 절 주해에서는 편의상 세 절씩 묶은 다섯 개의 단락 구분(첫째 연-다섯째 연)을 따른 것이다.

²⁶ 아래에서 논의하는 문예적 기교에서는 버기의 네 단락(I-IV) 구분을 따를 것이고, 각 연 분석과 각 절 주해에서는 편의상 세 절씩 묶은 다섯 개의 단락(첫째 연-다섯째 연) 구분을 따를 것이다.

²⁷ Smith, *Isaiah 40-66*, 443 n. 347에서 재인용: John Goldingay and David Payne,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Isaiah 40-55*, 227.

A 52:13-15 The Lord's Servant will be exalted because his suffering brings salvation.

그의 고난이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은 높아지실 것이다.

B 53:1 No one believed he was the means of the Lord's salvation.

아무도 그가 여호와의 구원의 수단인 것을 믿지 않았다.

C 53:2-3 So he was rejected.

그래서 그는 거절 당했다.

D 53:4-6 Yet his suffering was for us and in our place.

그러나 그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대신한 것이었다.

C' 53:7-9 He did not deserve to be rejected.

그는 거절 당할 이유가 없었다

B' 53:10-11a The Lord was using his suffering to provide for our salvation.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을 대비하여 그의 고난을 사용하고 계셨다.

A' 53:11b-12 The servant will be exalted because his suffering for us and in our place brings us salvation.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대신한 그의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종은 높아지실 것이다.

본문 전체와 각 연의 구조 분석²⁹

A¹ Enigma: exaltation and humiliation (52:13-15) 수수께끼: 승귀와 비하

(1) The Lord's testimony to his Servant (13) merging (14) into a description of the Servant's suffering and of reactions to it 여호와의 종에 대한 증언과 종의 고난과 반응에 대한 묘사

A¹ A reaction of revulsion (14a) 혐오의 반응

B¹ Appearance so marred (14b) 심히 망가진 모습

B^{1a} Form so dehumanized (14c) 심히 비인간적인 모양

C *Suffering that sprinkles/startles* (15a) 피뿌리는 고난

A² A reaction of submission (15b) 경배의 반응

B² Something never told (15c) 전파되지 않은 것

B^{2a} Something never heard (15d) 들어보지 못한 것

B Revelation: human testimony, based on divine revelation,

witnessing to the fact and meaning of the Servant's suffering and death (53:1-9)

²⁸ Donald R. Sunukzian, "Expositional Sermon on Isaiah 53" in Darrell L. Bock and Mitch Glaser, eds. *The Gospel According to Isaiah 53* (Kregel: 2012), 303.

²⁹ 각 연의 구조 분석은 Motyer(423)의 전체 구조 분석과 Motyer(425, 427, 432, 438)의 부분 구조 분석을 합친 것이다.

- 계시: 신의 계시에 근거한 사람의 증언, 종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사실과 의미의 증언
- (2) **B¹** Suffering observed and misunderstood (**53:1-3**) 목격되고 오해된 고난
- A¹ A believing company brought into being through revelation (**1**)
계시를 통하여 존재하게 된 신자들
- B¹ The Servant's birth: unimpressive and unpromising (**2ab**)
종의 출생: 깊은 인상이나 밝은 전망을 주지 못함
- A² First reactions of those who later believed: unimpressed (**2cd**)
후에 믿게 된 자들의 첫 반응: 무감동
- B² The Servant's experience in life: popular rejection (**3ab**)
종의 삶의 경험: 대중적 거절
- A³ Unvalued by those who later believed (**3cd**)
후에 믿게 된 자들에 의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함
- (3) **B²** Suffering explained (**53:4-6**) 설명된 고난
- (4) **B³** Suffering, voluntary and undeserved (**53:7-9**) 자발적이고 부당한 고난
- A Procession. The Servant led out to die: his willingness (**7**)
진행. 종이 죽으려 끌려감: 그의 자발적인 의지
- B Execution. The Servant's death: thoughtless contemporaries (**8**)
집행. 종의 죽음: 생각이 없는 동시대 사람들
- C Burial. The mystery surrounding the burial of one who did not deserve to die (**9**)
장사.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될 종의 장사를 둘러싼 신비
- A²** Solution: exaltation through sin-bearing suffering (**53:10-12**) 해답: 대속적 고난을 통한 승귀
- (5) The explanation of the Servant's suffering (**10-11b**) 종의 고난에 대한 설명과
merging into the Lord's testimony to his Servant (**11c-12**) 여호와와의 종에 대한 증언
- A The meaning and effects of the Servant's death (**10**) 종의 죽음의 의미와 결과
- a¹ The servant's soul ①: 종의 영혼
Divine pleasure (**10a**) 하나님의 기쁨
His death as a guilt offering (**10b**) 속건제로서 종의 죽음
The Servant's family (**10c**) 종의 가족
The executor-Servant (**10d**) 여호와 뜻의 성취자
- B The Lord's testimony to his Servant (**11-12**) 여호와와의 종에 대한 증언
- a² The servant's soul ②: 종의 영혼
His death as personal suffering (**11a**) 개인적 고난으로서 종의 죽음
The Servant satisfied (**11b**) 종의 만족
Righteousness provided (**11c**) 의의 제공
By sin-bearing (**11d**) 죄악 담당
Issuing in victory (**12ab**) 승리로 귀결
- a³ The servant's soul ③: 종의 영혼

- His death as voluntary (12c) 자발적인 종의 죽음
- Voluntary identification (12d) 자발적인 동일시
- Personal sin-bearing (12e) 개인적 죄악 담당
- Mediatorial interposition (12f) 중보기도

문예적 기교

1. 단어 반복에 대한 관찰

1) 사 52:13-53:12 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단어의 반복이다. 라베는 단어 반복이 특별히 종의 비하와 승귀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와 종의 실상을 대조시키는 구절들에 드러난 문예적 효과를 논의하였고³⁰ 버기는 단어 반복이 전체에 걸쳐 문맥적으로 주는 수사학적 역할을 논의하였다.³¹

2) 반복된 단어들의 목록

총 202 단어 중에서 라베는 36 개의 다른 단어 한 번 이상 반복되어 118 개의 단어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고, 버기는 40 개 단어가 한 번 이상 반복되며 거의 120 번의 반복이 일어나는 것을 지적한다. 라베와 버기가 지적한 단어들을 통합하여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³²

עָבַד	נָשָׂא	רַבִּים	פָּה	פְּנִים (-)	אָרֶץ
רָאָה	מְכַאֵב	יָדַע	(חֲלָה)חָלִי	בְּזָה	חֲשָׁב
הוּא	סָבַל	נָגַע	עֲנָה	דָּכָא	אָוֹן
עַל	פָּלְנוּ	אִישׁ	פָּגַע	פָּתַח	פָּשַׁע
נָפַשׁ	חָפֵץ	יְהוּה	מְרָאָה (-)	תָּאָר	לוֹ
מִי	חָלַק	מְנוֹת	כִּי	כֵן	שָׁמַע
אָשָׁר	לֹא	זָרַע	חָלַל	צָדַק	לְפָנַי

3) 반복된 단어들의 분류

① 어근이 같으나 품사가 다른 단어들 (7 단어 + 1[할라])

일련 번호	반복 횟수	어근	동사	명사

³⁰ P. R. Raabe, "The Effect of Repetition in the Suffering Servant Song," *JBL* 103 (1984): 77-81.

³¹ Ronald Bergey, "The Rhetorical Role Of Reiteration In The Suffering Servant Poem (Isa 52:13-53:12)" in *JETS* 40/2 (1997): 177-188. (http://www.etsjets.org/files/JETS-PDFs/40/40-2/40-2-pp177-188_JETS.pdf)

³² 버기는 라베가 제외시킨 불변화사 אָשָׁר[아세르]와 לֹא[로]를 포함시키고 (53:1 에서 '팔'과 53:10 에서 '씨'를 나타낼 때 쓰인) 어근 זָרַע[자라]와 חָלַל[할랄]과³² צָדַק[차다크]를 추가하고, 라베가 따로 계산한 [마르에]와 [라아]를 어근 רָאָה[라아]로 묶어 계산하여 총 40 개의 반복된 단어를 지적한다.

1	6	ראה[라아]	52:15c רָאוּ [라우]; 53:2d וַיִּרְאֶהוּ [니르에후]; 53:10c וַיִּרְאֶהוּ? [이르에]; 53:11a וַיִּרְאֶה? [이르에] 보다	52:14b מֵרֵאֵהוּ [마르에후]; 53:2d מֵרֵאֵה [마르에] 모양
2	4	פשע[파샤]	53:12d, f פְּשָׁעִים [포시임] 범죄자들	53:5a, 8d פָּשַׁע [페샤] 범죄
3	2	שמע[샤마]	52:15d שָׁמְעוּ [삼우] 듣다	53:1a שָׁמְעָתָנוּ [시무아테누] 들려진 것, 소식, 메시지
4	2	ידע[야다]	53:3b וַיֵּדוּעַ [야두아] 아는	53:11c[b, BHS] כִּדְעָתוֹ [다아트] 지식
5	2	נגע[나가]	53:4c נִגְוַעַ [나구아] 벌받는	53:8d נִגַּע [네가] 벌
6	2	חפץ[하페츠]	53:10a חָפֵץ [하페츠] 기뻐하다, 뜻하다	53:10d חֵפְצָה [헤페츠] 기쁨, 뜻
7	2	צדק[차다크]	53:11c צְדִיק [차디크] 의로운	53:11c וְצָדִיק [야츠티크] 의롭게 할 것이다.
8	3(-1)	חלה[할라]	53:10a MT הִחֲלִי 그가 아프게 하였다 [53:10a IQIsa ^a wyhllhw וַיִּחְלָהוּ [비할레후] 그가 찢리게 하다]	53:3b, 4a חָלִי [홀리] 아픔

② 동사

일련 번호	반복 횟수	어근	동사	참고
9	3	נשא[나샤]	52:13b נָשָׂא [나샤] 들린; 53:4a, 12e וַיִּנָּשֵׂא [나샤] 짊어지다	동의적 병행 동사의 쌍
10	2	סבל[싸발]	53:4b סָבַלְמ [싸발] 담당했다; 53:11d וַיִּסְבַּל [이스볼] 담당할 것이다	
11	2(-1)	חלל[할랄]	53:5a מְחַלְל [므홀랄] 찢리는; 53:10a cf. [IQIsa ^a wyhllhw וַיִּחְלָהוּ [비할레후] 그가 찢리게 하다 (53:10a MT הִחֲלִי 그가 아프게 하였다 + 53:3b, 4a חָלִי [홀리])	동의적 병행 동사의 쌍
12	2	דכא[다카]	53:5b מְדַכָּא [무두카] 부서지는데; 53:10a דְּכָאָר [다케] 부숨	
13	2	פגע[파가]	53:6c הִפְגִיעַ [히프기아] 떠말기다; 53:12f וַיִּפְגַּע [야프기아] (떠말아 위하여)	중보의 다른 측면

			기도하다	
14	2	ענה[아나]	53:4d מַעֲנֶה [므우네] 고난당하는; 53:7a נֶעְנָה [나아네] 고난 당하다	
15	2	בזה[바자]	53:3(2 번) בָּזָה "멸시하다"	53:3 의 수미쌍관
16	2	חשב[하샤브]	53:3, 4 חָשַׁב "생각하다"	
17	2	פתח[파타흐]	53:7b,e פָּתַח "열다"	
18	2	חלק[할라크]	53:12a,b חָלַק "나누다"	
(1)	4 (+2)	ראה[라아]	52:15c רָאָה [라우]; 53:2d וַיִּרְאֵהוּ [니르에후]; 53:10c הֲרָאָה [이르에]; 53:11a הֲרָאָה [이르에] 보다 (+ 명사 [마르에] 52:14; 53:2)	어근 같으나 품사가 다른 단어
(2)	2 (+2)	פשע[파샤]	53:12d, f פְּשָׁעִים [포시임] 범죄자들 (+ 명사[페샤] 53:5a, 8d)	

③ 명사

일련 번호	반복 횟수	어근	명사	참고
19	5	רבב[라바브]	רַבִּים [라빔] "많은" 52:14, 15; 53:11, 12a,e	
20	4		יהוה [아도나이] "여호와" 53:1, 6, 10a,d	
21	4		אִישׁ [이시] "사람" 52:14; 53:3a,b, 6	
22	4		פֶּה [페] "입" 52:15; 53:7be, 9	53:7 수미쌍관; 53:7-9 수미쌍관
23	3		נֶפֶשׁ [네페시] "영혼" 53:10, 11, 12	
(2)	2(+2)	פשע[파샤]	פְּשָׁע [페샤] 53:5a, 8d 범죄 (+ 동사 53:12d, f)	동의적 병행 명사의 쌍
24	3		עוֹן [아본] 죄악 53:5b, 6c, 11d	
(1)	2	ראה[라아]	מִרְאָה [마르에] 모양 52:14b ; 53:2d	동의적 병행 명사의 쌍
25	2		תּוֹאֵר [토아르] 52:14; 53:2	
26	2		מְכַאֵב [마흐오브] 53:3b, 4b	동의적 병행 명사의 쌍
(8)	2 (+1)	חלה[할라]	חָלִי [홀리] 53:3b, 53:4a (+ BHS 53:10 동사 [헤헬리])	
27	2	עבד[아바드]	עֲבָד [에베드] "종" (52:13; 53:11)	시 전체 수미쌍관
28	2		כָּלָנוּ [쿨라누] "우리 모두" 53:6a,c	53:6 수미쌍관

29	2	מות[무트]	מָוֹת [마베트] "죽음" 53:9, 12	
30	2	זרע[자라]	זָרַע [즈로아] 팔 53:1b זָרַע [제라] 씨 53:10c	재담적 사용
31	2		אָרֶז [에레츠] "땅" 53:2, 8	

④ 대명사

일련 번호	반복 횟수	대명사
32	5	הוא [후] "그" 53:4, 5, 7, 11, 12
33	4	אָשֶׁר [아셰르] 관계사 52:14, 15(2 번), 53:12
34	3	מִי [미] "누구?" 53:1(2 번), 8

⑤ 전치사(+접미대명사)/접속사/불변화사/부사

일련 번호	반복 횟수	전치사/접속사/불변화사/부사
35	10	לֹא [로] "아니다" 52:15(2 번); 53:2(3 번), 3, 7(2 번), 9(2 번)
36	4	עַל [알] "관하여, 위에" 52:14, 15; 53:5, 9
37	3	לוֹ [로] "그에게" 53:2, 12; לְמוֹ [라모] "그에게" 53:8
38	2	כֵּן [켄] "그토록" 52:14, 15
39	2	כִּי [키] "왜냐하면, -라는 것" 52:15; 53:8
40	2(+1)	לְפָנַי [리프네] "-앞에" 53:2, 7 (+ 명사 פָּנִים [파님] "얼굴" 52:3)
41	2	אֶת [에트] "함께" 53:9, 12
42	2	אֶת [에트] "-을, 를" 53:6, 8,

4) 라베는 36 개의 단어 중에서 사상이 같거나 비슷한 어구나 문에 사용된 15 개의 핵심 단어를 들고,³³ 비하(53:1-9)와 승귀(52:13-15; 53:10-12) 단락에 나오는 18 개의 단어를 지적한다.³⁴ 라베는 11 개의 단어가 비하와 승귀에 동시에 사용되고 8 개의 단어가 종에 대한 오해와 실상에 사용된 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³⁵

	비하	승귀
1 נָשָׂא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아픔을 그가 대신 <u>들어</u> <u>깊어지고</u> (53:4); 그 자신이	높아지고 <u>들어</u> <u>올려지고</u>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52:13)

³³ Raabe, "Effect," 77, n. 6.

³⁴ Raabe, "Effect," 78.

³⁵ Raabe, "Effect," 78-80.

	많은 사람들의 죄를 들어 깊어지고(53:12)	(to be lifted up)
2 מִכִּי	많은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경악했던 것처럼(52:14);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깊어지고(53:12)	그렇게도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피뿌릴 것이기 때문에(52:15); 의로운 자인 나의 종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53:11);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그 많은 사람을 차지하게 하고(53:12)
3 פִּי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53:7b,e);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이다(53:9)	왕들은 그에 대하여 그들의 입을 다물 것이다(52:15)
4 הָאֵ	그는 우리가 그를 볼 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53:2)	이는 그들이 이야기된 적이 없는 것을 볼 것이고(52:15); 그가 그의 씨를 보며(53:10); 그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그는 빛을 볼 것이고(53:11)
5 עַל	많은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경악했던 것처럼(52:14); 우리의 평강을 위한 징계/우리의 평강을 가져온 징계가 그 위에 내려졌다(53:5); 그것은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이다(53:9)	왕들은 그에 대하여 그들의 입을 다물 것이다(52:15).
6 שִׁנְיָ	그의 영혼이 속건제를 드리면(53:10); 이는 그가 그의 영혼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고(53:12)	그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그는 빛을 볼 것이고(53:11)
7 יָפִי	여호와와는 뜻하셨고—그를 부수길— 그로 아프게 하셨다(53:10a)	여호와와 뜻[뜻+여호와와]이 그 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53:10d).
8 הִיָּה	여호와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다(53:6); 여호와와는 뜻하셨고—그를 부수길— 그로 아프게 하셨다(53:10a)	여호와와 뜻[뜻+여호와와]이 그 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53:10d)
9 לִי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느림한] 풍채도 없고(53:2); 내 백성의 범죄 때문에 천벌이 그의 것이 된 결과임을(53:8)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그 많은 사람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53:12)
10 כִּי	그렇게도 하나의 사람으로 볼 수 없도록 그의 모습이 망가졌고(52:14)	그렇게도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피를] 뿌릴 것이기 때문에(52:15)
11 כִּי	그가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진 것이 바로 내 백성의 범죄 때문에	이는 그들이 (그들에게) 이야기된 적이 없는 것을 볼 것이고 (그들이)

	천벌이 그의 것이 된 결과임(53:8)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52:15)
--	-----------------------	-----------------------------------

	화자(우리)의 오해	종의 실상
1 אָרֶץ	마른 땅에서 돌아난 햇순처럼 자라났다. (53:2)	그 세대 중에 어느 누가 산 사람들의 땅으로터 그의 끊어짐이 내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천벌이 그에게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겠는가? (53:8)
2 מְאֻבּוֹת	그는 멸시를 당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아픔을 아는 자였다. (53:3)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아픔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가 대신 담당하고 있었다(53:4)
3 יָדַע	그는 멸시를 당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아픔을 아는 자였다. (53:3)	그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그는 빛을 볼 것이고 자기 지식으로 인해 그는 만족해 할 것이다. (53:11)
4 הָלַהּ	그는 멸시를 당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아픔을 아는 자였다(53:3)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아픔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가 대신 담당하고 있었다(53:4); 여호와와 뜻은 그를 부수시며 그를 아프게 하시는 것이었다(53:10)
5 נָגַע	그런데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53:4)	그 세대 중에 어느 누가 산 사람들의 땅으로터 그의 끊어짐이 내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천벌이 그에게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겠는가? (53:8)
6 עָנָה	그런데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53:4)	그는 학대를 받으면서도 고난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53:7)
7 פָּשַׁע	범죄자들과 함께 자신을 헤아려지게 하며(53:12d)	범죄자들을 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이다(53:12f); 그 세대 중에 어느 누가 산 사람들의 땅으로터 그의 끊어짐이 내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천벌이 그에게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겠는가?(53:8); 참으로 그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찢리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부서졌다(53:5)
8 וְיָאֵן	그렇게도 한 <u>사람</u> 으로 볼 수 없도록 그 모습이 망가졌고(52:14); 그는 멸시를 당했고 <u>사람들에게</u> 버림을 받았으며(53:3a); 슬픔의 <u>사람</u> 이요 아픔을 아는 자였다(53:3b)	우리 모두는 양처럼 길을 잃고 <u>각기</u> 제 길로 갔지만(53:6)

5) 버기는 종의 비하와 승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자음 반복(alliteration),³⁶ 모음 반복(assonance),³⁷ 단순한 반복(simple repetition),³⁸ 동의적 병행 단어 반복(synonymous parallel word pairs),

³⁶ Bergey, "Rhetorical Role," 180. 자음 반복의 예: [수치 40 을 나타내는] 자음 멤(מ)을 가진 단어가 40 개이고 자음 멤이 사용된 총수는 72 개이고 겹점을 가진 멤을 둘로 계산하면 76 개이다. 이것은 종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입을 다문 왕들처럼 경탄하며 잠잠히 있을 것을 시사하는지 모른다. 후음(א ו ת)과 구개음 카프(כ)가 빈번하게 나온다. 52:13-15 에 7 개의 카프(כ)와 12 개의 알렙(א)이 나온다. 53:1-3 에도 12 개의 알렙이 들어있다. 55:4-6 에 알렙을 가진 단어가 10 개이고 총 12 개의 알렙이 들어 있고, 카프를 가진 단어가 7 이고 총 8 개의 카프가 들어 있고, 53:7-11b 에 헤트(ת)를 가진 단어가 12 개이고 12 개의 아인(ע)이 들어 있고([브다아토]는 전통적 악센트 체계를 따라 다음 부분에 넣었으므로 이 부분에서 제외되었음), 53:11c-12 에 7 단어에 총 8 개의 아인이 들어 있다.

³⁷ Bergey, "Rhetorical Role," 180. 모음 반복의 예: 53:4-6 에서 모음 우가 26 번 반복된다. 순음 앞에서 접속사 ו[우]로 3 번, 자립 혹은 접미 대명사를 나타낼 때 15 번(אִנְיָ[후], וְיָ[후] "그, 그를"; אֲנִי[아나흐누], וְנִי[누] "우리, 우리의, 우리를"), 다른 품사들로 7 단어가 가운데 8 번 나온다(עֲנִי[나구아] "별받는", הֵכֵל[무케] "매맞는", הִנְנֵנוּ[므우네] "고난 당하는", נִשְׁבַּח[므두카] "부서지는", וְנִסְּנוּ[무싸르] "징계를 받음", וְנִבְרַח[하부라토] "채찍에 맞음", וְנִלְנַח[쿨라누] "우리 모두" 2 번).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종이 고난 당하면서 슬픔을 표현하는 의성어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인지 모른다. 53:4-7 에서 대명사 אִנְיָ[후]와 וְנִי[누]를 통해 16 번의 [우] 모음이 나오는 것은 무고한 고난의 종과 죄책이 있는 우리들 사이의 대조를 강화시켜 준다.

³⁸ Bergey, "Rhetorical Role," 181. 40 개의 반복되는 단어 중에서 수나 인칭의 차이를 보이는 [이시], [페], [홀리], [파샤], [아본], [마베트], [할라크] 등을 포함한 22 개가 (동의적 병행이나 동음 이의/이태가 아니라) 단순히 2-5 번, 심지어 10 번까지 반복되며 총 70 단어를 이룬다.

반복	단어	단어 (구절)
횟수	수	

동음이의적 단어 반복(paronomasia) 등 5 가지 수사학적 기법을 지적했다. 병행 단어의 반복, 동음이의/이형적 단어 반복, 단순한 반복 등은 불필요한 반복이 아니라 시의 경계들을 표시하고 연을 구분하며 전체 구조를 강화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반복들은 종의 고난과 승귀의 대조를 두드러지게 하고, 메시지의 움직임을 진전시키고, 종의 고난과 승귀라는 주제로 전체 시를 통일시키는 역할을 한다. 버기가 지적한 동의적 병행 단어의 쌍과 재담적 단어 반복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한 절(한 연)에 나오는 동의적 병행 단어의 쌍이 다른 절(연)에서 역순으로 나오는 5 가지 경우

- 52:14bc מְרֹאֵהוּ וְתֹארוֹ [마르에/토아르] “모습/모양”
vs. 53:2cd לֹא-תֹאֵר וְלֹא-מְרֹאֵה [토아르/마르에] “모양/모습”
- 53:3bb אִישׁ מְכַאֲבוֹת וְיָדוּעַ חֲלִי [마흐오브/홀리] “슬픔/아픔”
vs. 53:4ab חֲלִינֵנוּ וּמְכַאֲבֵינוּ [홀리/마흐오브] “아픔/슬픔”
- 53:4ab חֲלִינֵנוּ הוּא נִשָּׂא וּמְכַאֲבֵינוּ סְבֻלָּם [나싸/싸발] “짊어지다/담당하다”
vs. 53:11d, 12e וְעֹנֶתֶם הוּא יְסַבֵּל . . . חֲטָאֵי רַבִּים נִשָּׂא [싸발/나싸] “담당하다/짊어지다”
- 53:5ab מְחַלְלֵנוּ מִפְּשָׁעֵנוּ מְדָבָר מְעֹנֵתֵינוּ [할랄/다카] “찌르다/부수다”
vs. 53:10a חֲפָץ דָּבָא הֲחִלִּי [다카/할랄 < IQIsa^a] “부수다/찌르다”
- 53:5ab מְחַלְלֵנוּ מִפְּשָׁעֵנוּ מְדָבָר מְעֹנֵתֵינוּ [폐샤/아본] “범죄/죄악”
vs. 53:11d, 12d, f וְלִפְשָׁעִים יִפְגְּעוּ . . . וְאֶת-פְּשָׁעִים נִמְנָה . . . וְעֹנֶתֶם יְסַבֵּל [아본/포시임] “죄악/범죄자들”

2	12	עָבַד [에베드] “종” (52:13; 53:11); כֵּן [첸] “그토록” 52:14, 15; כִּי [키] “왜냐하면, -라는 것” 52:15; 53:8; לִפְנֵי [리프네] “앞에” 53:2, 7; אֲרָץ [에레츠] “땅” 53:2, 8; לוֹ [로] “그에게” 53:2, 12; בָּזָה [바자] “멸시하다” 53:3(2 번); חָשַׁב [하샤브] “생각하다” 53:3, 4; כָּלָנוּ [콜라누] “우리 모두” 53:6(2 번); מָוֶת [마베트] “죽음” 53:9, 12; פָּתַח [파타흐] “열다” 53:7 (2 번); חָלַק [할라크] “나누다” 53:12 (2 번)
3	2	מִי [미] “누구?” 53:1(2 번), 8; נֶפֶשׁ [네페시] “영혼” 53:10, 11, 12
4	5	עַל [알] “관하여, 위에” 52:14, 15; 53:5, 9; אִישׁ [이시] “사람” 52:14; 53:3(2 번), 6; פֶּה [페] “입” 52:15; 53:7(2 번), 9; אֲשֶׁר [아셰르] 관계사 52:14, 15(2 번), 53:12; יְהוָה [아도나이] “여호와” 53:1, 6, 10(2 번);
5	2	רַבִּים [라빔] “많은” 52:14, 15; 53:11, 12(2 번) ; הוּא [후] “그” 53:4, 5, 7, 11, 12
10	1	לֹא [로] “아니다” 52:15(2 번); 53:2(3 번), 3, 7(2 번), 9(2 번)

② 비슷한 음의 말을 익살스럽게 쓰기/재담 (수나 인칭의 차이를 보이는 7 단어를 배제하고 남은 14 개의 단어들)³⁹

- [나싸] 52:13b נָשָׂא [나싸] 들린 vs. 53:4a, 12e הָשָׂא [나싸] 짊어지다
- [라아] 52:14b; 53:2d מָרָאָהוּ [마르에] 모양 vs. 52:15c; 53:2d, 10c, 11a הָרָאָה [라아] 보다
- [샤마] 52:15d שָׁמַעוּ [샤마] 듣다 vs. 53:1a שָׁמַעְתֶּנוּ [시무아] 들려진 것, 메시지
- [자라] 53:1b זָרַע [즈로아] 팔 vs. 53:10c זָרַע [제라] 씨
- [야다] 53:3b יָדָעוּ [야두아] 아는 vs. 53:11c[b, BHS] יָדַעְתֶּנוּ [다아트] 지식
- [싸발] 53:4b סָבַלְתָּ [싸발] 담당했다 vs. 53:11d סָבַלְתָּ [이스볼] 담당할 것이다
- [나가] 53:4c נָגַע [나구아] 벌받는 vs. 53:8d נָגַע [네가] 벌
- [아나] 53:4d מָעַנְתָּ [므우네] 고난당하는 vs. 53:7a מָעַנְתָּ [나아네] 고난 당하다
- [할랄] 53:5a מְהַלְלֵךְ [므홀랄] 찢리는 vs. 53:10a [IQIsa^a wyhlhw וְיִתְהַלְלֵךְ] [비할레후] 그가 찢리게 하다 (cf. MT יִתְהַלְלֵךְ 그가 아프게 하였다)
- [파샤] 53:5a, 8d פָּשַׁע [페샤] 범죄 vs. 53:12d, f פְּשָׁעִים [포시임] 범죄자들
- [다카] 53:5b מְדַכָּא [무두카] 부서지는 vs. 53:10a דָּכְאוּ [다케] 부숨
- [파가] 53:6c הִפְגִּיעַ [히프기아] 떠말기다 vs. 53:12f יִפְגִּיעַ [야프기아] (떠말아 위하여) 기도하다
- [하페츠] 53:10a הִפְגִּיעַ [하페츠] 기뻐하다, 뜻하다 vs. 53:10d הִפְגִּיעַ [헤페츠] 기쁨, 뜻
- [차다크] 53:11c צָדִיק [차디크] 의로운 vs. 53:11c יָצִיק [야츠티크] 의롭게 할 것이다.

³⁹ [나싸]와 [자라]와 [파가]의 경우는 의미적인 면에서 동음이의적으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11 단어는 동의적이고 어형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자라]의 경우도 문맥상 재담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나싸]와 [파가]를 제외한 어형이 다른 11 개의 단어들도 수나 인칭의 차이를 보이는 7 단어들처럼 단순 반복에 넣어도 무방할 것 같다.

2. 원문의 문예적 기교 도표⁴⁰

원문

מָאֵד:	וּגְבָהּ	וּנְשָׂא	יְרוֹם	עֲבָדִי	יִשְׁכִּיל	הִנֵּה	52:13ab
		(I) B ¹		(I) A ¹	α		
			רַבִּים	עֲלִידָה	שָׁמְמוֹ	כַּאֲשֶׁר	52:14a
			(I) C ¹ (b)	(a)			
אָדָם:	מִבְּנֵי	וּתְאָרוֹ	מִרְאֵהוּ	מֵאִישׁ	מִשְׁחַת	כֵּן-	52:14bc
	(d)	B (e')	A (e)	(d)		(c)	
			רַבִּים	גֹּוִים	יָזָה	כֵּן	52:15a
			(I)C ² (b)			(c)	
			פִּיהֶם	מַלְכִים	יִקְפְּצוּ	עָלָיו	52:15b
			(I)D ¹			(a')	
	רָאוּ	לָהֶם	סִפֵּר	לֹא-	אֲשֶׁר	כִּי	52:15c
	(I) E ¹			f ¹			
		הַתְּבוֹנְנוֹ:	שָׁמְעוּ	לֹא-	וְאֲשֶׁר		52:15d
		ω	(I) F ¹	f ²			
			לְשִׁמְעָתָנוּ		הָאֵמִין	מִי	53:1a
			II(ω)[-וּ] (II) F ²			α ¹	
		נִגְלָתָהּ:	מִי	עַל-	יִהְיֶה	וּנְרוּעַ	53:1b
			α ²		(II a) (II) G ¹	(II) H ¹	
	צִיָּה	מֵאֶרֶץ	וּכְשָׁרָשׁ	לְפָנָיו	כִּיּוֹנֵק	וַיַּעַל	53:2ab
			(II) J ²	(II) K ¹	(II) J ¹		
		הַדֶּר	וְלֹא	לוֹ	תֵּאָר	לֹא-	53:2c
			f ⁴	g ¹	B'	f ³	

⁴⁰ 버기가 A-B-B'-A 구조를 고려해 나눈 것을 따르며 원문의 4 개의 단락은 로마 숫자 대문자(Times New Roman 볼드) I(52:13-15), II(53:1-6), III(53:7-11b), IV(53:11c-12)로 표시했다. 각 단락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관련 단어는 헬라어 소문자 α 와 ω 를 사용했다. 어근이나 의미나 기교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 것은 영어 대문자와 소문자로 표시했다. 영어 대문자는 단락(I-IV)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예와: E-F-F'-E' 와 밀접한 관련을 고려해 C-D-D'-C' 는 같은 단락 안에 나오지만 대문자로 표시함). 영어 소문자는 같은 단락 혹은 같은 절 안에 관련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 윗 첨자는 나오는 횟수를 표시한다. 영어 대문자와 소문자가 이탤릭체로 되어 있는 것은 역순대구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52:14 와 53:2 의 A-B-B'-A 처럼 짝으로 나오는 병행 단어들의 역순대구법을 표시하는데 이탤릭체 대문자, 볼드, 프라임 등이 사용된다. 53:1-6 의 (II a-II b-II c-II c'-II b'-II a') 혹은 52:14-15ab 의 (a)-(b)-(c) (d)-(e)-(e')-(d')-(c')-(b')-(a') 처럼 단락 혹은 절 안에 역순대구를 보이는 단어들을 표시하는데 괄호, 소문자, 이탤릭체, 볼드, 프라임 등이 사용된다. 괄호없이 f—g—h—o 처럼 단락들에 걸쳐 나오는 부정어와 대명사는 소문자, 밑줄, 윗첨자를 사용했다. 52:15 의 (I D¹)나 53:1 의 (II H¹)나 53:2 의 (II J¹)나 53:6 의 (J)처럼 괄호 안에 넣은 영어 대문자는 단락들에 걸쳐 나오는 단어들의 연결이 재담이나 이미지나 느슨한 연결인 것을 나타낸다.

			ונחמדהו:	מראה	ולא-	ונראהו	53:2d
				A'	f ⁵	(II) E ²	
הלי	וידוע	מכאבות	איש	אישים	וחדל	נבזה	53:3ab
D	(II) L ¹	C	(II b) (b')	(b)		(a)	
חשבנהו:		ולא	נבזה	ממנו	פנים	וקמסתר	53:3cd
(II c)		f ⁶	(a')		(II) K ²		
סבלם		ומכאבינו	נשא	הוא	חלינו	אכן	53:4ab
F		C (j ²)	E (II) B ²	h ¹	D' (j ¹)		
	ומענה:	אלהים	מכה	נגוע	חשבנהו	ואנחנו	53:4cd
	(II) N ¹			(II) M ¹	(II c') (h ¹)	j (once)	
מעונתינו		מדכא	מפשענו	מחלל	והוא		53:5ab
J (j ⁴)		H	I (j ³)	G	h ²		
	לנו:	גרפא-	ובחברתו	עליו	שלומנו	מוסר	53:5cd
	(j ⁶)		(h ³)	(h ²)	(j ⁵)		
	פנינו	לזרפו	איש	תעינו	כצאן	פלנו	53:6ab
			(II b')		(II J ³)	ω ¹ (j ⁷)	
פלנו:		עון	את	בו	הפגיע	ויהנה	53:6c
II(ω)[-ח] ω ² (j ⁸)		(J')		(h ⁴)	(II) O ¹	(II a') (II) G ²	
פיו		יפתח-	ולא	נענה	והוא	נגש	53:7ab
(III) D ² (n ¹)		(m ¹)	(k ¹) f ⁷	(III) N ²	III(α)[ח] h ³		
α ¹							
נאלמה	גזייה	לפני	וכרחל	יובל	לטבח	כשה	53:7cd
		(III) K ³	(III) J ⁵			(III) J ⁴	
פיו:		יפתח	ולא				53:7e
(III) D ³ (n ²)		(m ²)	(k ²) f ⁸				
α ²							
ישותם	מי	דורו	ואת-	לקח	וממשפט	מעצר	53:8ab
			סיים	מארץ	נגזר	כי	53:8c
		למו:	נגע	עמי	מפשע		53:8d
		g ²	(III) M ²		(I')		
במתיו	עשיר	ואת-	קברו	רשעים	את-	ניתן	53:9ab
(III) P ¹							
בפיו:		מרמה	ולא	חמס	לא-	על	53:9cd
(III) D ⁴ (n ³)			(k ⁴) f ¹⁰		(k ³) f ⁹		

	[IQIsa ^a ויחללהו]	הַחֲלִי	זָכָאוּ	חֲפִיז	וַיְהִיָּה	53:10a
	[G]	(D')	H	(b)	(a) (III) G ³	
		נִפְשׁוּ	אֲשֶׁם	תְּשִׁים	אִם-	53:10b
		(III) Q ¹ o ¹				
		יָמִים	יֵאָרִיךְ	זָרַע	יִרְאֶה	53:10c
				(III) H ²	ω ¹ (p ¹)	
		יִצְלַח:	בְּיָדוֹ	יְהִיָּה	וַחֲפִיז	53:10d
				(III) G ⁴ (a')	(b)	
	בְּדַעְתּוֹ	יִשְׁבֹּעַ	<אור>	יִרְאֶה	נִפְשׁוּ	53:11ab
	III(ω)[Ω] (III) L ²			ω ² (p ²)	(III) Q ² o ²	
יִסְבֹּל:	הוא	וַעֲזֹנְתָם	לְרַבִּים	עֲבָדִי	צַדִּיק	53:11cd
F'	(s ¹) h ⁴	J''	(IV) C ³ (r ¹)	(IV) A ²	α ² (q ²)	α ¹ (q ¹)
			בְּרַבִּים	לוֹ	אֲחֻלְקֶ-	לְכוֹן
			(IV) C ⁴ (r ²)	g ³	(t')	
	שָׁלַל	יִחְלַק	עֲצוּמִים	וְאֵת-		53:12b
		(t')				
	נִפְשׁוּ	לְמֹנֹת	הֶעֱרָה	אֲשֶׁר	תִּחַת	53:12c
	(IV) Q ³ o ³	(IV) P ²				
		נִמְנָה	פִּשְׁעִים	וְאֵת-		53:12d
			ω ¹ I'' (u ¹)			
יִפְגִּיעַ:	וּלְפִשְׁעִים	נִשְׂא	רַבִּים	חֲטָא-	וְהוּא	53:12ef
(IV) O ²	ω ² (I''') (u ²)	E (IV) B ³	(IV) C ⁵ (r ³)	(J''')	(s ²) h ⁵	

3. 번역문의 문예적 기교 표시⁴¹

번역문

- I 사 52: 13 “보라! 슬기롭게 행할 것이다—나의 종이.
 α [싸할] (I)A¹ [아브디]
 [필연적인 결과로] (그는) 높아지고 받들어 [올려]지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I) B¹ [나싸]
- 14 너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던 것처럼,
 (a)[알] (b) (I)C¹ [라빔]
 —그렇게도 하나의 사람으로 볼 수 없도록 그의 모습이 망가졌고
 (c) [켄] (d) [이시] (e) A [마르에]
 그의 모양이 사람들에 속한다고 할 수 없도록 망가졌기 때문에—
 B (e') [토아르] (d')
- 15 —그렇게도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피를] 뿌릴 것이기 때문에—
 (c') [켄] (b') (I)C² [라빔]
 그에 대하여 왕들이 [경탄하며] 그들의 일을 다물 것이다.
 (a') [알] (I) D¹ [피]
 이는 그들이 (그들에게) 이야기된 적이 없는(f¹) 것을 볼 것이고
 (I) E¹ [라아]
 (그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f²)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I) F¹ [샤마] ω [빈]
- II 사 53:1 누가 우리의 —들은 것[시모테누 “우리에게 들려진 것”]을 믿었는가?
 α^1 [미] II(ω)(1-6 절 [-누]) (II) F² [샤마]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II a) (II) G¹ [아도나이] (II) H¹ [즈로아] α^2 [미]

⁴¹ 번역문에 52:13의 (그는)처럼 소괄호 안에 있는 것은 원문에 있으나 생략해도 좋거나 생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을 나타내고 [필연적인 결과]로 처럼 대괄호 안에 있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한 것이다. 4개의 단락은 로마 숫자 대문자(Times New Roman 볼드) I(52:13-15), II(53:1-6), III(53:7-11b), IV(53:11c-12)로 표시했다. 각 단락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단어는 헬라어 소문자 α 와 ω 를 사용했다. 영어 대문자와 소문자는 어근이나 의미나 기교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 것을 표시한다. 영어 대문자는 단락(I-IV)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소문자는 같은 단락 혹은 같은 절 안에 관련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 윗 첨자는 나오는 횟수를 표시한다. 52:14와 53:2의 A-B-B'-A'처럼 짝으로 나오는 병행 단어들의 역순대구법을 표시하는데 대문자, 이탤릭체, 볼드, 프라임 등을 사용했다. 53:1-6의 (II a-II b-II c-II c'-II b'-II a') 혹은 52:14-15ab의 (a)-(b)-(c) (d)-(e)-(e')-(d')-(c')-(b)-(a') 처럼 단락 혹은 절 안에 역순대구를 보이는 단어들은 괄호, 소문자, 이탤릭체, 볼드, 프라임 등을 사용했다. f—g—h—o처럼 단락들에 걸쳐 나오는 부정어와 대명사는 소문자, 밑줄, 윗첨자를 사용했다. 53:1의 (II H¹)나 53:2의 (II J¹)나 53:6의 (J')처럼 괄호 안에 넣은 영어 대문자는 단락들에 걸쳐 나오는 단어들의 연결이 재담이나 이미지나 느슨한 연결인 것을 나타낸다.

2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그[=여호와] 앞에서 [불필요한] 결순처럼 그리고
 (II) K¹ [리프네] (II) J¹ [요네크]

마른 땅에서 [가까스로] 돌아난 햇순처럼 자라났다.

(II) J² [쇼레시]

그에게는(g¹) 고운 모양도 없고(f³) [능름한] 풍채도 없고(f⁴),
 B' [토아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흠모할만한 멋진 모습도 없었다(f⁵) .
 (II) E² [라아] A' [마르에]

3 그는 멸시를 당했고 버림을 받았으며—사람들에게
 (a) [바자] (b) [이심]

(그는) 사람 — 슬픔(들)의 그리고 아는 자—아픔의 (이었다.)
 (II b) (b') [이시] C [마흐오브] D [홀리]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얼굴을 피해 버리는 자처럼 멸시를 당했으며
 (II) K² [파님] (a') [바자]

우리마저도 그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f⁶).
 (II c) [하샤브]

사 53: 4 그러나 실상은 아픔(들)을—우리의 그가 [대신] 짊어지고
 D' [홀림] (j¹)[-누] h¹ [후] E (II) B² [나싸]

슬픔(들)을 —우리의 (그가 [대신] 그것들을) 담당하고 있었다.
 C' [마흐오브] (j²)[-누] F [싸발]

그런데 우리는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j [아나흐누 1 번] (II) L¹ [나구아]

고난을 받는다고 그를—(우리가) 생각했다.
 (II) N¹ [므우네] (h¹)[-후] (II c) [하샤브]

5 참으로—그는 찢리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J(2)[후] G [할랄] (j³) I [페샤]

부서졌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H [다카] (j³) J [아본]

우리의 평강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임했고
 (j⁵) (h²)

그의 채찍 맞음을 통해 치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h³) (j⁵)

6 우리 모두는[쿨라누]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ω^1 (j⁷) (II J³) [춘] (II b⁷) [이시]

여호와는 떠말기셨다 -그에게 죄악을 -우리 모두의 [쿨라누]
 (II a⁷) [아도나이] (II) O¹ [파가] (h⁴) (J⁷) [아본] II(ω 53:1-6) [-누 “우리”] ω^2 (j⁸)

III 사 53:7 그는 학대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고난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III(α 53:7-11b) [후 “그”] h³

그의 입을(n¹) -열지 -않았다(f¹).
 (III)D² [피] (m¹) (k²)

α¹ [블로 이프타흐 피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III J⁴) [세] (II) K³ [리프네] (III J⁴) [라헬]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f⁸).
 (III)D³ [피] (n²) (m²) (k²)

α² [블로 이프타흐 피브]

8 그는 체포와 심문을 당하고 [처형 받으러] 끌려갔다.
 그 세대 중에 누가 고려해보았겠는가?
 그가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진 것이 바로
 내 백성의 범죄 때문에 천벌이 그의 것이(g²) 된 결과임을.
 (I⁷) [페샤] (III) L²

9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배정되었으나
 그가 죽은 후에[그의 죽음들 후에] 부자와 함께 배정되었다.
 (III)O¹

그것은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f⁹)
 (k³)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기(f¹⁰) 때문이다.
 (III)D⁴ (n³) [피] (k⁴) [로]

사 53:10 여호와의 뜻은 그를 부수시며 [그를 아프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를 찌르셨다.

(직역: 여호와는 -똥하셨고-그를 부수길-그가 그를 찌르셨다[그를 아프게 하심].)
 (a) (III)G³ [아도나이] (n)[하페프] H⁷ [다카] G⁷ [할랄] (D⁷) [할라])

그의 영혼이 속건제를 드리면
 (III) Q¹ o¹ [나프쇼]

그가 [그의] 씨를 보며 [그의] 날들을 길게 할 것이고
 (III H²) [제라] ω¹ (p¹) [라아]

뜻-여호와의 그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b⁷) (III) G⁴ (a⁷)

- 11ab 그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그는 <빛을> 볼 것이고
(III) Q² o² [나프쇼] **ω² (p²) [라아]**
그의 -지식으로 인해 만족해 할 것이다.
III(ω53:7-11b)[오 “그”] **(III) L²[다아트]**
- IV 사 53:11c 의롭게 할 것이다 -의로운 자인 나의 종이 많은 사람을
α¹ (q¹)[차다크] **α² (q²) [차다크]** **(IV)A² [아브디]** **(IV)C³ (r¹) [라빔]**
 친히 그들의 죄악들을 그가 담당하면서
J'' [아본] **(w¹)[후]** **F' [싸발]**
- 12 그러므로 나는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에게 -그 많은 사람을
(t') [할라크] **(IV)C⁴ (r²) [라빔]**
 그는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t') [할라크]
 이는 그가 그의 영혼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s²) h⁵ **(IV) Q³ o³ [나프쇼]** **(IV) O²**
범죄자들과 함께 자신을 헤아려지게 하였고
ω¹ I'' (u¹) [포시임]
 그 자신이 많은 사람의 죄를 집어졌고
(s²) h⁵ [후] **(IV)C⁵ (r³) [라빔]** **(J''' [헤트]) E' (IV)B² [나싸]**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범한 죄를 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이다.
ω² (I''') (u²) [포시임] **(IV) O² [파가]**

문예적 기교 설명

1) I—IV

① 각 단락은 다음과 같이 로마 숫자 대문자(Times New Roman Bold)로 표시했다.

- I** A [יְהוָה] 아브디 52:15a] “나의 종”의 성공과 승귀 (52:13-15)
II B1 [וְאֵלֵינוּ] 시무아테누 53:1a] “우리”는 그를 별로 귀하게 보지 않음 (53:1-3)
 B2 [וְלֵנוּ] 쿨라누 53:6c] “우리”를 위한 그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인정 (53:4-6)
III B'1 [אֵיךְ] 브후 53:7a] “그”가 무고하지만 고난당하고 죽음 (53:7-9)
 B'2 [וְהָיָה] 브다토 53:11b] “그”의 고난은 여호와의 뜻에 의한 것임 (53:10-11b)
IV A' [אֵלֵינוּ] 아브디 53:11c] “나의 종”의 성취와 상급 (53:11c-12)

② **I**(52:13-15)과 **IV**(53:11c-12)는 [아브디]의 반복으로 수미쌍관법을 이루고, **II**(53:1-6)는 “우리”를 나타내는 접미대명사의 반복으로 수미쌍관법을 이루고, **III**(53:7-11b)은 “그”를 나타내는 자립대명사 [후]와 접미대명사 [오]가 수미쌍관법을 이루고 있다.

2) $\alpha-\omega$

- ① 각 단락(I-IV)의 시작과 끝은 헬라이어 소문자 알파와 오메가를 사용했다.
- ② 알파와 오메가가 윗첨자로 1 과 2 를 갖는 경우 반복되는 단어임을 나타낸다.

3) 각 단락(I—IV)의 수미쌍관법과 단어 반복

① I(52:13-15)

- $\alpha-\omega$: 지혜 용어에 의한 수미쌍관법 : 단락 I 은 어근 [싸할]로 시작하고 [빈]으로 마친다.
 - ◆ וְיָשִׁיל^1 [야스킬 52:13a] “그가 지혜롭게 행하다”
 - ◆ וְהִתְבַּנְּנוּ^2 [히트보나누 52:15d] “그들이 깨닫다”

② II(53:1-6): 수미쌍관법

- II(α)—II(ω): “우리” 단락의 시작과 끝의 단서는 53:1a 와 53:6c 의 접미대명사 [-누]의 반복이다. 접미대명사 [-누] (“우리”)는 백성을 대표해서 선지자가 말하는 “우리” 부분의 처음과 끝에 나오며 53:1-6 의 틀을 형성한다.
 - ◆ (53:1a) וְנִשְׁמָעָנוּ^1 [시무아테누] “우리에게 들린 것, 우리의 보고”
 - ◆ (53:6c) וְנִלְנָנוּ^2 [쿨라누] “우리 모두”
- $\alpha^{1-2}-\omega^{1-2}$: 단락 II 는 [미]—[미]의 반복으로 시작하고 [쿨라누]의 반복으로 마친다.
 - ◆ (53:1ab) מִי^1 [미 “누구”]— מִי^2 [미 “누구”]
 - ◆ (53:6ac) וְנִלְנָנוּ^1 [쿨라누 “우리 모두”]— וְנִלְנָנוּ^2 [쿨라누 “우리 모두”]
- 여기 “우리” 부분(53:1-6)에는 불변화사 [에트]를 제외하고 70 개의 단어가 나온다.

③ III(53:7-11b)의 수미쌍관법

- III(α)-III(ω) : “그” 단락의 시작과 끝의 단서는 53:7 와 53:11 의 대명사 “그”의 반복이다. 자립대명사 [후]와 접미대명사 [오]는 각각 종을 가리키며 “그”에 대하여 말하는 부분을 처음과 끝에서 감싸고 있다.
 - ◆ (53:7a) וְהוּא^1 [브후] “그러면서 그는”
 - ◆ (53:11b) וְהוּא^2 [브다토] “그의 지식으로”
- $\alpha^{1-2}-\omega^{1-2}$: 단락 III 은 [로 이프타흐 피브]의 반복으로 시작하고 [이르예]의 반복으로 마친다.
 - ◆ (53:7be) לֹא יִפְתָּח^1 [로 이프타흐 피브]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 ◆ (53:10b, 11a) וְהוּא^2 [이르예] “그가 볼 것이다.”
- 여기 “그” 부분(53:7-11b)에는 불변화사 [에트]를 제외하고 (“우리” 부분의 70 개와 거의 비슷한 수치인) 62 개의 단어가 나온다.

④ IV(53:11c-12): 단어 반복에 의한 수미쌍관법

- $\alpha^{1-2}-\omega^{1-2}$: 단락 IV 는 어근 [차다크]의 반복으로 시작하고 [포시임]의 반복으로 마친다.
 - ◆ (53:11cc) וְיַצִּיחַ^1 [야츠티크 차디크] “의로운 자가 의롭게 할 것이다”

- ◆ (53:12df) לְפָנֵינוּ...בְּפָנֵינוּ [브에트 포시임 ... 블라포시임] “범죄자들과 함께 . . . 범죄자들을 위하여”

⑤ (I) – (IV) : 52:13-15 와 53:11c-12 의 수미쌍관법: 세 단어(ABC)의 반복

A[52:13a 아브디]—B[나싸 52:13b]—C[라빔 52:14a; 52:15a]

A[53:11c 아브디]—C[라빔 53:11c; 53:12a, 12e]—B[나싸 53:12e]

- ◆ (I)A¹—(IV)A²: אָבְדִי [아브디] (“나의 종” 52:13a; 53:11c) “나의 종”의 신적 기원과 승귀
אָבְדִי [아브디] (“나의 종” 52:13a; 53:11c)는 처음 부분(I 52:13-15)과 마지막 부분(IV 53:11c-12)의 선두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나” 부분을 인도하며 노래 전체(52:13-53:12)의 틀을 형성하고 “나의 종”의 신적 기원과 승귀를 강조한다.

- ◆ (I)B¹ ↔ (IV)B³ : 어근 נָשָׂא [나싸] (“들어올리다” 52:13b; 53:12e) (cf. (II)B² 53:4a) 지상적 “죄를 짊어짐” ↔ 천상적 “승귀”

어근 נָשָׂא [나싸]가 재담적으로 52:13b 에서 승귀를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53:12e 에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비하를 나타낸다. 어근 [나싸]의 반복은 동음이의적으로 그의 지상적 “죄를 짊어짐”과 그의 천상적 “승귀”를 강조한다.

- ◆ (I)C¹⁻² —(IV)C³⁻⁵ : רַבִּינִי [라빔] (“많은” 52:14a; 52:15b; 53:11c; 53:12ae) “많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입은 은택

“רַבִּינִי [라빔] 많은”이란 단어가 52:14-15 에 2 번(52:14a; 52:15b) 나오고 53:11-12 에 3 번(53:11c; 53:12ae) 나온다. [라빔]의 반복은 그의 고난을 통해 “많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입은 은택을 강조한다.

⑥ 단락을 연결하는 단어의 반복(각 단락의 표시는 괄호에 넣은 로마 숫자 대문자)

• (I) —(II)

- ◆ (I) E¹ —(II) E² : 어근 [라야] “보다”

52:15c רָאָה [라야] “그들이 보다” // 53:2d רָאָהוּ [브니르에후] “우리가 그를 보다”: 종의 진상을 “왕들”은 보았으나 “우리”는 보지 못함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의 대조)

- ◆ (II) F¹ —(II) F² : 어근 [샤마] “듣다”

52:15d שָׁמְעוּ [샤마] “그들이 듣다” // 53:1a לְשָׁמְעֵנוּ [리시무아테누] “우리에게 들린 것” : 왕들은 듣고 경탄하였으나 우리는 들었으나 믿는 자가 별로 없었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의 대조)

- ◆ {참고} A-B-B'-A' : 짝을 이루는 병행 단어에 의한 52:13-15 과 53:1-3 의 연결

52:14bc תָּאָרוּ מְרֹאָהוּ [마르에/토아르] “모습/모양” // 53:2cd לֹא-תָאָר לְאִמְרָהוּ [토아르/마르에] “모양/모습” : 하나의 사람으로 볼 수 없는 “모습”과 사람들에 속했다고

볼 수 없는 “모양”으로 망가진 종의 사나운 물결은 사람들이 보기에 고운 “모양”이나 멋진 “모습”이 없었음

• (I) —(III)

◆ (I D¹)—(III) D²⁻⁴: [피] “입”

52:15b פִּיָּם [피헴] 왕들의 입 // 53:7ae, 9d [피브] 종의 입

• (II)—(IV)

◆ (II) G¹⁻²—(IV) G³⁻⁴: [아도나이] “여호와”

53:1b, 6c 여호와의 팔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 나타남

53:10a, 10d 종을 부수시고 찌르심(아프게 하심)은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뜻

◆ (II) O¹—(IV) O²: 어근 [파가] “떠말다”의 재담적 사용 (53:6c—53:12f)

53:6c פָּנֵיָּהּ [히프기아] 종은 그에게 우리의 죄악을 떠말기신 하나님 편의 중보

53:12f פָּנֵיָּהּ [야프기아] 범죄자를 떠말아 기도하는 종은 우리 편의 중보

53:6의 마지막 동사 פָּנֵיָּהּ ([히프기아]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말기셨다”)와 53:12의 마지막 동사 פָּנֵיָּהּ ([야프기아] “{그가 범죄자들을} 떠말으며 기도한다”)는 같은 어근이다. 6절에서 여호와는 종에게 그 백성의 죄악을 떠말기셨고[완료] 12절에서 종은 그 죄악을 떠말아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미완료]. 그러므로 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6절)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12절)이다.

• (II)—(III)

◆ (II) H¹—(III) H²): 어근 자음 [자인-레시-아인]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재담

53:1b וָאֵל [우즈로아] // 53:10 זָרָע [제라] 여호와의 팔로 나타난 종이 희생적 죽음 후에 살아나서 구원의 열매인 씨를 보게 될 것임

◆ (II) J¹⁻²—(II) J³)—(III) J⁴⁻⁵): 식물과 동물의 이미지

52:2ab פִּיּוֹנָק [요네크]—שֶׁשֶׁרֶשֶׁת [쇼레시] “결순—햇순” 불필요하고 생존이 의문시되는 종 (56:6c כֶּצֵּאֵן [촌] 길 잃은 “양”) 사망과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위해

53:7cd הַשֶּׁשֶׁת [세]—וְהַרְהֵל [라헬] 희생되는 “양”처럼 묵묵히 고난당하고 죽음 당한 종

◆ (II) K¹⁻²—(III) K²): [파님]과 [리프네] 종의 모습과 여호와와 사람들의 반응 대조

53:2a לְפָנָיו [르파나브] 여호와 앞에서 종의 사명을 위해 자라남

53:3c פָּנִים [파님] 사람들이 종을 멸시하며 그들의 얼굴을 가려버림

53:7 לְפָנָיו [리프네] 종은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기꺼이 고난을 당함

◆ (II) L¹—(III) L² 어근 [야다] “알다”

53:3b וְיָדָע [비두아] 종은 죄가 가져온 질병을 “아는 자”

53:11b וְיָדָעוּ [브다토] 종은 자신의 사역을 아는 “그의 지식으로 인해” 만족함

◆ (II) M¹—(III) M²: 어근 [나가] “별주다, 재앙내리다”

- 53:4c נָגַעַ [나구아] 우리는 종이 하나님의 재앙/천벌을 받는다고 오해함
- 53:8d נָגַעַ [네가] 종이 받은 재앙/천벌은 여호와와 백성을 위한 형벌

◆ (II) N¹—(III) N²: 어근 [아나] “괴롭히다. 고난을 주다”

- 53:4d נָמַעַנָּה [움우네] 우리는 종이 (자기 죄로 천벌받아) 고난당한다고 오해함
- 53:7a נָמַעַנָּה [나아네] 우리의 죄악을 떠맡은 종은 고난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줌

• (III)—(IV)

◆ (III) P¹—(IV) P²: [마베트] “죽음”

- 53:9b כָּמַתְיוּ [브모타브] 종의 죽음은 보는 사람들 눈에 끔찍한 죽음(복수)이지만
- 53:12c לָמַתַּת [라마베트] 백성을 위해 스스로 영혼을 내어 주신 숭고한 죽음(단수)

◆ (III) Q¹⁻²—(IV) Q³ (o¹⁻³): נָפְשׁוֹ [나프쇼] “그의 영혼”으로 연결되는 53:10-12(53:7-9의 종의 자발적이고 부당한 죽음에 대한 사실에 대한 설명 부분)

- 53:10b נָפְשׁוֹ [나프쇼] 여호와와의 뜻을 행하며 속건제를 드리는(53:10a-d) 종의 영혼
- 53:11b נָפְשׁוֹ [나프쇼] 수고를 통해 의를 전가하고 승리하는(53:11a-12b) 종의 영혼
- 53:12c נָפְשׁוֹ [나프쇼]: 자발적인 동일시와 중보기도하는(53:12c-f) 종의 영혼

⑦ 단락들에 걸쳐 나오는 부정어와 대명사 (소문자, 밑줄 f—g—h—o)

- f¹—f¹⁰: לֹא [로] “-아니다” 52:15cd; 53:2ccd(3번), 3d, 7be(2번), 9cd(2번)
- g¹—g³: לוֹ / לָמוֹ [로]/[라모] “그에게” 53:2c, 8d (lamo), 12a
- h¹—h⁵: הוּא [후] “그” 53:4a, 5a, 7a, 11d, 12e {cf. j (once) אֲנַחְנוּ [아나흐누] “우리”}
- o¹—o³: נָפְשׁוֹ [나프쇼] “그의 영혼”: נָפְשׁוֹ [나프쇼] “그의 영혼”

4) A-J: 단락들(I-IV) 사이에 짝으로 나오는 병행 단어들의 역순대구법 (대문자, 이탤릭체, 볼드, 프라임)

① A-B-B'-A' [마르에/토아르] “모습/모양”

- (I) 52:14bc מְרֵאָהוּ וְתֵאָרוֹ [마르에/토아르] “모습/모양”
- (II) 53:2cd לֹא-תֵאָר וְלֹא-מְרֵאָה [토아르/마르에] “모양/모습”

② C-D-D '-C ' [마흐오브/홀리] “슬픔/아픔” (아래 나오는 E-F-F '-E '와 구문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므로 예외적으로 대문자로 표시했음)

- (II) 53:3bb אֵישׁ מְכַאֲבוֹת וַיְדוּעַ הָלִי [마흐오브/홀리] “슬픔/아픔”
- (II) 53:4ab וּמְכַאֲבֵינוּ וְהָלִינוּ [홀리/마흐오브] “아픔/슬픔”

③ E-F-F '-E ' [나싸/싸발] “짊어지다/담당하다”

- (II) 53:4ab וּמְכַאֲבֵינוּ וְהָלִינוּ וְהָלִינוּ הוּא נִשָּׂא וּמְכַאֲבֵינוּ וְהָלִינוּ [나싸/싸발] “짊어지다/담당하다”
- (IV) 53:11d, 12e וְעֹנֶתֶם הוּא יִסְבֵּל... וְהָלִינוּ וְהָלִינוּ הוּא יִסְבֵּל... [싸발/나싸] “담당하다/짊어지다”

④ **G-H-H'-G'** [할랄/다카] “찌르다/부수다”

- (II) 53:5ab **מְחַלְל מְפַשְׁעוּ מְדַכָּא מְעוֹנְתִינוּ** [할랄/다카] “찌르다/부수다”
- (III) 53:10a **וַיַּחֲלֵהוּ יִסְבֹּל** [다카/할랄 < IQIsa^a] “부수다/찌르다”

⑤ **I-J-J''-I''** [페샤/아본] “범죄/죄악”

- (II) 53:5ab **I-J** **מְחַלְל מְפַשְׁעוּ מְדַכָּא מְעוֹנְתִינוּ** [페샤/아본] “범죄/죄악”
- (IV) 53:11d, 12d **J''-I''** **וְאֶת־פְּשָׁעִים נִמְנָה יִסְבֹּל . . . וְעוֹנֹתָם יִסְבֹּל** [아본/포시임] “죄악/범죄자들”
 Cf. [페샤]와 [아본]의 짝은 53:6c 의 [아본 J']과 53:8d 의 [페샤 I'] 그리고 53:12e 의 [헤트 J''(?)]와 53:12f 의 [포시임 I'']으로 두 번 더 나온다.
 ♦ 53:6c—53:8d **J'-I'** **מְפַשְׁעַע . . . עוֹן** [아본 [페샤] “죄악/범죄”
 ♦ 53:12ef **(I'')-J''** **לְפַשְׁעֵים יִפְגָּיעַ . . . חֲטָא־רַבִּים נִשָּׂא** [헤트/포시임] “죄/범죄자들”

⑥ 53:11c-12 에서는 병행 단어 **F'-E'** 와 **J''-I''** 가 떨어져서 나온다.

- **E-F-I-J[-J'-I']-J''+ F'-(t¹-t²)-I''[-(I'')]- E' [-J'']**
 - ♦ (II) **E-F** 53:4ab **סָבַלְתָּ וּמְכַאֲבִינוּ הוּא נִשָּׂא** [나싸/싸발] “짊어지다/담당하다”
 - ♦ (II) **I-J** 53:5ab **מְחַלְל מְפַשְׁעוּ מְדַכָּא מְעוֹנְתִינוּ** [페샤/아본] “범죄/죄악”
 - ♦ [J'-I'] 53:6c—53:8d **עוֹן** [아본 53:6c]—**מְפַשְׁעַע** [페샤 53:8d] “죄악/범죄”
 - ♦ (IV) **J'' + F'** 53:11d **וְעוֹנֹתָם הוּא יִסְבֹּל** [아본-싸발] “죄악-담당하다”
 - ♦ (t¹-t²) 53:12ab **אֶחָד־לָוּ רַבִּים וְאֶת־עֲצוּמִים יַחֲלֹק שָׁלַל** [할라크-할라크] “차지하다”
 - ♦ **I''** 53:12d **וְאֶת־פְּשָׁעִים נִמְנָה** [포시임] “범죄자들”
 - ♦ (I'')+ **E' + J''** 53:12ef **לְפַשְׁעֵים יִפְגָּיעַ . . . חֲטָא־רַבִּים נִשָּׂא** [헤트-나싸/포시임] “죄-짊어지다/범죄자들”

5) 단락 안의 역순대구법: (a)-(b)-(b')-(a') [소문자, 볼드이탤릭, 프라임]과 단어 반복(소문자, 윗첨자)

① **I** (52:14-15ab): 축 부분(e-e') 강조

- (a)-(b)-(c) [עַל־אֵל “대하여”]—[רַבִּים “많은”]—[כֵּן “그렇게도”]
- (d)-(e)-(e')-(d') ([메이시] 개체적 “사람”)-[마르에 “모습”]—[토아르 “모양”]-([미브네-아담] 공통적 “사람”)
- (c')-(b')-(a') [כֵּן “그렇게도”]—[רַבִּים “많은”]—[עַל “대하여”]

14 너에 대하여 [a **עַל**] 많은 [b **רַבִּים**] 사람들이. . . 경악했던 것처럼

 그렇게도 [c **כֵּן**] 한 사람으로 볼 수 없도록 [d **מְאִישׁ**] 망가졌고—

 그 모습이 [e **מְרֹאָה** < **רֹאָה**]

 그 모양이 [e' **מְרֹאָר**]

 —사람들에 속한다고 볼 수 없도록 [d' **מְבֹנֵי אָדָם**] 망가졌기 때문에

15 그렇게도 [c' **כֵּן**] 그가 많은 [b' **רַבִּים**] 민족들에게 피뻘릴 것이기 때문에

 왕들은 그에 대하여 [a' **עַל**] 그들의 입을 다물 것이다.

② II i-ii (53:1-6) : 53:1-3(II i)과 53:4-6(II ii)의 역순 대구

- (II a-II b-II c-II c'-II b'-II a'): [아도나이]—[이시]—[하샤브]—[하샤브]—[이시]—[아도나이]
 여호와[II a 53:1b הוה]는 슬픔의 사람[II b 53:3b שׂא]을 그의 구원의 팔을 계시하셨지만
 우리는 그를 귀중하게 생각하지[II c 53:3d הוה] 않았다. 실제로 우리는 그가 하나님에
 의해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II c' 53:4c הוה].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II b' 53:6b שׂא]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II a' 53:6c הוה]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다.
- C-D-D'-C': 53:3bb [마흐오브/홀리] “슬픔/아픔” vs. 53:4ab[홀리/마흐오브] “아픔/슬픔”
 53:3 의 “슬픔—아픔”이 53:4 에서 “아픔—슬픔”의 역순으로 나오는 것은 종의 고난의 실상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 변화를 강조한다. 이렇게 53:1-3 의 종의 삶과 고난에 대한 사실이 53:4-
 6 에서 설명된다.
 - ◆ D'-C' + E-F: [마흐오브/홀리] “슬픔/아픔” + [나싸/싸발] “짊어지다/담당하다”
 53:4ab הוה וּמְאֲבִיבוּ דְּבָלָם 에서 보는 것처럼 53:4 은 새로운 연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두 쌍의 병행 단어들을 사용한다. 단락 II 의 E-F(53:4ab)는 단락 IV(53:11d, 12e)에서
 떨어져서 역순으로 나온다.
 - ◆ G-H + I-J: [할랄/다카] “찌르다/부수다”—[페샤/아본] “범죄/죄악”
 53:5ab הוה מְפָשְׁעוּ מְהֻלָּל מְעֹנְתֵינוּ 에서 보는 것처럼 53:5 은 “우리” 대신 당하는 “그”의
 고난이 두 쌍의 병행 단어의 반복을 통해 강조된다. 단락 II 의 G-H(53:5ab)는 단락 III(53:10a)
 에서 나란히 역순으로 나오고, 단락 II 의 I-J(53:5ab)는 단락 II--III(56:6c, 53:8d)과 IV(53:11d,
 12d) 에서 떨어져서 역순으로 나온다.

③ II (i 53:1-3)의 단어 반복과 역순 대구

- α¹— α² : 53:1a—53:1b מי [미] “who?” 의문대명사 반복: (이스라엘의 불신 강조)
- (a)-(b)-(b')-(a'): הָבֵי ... אִישִׁים אִישִׁים ... הָבֵי [니브제-이심-이시-니브제] (이스라엘의 거부
 강조) “멀시받다—사람들—사람—멀시받다”
 - ◆ (a)-(a') : 어근 [바자]: 53:3a—53:3d הָבֵי [니브제]의 처음과 끝부분의 반복을 통한
 수미쌍관법
 - ◆ (b)-(b') : 유운을 위한 명사의 반복: 53:3a—53:3b 기대되는 복수형 אִישִׁים[아나심] 대신
 אִישִׁים[이심]이 단수 שׂא[이시] 바로 앞에 나옴

④ II ii (53:4-6)의 반복

- D'-C' + E-F : [마흐오브/홀리] “슬픔/아픔” + [나싸/싸발] “짊어지다/담당하다”
 53:4ab הוה וּמְאֲבִיבוּ דְּבָלָם 에서 보는 것처럼 53:4 은 새로운 연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두 쌍의 병행 단어들을 사용한다.
- G-H- I-J : [할랄/다카] “찌르다/부수다”—[페샤/아본] “범죄/죄악”

53:5ab מְפָשְׁעוּנוּ מְדַבְּרֵי מַעֲוֹנוֹתֵינוּ 에서 보는 것처럼 53:5 은 “우리” 대신 당하는 “그”의 고난이 두 쌍의 병행 단어의 반복을 통해 강조된다.

- ω^{1-2} : “우리” 부분의 마지막 절인 53:6 은 כָּלָנוּ [콜라누 “우리 모두” 6ac]로 시작하고 마친다.
- 죄인인 “우리”와 의로운 중 “그”의 대조⁴²
 - ◆ $h^{1-2} - j$: 자립대명사 אָנֹכִי[후 53:4a, 5a] vs. אֲנִי[아나흐누 53:4c] “그가”-“우리가”
 - ◆ ($h^{1-4}-j^{1-8}$): 접미대명사 אֲנִי/הִוא[-후/-오] vs. נָנוּ[-누] “그의”-“우리의”

⑤ III i (53:7-9)의 단어 반복

- (n^{1-3}): פִּי [피브] (그의 “입”)에 대한 언급은 7 절 자체에서 수미쌍관법을 이룰 뿐만 아니라(53:7b, 7d) 셋째 단락 첫부분(III i 53:7-9)에서도 수미쌍관법을 이루고 있다(53:7b, 9d).
- α^{1-2} : לֹא יִפְתַּח פִּי לֵא [로(k^{1-2}) 이프타흐(m^{1-2}) 피브(n^{1-2})“그가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세 단어가 7 절의 처음과 끝에 나오며 수미쌍관법을 이룬다.
- (k^{1-4}): 부정어 לֹא[로]가 7 절에 두 번 반복되고 9 절에 두 번 반복되며 종의 침묵과 종의 무죄를 강조하고 있다.

⑥ III(53:10-11b)의 역순대구: (a)-(b)-H-G-(o¹)-(p¹)-(b)-(a)-(o²)-(p²):

- (a)-(b)-(o¹)-(p¹)-(b)-(a)-(o²)-(p²): 53:10-11b 는 역순 반복과 단순 단복으로 나오는 4 단어 즉 יהוה[아도나이]-חֲפֵצַי[하페츠]-נַפְשִׁי[나프쇼]-רָאָה[라아](53:10a-c) 그리고 חֲפֵצַי[헤페츠]-יהוה[아도나이]-נַפְשִׁי[나프쇼]-רָאָה[라아] (53:10d-11b)에 의해 묶여져 있다.
- (a)-(b)-H-G-(b)-(a): 53:10 의 יהוה[(a)아도나이]-חֲפֵצַי[(b)하페츠] (“여호와”-“뜻하다, 뜻”)의 역순적 반복과 (II 53:5ab 와 역순으로 나오는) דַּכָּא[H 다카]-חָלַל[G 할랄] (“부수다”)와 “찌르다”의 병행 단어의 반복은 종의 고난이 여호와의 뜻인 것을 강조한다.
- (o¹)-(p¹)-(o²)-(p²): נַפְשִׁי[나프쇼 “그의 영혼”]와 רָאָה?[이르에 “보다”]의 단순 반복은 종의 영혼이 속건제물이 되었을 때 그가 그의 고난의 열매를 다시 보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

⑦ II-III : 단어 반복 (Cf. 구체적인 예들을 위해 앞의 논의들 참고)

- 53:1-6 과 53:7-11b 에는 14 개의 단어가 반복되어 총 40 개 단어를 이루고 있다.
- 단순한 반복, 동의적 병행 단어 반복, 재담적 단어 반복을 들면 다음과 같다.
מִי [미] “누구?” 53:1(2 번), 8; 53:1b זְרוּעַ [즈로아] 팔 vs. 53:10c זָרַע [제라] 씨; לִפְנֵי [리프네] “앞에” 53:2, 7; אֶרֶץ [에레츠] “땅” 53:2, 8; לֹא [로] “아니다” 53:2(3 번), 3, 7(2 번), 9(2 번); הוּא [후] “그” 53:4, 5, 7; רָאָה[라아] 보다 53:2d, 10c, 11a; נָגַע [나가] 53:4c, 8d // אֲנִי[아나] 53:4d, 7a; דַּכָּא/חָלַל

⁴² 영어 소문자 i[아이]와 I[엘]은 다른 문자와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았다. 영어 소문자 i(아이)는 로마 숫자 i 로 사용하였고 영어 소문자 I[엘]은 대문자 I[아이]와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 로마 숫자 I, II, III 은 Times New Roman 체를 사용하여 영어 대문자 I[아이]와 분명하게 구별했다.

[할랄/다카] //[다카 /할랄] 53:5ab, 10a; פָּשַׁע פְּשָׁע [페샤/아본] //[아본/페샤] 53:5ab, 6, 8d; לָל [알]
 “관하여, 위에” 53:1, 5, 9; יהוה [아도나이] “여호와” 53:1, 6, 10(2 번)

- (53:3 의 הָלַי [여두아 홀리] “아픔을 아는 자”와) 53:4 의 הָלַי [홀라에누] “우리의 아픔”과 53:10 의 הָלַי [헤헬리](MT) “그가 아프게 하셨다”는 모두 같은 어근에서 온 것이다. 4 절의 “그가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한 것”은 10 절의 “여호와께서 그를 부수시며 심히 아프게 하시기로 뜻하신” 결과이다.
- 53:4-6 에서 종의 고난이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받고 찢리고 부서지고 징계 받고 채찍 맞은 것”으로 표현된 것은 52:14 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없도록 망가진 모습과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도록 망가진 모양”의 확대이고 53:11a 의 가장 깊은 내면에 스며든 고통 즉 “그의 영혼의 수고”로 정리 요약된다.

⑧ IV(53:11-12): 역순대구와 단어반복을 통한 II(53:4-6)와의 연결

- 짝을 이루는 병행 단어들의 역순대구
 - ◆ E-F-F'-E' [나싸/싸발] “짊어지다/담당하다”
 - 53:4ab וּמְכַבְּרֵינוּ וְנִשְׂאָהּ הוּא הָלַי [나싸/싸발] “짊어지다/담당하다”
 - 53:11d, 12e וְעֹנֵתָם הוּא יִסְבֵּל . . . וְנִשְׂאָהּ רַבִּים [싸발/나싸] “담당하다/짊어지다”
 - ◆ I-J[-J'-I']-J''-I''[-(I''')-J'''] [페샤/아본] “범죄/죄악”
 - I-J 53:5ab מְעֹנְתֵינוּ מְדַכָּא מְפָשְׁעֵנוּ מְחַלְל [페샤/아본] “범죄/죄악”
 - J'-I' 53:6c[아본]-53:8d [페샤] “죄악/범죄”
 - J''-I'' 53:11d, 12d וְאֵת־פְּשָׁעִים נִמְנָה . . . קִבְּלָהּ [아본/포시임] “죄악/범죄자들”
 - (J''')-I''' 53:12f וְנִשְׂאָהּ . . . לְפָשְׁעִים וְפָגַיעַ [헤트/포시임] “죄/범죄자들”
 - ◆ 53:4ab 의 [나싸]-[싸발] (“짊어지다”-“담당하다”)과 53:5ab 의 [페샤<파샤]-[아본] (“범죄”-“죄악”)이 다시 53:11-12 에서 나란히는 아니지만 떨어져서 [싸발]-[나싸](53:11d “담당하다”-“53:12e 짊어지다”)와 [아본]-[포시임<파샤] (“53:11d 죄악”-“53:12d 범죄자들”)처럼 역순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종의 대속적 고난을 상기시켜주며 종의 의롭게 하는 특권과 상급이 이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혀 주기 위한 것이다.
 - ◆ (52:15a 의 “많은 민족들에게 피를 뿌림”에서 나온) 희생의 주제는 53:4-6 에서 죄를 담당하는 것(4a 아픔을 짊어짐; 4b 슬픔을 담당함), 대리적 형벌(5abcd: 찢리고 부서지고 징계 받고 채찍 맞음), 하나님과의 화목과 치유(5cd), 하나님의 죄악 떠맡기심(6c) 등으로 표현되어 있고 53:10-12 에서 반복되어 나온다. 종은 대리적 형벌(5a-d)을 위해 자신을 속건제물(10b)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10ad)을 위해 영혼의 수고(11a)를 하며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고(11d [cf. 4b])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12d [cf. 4a]),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11c),

범죄자들을 떠맡아 기도하신다(12f). 이러한 종의 사역은 여호와를 만족시켰고 온전한 상을 받는다(12ab).

- 병행 단어들이 떨어져서 나오는 순서: $E-F-I-J[-J'-I']-J''+F'-(t^1-t^2)-I''[-(J''')]-E'[-I''']$
 - ◆ $E-F$ 53:4ab $\text{וּמְכַאֲבֵינוּ וְנָשָׂא הוּא הַלְיָנוּ}$ [나싸/싸발] “짊어지다/담당하다”
 - ◆ $I-J$ 53:5ab $\text{מִפְשְׁעֵנוּ מְדַכָּא מְעֹנְתֵינוּ}$ [폐샤/아븐] “범죄/죄악”
 - ◆ $[J'-I']$ 53:6c—53:8d עֹן [아본 53:6c]— מִפְשָׁע [폐샤 53:8d] “죄악/범죄”
 - ◆ $J'' + F'$ 53:11d $\text{וְעֹנְתֶם הוּא יִסְבֹּל}$ [아븐-싸발] “죄악-담당하다”
 - ◆ (t^1-t^2) 53:12ab $\text{וְאֶת־עֲצוּמִים יִחַלֵּק שָׁלֵל}$ [할라크-할라크] “차지하다”
 - ◆ I'' 53:12d $\text{וְאֶת־פְּשָׁעִים נִמְנָה}$ [포시임] “범죄자들”
 - ◆ $(J''')+E'+I'''$ 53:12ef $\text{וּלְפִשְׁעִים פְּגִיעַ וְנָשָׂא הַטָּאֲרָקִים}$ [헤트-나싸/포시임] “죄-짊어지다/범죄자들
- ◆ 53:11-12 에서 짝을 이루는 병행단어들($J''-I''$ 와 $F'-E'$)이 바로 이어서 나란히 나오지 않고 서로 떨어져서 나오는 것은 중앙에 오는 종의 자기 희생적 죽음에 대한 상급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설명하면 [아본-싸발 $J''-F'$](53:11d “죄악” — “담당하다”)과 [포시임—나싸—포시임 $I''(-J''')-E'(-I''')$](53:12def “범죄자들” — “짊어지다”)처럼 서로 떨어져서 역순대구를 이루는 것은 틀로서 중앙에 두 번 반복되는 [할라크 (t^1-t^2)](53:12ab “차지하다”)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 (II)—(IV)의 단어 반복 (cf. 단락을 이어주는 단어들 부분 참고)

- ◆ (II) G^{1-2} —(IV) G^{3-4} : [아도나이] “여호와”
 - 여호와와 팔이(53:1b) 구원을 베풀기 위해 나타나고 여호와와 백성의 죄악을 종에게 떠맡기시고(6c), 여호와께서 종을 부수시고 찌르심(아프게 하심)은 백성의 구원을 위한 여호와와 뜻(53:10a, 10d)이었다.
- ◆ (II) N^1 —(IV) N^2 : 어근 [파가] “떠맡다”의 재담적 사용 (53:6c—53:12f)
 - 53:6의 마지막 동사 וַיִּפְגֵּעַ (53:6c [히프기아]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그에게} 떠맡기셨다”)와 53:12f의 마지막 동사 וַיִּפְגֵּעַ (53:12f [야프기아] “{그가 범죄자들을} 떠맡으며 기도한다”)는 같은 어근이다. 6 절에서 여호와와 종에게 그 백성의 죄악을 떠맡기셨고 12 절에서 종은 그 죄악을 떠맡아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므로 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6 절)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12 절)이다.

◎ IV : 53:11c-12

- $\alpha^{1-2}-\omega^{1-2}$ 단어 반복의 수미쌍관법
 - 53:11c-12 는 어근 קָדַח [차다크] (“의롭다”)의 반복으로 시작하고(53:11cc) 어근 פָּשַׁע [파샤] (“범죄하다”)의 반복으로 마친다(53:12df).

- ($q^{1-2}-r^1-s^1-t^1-r^2-t^2-u^1-s^2-r^3-u^2$) : 5 개의 단어들 곧 קָדַח[q¹⁻² 차다크]—וְרַבִּי[r¹⁻³ 라빔]—אִיִּם[s¹⁻² 후]—קָלַח[t¹⁻² 할라크]—פָּשַׁע[u¹⁻² 파사]의 반복
 - ◆ 이 반복은 종의 의인이고 그가 고난받으며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범죄자인 것을 분명하게 대조하는 효과를 준다.
 - ◆ [라빔](“많은”)이 세 번 반복된 것은 종의 성취하는 것의 범위에 주목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종의 차지가 될 것인데 그것은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이다.
- (o^{1-3}) : [나프쇼] “그의 영혼”(53:10b, 11a, 12c)으로 연결되는 53:10-12
 - ◆ 53:10a-d 에서 여호와의 뜻을 행하며 속건제를 드리는 종의 영혼(10b— o^1)
 - ◆ 53:11abcd-12ab 에서 수고를 통해 의를 전가하고 승리하는 종의 영혼(10b— o^2)
 - ◆ 53:12c-f 에서 자발적인 동일시와 중보기도하는 종의 영혼(12c— o^3)
 - ◆ 이렇게 53:7-9 의 종의 자발적이고 부당한 죽음에 대한 사실이 53:10-12 에서 설명된다.

각절 주해

첫째 연: 사 52:13-15 주해

1. 본문

מָאֵד:	גְּבֵהָ	וְנִשְׂאָ	יְרוֹם	עֲבֹדָי	יִשְׁכְּלִיל	הִנֵּה	52:13ab
		(I) B ¹		(I) A ¹	α		
	Bc10	Nc10 < נִשְׂאָ	B20 < רוֹם	mcs4 < עֲבֹדָ	H20 < שְׁכָל		
			רַבִּים	עָלֶיךָ	שְׁמָמוֹ	כְּאִשֶּׁר	52:14a
			(I) C ¹ (b)	(a)			
			mpa < רַב	+s2 < עֵל	B15 < שְׁמָמ		
אָדָם:	מִבְּנֵי	וְתֹארוֹ	מִרְאֵהוּ	מֵאִישׁ	מִשְׁחַת	כִּן	52:14bc
	(d)	B (e')	A (e)	(d)		(c)	
	mpc < מִן	mcs0+1 < מִן	mcs0 < מִרְאֵה	msa+1 < מִן	msa		
			רַבִּים	גּוֹיִם	יְנִיָּה	כִּן	52:15a
			(I) C ² (b)			(c)	
			mpa < רַב	mpa < גּוֹי	H20 < נִזְהָ		
			פִּיָּהֶם	מְלָכִים	יִקְפְּצוּ	עָלָיו	52:15b
			(I) D ¹			(a)	
			mcs5 < פִּיָּה	mpa < מְלָךְ	B25 < קִפְצָן	+s0 < עֵל	
רָאוּ	לָהֶם	סִפְרָם	לֹא־	אֲשֶׁר	כִּי		52:15c
(I) E ¹			f ¹				
B15 < רָאוּ	+s5 < לָ	Dp10 < סִפְרָם					
		הִתְבּוֹנְנוּ:	שְׁמָעוּ	לֹא־	וְאֲשֶׁר		52:15d
		ω	(I) F ¹	f ²			
		HtD15 < בֵּין	B15 < שְׁמָעוּ				

2. 본문 문제

1) 52:13

- ① 초두에 나오는 הִנֵּה의 역할은?
- ② יִשְׁכְּלִיל의 의미는 "형통하다"인가, 아니면 "슬기롭게 행하다"인가?
- ③ עֲבֹדָי에 붙어 있는 접미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2) 52:14

- ① כְּאִשֶּׁר의 역할은?
- ② כִּן의 의미는?

- ③ קָלִיָּהּ에 붙어 있는 접미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 ④ תְּאֵרוֹ를 삼상 28:14의 תְּאֵרוֹ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 ⑤ מִן־מִבְּנֵי אֲדָמַי וְתְאֵרוֹ מִן־מִבְּנֵי מִצְרָיִם의 어순이 보여주는 기교는?
- ⑥ 전치사 מִן의 의미는 비교(comparative)인가 분리(separative)인가?
- ⑦ מִן־מִבְּנֵי אֲדָמַי와 מִן־מִבְּנֵי מִצְרָיִם의 차이는?

3) 52:15

- ① מִן의 의미는?
- ② מִן의 어근과 의미는?
- ③ 14 절의 קָלִיָּהּ(2 인칭 접미대명사)가 15 절에서 קָלִיָּהּ(3 인칭 접미대명사)로 변한 이유는?
- ④ מִן의 용법은?
- ⑤ 두 번 사용된 מִן의 용법은 영어의 관계사 what 와 같은가? 아니면 which 와 같은가?

3. 번역

사 52:13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cf. 52:3, 5)]

“보라! 나의 종이 슬기롭게 행할 것이니
높아지고 받들어지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14 많은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그렇게도 한 사람으로 볼 수 없도록 그 모습이 망가졌고
 그 모양이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도록 망가졌기 때문에
경악했던 것처럼

15 왕들은 그에 대하여

 그렇게도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피뿔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다물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야기된 적이 없는 것을 볼 것이고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4. 문학적 분석 (52:13-15)

1) Motyer(425)는 종의 독특한 승귀와 독특한 비하에 대한 독특한 주제를 다루는 수수께끼 부분(52:13-15)을 종의 승귀에 대한 여호와의 증언(13 절)과 종의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묘사(14-15 절)로 나누고 묘사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였다.

A¹ Enigma: exaltation and humiliation (52:13-15) 수수께끼: 승귀와 비하

The Lord's testimony to his Servant (13) merging (14) into a description of the Servant's suffering and of reactions to it 여호와의 종에 대한 증언과 종의 고난과 반응에 대한 묘사

A¹ A reaction of revulsion (14a) 혐오의 반응

B¹ Appearance so marred (14b) 심히 망가진 모습

[마르에 “모습”]—[토아르 “모양”] x-x’

[켄 “그렇게도”]—[라빔 “많은”]—[알 “대하여”] c’-b’-a’

③ 52:15cd 의 이유를 설명하는 절에서 [아세르]와 [로]의 반복은 결론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의 망가진 모습(x מַשְׁׁמָה 마르에 < הָאֵרָא 라아) 때문에 처음에는 오해했을지라도 결국 그들이 종의 대속적 고난을 보고(הָאֵרָא 라아) 인정하고 이해하게 된 것을 강조한다.

3) 레인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을 묘사하는 막 9:2-8 이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을 다루는 막 14:1-16:8 의 서론인 것처럼 52:13-15 이 53:1-12 의 서론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⁴³

사 52:13 주해

52:13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cf. 52:3, 5)] “보라! 나의 종이 슬기롭게 행(하여 사명을 완수)할 것이니 높아지고 받들어[올려]지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1. 이사야 52 장은 여호와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것을 먼저 언급한 후(52:1-12) 그 구원을 위해 일하실 여호와와의 종의 대리적 고난과 승귀를 언급한다(52:13-15). 장절 구분에 있어서 52:13-15 이 네 번째 종의 노래의 서론으로서 53:1-12 과 함께 가도록 구분했어야 했다는 것은 학자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이다.⁴⁴

2. 첫 번째 종의 노래(사 42:1-4)가 “אֲבַדְדִּי[아브디] 나의 종”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는 불변화사 הֵן[헨] “보라!”로 시작하듯이 네 번째 종의 노래(52:13-53:12)도 “אֲבַדְדִּי[아브디] 나의 종”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הֵן[히네] 보라!”로 시작한다. [히네]는 3 중 역할을 하고 있다.⁴⁵

1) 네 번째 종의 노래는 [히네 야스킬 아브디 (“보라, 나의 종이 슬기롭게 행할 것이다.”)]로 시작함으로써(52:13) [헨 아브디 (“보라, 나의 종을!”)]로 시작된(42:1) 종에 관한 계시의 절정에 들어서도록 인도한다. 사 42:1 과 52:13 사이에서도 이 종에게 “나의 종”(사 49:3, 6) 그리고 “그(=여호와)의 종”(49:5; 50:10)이란 칭호가 사용된다.

2) [히네]는 51:1-52:12 에서 시온 중심적이고 온 세상적이고 의로운 구원에 대한 약속을 “들으라”는 세 개의 명령(51:1-8)과 그 구원의 복들 곧 “깨고 깨어서” 분노의 잔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복, “깨고 깨어서” 시온이 속량되며 여호와께서 시온에 친히 임하시는 복, “떠나고 떠나서” 출바벨론하는 복 등을 체험하라는 세 개의 명령(51:17-52:12)을 결론지으며 종이 예언된 구원의 모든 복들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

3) [히네]는 52:6 의 [히네니](“Behold me! = “Yes, It is I.”)와 문맥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준다. 52:6 에서 여호와는 백성을 위한 행동을 하시며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신다. 이어서 여호와

⁴³ William L. Lane,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74), 316.

⁴⁴ Oswalt, *Isaiah 40-66*, 376 n. 69.

⁴⁵ Motyer, *Isaiah*, 424.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며 구원을 보게 하시며(52:10) 시온으로 돌아오실 것이다(52:8). 이러한 약속들을 이루는 수단은 종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보라, 나의 종!”이라고 하시며 그의 종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신다.

3. 네 번째 노래에서도 “אֲבִדְךָ[아브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와 자신에게 속하고 자신을 위해 일하는 그 종을 소개하고 그의 정체성을 밝히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종”은 여호와께 속한 자이고 여호와를 위해 일하는 종이다.

4. “나의 종”이 언급되기 전에 나오는 동사 אֲשַׁכֵּל[야스킬]은 개역/개역개정처럼 “형통할 것이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즐거롭게 행할 것이다, 지혜롭게 일할 것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Alexander, Young, Motyer).⁴⁶

1) 어근 [싸할]의 히브일 어간 [야스킬](52:13a)을 지혜 용어(“그가 즐거롭게 행할 것이다.”)로 보면 52:15 의 마지막 단어 [히트보나누]도 어근 [빈]의 히파엘 어간으로 지혜 용어(“그들이 깨달을 것이다.”)와 함께 첫째 연의 수미쌍관법을 이루고, 53:11 의 어근 [야다]에서 온 명사 [다아트] “지식”과도 연관이 있다. 네 번째 종의 노래에 나오는 첫 번째 동사 [야스킬]은 종이 신중하고 즐거롭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나타내며 그로 인해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이사야처럼 예레미야도 다윗의 의로운 가지에 대하여 말하며 [야스킬]을 사용한다.⁴⁷ 예레미야의 다윗의 의로운 가지(렘 23:5)와 이사야의 종(사 42:1-4)은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베풀 것이다.

2)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그 종은 가장 좋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고(42:1; 49:2-3; 50:7-9) 성공을 거둘 것이다.⁴⁸ 종의 지혜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⁴⁶ Motyer(*Isaiah*, 424)에 의하면 D. J. A. Clines(*I, He, We and they: A Literary Approach to Isaiah 53, JSOTS*, 1 [1976], 11)는 “See, my servant: his wisdom prospers 보라, 나의 종을! 그의 지혜가 성공한다.”라고 번역한다. Oswalt(*Isaiah 40-66*, 373)는 “Behold, my servant will accomplish his purpose 보라, 나의 종이 그의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라고 번역하였다. Cf. Gary Smith(*Isaiah 40-66*, 435)는 [싸할]이 지혜 문헌에서는 “지혜롭게 행하다”를 나타내지만 비 지혜 문헌에서는 “형통하다, 성공하다”를 나타내는데, 사 52:13 의 경우는 비 지혜 문헌에 나오는 여호수아(수 1:7-8)와 다윗(삼상 18:5, 14)과 솔로몬(왕상 2:3)과 히스기야(왕하 18:7)처럼 그의 통찰과 지혜로 인해 성공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지혜 문헌과 비 지혜 문헌으로 나누는 것보다 어떤 문헌이든 그 문맥에 맞는 의미를 찾는 것이 보다 다 바른 석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⁴⁷ [렘 23:5-6] 5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צִדִּיק וְיִמְחַ)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וְיִמְלֶה וְיִמְלֶה ESV: and he shall reign as king and deal wisely; NASB: And He will reign as king and act wisely; 직역: 그가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고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Cf. [렘 10:23] 21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וְהִשְׁכִּילוּ 대부분 영어 성경들도 prosper 로 번역함) 그 모든 양 떼는 흩어졌도다

⁴⁸ 이 동사는 지도자들(수 1:7, 8; 삼상 18:5, 30)과 왕들(왕상 2:3)에 대해 사용되었는데 개역 개정은 어떤 경우에는 “형통하다(수 1:7-8; 왕상 2:3)”로 번역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혜롭게 행하다(삼상 18:5, 30)”라고 번역하였다. NASB 는

삼상 18:30 만 “지혜롭게 행하다”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성공하다, 형통하다”로 번역했다. ESV 는 모두 “성공하다, 형통하다”로 번역했다. DRB(Douay-Rheims Bible)와 YLT(Young's Literal Translation)는 모두 “지혜롭게 행하다”로 번역했다.

[수 1:7-8] 7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לְמַעַן תִּשְׁכִּיל בְּכֹל אֲשֶׁר תִּלְךָ) 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כִּי-אֵז תִּצְלִיחַ אֶת-דְּרָכְךָ וְאֵז תִּשְׁכִּיל)

Cf. DRB: 7 turn not from it to the right hand or to the left, that thou mayst understand all things which thou dost. 8 . . . then shalt thou direct thy way, and understand it.

YLT: so that thou dost act wisely in every place whither thou goest; 8 . . . for then thou dost cause thy way to prosper, and then thou dost act wisely.

NASB: 7 Then you will be successful in everything you do. 8 . . . for then you will make your way prosperous, and then you will have success.

ESV: 7 that you may have good success wherever you go. 8 . . . For then you will make your way prosperous, and then you will have good success.

[왕상 2:3]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들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לְמַעַן תִּשְׁכִּיל אֶת-כָּל-אֲשֶׁר תַּעֲשֶׂה וְאֵת מֹשֶׁה וְאֵת מִצְוֹתָיו וְאֵת כָּל-הַחֻמֹּת וְהַבְּרָיִם וְהַשְּׁפָטִים וְהַמִּשְׁפָּטִים וְהַמִּשְׁפָּטִים וְהַמִּשְׁפָּטִים)

Cf. DRB: that thou mayest understand all thou dost, and whithersoever thou shalt turn thyself :

YLT: so that thou dost wisely all that thou dost, and whithersoever thou turnest,

NASB: that you may succeed in all that you do and wherever you turn,

ESV: that you may prosper in all that you do and wherever you turn,

[삼상 18:5, 30] 5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וַיֵּצֵא דָוִד בְּכֹל אֲשֶׁר יִשְׁלְחֵנוּ שָׂאוּל וְיִשְׁכִּיל)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함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함당히 여겼더라 . . . 30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Cf. DRB: 5 And David went out to whatsoever business Saul sent him, and he behaved himself prudently: . . . 30 . . . David behaved himself more wisely than all the servants of Saul.

YLT: 5 And David goeth out whithersoever Saul doth send him; he acted wisely, . . . 30 . . . David hath acted more wisely than any of the servants of Saul.

NASB: 5 So David went out wherever Saul sent him, and prospered; . . . 30 . . . that David behaved himself more wisely than all the servants of Saul.

ESV: 5 And David went out and was successful wherever Saul sent him, . . . 30 . . . David had more success than all the servants of Saul.

TWOT 2263 는 이 동사의 분사형이 “지혜로운 자, 지각 있는 자”를 언급하는데 사용된 것(잠 19:14; 암 5:13; 시 14:2)을 지적하며 사 52:13 의 경우도 지혜롭게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잠 19:14]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즐기로운 아내(אִשָּׁה מְשֻׁקֶּטֶת)**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암 5:12-13] (12)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13)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הַמְשֻׁקֶּיל)**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목적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전례가 없는 고난의 짐을(사 52:14; 53:4-9; cf. 사 49:4; 50:6) 기꺼이 짊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⁴⁹

3) 이렇게 네 번째 종의 노래 서두에 종의 슬기로운 일 처리 즉 사명 성취에 있어서의 성공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뒤 따르는 절들에서 종이 사람들에게 의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 자로 간주되고 지혜로운 일처리를 통한 사명 완수라는 사상이 사 53:10 에 이르기까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5. 본 절의 하반절의 세 동사(הָרָם וְנִשָּׂא וְנִבְּרַח) [아름 브니싸 브가바흐]는 그 종의 지혜로운 행동의 결과들을 개진하고 있다.

1) 첫 번째 동사 [아름]은 어근 [룸]의 파알 어간으로 “높다, 높아지다, 일어나다” 등의 뜻을 갖는다. BDB 에 의하면 파알 어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비유적으로 높임을 받다(be exalted)는 뜻으로 사 30:12; 삼하 22:47=시 18:47; 시 21:14[한글 13]; 46:11(한글 10; 두 번 사용); 57:6, 12[한글 5, 11]; 108:6[한 5]에 사용되었다. 영(*Isaiah 53, 11*)은 [아름]을 “He will arise. 그는 일어날 것이다” 혹은 “He will become manifest as exalted. 그는 높아진 자로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 두 번째 동사 [니싸]는 어근 [나싸]의 니프알 어간 바브 계속법 완료이다. KB 에 의하면 니프알 어간 정형동사로 “올려지다 be elevated”는 의미로 민 24:7; 대상 14:2; 사 2:2; 미 4:1; 사 52:13; 렘 51:9 등에 나오고, 분사로 사 2:12, 14; 30:24; 57:7 등에 나온다. 영(*Isaiah 53, 11*)은 [니싸]가 재귀의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He will raise himself. 그는 자신을 들어올릴 것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3) 세 번째 동사 הָרָם[가바흐]는 상태 동사이며 의미를 강조하는 부사(הַרְבֵּה[무오드] “심히, 지극히, 매우”)의 수식을 받고 있다. BDB 는 [가바흐]가 욥 36:7 에서 사람에게 대하여, 사 5:16 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사 55:9 에서 하나님의 길들에 대하여 사용된 것을 싣고 “be exalted 고귀하게 되다, 존귀하게 되다”라고 번역한다. 영(*Isaiah 53, 11*)은 [가바흐]가 “He will be very high. 그는 매우 높을 것이다”라고 하는 상태를 표현하며 승귀의 최종점을 개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시 14:2-3] (2)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לְרֹאוֹת הַיֵּשׁ מִשְׁכִּיל דֵּרַשׁ אֶת־אֱלֹהִים) (3)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참고: 시편의 유형을 나타내기 위해 [마스길]은 시편의 표제로 13 회(시 32; 42; 44-45; 52-55; 74; 78; 88-89; 142) 사용되었고 시 47:7[MT 8]에 한 번 사용되었다. “אֲשַׁכֵּילָךְ | וְאֹרְךָ בְּדֶרֶךְ־זוֹ תִלְךָ אֶיְעָצָה עָלֶיךָ עֵינֵי”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라는 시 32:8 에 비추어 표제에 나오는 [마스길]은 교훈을 목적으로 하는 시에 대한 문학적 지칭으로 “지혜시, 교훈시, 명상시”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⁴⁹ Geoffrey W. Grogan, “Isaiah” in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6 Revised* (Zondervan, 2008), 798.

4) 첫 두 동사의 어근 רוּם[룸]과 אָשַׁב[나싸]의 결합은 구약의 다른 책에 나오지 않으며 이사야에만 본절을 포함하여 4 번 나오고 본절을 제외한 나머지 세 절(6:1; 33:10; 57:15)에서 모두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⁵⁰ 이사야는 2:6-22 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인간을 낮아지게 하시며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וְהָיָה לְבָדוֹת יְהוָה וְנִשְׁגַּב יְהוָה cf. 사 33:5; [하나님의 이름] 사 12:4; 시 148:13) 것을 언급하며 사람에게 세 어근 הִגְבַּח[가바흐](2:11, 17)와 רוּם[룸](2:11, 12, 17)과 אָשַׁב[나싸](2:12)를 적용한다.⁵¹

5) 본 절의 세 동사에 대한 영어 번역들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NIV (/Motyer): he will be raised and lifted up and highly exalted.

NKJV: He shall be exalted and extolled and be very high.

RSV: he shall be exalted and lifted up, and shall be very high.

ESV: he shall be high and lifted up, and shall be exalted.

NASB (/Oswalt): He will be high and lifted up, and greatly exalted.

Young (/Alexander): he will rise and be exalted and be high exceedingly.

6) 첫 번째 동사 [야룸]은 “그가 높아질 것이다/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동사 [브니싸]는 “그리고 그가 올려질 것이다/받들릴 것이다/받들어질 것이다,” 세 번째 동사 [브가바흐]와 부사 [므오드]는 “그리고 그가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6. 여호와와 그의 종은 그가 지혜롭게 일한 필연적인 결과로 인해 **높아지고 받들어지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⁵⁰ [사 6:1] 웃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보좌에(עַל-כִּסֵּא רִם וְנִשָּׂא)** 앉으셨는데 그 웃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 33: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עֲתֵה אֲרוֹמִים עֲתֵה אֲנִישָׂא)**

[사 57:15] 지극히 존귀하며[개역: **지존무상하며(רִם וְנִשָּׂא)**]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시키려 함이라

⁵¹ [사 2:11, 12, 17] 11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וְהָיָה לְבָדוֹת יְהוָה וְנִשְׁגַּב יְהוָה לְבָדוֹת יְהוָה וְנִשְׁגַּב יְהוָה) ESV: The haughty looks of man shall be brought low, and the lofty pride of men shall be humbled, and the LORD alone will be exalted in that day) 12 대저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וְעַל כָּל-נִשְׂאָ וְעַל כָּל-גִּבּוֹרִים יְהוָה יִשְׁפֹּל) ESV: For the LORD of hosts has a day against all that is proud and lofty, against all that is lifted up—and it shall be brought low;). . . 17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וְהָיָה לְבָדוֹת יְהוָה וְנִשְׁגַּב יְהוָה לְבָדוֹת יְהוָה וְנִשְׁגַּב יְהוָה) ESV: And the haughtiness of man shall be humbled, and the lofty pride of men shall be brought low, and the LORD alone will be exalted in that day.)

- 1) 종의 승귀에 대한 주제는 두 번째 노래와 세 번째 노래의 끝 무렵에(49:7b; 50:8-9) 나온다. 종의 지극한 승귀는 사 9:1-7 과 42:1-4 에 묘사된 왕적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Smith, 436).
- 2) 영(336)에 의하면 종은 비하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설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일으켜 눈에 드러날 것이며, 모든 것 위에 높이 들려 승귀된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빌 2:9-11 과 행 2:33; 3:13 에 묘사된 그리스도의 승귀를 연상하도록 해 준다.
- 3) 모티어(424)는 이 세 동사의 묘사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심을 생각나게 해 준다면서 구체적인 승귀의 단계와 연관지었다. 그러나 영(336)이 설명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귀의 실제적인 상세한 과정을 예언하려는 것이 아니고 종의 모습을 언급하며 그 종에게 임할 완전한 승귀를 힘있게 강조하려는 데 있었다. 인간의 나라가 망하고 벨이 었드러지고 느보가 구부러지는 가운데 우상들이 멸망하는(사 46:1-2) 것과는 대조적으로 구속받은 인류의 통치자인 그 종은 높이 받들어 올려지실 것이다. 세 개의 동사가 결합되며 표현된 것처럼 완전하고도 지극한 승귀가 그 종에게 올 것이다. 세 동사의 결합은 가장 깊게 고난을 당했던 종이 이제 다른 모든 것보다 높이진 승귀의 최고봉에 이른 것을 표현하고 있다.
- 4) 종의 이러한 승귀는 종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선지자들이나 혹은 어떤 다른 인물도 여기 여호와와 종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처신하여 그 결과로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지는 것으로 묘사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약속된 구원을 그의 백성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인물은 이상적인 개인으로서 제이 모세이고 신약에서 해를 당하고 영광 가운데 들어갈 메시아 곧 그리스도뿐이다. 행 3:13 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베드로의 말은 사 52:13 의 “나의 종”과 종의 승귀를 암시한다. 행 4:27 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과 행 4:30 의 “**거룩한 종 예수**”는 사 52:13 과 사 53:11 에서 여호와께서 언급하신 “나의 종”을 암시한다.

사 52:14-15 주해

- 52:14** 많은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경악했던 것은(רָשְׁעִים[카아세르] 14a)
 —그렇게도(יָדָע[켄] 14b) 한 사람으로 볼 수 없도록 그의 모습이 망가졌고
 그의 모양이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도록 망가졌기 때문인—것처럼(14c)
- 15** —그렇게도(יָדָע[켄] 15a)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피를] 뿌릴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왕들이 [경탄하며] 그들의 입을 다물 것이다(15b).
 이는 그들이 (그들에게) 이야기된 적이 없는 것을 볼 것이고(15c)
 (그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15d).

1. 선지자는 종의 영광스러운 승귀에 대한 여호와와의 증언(13 절)을 소개하고 바로 이어서 종의 깊은 비하에 대한 묘사(14-15 절)를 하고 있다. 종의 승귀와 영광이 가장 높고 높은 것이듯이 종의 고난과 비하는 가장 깊고 깊은 것이었다. 그 종의 고난과 비하에 대한 묵상은 자칫 그 종이 자기의 죄로 인해

고난 당하고 그 형벌로 인해 파멸 당한 것으로 잘못 인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종의 고난과 비하의 묘사 전에 여호와와는 13 절에서 그의 증언을 통해 그 종의 영광스러운 승귀를 강조하셨던 것이다.

2. 52:14-15 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구문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접속사 **כַּאֲשֶׁר**[카아세르]가 인도하는 비교의 전제절(protasis of comparison)은 **“많은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경악했던 것처럼(14a)”**이고 이에 상응하는 귀결절은 위의 번역에서 대시(dash)에 의해 구별되는 삽입절(14b-c; 15a) 다음에 나오는 **“그에 대하여 왕들이 [경탄하며] 그들의 입을 다물 것이다(15b)”**이다. 비교의 전제절 14a 와 귀결절 15b 사이에 긴 삽입절들이 없었다면 보통의 경우처럼 귀결절인 15b 앞에 **כִּן**[켄]이 왔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접속사 **כַּאֲשֶׁר**[카아세르]가 인도하는 부사절 다음에 나오는 귀결절(apodosis)은 그 앞에 **כִּן**[켄]을 자주 가지며(*GKC* 161b) 이럴 경우 상관접속사 “... **כִּן** ... **כַּאֲשֶׁר** [카아세르 ... 켄]”은 영어의 “just as ~ so ~”와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삽입절 14b-c 와 15a 앞에 나오는 **כִּן**[켄]은 둘 다 14a 의 접속사 **כַּאֲשֶׁר**[카아세르]와 상관된 것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그토록, 그렇게도”라는 강조의 의미를 지닌 부사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삽입절 14b-c 앞에 오는 **כִּן**[켄]은 상관접속사가 아니라 부사로서 종의 몰골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사나운 것을 강조하고 있고, 삽입절 15a 의 **כִּן**[켄]도 부사로서 그렇게 사나운 몰골의 실상이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많은 민족들에게 뿌리고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2) 강조의 부사 **כִּן**[켄]이 인도하는 삽입절들을 빼고 읽으면 14 절의 많은 사람들의 경악을 언급하는 절(14a)과 15 절의 왕들의 경탄을 언급하는 절(15b)이 각각 전제절과 귀결절로서 경악의 반응과 경탄의 반응을 대조하여 보여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⁵² 종의 사역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며 놀라움을 표시한 것처럼(14a 전제절) 왕들은 경탄하며 놀라움을 표시하였다(15b 귀결절). 많은 사람들의 경악(14a 전제절)은 종의 사나운 몰골(14b-c 삽입절)만 보고 그 의미를 전혀 모른데서 나온 반응인 반면 15 절의 왕들의 경탄(15b 귀결절)은 종의 피뿌림(15a 삽입절)의 의미를 알고 보인 반응이다.
- 3) 종을 가리키는 대명사에 유의하면 전제절(14a)에서 많은 사람들이 **“אֲלֵהָא [알레하] 너에 대하여”** 경악했지만 귀결절(15b)에서 왕들이 **“אֲלָבִי [알라브] 그에 대하여”** 경탄하며 입을 다물었다고 되어

⁵² Smith(*Isaiah 40-66*, 438 n. 336)가 [카아세르]와 [켄]이 영어의 “just as ~ so ~”와 같은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많은 사람과 왕들의 대조를 생각하며 [카아세르]와 두 번째 [켄]을 출 1:12(**וַיִּפְרֹץ! וַיִּבְרַח! וַיִּבְרַח! וַיִּבְרַח! וַיִּבְרַח! וַיִּבְרַח! וַיִּבְרַח! וַיִּבְרַח! וַיִּבְרַח! וַיִּבְרַח!** ESV: But the more they were oppressed, the more they multiplied and the more they spread abroad.)의 구문과 비슷하다면서 역접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은 참고할 만하다. Smith 는 52:14-15 을 “Just as there are many who were appalled at him, even so (a continuous comparison) the disfigurement of his appearance was from man, but so (a constrative comparison) he will sprinkle may nations and kings will shut their mouths because of him.”라고 번역한다.

있다. 이처럼 시나 예언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인칭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⁵³ 14 절의 2 인칭 접미대명사가 15 절에서 3 인칭 접미대명사로 바뀐 것은 14 절과 15 절의 비교 대조하는 전제절(14a)과 귀결절(15b) 중간에 삽입된 절들(14b-c; 15a)에 종이 3 인칭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3. 고난 받는 종을 보고 **많은 사람이 경악하였다**. “**경악하였다**”라는 동사 **נִמְשָׁה**[사멤]은 심판을 당한 대상을 보고(전치사 **לְ**[알]) 질리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두려워 떠는 것을 나타낸다.⁵⁴ 에스겔 27:35 은 **נִמְשָׁה**[사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된 성읍 두로 소식을 듣고 섬에 사는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삽입절에 묘사된 대로 두려울 정도로 망가진 종의 물골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종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로 간주하고서 충격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과** 한 개인으로서 여호와와 종 **너** 사이의 대조(즉 many 와 one 의 대조)는 메시아 예언들에 자주 나오는 특징이다. 자기 백성을 위해 고난 당하는 종(one)과 그 종의 고난을 오해하는 많은 사람(many)이 대조되어 있다.
4. **많은 사람들이 너(=여호와와의 종)에 대하여 경악했던** 이유는 첫 번째 삽입절 곧 **그렇게도 하나의 사람으로 볼 수 없도록 그의 모습이 망가졌고 그의 모양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도록 망가졌기 때문**이라는 절에 의해 밝혀진다. 이 삽입절에서 “그의 모양”을 뜻하는 **תִּצְלוֹתָ**[토아로]는 삼상 28:14 에 나오는 **תִּצְלוֹתָ**[토오로]와 달리 약센트의 영향으로 원래의 단모음 우(u)가 장모음 오(o)로 길어진 것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GKC* 93q; *GBH* 96A)). 그리고 “볼꼴 사나움, 미관손상 disfigurement”을 뜻하는 명사 **מִשְׁחָת**[미시하트]가 한 번만 쓰였으나 뒤따르는 두 절의 보어로서 이중 역할(double-duty)을 한다. 보어를 공통으로 갖는 두 절의 주어와 전명구는 다음과 같이 역순대구(chiasmus)를 이루고 있다.

מִיֵּשֶׁב	וְתִצְלוֹתָ	מִצְלוֹתָ	מֵאִישׁ	מִשְׁחָת	כִּןֹּן
A'(전명구)	B'(주어)	B(주어)	A(전명구)	보어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의 모양 이	그의 모습 이	한 사람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그렇게도

5. 이 삽입절의 첫째 병행구 **한 사람으로 볼 수 없도록 그의 모습이 망가졌다**는 것은 그 망가짐이 너무나 커서 그의 모습이 더 이상 하나의 인간, 하나의 사람, 한 개인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⁵³ Smith(*Isaiah 40-66*, 436 n. 325)에 의하면 맛소라 본문과 칠십인역과 사해 사본은 2 인칭 [알레하]로 읽지만 타르굼역과 페시타역과 두 개의 히브리어 사본은 3 인칭 [알라브]로 읽는다. Muilenburg 와 Blenkinsopp 은 3 인칭으로 정정하지만 오스왈트는 이 정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인칭 [알레하]로 읽는 더 어려운 독법이 선호된다. 그리고 *GKC* 144p 에 의하면 2 인칭에서 3 인칭으로 바뀌는 경우를 창 49:4(?); 사 31:6(?); 42:20; 52:14; 61:7; 말 2:15; 시 22:9 등에서 볼 수 있고 3 인칭에서 2 인칭으로 바뀐 경우를 신 32:15; 사 1:29; 5:8; 렘 29:19; 욥 16:7 등에서 볼 수 있고 1 인칭에서 3 인칭으로 바뀐 경우를 애 3:1(관계절 안에서), 사 22:19 등에서 볼 수 있다.

⁵⁴ *BDB*, 1031: 레 26:32; 렘 2:12; 겔 26:16; 27:35; 28:19; 사 52:14; 욥 17:3

그리고 둘째 병행구 그의 모양이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도록 망가졌다는 것은 그가 너무나 망가져서 더 이상 그에게서 인간을 닮은 모양을 찾아볼 수 없고 더 이상 사람에 속한다고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절은 종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종이 받은 극심한 고난은 그를 한 사람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하였다.

6. 이상과 같은 삽입절의 의미를 얻는데 필요한 두 가지 고려 사항은 병행되는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들의 차이점과 그 앞에 붙어 있는 전치사의 의미이다.

1) 종의 고난의 심각함을 말할 때 사용된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는 첫째 병행구에서 사람(שָׂרָא[이시])이 사용되고 둘째 병행구에서 사람의 아들들(בְּנֵי אָדָם [브네 아담])이 사용되었다.

① 영(Young, 337)은 שָׂרָא[이시]가 상류 계층의 사람을 가리키고 בְּנֵי אָדָם [브네 아담]이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② 모티어(Motyer, 425)는 שָׂרָא[이시]가 인간의 개체성(individuality)을 가리키고 בְּנֵי אָדָם [브네 아담]이 공통된 인간성(common humanity)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모티어의 해석이 영의 해석보다 더 나아 보인다.

2) 인간의 개체성과 공통성을 나타내는 사람과 사람의 아들들이란 단어 앞에 붙어 있는 전치사 לְ[민]은 개역개정이 채택한 비교(comparative)의 의미가 아니라 분리(separative)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Oswalt, 373 n. 55).

① 모티어(425)는 종이 어느 다른 인간이다 다른 인간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이 “한 개인이 되는 것으로부터(from [being] an individual) . . . 그리고 인간에 속하는 것으로부터(from [belonging with] humankind)” 분리되는 몰골 사나움(disfigurement)을 겪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종의 몰골 사나움을 보고 “Is this the Servant? 이것이 종이냐? 혹은 이런 자가 종이란 말이나?”라고 물을 뿐만 아니라 “Is this human? 이것이 사람이나? 혹은 이런 자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며 경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② 그렇다면 선지자 이사야가 묘사하는 것은 종이 어느 다른 개인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고난을 더 많이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도저히 사람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다. 한 인간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종의 모습이 망가졌고 종의 모양이 도저히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종을 보고 뒤로 물러서며 경악하였던 것이다.

7. 52:14 에서 모습—모양[마르에]—[토아르]의 순서로 나오는 것이 나중에 53:2 에서 역으로 (고운)모양—모습([토아르]—[마르에])의 순서로 나온다. 개역개정은 52:14 을 “모양-모습”으로 번역하고 53:2 을 “모양-아름다운 것”으로 번역함으로써 두 단어가 역순으로 사용된 것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을 비교해 보라.

- 1) [개역개정] 52:14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 . . 53:2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흙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 2) [번역] 52:14 많은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그렇게도 한 사람으로 볼 수 없도록 그 **모습**이 망가졌고 그 **모양**이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도록 망가졌기 때문에 경악했던 것처럼 . . . 53:2 그는 그의 앞에서 결순처럼 자라났고 마른 땅에서 돋아난 햇순처럼 자라났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늪늪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볼 때 흙모할만한 멋진 **모습**도 없었다.
8. 사 52:15 를 시작하는 두 번째 삽입절은 14 절의 첫 번째 삽입절에 묘사된 종의 몰골 사나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한 인간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도저히 인간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망가지는 고난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은 종이 **많은 민족들에게 [피를] 뿌리는 것이었다**. 뿌리는 것은 고난 자체보다는 고난의 결과와 관련이 있다.⁵⁵ “그가 뿌릴 것이다”라는 동사 𐤏𐤍[야제]의 어근은 𐤏𐤍[나자]이다.
- 1) 이 어근의 사역 어간 의미에 대하여 *BDB*(633)는 “sprinkle 뿌리다”와 “cause to leap, startle 놀라게 하다”라는 두 가지를 싣고 사 52:15 의 경우 “놀라게 하다”를 택하였다. 그러나 *KB*(683)는 “뿌리다” 하나만 실었다.
- 2) 맛소라 본문(MT)과 벌게이트역(Vulgate: iste asperget gentes multas = He shall sprinkle many nations)은 “뿌리다 sprinkle”로 읽고, 페시타역(Peshitta)은 “깨끗하게 하다 purify”로 읽고, 칠십인역(LXX: οὕτω θαυμάσονται ἔθνη πολλὰ ἐπ’ αὐτῷ = Thus shall many nations wonder at him)은 “놀라다 wonder at, be amazed”로 읽고, 타르굼역(Targum)은 “흩뿌리다 scatter”로 읽었다(Oswalt, 374 n. 56).
- 3) 오스왈트(374 n. 56)는 맛소라 본문의 경우 14 절과 15 절의 병행법을 고려할 때 “뿌리다”와 함께 갈 단어가 없고 뿌리는 대상 앞에 전치사 𐤍[알]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병행법을 고려하며 아랍어 어근과 관련지어 “놀라게 하다”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영(336-338)처럼 많은 사람이 경악한 것과 왕들이 입을 다문 것을 병행으로 보고 그 중간에 삽입된 종이 상한 것과 종이 뿌리는 것을 병행으로 보면 오스왈트가 제기한 병행의 문제는 없어진다.
- 4) 모티어(425-426)는 둘 모두 문제가 있으나 “뿌리다”로 보는 쪽이 문제가 더 적다고 하였다. 그는 “놀라게 하다”를 택하면 아랍어 어근이 “뛰게 하다”의 의미일 뿐 “놀라게 하다”는 감정까지 표현하지는 않는 것이 문제이고, “뿌리다”를 택하면 구약에서 “뿌리다”의 의미로 쓰인 경우 22 번 모두 직접목적어로 액체가 나오는 것과 달리 액체의 뿌림의 대상이 되는 **많은 민족들** 앞에 전치사가

⁵⁵ Grogan, *Isaiah* REBC 6, 799.

없고 많은 민족들이 직접 목적어처럼 쓰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모티어(426 n. 3)는 창 19:13, 27; 33:18 에서처럼 관용적으로 אֶת־פְּנֵי[에트-프네]가 레 4:16-17 에서 “-앞에”라는 의미의 전치사로 쓰이기는 했지만 이 경우 직접목적어 즉 “-앞을”의 의미로 볼 소지도 있다면서 사 52:15 을 직접 목적어를 가진 드문 경우로 취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종의 죽음을 제의적으로 해석하는 53:10-12 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뿌리다”가 선호할만하다고 주장하였다.

5) “뿌리다”라는 동사는 모세 율법에서 씻거나 정화시킬 때 피나 기름이나 물을 뿌리는 데 나오는 전문용어이다.⁵⁶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피와 기름을 뿌렸고([나자] 출 29:21; 레 8:30) 레위인들에게 물을 뿌렸다(레 8:7). 출 24 장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자라크],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고 말했다. 52:15 은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⁵⁷

6) 본 주해는 אָרַךְ[야제]를 “그가 뿌릴 것이다”로 번역하였다.

9. 정말로 하나의 사람으로 볼 수 없을 만큼 그의 모습이 망가졌고 그의 모양이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자로서 **그 종은** 제의적 청결을 얻도록 그의 피를 **많은 민족들에게 뿌릴 것이다.** 종의 상함은 자신의 죄로 인한 징벌로 오해되었으나 사실은 종이 많은 민족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 놓을 때 생긴 것이다. 뿌림의 목적은 오염을 막는 것(decontamination)이 아니라 제의적 청결(ritual purity)을 얻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뿌리는 사람 자신이 정결해야 하고 죄가 없어야 한다. 많은 민족들에게 뿌리는 일은 종이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며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씻기 위한 것이다.⁵⁸

⁵⁶ Young(338)은 레 14:7 을 물을 뿌리는 예로 제시했으나 앞의 6 절을 보면 새의 피를 뿌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물을 뿌리는 예는 민 8:7 에 나온다. 기름을 뿌리는 것과 물을 뿌리는 것은 피를 뿌리는 것을 근거로 한다. 출 29:21(단 위의 피와 관유)과 히 9:13-14(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에 유의하라.

[레 4:6]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레 14:6 하-7 상] (6)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7)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번 뿌려 정하다 하고

[레 8:10-11] (10)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1)또 단에 일곱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민 8:6-7] (6)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7)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⁵⁷ Hugenberger, <http://www.parkstreet.org/sites/default/files/papers/christintheot.pdf>, 32. 민 19:19-20 은 [나자]와 [자라크]는 동의어임을 보여 준다.

[민 19:19-20] (19)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나자]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라 (20)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와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자라크]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⁵⁸ 성경에서 외적 물적 정화는 자주 내적 영적 정결을 나타냈다.

[시 51:9-10] (9)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10)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은 그 중 자신이 부정하여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으로 간주하였으나 실상을 말하면 그 중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물과 피를 뿌려서 많은 민족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 슬기롭게 행하여 완수할 사명이었다(cf. 요 1:29; 히 10:14). 그리고 이 사명 완수 후에 종은 높아지고 받들어 올려져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었다. 종의 고난이 속죄적 정결을 위한 것이란 관점에서 이해된 종의 고난은 그를 바라보는 자들의 태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10. 종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심하게 망가진 것으로 알고 경악했던 많은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종의 속죄적 정결을 위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왕들은 종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15 절의 **“그에 대하여 왕들이 그들의 입을 다물 것이다”**라는 귀결절은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

- 1)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 대하여”**란 전명구를 강조하기 위하여 맨 앞에 두면서 종의 성공적인 제사장적 사역의 결과를 묘사한다.
- 2) 종이 많은 민족들에게 자신의 피를 뿌릴 때 그 속죄적 정결이 가져오는 복들을 체험할 나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왕들은 자신의 입을 봉할 것이다. 왕들이 입을 다무는 것은 종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의 표시이다. 입을 다무는 것이 말없음을 나타내는 것은 욥 21:5; 29:9; 40:4; 시 107:42; 겔 16:63; 미 8:16; 계 6:15-17 등에도 나온다(Oswalt, 380 n. 83; Motyer, 426). 사 52:15 에서 왕들이 존경을 표하며 입을 다무는 것은 사 49:7(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의 묘사와 일치한다(Smith, 438-439).
- 3) 이처럼 종의 상한 모습과 그 속죄적 정결을 묘사하는 삽입절의 전후에 묘사된 많은 사람들과 왕들의 반응은 의도적인 대조를 이룬다. 평범한 인간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에 그를 경멸하고 거절하였지만 그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인간들 가운데 가장 높은 신분의 왕들이 그분 앞에 존경을 표하며 두려움 가운데 잠잠히 있을 것이다. 그토록 심히 비하되었던 종이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지극히 존귀하게 된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압도된 나머지 왕들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다물 수밖에

[겔 36:25-26] (25)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성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벧전 1: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히 10: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 12:24]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 9:13-14] (13)영소와 황소의 피와 및 양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14)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없을 것이다. 자신의 죄로 인해 징벌 받는다고 오해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멸시와 배척을 당한 종이 이제 왕들에 의해 영광과 존경을 받을 것이다.

11. 지금까지 52:14-15ab 를 논의한 것에 비추어 52:14-15ab 이 갖고 있는 역순대구법이 종의 망가진 모습과 모양을 중앙 축으로 두고 강조하며 종의 몰골 사나움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대조하고 있음을 다음 구조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a)-(b)-(c) [על]알 “대하여”—[רבים]라빔 “많은”—[כֵּן]켄 “그렇게도”
 (d)-(e)-(e’)-(d’) ([מַעֲשֵׂי] 개체적 “사람”)-[מִצֹּרֵם]마르에 “모습”—[תּוֹאֲרֵם]토아르 “모양”-([מִבְּנֵי-אָדָם] 공통적 “사람”)
 (c’)-(b’)-(a’) [כֵּן] “그렇게도”—[רבים] “많은”—[על] “대하여”

14 너에 대하여 [על] 많은 [רבים] 사람들이... 경악했던 것처럼

 그렇게도 [כֵּן] 한 사람으로 볼 수 없도록 [ד’ שִׁמְאָל] 망가졌고—

 그 모습이 [עֲרֵךְ < הָאֵל]

 그 모양이 [עֲרֵךְ]

 —사람들에 속한다고 볼 수 없도록 [ד’ שִׁמְאָל] 망가졌기 때문에

15 그렇게도 [כֵּן] 그가 많은 [רבים] 민족들에게 피뿌릴 것이기 때문에

 왕들은 그에 대하여 [על] 그들의 입을 다물 것이다.

12. 왕들이 경탄하며 입을 다문 태도를 보인 이유는 그 종에 관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 이는 그들이 (그들에게) 이야기된 적이 없는 것을 볼 것이고 (그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 6:9-10 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철저히 심판하시기 위해 영적 흑암에 내버려두시는 것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다. 왕들이 지금껏 아무도 말해 주지 않은 것을 보고 아무에게도 들어 보지 못한 것을 깨닫고서 경탄하며 그들의 입을 다물 것이다. 전혀 새롭고 지극히 신기한 구원은 이사야의 다른 곳 즉 사 64:4—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에도 잘 나타나 있다.

1)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타락하여 전적 부패한 인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죄 없으신 여호와와 종의 대속적 고난을 통하여 얻도록 한 것은 이야기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정말 신기한 메시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이요 감추어있던 지혜이요 구원받을 자의 영광을 위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었다(고전 2:7, 9).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다(고전 2:9). 이렇게 고전 2:9 에서 바울은 사 52:15 와 64:4 을 인용 암시한다. 만일 예수님 당시의 관원들이 이 신기한 대속적 고난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 하였을 것이다(고전 2:8).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요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이다(고전 2:10). 이전의 메시아 예언들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가려져 있었으나 여기에서 처음으로 아주 영광스럽고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2)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는 뜻을 알리고 사 52:15 의 말씀을 인용하며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5:21).”고 말했다.

13. 의로운 종의 고난과 죽음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길이라는 메시지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 본적이 없는 메시지이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인간이 고안해 놓은 답변들의 공통점은 “선행을 통하여 공로를 쌓아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아주 다른 입장을 보이고 구원에 이르는 신기한 지혜를 보여준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 죄인은 죄인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오직 한 분 다른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는 말은 전혀 위로를 줄 수 없는 말이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죄의 노예인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정말 신기하고 복된 소식이다. 이 복된 소식을 듣는 자들은 여기 왕들이 전파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입을 다문 것처럼 놀라며 할 말을 잃고 그런 은혜를 주신 분에게 감사하며 경배할 것이다.

첫째 연(사 52:13-15) 요약 정리

1. 네 번째 종의 노래(52:13-53:12)의 서론인 첫째 연 52:13-15 은 다음 53 장에서 전개될 위대한 주제를 간략하게 요약해 제시하고 있다. 이 첫째 연은 수수께끼 즉 독특한 승귀와 독특한 고난이 독특한 진리의 주제임을 넉넉히 제시한다.
2. 여호와께 속하고 자신을 위해 일하는 종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며 그에게 주목하도록 “보라!”고 하시며 **그 종이 슬기롭게 일하여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52:13a)**고 증언하신다. 계속해서 여호와께 그의 종이 사명을 완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가 높아지고 받들어 올려지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라(52:13b)**고 천명하신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종이 슬기롭게 행할 것과 지극히 높아질 것을 먼저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은 종이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당할 고난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오해와 오류를 막기 위한 것이다.
3. 여호와께의 종이 당하는 고난은 **한 사람으로 볼 수 없도록 그의 모습을 망가지게 하였고 그의 모양을 사람이라고 할 수 없도록 망가지게 하였다(52:14b-c)** 첫째 삽입절). 여호와께의 종은 한 개인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도저히 사람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 여호와께의 종은 인간의 개체성의 관점에서 그 모습이 한 인간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졌고, 인간의 공통성의 관점에서 그 모양이 도저히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경악하였다(52:14a)** 전제절). 그러나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당하며 여호와께의 종은 **많은**

민족들에게 그의 피를 뿌리고 있었다(52:15a 둘째 삽입절). 이처럼 종의 고난은 많은 민족을 위해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며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씻기 위한 것이었다. **그에 대하여 그의 속죄적 정결을 위한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왕들은 경탄을 금치 못하며 그들의 입을 다물 것이다(52:15b 귀결절).** 이처럼 종의 상한 모습과 그 속죄적 정결을 묘사하는 삽입절의 전후에 묘사된 많은 사람들의 반응과 왕들의 반응은 의도적인 대조를 이룬다.

4. 종의 고난을 통한 구원 사역의 의미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를 경멸하고 거절하지만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왕들은 그 종 앞에 존경을 표하며 두려움 가운데 입을 다물며 잠잠히 있을 것이다. 왕들의 여호와와의 종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의 표시는 **그들이 이제까지 그들에게 이야기된 적이 없는 것을 볼 것이고 그들이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52:15c-d).** 여호와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타락하여 전적 부패한 인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죄 없는 그의 종의 대속적 고난을 통하여 얻도록 하신 것은 이야기된 적도 없고 들려진 적도 없는 정말 신기하고 전혀 새로운 메시지이고 지극히 복된 소식이다.
5. 우리는 여호와와의 종이 사명을 완수하고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는 증언을 새겨 듣고 그 종이 받은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피뿌림의 대속 사역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묘사를 생생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도 많은 사람들처럼 놀라며 그 종을 자신의 죄 때문에 당연한 징벌을 받는 자로 여겼을 것이다. 이러한 오해와 오류 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첫째 연은 우리에게 종의 승귀에 대한 증언과 대속적 고난에 대한 묘사를 보여주며 종의 고난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임을 깨닫게 해 주고 있다.

둘째 연: 사 53:1-3 주해

1. 본문

		לְשִׁמְעָתָנוּ		הָאֵמִין		מִי		53:1a	
		II(ω)[- <u>ל</u>] (II) F ²				α ¹			
		שמע < ל Bp53s9+		אמן < H10					
		נגלתה:		על-		יהנה		53:1b	
		מי				(II a) (II) G ¹		(II) H ¹	
		α ²						זרוע < fsc+1	
		גלה < N11							
ציה		מארץ		וכשרש		לפניו		פיונק	
				(II J ²)				(II J ¹)	
fsa		fsa+מן		msa+ה +כ+1		+s0 לפני		msa+ה +כ	
		עלה < Bc20							
		הדר		ולא		לו		תאר	
				f ⁴		g ¹		B'	
		msa				ל+s0		msa	
				ונחמדהו:		מראה		ולא-	
						A'		f ⁵	
				חמד < B49s0+1		msa		ונראהו	
								(II) E ²	
								ראה < B49s0+1	
חלי		וידוע		מקאבות		איש		אישים	
D		(II) K ¹		C		(II b) (b')		(b)	
fsa < חלי		ידע < Bp52+1		מקאוב < mpa		msc		mpa < איש	
								msc+1	
								N10 < בזה	
		חשבנהו:		נבזה		ממנו		פנים	
		ולא		(a')					
		f ⁶							
				B19s0 < חשב		N10 < בזה		mpa	
						+s0 מן		H52+כ+1 < סתר	

2. 본문 문제

1) 53:1

- ① 의문문의 종류와 역할은?
- ② לשמעָתָנוּ에 붙어있는 1 인칭 복수 접미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 ③ לשמעָתָנוּ는 "우리에게 들려진 것: 우리의 들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들려지게 한 것: 우리의 전한 것"인가?
- ④ יהנה? זרוע가 가리키는 것은?
- ⑤ 병행법에 근거하여 두 의문문이 의미하는 것을 설명하면?

2) 52:2

- ① כשרש와 כפיונק의 의미와 주는 이미지는?

② לְפָנָיו에 붙어있는 3 인칭 단수 접미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③ 맛소라 본문의 악센트는 행이 2 분되는 것을 알려주는 악센트 아트나흐가 רָגַגְּ에 붙어 있다. 다음 중 어느 번역이 맛소라 악센트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 Douay-Rheims Bible: there is no beauty in him, nor comeliness: and we have seen him, and there was no sightliness, that we should be desirous of him:
- RV: He has no form nor comeliness. When we see him, there is no beauty that we should desire him.
- [개역개정]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 [새번역]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 ESV: he had no form or majesty that we should look at him, and no beauty that we should desire him.
- NASB: He has no stately form or majesty That we should look upon Him, Nor appearance that we should be attracted to Him.

④ 부정문 다음에 나오는 접속사 바브+희구법 동사(וְהִתְקַדְּמְתָּ)의 용법은?

3) 53:3

- ① 처음과 끝에 הִתְקַדְּמְתָּ가 나오는 문예적 기교는?
- ② הִתְקַדְּמְתָּ가 나타내는 것은 수동인가? 아니면 재귀인가?
- ③ אֵיִשׁ의 복수 אִישִׁים과 אֲנָשִׁים의 차이는? 여기에서 אִישִׁים[이심]이 쓰인 이유는?
- ④ 명명구 מְאֹבֹת אִישׁ과 וְהִתְקַדְּמְתָּ에 대하여 설명하면?
- ⑤ וְהִתְקַדְּמְתָּ에 붙어 있는 접미대명사는 1 인칭 복수인가? 아니면 3 인칭 단수인가?

3. 번역

사 53: 1 누가 우리의 들은 것을 믿었는가?

여호와와 그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2 그는 그(=여호와) 앞에서 [불필요한] 결순처럼 그리고
마른 땅에서 [가까스로] 돌아난 햇순처럼 자라났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늙은] 풍채도 없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만한 멋진 모습도 없었다.

3 그는 멸시를 당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는] 슬픔(들)의 사람이요 아픔을 아는 자였다.

그는 사람들이 외면해 버리는 자처럼 멸시를 당했으며
우리도 그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4. 문학적 분석

1) 모티어(423)는 사 53:1-9 를 신적 계시에 근거하여 종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사실과 그 의미를 말하는 인간의 증언으로 설명하고, 53:1-3 을 관찰되고 오해되는 고난(Suffering observed and misunderstood), 53:4-6 을 설명되는 고난(Suffering explained), 53:7-9 을 자발적이고 부당하게 받은 고난(Suffering, voluntary and undeserved)으로 세분하였다. 모티어(427)는 53:1-3 을 “우리 we” 부분과 “그 he” 부분이 교차되는 것에 유의하며 다음과 같이 분해하였다.

B Revelation: human testimony, based on divine revelation,

witnessing to the fact and meaning of the Servant's suffering and death (53:1-9)

계시: 신의 계시에 근거한 사람의 증언, 종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사실과 의미의 증언

B¹ Suffering observed and misunderstood (53:1-3) 목격되고 오해된 고난

A¹ A believing company brought into being through revelation (1)

계시를 통하여 존재하게 된 신자들

B¹ The Servant's birth: unimpressive and unpromising (2ab)

종의 출생: 깊은 인상이나 밝은 전망을 주지 못함

A² First reactions of those who later believed: unimpressed (2cd)

후에 믿게 된 자들의 첫 반응: 무감동

B² The Servant's experience in life: popular rejection (3ab)

종의 삶의 경험: 대중적 거절

A³ Unvalued by those who later believed (3cd)

후에 믿게 된 자들에 의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함

① B¹ 와 B² 는 연속적이며 종의 출생에서 삶의 경험으로 나아가는 한편 하나님 앞(B¹)에서의 종과 사람들 앞(B²)에서의 종이 잘 대조되고 있다.

② 사람들의 오해로 인한 반응을 묘사하는 A²와 A³는 A¹의 메시지 즉 종에 대한 바른 이해가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화해 주고 있다.

2) 버기(182)는 둘째 연의 반복된 단어들을 표시하고 단어 반복이 주는 문예적 효과를 설명한다.

1 누가[**מי**] 우리의 들은 것을 믿었는가?

여호와와 팔이 누구에게[**מי**] 나타났는가?

2 그는 그(=여호와) 앞에서 결순처럼 그리고

마른 땅에서 돌아난 햇순처럼 자라났다.

그는 고운 모양도[**תואר** 토아르]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그를 볼[**ראו** 라아] 때

흠모할만한 멋진 모습도[**מראה** 마르에 < **ראו**] 없었다.

3 그는 멸시를 당했고[**בזה** 바자] 사람들에게[**אִישִׁים** 이심] 버림을 받았으며

사람[**אִישׁ** 이시]-슬픔들의[**מְאֻבָּתִים** 마흐오보트]-이요 아픔을[**חַלִּי** 홀리] 아는 자였다.

그는 사람들이 외면해 버리는 자처럼 멸시를 당했으며[הִזַּבּ בַּזַּר]
우리도 그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 ① 첫째 연과 둘째 연을 이어주는 어근 하나는 [샤마]이다. 동일한 어근에서 온 52:15의 שָׁמְעוּ [삼우 “그들이 들었다”]와 53:1의 שָׁמְעוּ לָנוּ [리시무아테누 “우리가 들려지게 한 것” 혹은 “우리가 들은 것”]는 재담(paronomasia)적으로 자연스럽게 두 연의 흐름을 잇는 역할을 한다. 어근 [샤마]를 통한 재담적 반복은 처음에 듣지 못했으나 종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된 이방인들과 종의 소식을 들었으나 처음에 믿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대조를 강조한다.
- ②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에 대한 불신과 거절은 53:1의 מִי [미 “누구”]의 반복과 53:3의 הִזַּבּ [바자 “멸시하다”]—אִישׁ [이시 “사람들”]—אִישׁ [이시 “사람”]—הִזַּבּ [바자 “멸시하다”]라는 역순대구적 반복에 의해 강조된다.
- ③ 53:2의 תָּאֵר [토아르 “모양”]—מָרְאֶה [마르에 “모습”] 그리고 53:3의 מְאֹבֹת [마호오보트 “슬픔들”]—חֹלִי [홀리 “아픔”]라는 동의적 병행 단어들의 사용은 외견상 종이 백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종에 대한 백성의 견해와 배치되었던 것을 지적한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둘째 연(53:2)의 [토아르]—[마르에]는 첫째 연(52:14)의 [마르에]—[토아르]와 역순대구를 이루고 있다.
- ④ 첫째 연과 둘째 연을 이어주는 다른 어근 하나는 [라아]이다. 52:14에서 묘사된 한 사람(אִישׁ [이시])으로 여길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종의 모습(מָרְאֶה [마르에])과 모양이(52:14)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종을 바로 보도록(הִרְאָה [라아]) 이끈(52:15) 것과 동일한 슬픔의 사람(אִישׁ [이시])의 모양과 모습(מָרְאֶה [마르에])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을 바로 보지(הִרְאָה [라아]) 못하도록 한 것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마르에]—[라아]의 반복과 병행 단어들의 역순(곧 첫째 연의 [마르에]—[토아르]와 둘째 연의 [토아르]—[마르에]의 역순)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날카롭게 대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사 53:1 주해

사 53:1 누가 우리의 들은 것을 믿었는가? 여호와와 그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1. 네 번째 종의 노래의 본론(53:1-9)은 두 개의 수사 의문문으로 시작하는데 첫째 수사 의문문은 “**누가 우리의 들은 것을 믿었는가?**”이다. 여기서 우리가 가리키는 대상은 무엇인가?
 - 1) 여기 “우리”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를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은 53:1의 “우리”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53:3-6의 “우리”에 적용하면 “우리”의 범위가 너무 좁혀지므로 문제가 있다.
 - 2) 여기 “우리”를 사 52:15의 “많은 민족과 왕들” 곧 이방인들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은 종을 이스라엘로 여기며 이스라엘이 그들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네 번째 노래를 포함한 모든 종의 노래에 나오는 종은 개인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종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면 여기 “우리”는 나타난 여호와와 그의 팔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분명하다. **여호와의 팔**(사 40:10; 48:14; 51:5; 52:10)에 의해 구원 받을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여호와의 팔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사 52:15 에서 묘사된 민족들이 사 53:1 에서 말하고 있는 주체라는 암시가 전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⁵⁹ 사 53:8 의 “내 백성의 범죄 때문에”라는 말은 이방인들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기는 어렵다.⁶⁰

3) 여기 “우리”를 선지자가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으므로(사 16:6; 24:16; 42:24; 64:5-6[MT 4-5]) 여기 나오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며 선지자가 그들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자신을 자신의 백성과 동일시하면서 그들을 위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것은 렘 14:7-9 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⁶¹ 이 입장은 여기 “우리”를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을 때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로 보고 종을 여호와의 팔과 동일시하며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로 보므로 문맥의 지지를 받는다.

① 모티어(427)는 여기서 선지자가 후에 믿게 될 신자들을 대신하여 말하며 전에 지각없이 종을 바라보았던 전체 군종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② 스미스(443)는 두 개의 수사 의문문이 종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깨닫고 받아 들인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이 던지는 질문들이라고 설명하였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귀 멀고 눈 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으나(6:9-10; 7:9; 29:9-10; 42:18-19; 43:8; 48:4-8; 56:10) 여호와는 미래에 그들의 눈 먼 것을 제거하고 그들로 자신을 신뢰하게 해 줄 것을 약속하셨다(29:18; 32:3-4; 35:5; 42:7, 16).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이해한 사람들에게 의한 보고이다.

2. 누가 우리의 들은 것을 믿었는가라는 수사 의문문에 나오는 동사 **יִמְאֵן**[헤에민]은 어근 [아만]의 히프일 어간으로 뒤따르는 전치사 **לְ**[르]와 함께 사람을 믿거나(창 45:26; 출 4:1; 렘 40:14; 대하 32:15) 하나님을 믿거나(신 9:23; 사 43:10) 여기처럼 사실 혹은 말해진 것을 믿는(사 53:1; 잠 14:15) 것을 나타낸다.

3. 누가 우리의 들은 것을 믿었는가라는 수사의문문에 나오는 **שָׁמְעָה**[시무아테누]는 “듣다”라는 의미를 갖는 어근 **שָׁמַע**[샤마]의 수동분사(**שָׁמְעָה**[샤무아])에서 유래한 여성형 명사(**שָׁמְעָה**[시무아] 직역:

⁵⁹ Oswalt, *Isaiah 40-66*, 381: “Furthermore, nothing shows that we have moved from describing the nations (52:15) to hearing what they say (53:1).”

⁶⁰ Keil-Delitzsch, *OT Commentary* <https://biblehub.com/commentaries/kad/isaiah/53.htm>

⁶¹ [렘 14:7-9] (7)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8)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 같이 하시나이까 (9)어찌하여 놀라 병병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들려진 것, 들려진 일, that which was heard, thing heard”)에 1 인칭 복수 접미대명사(אֲנִי [에누])가 붙어 있는 형이다. 1 인칭 복수 접미대명사(אֲנִי [에누])는 기본 수동의 행위자나 사역 수동의 행위자로 볼 수 있다.

1) “우리”를 기본수동의 행위자로 보면 “אֲנִי שָׁמְעָנוּ”[시무아테누]는 “우리에게 들려진 것, 곧 우리가 들은 것(that which was heard by us = what we have heard)”을 뜻한다.

- 새번역: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 RSV/HCSB/Oswalt: Who has believed **what we have heard**?
- YLT: Who hath given credence to **that which we heard**?
- BDB: “the report that reached us”

2) “우리”를 사역수동의 행위자로 볼 경우 “אֲנִי שָׁמְעָנוּ”[시무아테누]는 “우리가 들려지게 한 것, 우리가 전한 것(what was caused to be heard by us = what we caused to be heard)”을 뜻한다.

- 개역: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 개역개정: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 새 번역의 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 KJV: Who hath believed **our report**?
- NIV/NASB/ISV/Motyer: Who hath believed **our message**?
- ESV: Who has believed **what he has heard from us**?
- Young: Who hath believed **our report**? = KJV

3) 사 28:9, 19; 37:7 에도 [시무아]가 나온다.

① [사 28:9, 19] 9 그들(=에브라임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이르기를 그(=선지자)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אִשְׁמָעַל [시무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 . . 19 그것(=재앙, 앗수르의 공격)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אִשְׁמָעַל [시무아])**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⁶²

② [사 37:7]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אִשְׁמָעַל [시무아])**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③ 이 세 구절의 [시무아]와 53:1 의 [시무아테누]에 대한 번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8:9	28:19	37:7	53:1
YLT	report	report	report	that which we heard
NASB	message	what it means	rumor	our message
ESV	message	message	rumor	what he has heard from us

⁶² Motyer, 234: “They mocked a message of rest and by doing so envared a message of terror (cf. verses 19ef and 9).”

NIV	message	message	report	our message
Oswalt	message	(missing)	rumor	what we have heard
Motyer	message	message	message	our message
Young	report	the thing heard	report	our report (what we cause to be heard)

- 4) KB(1556, 4)는 “우리가 들은 것(things heard by us = what we have heard)” 혹은 “계시,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 우리에게 계시된 것(revelation, what we have to reveal, what has been revealed to us)” 혹은 “선포(proclamation)” 혹은 “우리에 관한 소식, 우리가 들었다고 말한 것(our news, what we say we have heard)” 등의 해석을 싣고 있다.
- 5) 영(340-341)은 [시무아]가 그 자체로 “thing heard 들려진 것”을 뜻하지만 접미대명사 “우리”와 결합될 때 “우리 자신이 들은 메시지” 혹은 “우리가 선포한 메시지”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영에 의하면, 전자의 입장은 헝스텐베르크(Hengstenberg)에 의해 잘 변호되었고, 후자의 입장은 루터(Luther)의 “unsrer Predigt = our preaching” 그리고 신약(요 12:38; 롬 10:16)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⁶³ 영은 후자의 입장을 택하고 언어유희에 유의하며 사 52:15 에서 왕으로 입을 다물게 한 것이 바로 전에 그들이 들어본(ἠνῆψ[삼우]) 적이 없는 종의 고난을 통한 구원 소식이었다면 53:1 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된 것이 바로 우리가 들려지도록 선포한 구원 소식(ἠνῆψ[시무아테누])이라고 설명하였다.⁶⁴

⁶³ 요 12:38 과 롬 10:16 은 LXX: ΚΥΡΙΕ, τίς ἐπίστευσε τῇ ἀκοῇ ἡμῶν; = O Lord, who has believed our report?를 인용하고 있다. 영은 신약의 이 두 구절이 “우리의 전한 것”을 지지하는 근거 구절이라고 하지만, 이사야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들이 들은 것, 그들에게 들려진 소식”을 믿지 않은 것처럼 주후 1 세기의 유대인들이 “그들이 들은 것, 그들에게 들려진 소식”을 믿지 않은 반응을 나타내었다고 보면 “우리의 들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Donald R. Snunkjian, “Preaching Isaiah 53,” in Darrell L. Bock and Mitch Glaser, eds. *The Gospel According to Isaiah 53* (Kregel: 2012), 254.). 개역 개정은 요 12:38 과 롬 10:16 의 같은 헬라어 어구를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 [요 12:38]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Κύριε, τίς ἐπίστευσεν τῇ ἀκοῇ ἡμῶν;)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 [롬 10:16]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Κύριε, τίς ἐπίστευσεν τῇ ἀκοῇ ἡμῶν;)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⁶⁴ Young, III: 340-341: “What caused the kings to shut their mouths was what they had not heard (ἠνῆψ), and it is **what we cause to be heard** (=a message that we proclaim ἠνῆψ) that is ignored by the many.”

- 6) 모티어(427)는 명사 **שְׂמוּעָה**[시무아]가 하나님에 의하여 선지자에게 주어진 말씀(사 28:9, 19; 렘 49:14)에 사용되고, 다른 곳에서 소식 혹은 정보(삼상 2:24; 4:19)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고 설명하였다.⁶⁵
- 7) 스미스(444)에 의하면, 첫째 수사 의문문은 동사가 서법적으로 사용되었다면(GKC 106p; Blenkinsopp, *Isaiah 40-55*, 345; cf. Childs, *Isaiah*, 413 는 서법적 용법 거부) “Who would (might, could, should) believe our report?”로 번역될 수 있고 우리가 종에 관하여 보고한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었는가를 일차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보고에 어느 누구도 믿기에 어려운 놀랄만한 요소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 8) 카이저(*The Gospel according to Isaiah 53*, 100)는 수동 분사로서 “that which was heard by us 우리에게 들려진 것”을 뜻하며 “what was said”의 뉘앙스가 강한 “message” 보다는 “what was heard”의 뉘앙스도 갖는 “report”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설명한다.⁶⁶
- 9) 본 주해는 **שְׂמוּעָתֵנוּ**[시무아테누]의 접미대명사 “우리”를 기본 수동의 행위자로 간주하고 “우리에게 들려진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전해 들은 소식”이란 뜻으로 “우리의 들은 것”으로 번역했다.
- 10) 새 번역의 “우리가 들은/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는 의문 대명사 [미]가 문두에 나온 것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본 주해는 “누가 우리의 들은 것을 믿었는가?”라고 번역했다. 공동 번역은 좀 의역하여 “그러니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소식을 누가 곧이들으랴?”라고 번역하고 우리말성경은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곧이 믿겠느냐?”라고 번역했다.

⁶⁵ [사 28:9, 19] 9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שְׂמוּעָהּ בְּיַד מִי יִבְיֶן** ESV: message; YLT: report) 짓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 . . 19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וְהָיָה רִקְוֹןְךָ שְׂמוּעָהּ** ESV: message; YLT: report)

[렘 49:14]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שְׂמוּעָה שְׂמוּעָתִי מֵאֵת יְהוָה**)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삼상 2:24]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לֹא-טוֹבָה הַשְּׂמֵעָה אֲשֶׁר** **אֲנֹכִי שֹׁמֵעַ** ESV: report; YLT: report) 너희가 여호와와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삼상 4:19]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וַתִּשְׁמַע אֶת-הַשְּׂמֵעָה אֶל-הַלֵּקָח אֲרוֹן הָאֱלֹהִים וּמַת תְּמִיָּהּ**)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꾸려 해산하고(**וַאֲיָשָׁה** ESV: news; YLT: report)

⁶⁶ Oswalt(II: 374, n. 57)는 칼 수동 분사로 “that which was heard of/by us = what we have heard”의 의미이고 “들려진 일 a ‘heard’ thing”로 “소문 rumor 혹은 보고 report”로 번역될 수 있지만 “보고 report”는 우리에게 의해 말해진 것(something told by us)을 암시하므로 바른 번역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압도적이다.⁷⁰ 이사야서에서 팔을 수식하는 어구들을 가진 표현들은 사 52:10(cf. 시 98:1)의 “거룩한 팔”, 사 62:8(cf. 시 89:10[MT 11])의 “능력의 팔”, 그리고 63:12의 “영광의 팔”이다.⁷¹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와 팔 [즈로아 아도나이]”이란 어구는 두 번(사 51:9; 53:1) 나온다.

2) 사 63:12 은 여호와와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 손을 이끌며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것을 언급한다. 이렇게 출애굽을 통한 구원을 묘사할 때 이사야서에는 “영광의 팔(63:12)”이 나오지만 다른 곳에서는 “편 팔”(출 6:6; 신 9:29; 왕하 17:36) 혹은 병행어 짝인 “강한 손과 편 팔”(신 4:34; 5:15; 7:19; 11:2; 26:8; 시 136:12; cf. 왕상 8:42 = 대하 6:32)이 자주 나온다.

① “편 팔” [즈로아 느투아] “outstretched arm”

- 출 6: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 신 9:29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편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 왕하 17:36 오직 큰 능력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② “강한 손과 편 팔” [야드 하자카 / 즈로아 느투아] “mighty hand and outstretched arm”

⁷⁰ 사 30:30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⁷¹ 사 63:12 그의 영광의 팔 (יְדוֹתָי וְיָדָיו [즈로아 티프아르토])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사 52:10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יְדוֹתָי וְיָדָיו [우즈로아 코드쇼])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cf. 시 98:1)

사 62:8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יְדוֹתָי וְיָדָיו [우비즈로아 우조])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cf. 시 89:10[MT 11])

신 33:27 에는 “영원하신 팔”도 나온다. [즈로아]와 함께 나오는 힘과 관련된 단어들은 [그부라], [하자카], [오즈], [고델] 등이다(NIDOTTE I: 1147).

신 33:27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יְדוֹתָי וְיָדָיו 안전한 피난처의 상징)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시 89:13[MT 14] 주의 팔에 능력[그부라]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יְדוֹתָי וְיָדָיו מְרִוּוֹת עִמָּךְ וְיָדְךָ מְרִוּוֹת עִמָּךְ)

렘 21:5 내가 든 손과 강한[하자카] 팔(יְדוֹתָי וְיָדָיו)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시 89:10[MT 11]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오즈]의 팔로(יְדוֹתָי וְיָדָיו) 흠으셨나이다(cf. 사 62:8; 51:9)

시 79:11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고델] 능력을 따라(יְדוֹתָי וְיָדָיו NASB: according to the greatness of your power; NIV: with your strong arm; ESV: according to your great power) 보존하소서

- 신 4:34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 신 5: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 신 7:1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 신 11:2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3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4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 신 26:8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 시 136:12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Cf. 왕상 8:42 = 대하 6:32 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 “강하신 손과 펴신 팔”의 소문을 들은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들어주실 것을 말하고 있다.
왕상 8:41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42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3)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팔을 언급하는 11 개의 구절(사 30:30; 33:2; 40:10, 11; 51:5(2x), 9; 52:10; 53:1; 59:6; 63:5, 12)을 팔의 역할을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이방 나라의 심판⁷²

- [사 30:30]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31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32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⁷² 겔 20:33, 34 에서 “능(강)한 손과 편 팔”은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으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고, 렘 21:5 에서 수식어가 바뀐 “편 손과 강한 팔”이 심판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

[겔 20:33-36] 33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יָדַי וְזַרְעוֹתַי)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34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흠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35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36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렘 21:5] 내가 든 손과 강한 팔(יָדַי וְזַרְעוֹתַי)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BHS 에는 없음] 그들을 치시리라) (Cf.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 겔 20:33, 34; 렘 21:5)

Cf. [사 48:14]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여호와 Young, III: 257; Smith, 444; =고레스 Oswalt, II: 277]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② 원래의 출애굽

- [사 63:12]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③ 제이 출애굽

- [사 51:9]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저미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10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④ 구원

- [사 52:10]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חָפַץ 하싸프 to make bare, strip]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cf. 시 98:1)
Cf. [시 44:3]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 [사 59:16]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 [사 63:5] 내가 본즉 도와 주는 자도 없고 붙들여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⑤ 보호/피난처

- [사 33:2]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 [사 40:11]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cf. 신 33:27; 시 89:13[MT 14]; cf. 대하 32:8 '육신의 팔'과 대조)

⑥ 통치, 공의 시행(심판)

- [사 40:10]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וְזָרְעוּ מְשֻׁלָּה לּוֹ NASB: [Behold, the Lord GOD will come with might,] With His arm ruling for Him; YLT: And His arm is ruling for Him; ESV: and his arm rules for him; NIV: and he rules with a mighty arm.)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 [사 51:5]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들, 복수 즈로아이]이 만민을 심판하리니(וְזָרְעִי עֲמִים יִשְׁפֹּטוּ NIV: bring justice to; ESV/NASB: judge)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들, 복수 즈로아이]에 의지하리라 . . .

⑦ 맹세대로 이루게 할 능력

- [사 62:8]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⁷³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4) 사 53:1 의 “(누가 우리의 들은 것을 믿었는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에서 여호와의 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① 사 63:12 에서 여호와께서 원래의 출애굽을 위해 그의 **영광의 팔**을 사용하신 것처럼 선지자는 사 51:9-11 에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하며 제이 출애굽 곧 출바벨론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사 51:12-16 에서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이스라엘을 지으신”⁷⁴ 여호와는 원래의 출애굽에서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놓이게 해 주시고 시온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며 위로해 주시겠다고 응답하신다. 사 52:6 은 여호와 자신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언급하고, 사 52:8 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실 것을 언급하고, 사 52:10 은 여호와의 **거룩한 팔**이 구원하는 일에 나타난 것을 언급한다.⁷⁵

⁷³ Motyer, 507: “If a distinction of symbolism is pressed, *hand* is personal agency, the direct involvement of the person, and *arm* is personal power. Together they point ot one who is strong enough for the task and ready to ‘take it in hand’.”

Grogan, 844: “. . . and the fact that he has sworn by his mighty arm stresses his ability to carry out his word; for his arm is the executor of the divine will, its power in salvation already wonderfully demonstrated(cf. 53:1).”

⁷⁴ 혼돈의 괴물 라합을 무찌르고(시 89:10; 욥 26:12; 사 51:9) 여호와의 펴신 팔은 천지를 창조하고(렘 27:5; 32:17) 이스라엘을 창조했다(사 51:9). 여호와의 펴신 팔은 천지 창조를 위한 큰 능력이었고, 원래의 출애굽을 가능하게 한 여호와의 팔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창조를 위한 능력이었다. 이렇게 여호와의 팔은 창조의 일과 관련하여 묘사된다.

[시 89:10-11] 10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흠으셨나이다 11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총명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사 51:9]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저미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10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렘 27:5]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편] 팔**로(הַכֹּחַי הַגָּדוֹל וּבְזַרְעִי הַנְּטוּיָה)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렘 32:17]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הַכֹּחַךְ הַגָּדוֹל וּבְזַרְעֶךָ הַנְּטוּיָה)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⁷⁵ [사 52:6-10] (6)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7)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8) 네 파수꾼들의

- ② 스미스(444)에 의하면 여호와의 팔은 일반적으로 사 14:26=27; 30:30; 51:9; 52:10; 63:12 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분의 능력있는 섭리적인 사역을 언급하므로 그분의 기적적인 구원의 능력을 가리킨다.
- ③ 모티어(427)에 의하면, 사 53:1 은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능력이 역사하는 배후나 수단이 되는 존재나 여호와의 능력에 의해 독특하게 붙들리는 존재로 온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팔 자신 곧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을 묘사한다.⁷⁶ 그렇다면 사 53:1 에서 **여호와의 팔**은 51:9-16 에서 요청받고 약속한 대로 사 63:2 의 원래의 출애굽을 위한 영광의 팔처럼 제이 출애굽을 위해 곧 백성의 구원을 위해 나타나신 팔이다.
- ④ 그로간(799)에 의하면, 둘째 수사 의문문에 묘사된 여호와의 팔의 나타나심은 51:9 의 기도의 궁극적인 대답이며 52:10 에 묘사된 제 2 의 출애굽 즉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예표로서 기대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자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cf. 사 55:8-9; 고전 1:18-31).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나타난 여호와의 팔은 고난의 종으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죽어야만 했으나 죽음의 십자가는 그의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었다.

5)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눅 1:51)과 사역(요 12:38)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팔을 언급한다.

- [눅 1:51 마리아의 찬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 [요 12:37-38] 37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38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6) 둘째 수사 의문문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의 의미는 첫째 수사 의문문 **“누가 우리의 들은 것을 믿었는가?”**와의 관계를 통해 밝혀진다.

- ① 영(340-341)에 의하면 이 두 수사 의문문은 병행되는 두 콜론으로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두 수사 의문문은 부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백성 가운데 너무나 적은 수가 믿는다는 사실에 대한 한탄을 표현하고 있다.⁷⁷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힘에 대한 환유이므로 선포된 메시지를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힘이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9)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10)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⁷⁶ Smith(*Isaiah 40-66*, 444 n. 350)는 Motyer 의 설명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지만, Oswalt, *Isaiah 40-66*, 375 와 Williamson, *Variations on a Theme*, 164 이 받아들인 것을 지적하고 Goldingay and Payne, *Isaiah 40-55*, 2:298 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Yhwh’s arm is here virtually hypostatized . . . it is a revelation of a part of Yhwh in some sense representing Yhwh and distinguishable from Yhwh.”

⁷⁷ Young 의 설명과는 달리 GKC 151a 는 사 53:1 이 의문대명사+완료로 된 수사의문문으로 부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나타난 것과 우리가 선포한 것을 믿는다는 것이 같은 사실의 두 가지 다른 면이다. 따라서 이 두 병행 구절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신다면 인간들이 회심하지 못할 것이므로 우리는 그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일하기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친다.

- ② 카일-델리치 주석에 의하면 사 53:1 의 두 의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올 하나님의 종의 승귀에 대한 믿음을 누가 가졌던가? 누가 종의 승귀를 가져오게 한 여호와의 전능을 인정하였는가?”라고 물은 것이다.⁷⁸
- ③ 스미스(444)에 의하면 첫째 수사 의문문은 “누가 우리의 보고를 믿을(믿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뜻으로 어느 누구도 믿기에 어려운 놀랄 만한 요소들이 들어 있는 것을 표현하고, 둘째 수사 의문문은 백성 중 어느 그룹이 여호와의 팔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관하여 듣지 못했고 종에 관하여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을 믿은 이스라엘 사람들인 “우리”에게 “여호와의 팔” 곧 그분의 기적적인 구원의 능력을 계시하셨다. 이들은 사 53:2-12 에 있는 보고를 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종에 관하여 계시하셨던 것을 믿도록 확신시키기 위해 그들이 이해한 것을 나누고 있다.
- ④ 모티어(427)는 “누가 우리의 메시지를 믿었는가?”에 대한 답은 말할 것도 없이 “아무도 믿지 않았다!”이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는 여호와의 종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관찰만으로는 종이 진정 누구인가를 모르는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진정한 믿음이 불가능한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 ⑤ 오스왈트(381)는 53:1 이 의미적으로 52:15 을 바로 뒤따르는 것처럼 여기며 설명한다. “누가 우리의 들은 것을 믿었는가?”라는 수사의문문은 많은 민족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극심한 고난과 죽임을 당한 구원자에 대하여 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서 놀랄 것과 비교하며 “전에 이 사실을 먼저 들었던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떠했는가?”를 묻는 것이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라는 수사의문문은 “백성의 구원을 위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여호와의 종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것임을 누가 믿을 수 있었는가?”를 묻는 것이다.
- ⑥ 카이저(100)에 의하면, “그들이 전해 들은 소식을 믿었는가?”라고 물으면 그 대답은 “거의 없었다.”이고, “그들이 들었던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그 대답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모든 것이다. 이 중에는 이 종이 유다 지파 출신일 것이고(창 49:10),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미

⁷⁸ <https://biblehub.com/commentaries/kad/isaiah/53.htm> “Who, asks Israel, has had any faith in the coming exaltation of the servant of God? who has recognised the omnipotence of Jehovah, which has set itself to effect his exaltation?”

5:2),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섬길 것이고(사 9:1-3; 61:1),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는(시 16:10-11) 소식도 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이런 복된 소식에 대한 반응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같지 않고 처참한 비하에 처한 종의 모습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 ⑦ 본 주해는 오스왈트의 설명이 문맥에 제일 적합하다고 보았다. “누가 우리의 들은 것을 믿었는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는가?”라는 수사 의문문은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여호와의 종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깨달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여호와의 종에 관해 들은 소식을 믿은 백성이 없음을 탄식하였고, 종에 관한 소식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것임을 믿는 사람이 없음을 탄식하였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누가 여호와의 종이 해를 받은 후에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 들은 소식을 믿었던가? 백성의 구원을 위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누가 깨달았는가?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종의 비하와 승귀를 통한 구원임을 바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⑧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한 대속이란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진정한 믿음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미미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심을 증거하며 성령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해 주실 날을 기다리면 된다.

사 53:2 주해

사 53:2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그(=여호와) 앞에서 [불필요한] 결순처럼 그리고 마른 땅에서 [가까스로] 돌아난 햇순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늪같은] 풍채도 없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만한 멋진 모습도 없었다.

1. 1 절에서 종에 관한 메시지와 여호와의 팔로서의 종의 계시가 거부된 것을 말한 선지자는 바브계속법 즉 설명적 바브(explanatory vav “그도 그럴 것이”)가 인도하는 2 절을 통하여 그 이유를 설명한다(Motyer, 427). 다시 말하면 1 절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며 종의 대속적 고난을 통한 구원 소식을 믿는 자가 없는 것을 탄식하면서도 2 절에서 여호와의 종의 삶을 진술하며 그의 모습의 어떤 것도 자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할 만한 것이 없음을 언급한다.

2. 종의 삶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완료는 예언적 완료(prophetic perfect)이다.⁷⁹ 이 예언적 완료는 선지자 이전에 살았던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하는 과거적 일을 나타내는 완료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 화자의 마음에 너무나 생생하고도 확실하므로 그것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완료이다. 네 번째 종의 노래를 시상으로 구분하면 중앙 부분인 53:1-10a 에는 완료가 나오고 첫 부분 52:13-15 와 마지막 부분 53:10b-12 에는 미완료가 나온다.⁸⁰
3. “그는 자라났다.”라는 묘사의 이미지는 여호와의 종이 초자연적 유래를 가진 천상의 사람이 아니라 자연적 유래를 가진 지상의 사람으로 보게 하였다. 예수님의 고향의 회당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며 던진 질문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마 13:54-56)?”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이사야가 묘사한 것처럼 그저 땅에서 자라난 단순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의 팔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만하고 또 “그는 그 앞에서 자라났다.”에서 “그”는 여호와를 가리키므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며** 여호와와 구별된 인격체라면 어떻게 여호와의 팔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만하다.
4. “그는 결순처럼 자라났다.”에서 **결순**(קָטַף)[요네크]은 나무의 드러나 있는 뿌리로부터 나온 대개 불필요한 싹으로 언제든지 잘라 버릴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가까스로] 돌아난 햇순처럼 자라났다.**”라는 묘사는 물이 없어 바싹 마른 땅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작은 식물처럼 그 생존이 의문시되는 것을 보여준다. 햇순이 비집고 나온 **마른 땅**은 종의 삶의 낮고 천하고 보잘 것없는 시작을 강조한다(Young, *Isaiah 53*, 36). 여호와의 종은 거대한 백향목이나 강한 상수리 나무나 활짝 핀 과일 나무와 같은 모습(cf. 암 2:9)으로 자라나지 않고 언제든지 잘라버릴 수 있는 **결순**과 생존이 의문시되는 마른 땅의 **햇순**처럼 자라났다.
- 1) 종의 이런 모습은 백성의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팔이 보여 주어야 할 모습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나다나엘의 질문(요 1:46),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나사렛)에서 나오겠느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요 7:41-42)은 이런 시각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말구유에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흔들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기를 청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 2)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한 식물의 순 이미지는 볼 안목이 있고 혜안이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은 이사야가 이미 언급했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미지들 즉 싹 이미지(4:2

⁷⁹ Young, *Isaiah III*: 341; *GKC 106n* (perfectum propheticum): 사 5:13; 9:1ff; 10:28; 11:9; 19:7; 욥 5:20; 대하 20:37.

⁸⁰ E. J. Young, *Isaiah Fifty-Three: A Devotional and Expository Study* (Grand Rapids: Eerdmans, 1957), 32. (= E. J. 영, **이사야 53 장**. 윤 영탁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0.)

[체마흐], cf. 렘 23:5; 속 3:8; 6:12), 거룩한 씨 이미지(6:13 [제라]), 그리고 줄기/뿌리 이미지(10:33-11:10 [게자/쇼레시])에서 나온 [호테르/네차르])를⁸¹ 여기에서 다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⁸² 그렇다면 여기서 사용된 햇순과 곁순이란 식물 이미지는 사 4:2; 6:13; 11:1, 10 처럼 종이 왕적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다.

5. 그는 그분(=여호와) 앞에서 곁순처럼 그리고 햇순처럼 자라났다.

1) 종은 불필요해서 언제든지 잘라 버릴 수 있는 곁순과 생존이 의문시되는 햇순처럼 자랐지만 **그분 곧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그는 사람들에게 의해 멸시 받고 버림 받았지만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 다시 말하면 종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그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는 삶을 살았다(Young, *Isaiah 53*, 35). 그러므로 “**그분(=여호와) 앞에서**”라는 어구가 암시하는 것은 종이 여호와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자라났고 여호와께서 종의 삶에 일어나는 것에 주의 깊은 관심을

⁸¹ [사 4:2] 그 날에 여호와와 **썩(הָהָה; צֶמַח; 체마흐** 아도나이)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사 6:13]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같이 거룩한 **씨(שֵׁרֵץ קֹדֶשׁ; 제라** 코데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사 11: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썩(שֵׁי; מִגֵּזַע; 브야차 호테르** 미게자 이샤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פְּרֹהַ; וְנֹצֵר מִשְׁרָשָׁיו; 브네차르** 미쇼라샤브 이프레). ESV: There shall come forth a shoot from the stump of Jesse, and a branch from his roots shall bear fruit.

[사 11:10]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썩(שֵׁי; הָהָ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ESV: In that day the root of Jesse, who shall stand as a signal for the peoples—of him shall the nations inquire, and his resting place shall be glorious.

[참고: 사 11:1 은 게자에서 나온 호테르를 언급하고 쇼레시에서 나온 네차르를 언급하지만 11:10 에는 쇼레시만 나오는데 개역/개역개정/새번역/공동번역은 11:1 의 호테르가 있는 것처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썩”으로 번역하고 있다. 쉬운성경과 우리말성경은 원문대로 “이새의 뿌리”라고 번역하고 있다.]

[렘 23:5-6] 5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צֶמַח צְדִיק; והקמתִי לְדָוִד צֶמַח צְדִיק; 브하키모티 르다비드 체마흐** 차디크)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속 3:8] 대제사장 여호수야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썩**을 나게 하리라(**צֶמַח; כִּי-הִנְנִי מְבִיא אֶת-עַבְדִּי צֶמַח; 키-힌니 메비 에트-아브디 체마흐**)

[속 6:12]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썩**이라 이름하는 사람이(**הִנֵּה-אִישׁ צֶמַח שָׁמוֹ; 히네-이시 체마흐** 시모)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리라

[참고: 개역개정에서 체마흐가 사 4:2 와 속 3:8; 6:12 에서는 “썩”으로 번역되었으나 렘 23:5 에서는 “가지”로 번역되었다. ESV 는 체마흐를 모두 'branch'로 번역한다.]

⁸² Smith, *Isaiah 40-66*, 445 에 의하면 이러한 식물 이미지는 겔 17:31[? Cf. 에스겔 17 장은 24 절로 끝난다. 바벨론 왕(느부갓네살)과 애굽 왕을 나타내는 두 독수리와 시드기야를 나타내는 포도나무에 대한 수수께끼와 비유(겔 17:3-10)가 나온다.]; 단 4 장; 근동의 문헌들(페니키아어 문헌 *Karatepe*, A. I, line 9-10; 아람어 문헌 *Sefire*, i. C. lines 24-25; 우가릿어 문헌 “Tale of Aqhat,” lines 20-27, 41-43 in *ANET*, 119)에서 왕들에게 적용된다. 이 문헌들의 인용문을 위해 Smith, 445 n. 354 을 참고하라.

기울이셨다는 것이다(Smith, 445). 종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종은 결순 같고 햇순 같았지만 여호와의 능력 안에 지켜지며 자라났다. 많은 사람이 그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계셨다.

2) 결순과 햇순이 식물 이미지로 메시아를 암시하는 것에 유의하고 종이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켜지는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진정 이해하는 자들만이 찾을 수 있는 진리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라고 기도하셨다.

6. 불필요한 결순처럼 그리고 마른 땅을 비집고 가까스로 나온 햇순처럼 자라났던 여호와의 종은 **고운 모양도 없고 [늪름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만한 멋진 모습도 없었다.**

1) וְנִמְדָּהוּ [로-토아르 로 블로 하다르 // 브니르에후 블로-마르에 브네흐르데후]에서 행이 2 분되는 것을 알려주는 악센트 아트나흐는 הָדָר [하다르]에 붙어 있다. 맞소리 악센트 표시와 일치되는 번역은 심마쿠스를 제외한 고대 역본들과 RV 그리고 개역과 개역개정과 새번역이다. 맞소리 악센트가 보여주는 절의 구분을 따라 번역하면 “그에게는 고운 모양이나 풍채가 없었다.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멋진 모습이 없었다.” 후반절의 의미는 우리가 종을 보았을 때 우리를 그에게로 끌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LXX: οὐκ ἔστιν εἶδος αὐτῷ οὐδὲ δόξα· καὶ εἶδομεν αὐτόν, καὶ οὐκ εἶχεν εἶδος οὐδὲ κάλλος·
Brenton: he has no form nor comeliness; and we saw him, but he had no form nor beauty.
- Douay-Rheims Bible: there is no beauty in him, nor comeliness: and we have seen him, and there was no sightliness, that we should be desirous of him:
- RV: He has no form nor comeliness. When we see him, there is no beauty that we should desire him.
- [개역개정]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 [새번역]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2)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번역(예: NASB, ESV, NIV, HCSB, ISV)은 “[브니르에후] 우리가 눈길을 줄만한”과 “[브네흐르데후] 우리가 흠모할만한”을 병행으로 보고 부정문 다음에 오는 “연결 바브(vav [copulative)+간접명령형/청유형”이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⁸³

- Alexander(292)에 의하면 심마쿠스(Symmachus)는 두 절에 대하여 “ἵνα εἶδωμεν, ἵνα ἐπιθυμηθῶμεν”으로 번역하였다.

⁸³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다음에 연결바브+간접명령형/청유형이 오면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낸다. *GKC* 166a; *GBH* 116c; Davidson, *Syntax*, 65c; cf. 민 23:19; 호 14:10; 욕 5:12.

- ESV: he had no form or majesty that we should look at him, and no beauty that we should desire him.
- NASB: He has no stately form or majesty that we should look upon Him, nor appearance that we should be attracted to Him.
- NIV: He had no beauty or majesty to attract us to him, nothing in his appearance that we should desire him.
- HCSB: He didn't have an impressive form or majesty that we should look at Him, no appearance that we should desire Him.
- ISV: he had no form and he had no majesty that we should look at him, and there is no attractiveness that we should desire him.
- 목적: 그는 우리가 눈길을 줄만한 고운 모양도 없고 능름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만한 멋진 모습도 없었다.
- 결과: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능름한 풍채도 없어서 우리는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고, 멋진 모습도 없어서 우리는 그를 흠모하지 않았다.

3) 오스왈트(*Isaiah 40-66*, 374-375 n. 62)와 알렉산더(*The Prophecies of Isaiah*, 292)는 즐거운 마음으로 보는 것을 표현할 때 동사 [라아] 다음에 전치사 [브]가 오는 경우가 보편적이고, 심마쿠스와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서처럼 정정은 너무 명백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맛소라 학자들이 병행법을 몰랐을리 없으므로 그들의 악센트 표시를 권위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주해도 맛소라 본문의 악센트 표시를 따라 [브니르에후]가 고운 모양과 능름한 풍채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2 분되는 두 번째 부분을 첫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4) 라헬이 “곱고 아리따다(개역: 창 29:17).”라고 묘사될 때와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다(개역: 창 39:6).”라고 묘사될 때처럼⁸⁴ 여기에도 **모양**(מִצָּאֵר[토아르])과 **모습**(מִרְאָה[마르에])이란 단어가 함께

⁸⁴ [창 29:17] רָחֵל הָיְתָה יְפֵת־תֹּאֵר וְיִפֵּת מִרְאָה

개역개정: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새번역: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다
 우리말성경: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뻐습니다
 ESV: Rachel was beautiful in **form** and **appearance**
 YLT: Rachel hath been fair of **form** and fair of **appearance**

[창 39:6] יִהְיֶה יוֹסֵף יְפֵה־תֹּאֵר וְיִפֵּה מִרְאָה

개역개정: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새번역: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사용되었다. 이 단어들 나오는 순서에 유의하면 52:14 의 모습—모양과 53:2 의 모양—모습은 역순대구를 이루고 있다. 53:2 의 두 단어 모양과 모습은 그것들을 수식하는 어구가 나오지 않지만 라헬과 요셉의 묘사에 나오는 **הַיָּפֶה**[야페]나 다윗의 묘사에 나오는 [야페]와 [토브]가 있는 것처럼 “고운 모양”과 “멋진 모습”으로 번역하였다.

- 5) **풍채**로 번역된 **הַיָּפֶה**[하다르]는 중요한 인물에게서 기대되는 인상적인 외모를 나타낸다. KB(240)는 “존귀”를 뜻하는 **הִיָּה**[호드]와 더불어 짝을 이룬 **הַיָּפֶה הִיָּה** [호드 브하다르]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엄위를 묘사하거나(시 96:6; 104:1; 111:3; 욥 40:10; 대상 16:27) 왕의 존귀/영화와 위엄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것(시 21:5[MT 6]; 45:3[MT4])을 지적한다.
7. 이처럼 여호와의 종은 그 모양에 있어서 매력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었고 능름하지도 않고 의젓하지도 않고 위엄도 없었고 그를 볼 때 그 모습에 있어서 흠모할 만한 멋진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 인간의 육안으로 보기에 인간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것도 없었고 인간의 심안으로 보기에 인간의 찬사를 받을 만한 것도 없었다. 여호와의 종의 외모는 영적 소경인 인간들이 얼마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외모였다. 외모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참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그 종은 자기 백성 가운데 구원을 베풀 여호와의 팔로 나타나셨으나 그의 외모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그에게서 그들의 눈을 기쁘게 하는 어떤 아름다움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슬픈 현상이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 여호와의 종의 외모 배후에 있는 참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기름 부을 자로 잘못 생각한 사무엘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에 의해(삼상 16:7) 영안이 열린 사람들만이 종이 여호와 앞에서 묵묵히 종으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아름다운 진면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시다(벧전 2:4).”

사 53:3 주해

사 53:3 그는 멸시를 당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우리말성경: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ESV: Joseph was handsome in **form** and **appearance**

YLT: Joseph is of a fair **form**, and of a fair **appearance**

Cf. [삼상 16:12] **וְהוּא אֲדָמוּי עִיְנָיִם יְפֵה עֵינָיִם וְטוֹב רֵאֵי**

개역개정: 그(=다윗)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새번역: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우리말성경: 그는 발그레한 살결에 눈이 반짝였으며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ESV: Now he was ruddy and had beautiful eyes and was handsome.

NASB: Now he was ruddy, with beautiful eyes and a handsome appearance.

YLT: and he is ruddy, with beauty of eyes, and of good appearance

**[그는] 슬픔(들)의 사람이요 아픔을 아는 자였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외면해 버리는 자처럼 멸시를 당했고
 우리마저도 그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1. 사람들은 눈길을 끌 만한 모양과 풍채를 갖지 못했고 흠모할 만한 모습을 갖지 못한 여호와의 종을 멸시하였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2 절에서처럼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의 외모를 보고 흠모할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3 절에서처럼 사람들은 그러한 여호와의 종을 멸시하였다. 여호와의 종이 사람들로부터 당한 멸시에 대한 언급은 3 절의 처음과 끝에 한 번씩 나온다. **그는 멸시를 당했고(קָדַחְתָּ[니브제]) . . . 멸시를 당했고(קָדַחְתָּ[니브제]).**

1) 성경에 “멸시하다(קָדַחְתָּ[바자])”라는 단어가 쓰인 예들은 이렇다(Young, 343).

- ①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창 25:34).
- ② 제비 뽑혔으나 행구 사이에 숨은 사울은 멸시를 당했다(삼상 10:27).
- ③ 골리앗은 소년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삼상 17:42).
- ④ 미갈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춤추는 다윗을 심중에 업신여겼다(삼하 6:16).
- ⑤ 예레미야는 고니야(여호야긴) 왕을 천한 파기(멸시받은 깨어진 그릇)로 비유하였다(렘 22:28).
- ⑥ 다니엘은 왕위를 이을 자를 비천한 사람으로 불렀다(단 11:21).

2) “멸시하다(קָדַחְתָּ[바자])”라는 단어는 영어의 despise(경멸하다)처럼 강한 감정의 요소가 들어있지 않고 어떤 대상이 무가치하거나 주목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to consider something or someone to be worthless, unworthy of attention)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호와의 종이 멸시받았다는 것은 의식적이고 심사숙고한 거절과 배척(conscious and deliberate rejection)을 당한 것이 아니라 속단에 의한 성급한 퇴짜(hasty dismissal)를 당한 것을 나타낸다(Oswalt, 383).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퇴짜를 놓으며 푸대접하였다.

2. 여호와의 종은 멸시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אִישִׁים לְהַדִּיל [하달 이심]).

1) אִישִׁים לְהַדִּיל [하달 이심]은 명명구로 직역하면 “cessation of men”인데 cessation from men 혹은 cessation by men 으로 해석될 수 있다. 노르트와 클라인즈 등이 취한 전자의 뜻은 사람들이 종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종이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나타내고, 오스왈트(“a rejection of people”로 번역)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석가들(스마트, 와이브레이, 모티어, 영)이 취한 후자의 뜻은 사람들이 종을 무가치하다고 간주하고 종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나타낸다(Oswalt, 383). 문맥은 후자의 뜻을 지지한다.

- ① 영(343)은 종이 사람들을 피하는 능동 의미의 “ceasing from men”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거절 당하는 수동 의미의 “rejected of men”이 만족스러운 번역이라고 설명했다.

② KB 293 에 의하면 [하달]은 “그치다, 그만두다, 끝내다, 버려두다 to cease, leave behind”라는 의미를 갖는 어근에서 파생된 명사이며 여기서 “버림받은 자(abandoned)”란 수동의 의미로 쓰였다.

③ 모티어(428)는 [하달]이 “come to end 끝나다”는 의미에서 “lacking, running out of 부족한, 다한/동난”를 뜻하는 형용사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므로 “멸시의 대상으로 그는 추종자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as the object of scorn he was left ‘lacking in’ adherents)”라는 의미로 풀이했다.

2) “사람”을 뜻하는 단수 명사 **אִישׁ**[이시]의 복수형으로 흔히 쓰이는 **אִישִׁים**[아나심] 대신 **אִישִׁים**[이심]이 사용되었다. ⁸⁵ 영은 **אִישִׁים**[이심]이 상류 계층의 사람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설명한다. 오스왈트(375 n. 63)와 모티어(428)는 밀렌버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תְּקַלּוֹת מְכַאֲבוֹת אִישִׁים** [바하달-이심-이시-마흐오보트]”에서 [이심]은 [이시]와 시적인 유운(類韻 assonance)을 이루고 많은 사람(many [이심])과 대조되는 하나(one [이시])로서 종이 고립된 개체를 부각시킨다고 설명한다. 후자의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

3. 여호와의 종은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자신의 문제들로 가득 찬 인물로 보였다. 사람들에게 그는 시선을 끌만한 특별한 매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요 그 자신의 문제들을 가진 자로 보였다. 그는 **슬픔(들)의 사람이었고 아픔을 아는 자였다**. 그는 슬픔을 많이 겪었고 아픔을 잘 알았다. 그는 승리자들에 속하지 않고 패배자들에 속한 모습을 지녔다. 패배자가 어찌 패배자들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만했다.

1) 그는 **슬픔들의 사람**(**מְכַאֲבוֹת אִישׁ** [이시 마흐오보트])이었다.⁸⁶ 여호와의 종의 으뜸가는 특징이 있다면 슬픔이었다. [마흐오브]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로 “grief, pain, sorrow, 깊은 고뇌, 고통, 슬픔”으로 번역된다. 개역개정은 “몹시 고생스러움”을 뜻하는 “간고”로 번역하고 새번역과 우리말성경은 “고통”으로 번역했다. **슬픔들의 사람**이란 어구는 종이 슬픔을 많이 겪고, 간고를 많이 겪고, 수없는 고난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것을 나타낸다.

2) 그는 **아픔을 잘 아는 자**(**יָדוּעַ הָאִישׁ** [여두아 홀리])였다.

⁸⁵ GKC 96(pp. 284-285)은 단수와 복수의 어간이 다른 것으로 보고 단수 **אִישׁ**[이시]는 “강하다 to be strong”를 뜻하는 어근에서 파생된 명사이고, 복수 **אִישִׁים**[아나심]은 “사회적이다 to be sociable”를 뜻하는 어근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았다. 복수형 **אִישִׁים**[이심]은 사 53:3 이외에 시 141:4 과 잠 8:4 에만 나온다(Motyer, 428). cf. GBH 99b.

⁸⁶ GKC 128stu 는 의존형 명사 **אִישׁ / בְּעַל- / מְתִי- / בְּנֵי- / כְּעַל- / אִישׁ** + 자립형 속격 명사의 형식으로 결합된 완곡 표현에서 속격 명사는 한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이러한 완곡 표현은 **אִישׁ לְשׁוֹן** [이시 라손]처럼 단일 명사(slanderer)로 번역되거나 **אִישׁ דְּבָרִים / דְּמִים** [이시 드바림/다뎀]처럼 풀어서(an eloquent man/a man of blood) 번역된다고 하였다.

- ① [홀리]는 “sickness, disease 아픔, 병, 질병, 질환, 병고, 질고”를 뜻하는 단어이다. 여기에서 병은 죄를 묘사하는 은유적 단어이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병에 비유하며 “온 머리는 병들었고(וְכָל־רֹאשׁוֹ [콜 로시 로홀리])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사 1:5-6).”고 묘사한 적이 있다.
- ② GKC 50f 는 אֲצֻץ[아츨]처럼 자동사에서 유래하거나 אָדָּוָה[아두아]처럼 타동사에서 유래한 수동분사 פָּעוּל[파울]과 같은 어형이 내재해 있는 성질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것을 지적한다(cf. *IBHS* 37.4e). 모티어(428)는 파알[=갈] 어간 수동분사 אָדָּוָה[아두아](familiar with)에 대하여 “to know, and hence with personal experience of 개인적인 경험으로 알게 된”으로 해석하든지 “submissive to/humbled by ~에 복종적인/~에 의해 겸비해진”으로 해석하든지 어느 의미를 취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하였다. 두 의미가 가능한 것은 죄라는 병으로 인한 아픔을 자신이 체험하는 것과 그것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모두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 종의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 ③ 그러므로 **아픔/병/병고/질고를 아는 자**라는 어구는 여호와의 종이 육체적으로 허약해서 이런 저런 질병에 계속 걸렸다거나 자신의 병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자신이 병을 잘 알게 되었다(made to know sickness, acquainted with sickness)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Young, 344). 종은 죄로 인한 인간의 고통, 곧 질고/병고를 잘 아는 자였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이 이를 구원은 육체적 슬픔이나 질병들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그러한 슬픔과 질병이 흘러나오는 원천인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을 알 수 있다.

4. 여호와의 종이 많은 슬픔의 사람이고 아픔을 잘 아는 자로 보일 때 그는 **사람들이 외면해 버리는 자처럼** 취급을 받았다.

1) **사람들이 외면해 버리는 자처럼**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우리로부터 얼굴의 가림처럼, BDB: and like a hiding of face from him”이다.

① 여기 וּמִיָּמֵינוּ[미메누]에 붙어 있는 접미대명사는 문법적으로 YLT 처럼 1 인칭 복수(우리로부터, from us)로도 볼 수도 있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처럼 3 인칭 단수(그로부터, from him)로도 볼 수 있다. 접미대명사를 1 인칭 복수로 보면 여호와의 종이 우리로부터 그의 얼굴을 감추기 위해 가리는 것이 되지만(YLT: And as one hiding the face from us), 3 인칭 단수를 취하면 사람들이 그로부터 그들의 얼굴을 감추기 위해 가리는 것이 된다(ESV: as one from whom men hide their faces; KJV: and we hid as it were *our* faces from him). 스미스(447)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돌리시고 그를 거절하신 것을 암시하는 타르굼역의 해석이 하나님께서 그를 변호해 주실 것이라는 종의 확신(사 49:4, 8; 50:7-9)과 어긋난다고 설명하였다.

② 사 53:3 이 고난 받는 종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지 않고 사람들이 그의 외모를 보고 마음에 일으킨 반응을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문맥은 3 인칭 단수(“그로부터”)로 보는 것을

지지한다. 세 번째 종의 노래에 있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뱀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לֹא גִבְרֵי קִלְכָּוִת מְקַלְכְּלוּתִי מִהִקְרָתִי)”는 사 50:6 도 종이 우리(사람들)로부터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종)으로부터 그들의 얼굴을 가리는 것을 지지한다.

2) 사람들은 고난의 종이 슬픔과 아픔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그들의 얼굴을 돌려 버렸다. 사람들은 종의 특징을 이루었던 간고와 질고로 인하여 그를 바라보기에 너무나 반감이 일어나서 마치 그가 어떤 혐오감을 일으키는 질병에 걸린 것처럼 나병환자를 대하듯이 그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저주를 받는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다.

5. 이처럼 여호와의 종은 마치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그들의 얼굴을 그로부터 돌려버리는 것처럼 외면당했고 **멸시를 당했고 우리마저도 그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3 절이 시작될 때 나온 “**멸시를 당했다**”는 진술이 다시 한 번 반복됨으로써 3 절은 절정에 이르며 거기에 비극적인 진술 “**우리마저도 그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덧붙여진다.

1) 여호와의 종 자신이 지닌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간고와 질고로 말미암아 그의 모습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로부터 얼굴을 가려버리며 멸시하였다. 그의 백성된 우리는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조차도 멸시하는 일에 가담하며 **그를 매우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마저도 그를 아무 것도 아닌 존재로, 가치 없는 존재로 간주해버렸다. 그 종은 멸시 당하고 철저히 고독해진다. 그의 백성의 배척이 너무나 큰 나머지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사 49:4)”라는 종의 말이 사실로 느껴질 정도일 것이다.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온 종이 당하는 혹독한 고난은 배척하는 그의 백성에 의해 더욱 가중된다. “귀중하게 생각하다, 귀히 여기다, 존중하다”는 동사 [하사브]는 사 13:17; 33:8; 말 3:16 에도 사용되었다.

2) 요한이 묘사한 것처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요 1:9-11).”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에 의해 영접 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무가치한 존재로 간주되셨다. 예수님은 다가올 수난을 예고하시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막 8:31)”을 말씀하신 것처럼 “버린 바 되셨다.”

6. 모티어(429)는 이사야가 52:2-3 을 통해 우리의 인간적 조건에 대한 진단을 다음과 같이 내린다고 설명한다. “종을 보고 그에게서 아무런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의 파산을 드러낸다. 종을 멸시하는 자들과 하나가 되고 그를 버리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 오도를 드러낸다. 종을 평가하고 그가 아무 것도 아니라고 결론내리는 것은 인간의 죄성에 의해 부패되고 죄성에 참여한 인간의 지성을 정죄한다. 그러므로 인간 성질의 모든 측면이 부적합하고 우리가 본성에 의해

자연적으로 진리에 이르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든 길은 닫혀 있다. 하나님의 계시 이외의 어떤 것도 종을 우리에게 알려 줄 수 없고 우리를 종에게로 이끌 수 없다.”

7. 이사가가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가치 판단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신앙과 같다.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찬미하고 영광의 주님이 위대한 성자요 위대한 선지자요 오늘날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답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영원한 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진노 가운데 있는 죄인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대속적 희생 제사인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그 종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책망하고 계신다(요 16:9).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요 8:23-24)”라고 하신 경고를 새겨 듣고 믿지 않으므로 심판 받지 말고(요 3:18)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요 20:31) 할 것이다. 말라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이 기록되는(말 3:16)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사 53:1-3) 요약 정리

- 1) 이사가 선지자는 자신을 자신의 백성과 동일시하면서 그들을 위해 “**누가 우리의 들은 것을 믿었는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라고 말한다(53:1). 병행되는 이 두 수사의문문은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소식을 먼저 들은 우리들 중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없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여호와의 종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누가 여호와의 종이 해를 받은 후에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믿었던가? 백성의 구원을 위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누가 깨달았던가? 사실을 말하면,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한 대속이란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종의 비하와 승귀를 통한 구원임을 바로 깨닫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진정한 믿음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아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을 수 있다(롬 10:13-17).

- 2) 이사야 선지자는 종에 관한 소식과 여호와의 팔로서의 종의 계시가 거부된 것을 탄식하면서도 53:2 에서 여호와의 종의 모습과 모양의 어떤 것도 자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할만한 것이 없음을 언급한다. 여호와의 **종은** 거대한 백향목이나 강한 상수리나무나 활짝 핀 과일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나지 않았다. 그는 나무의 드러나 있는 뿌리로부터 나온 대개 불필요한 싹으로 언제든지 잘라버릴 수 있는 **결순처럼 자라났고 마른 땅에서 가까스로 돌아난** 생존이 의문시되는 **햇순처럼 자라나서** 자연적 유래를 가진 지상의 사람으로 보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분명 그는 여호와의 능력 안에 지켜지며 **그분 앞에서** 자라났다(53:2). 여기에 묘사된 식물의 순 이미지는 이사야가 이미 언급했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미지들 즉 싹 이미지(4:2), 거룩한 씨 이미지(6:13), 그리고 줄기/뿌리 이미지(10:33-11:10)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 앞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모습을 진정 이해하는 자들만이 찾을 수 있는 진리이다. 결순처럼 그리고 햇순처럼 자라났던 여호와의 종은 **고운 모양도 없고 능름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볼 때 흠모할 만한 멋진 모습도 없었다**(53:2). 고운 모양도, 능름한 풍채도, 눈길을 줄 만한 멋진 모습도,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는 종의 외모는 영적 소경인 인간들이 얼마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외모였다.
- 3) 외견상 매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에게 의해 무가치하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성급한 판단을 받아 **멸시를 당했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53:3).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의 종은 그 자신의 문제들로 가득 찬 인물로 보였다. 그는 **슬픔(들)의 사람이었고 아픔을 잘 아는 자였다**(53:3). 그는 슬픔을 많이 겪었고 아픔을 잘 았았다.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고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그는 죄라는 병으로 인한 아픔을 자신이 체험하며 그것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다. 여호와의 종이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알고 짊어진 것은 그의 사명이 육체적 슬픔이나 질병들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그러한 슬픔과 아픔이 흘러나오는 원천인 죄로부터의 구원이었기 때문이다. 매력도 없고 가치도 없어 멸시 받고 버림 당하며 슬픔과 아픔으로 뒤덮여 있는 문제 많은 인물로 낙인 찍힌 그는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되면 **외면해 버리는 자처럼 멸시를 받았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을 그로부터 가려버리도록 하는 자처럼 멸시를 당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일은 **우리마저도 그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53:3). 우리는 그의 특징을 이루었던 슬픔과 아픔으로 인하여 그를 바라보기에 너무나 반감이 일어나서 마치 그가 어떤 혐오감을 일으키는 질병에 걸린 것처럼 그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렸고 그를 아무 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고 정말 가치 없는 존재로 간주해버렸다.
- 4) 오늘날에도 자신이 구원 받아야 할 죄인임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 희생의 죽음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그 종은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며 소중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성령님은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을 지적하시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충족시키신 것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것만이 하나님께 합격점을 얻는 의를 얻는 길임을 지적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책망하시며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요 16:8-11).⁸⁷

셋째 연: 사 53:4-6 주해

1. 본문

סבלם <i>F</i> B10s5<	ומכאבינו <i>C</i> (j ²) מכאוי<+1 mpcs9	נשא <i>E</i> (II) <i>B</i> ² B10	הוא <i>h</i> ¹	תלינו <i>D'</i> (j ¹) mpcs9	אכן	53:4ab
ומענה: (II) <i>M</i> ¹ ענה<+1 Dp50	אלהים mpa	מפה נכה<+1 Hp52	נגוע (II) <i>L</i> ¹ נגע<+1 Bp50	תשכנהו (II <i>c'</i>) (h ¹) חשב<+1 B19s0	ואנחנו j (once)	53:4cd
מעונתינו <i>J</i> (j ⁴) עון<+מן mpcs9	מדכא <i>H</i> דכא<+1 Dp50	מפשענו <i>I</i> (j ³) פשע<+מן mpcs9	מחלל <i>G</i> חלל<+1 Dp50	והוא <i>h</i> ²		53:5ab
לנו: (j ⁶) ל+s9	נרפא- רפא<+1 N10	ובחברתו (h ³) חברה<+1 fscs0	עליו (h ²) על+s0	שלומנו (j ⁵) שלום<+1 mscs9	מוסר מוסר<+1 msc	53:5cd
פנינו פנה<+1 B19	לדרפו דרף<+1 mscs0	איש (II <i>b'</i>)	תעינו תעה<+1 B19	פצאן (II <i>J</i> ³) צאן<+1 fsa	כלנו <i>ω</i> ¹ (j ⁷) כל+s9	53:6ab
כלנו: (II(ω)[-ל] <i>ω</i> ² (j ⁸) כל+s9	עון (<i>J</i>) עון<+1 msc	את	בו (h ⁴) ב+s0	הפגיע (II) <i>N</i> ¹ פגע<+1 H10	ויהנה (II <i>a'</i>) (II) <i>G</i> ²	53:6c

2. 본문 문제

1) 53:4

- ① 불변화사 **אכן**의 의미와 역할은?
- ② 3 절에 나오는 **ומכאבות**와 **חלי** 그리고 4 절에 나오는 **תלינו**와 **ומכאבינו**의 순서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볼 수 있는 문예적 기교는?
- ③ 독립 주격 인칭대명사 **הוא**와 **ואנחנו**의 역할은?
- ④ **סבלם**에 붙어있는 3 인칭 복수 접미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⁸⁷ [요 16:8-11] 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 ⑤ עָנָה에서 어간의 의미는?
- ⑥ אֱלֹהִים מְכַהֵם에서 속격 자립형(אֱלֹהִים)의 역할은?
- ⑦ הָעֲנָה에서 어간의 의미는?

2) 53:5

- ① 다섯 개의 단어가 자음 מ으로 시작하는 문예적 기교는?
- ② 두 번 쓰인 전치사 מן의 의미는?
- ③ 명명구 מוֹטֵר שֶׁלֹּא מֵעָנָה에서 자립형 속격의 용법은?
- ④ אֶפְסָא는 완료인가? 아니면 분사인가?
- ⑤ אֶפְסָא가 인도하는 것은 비인칭구문인가? 아니면 인칭구문인가?
- ⑥ אֶפְסָא-לָנוּ에서 לָנוּ의 역할은?

3) 53:6

- ①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로 나오는 כָּלֵךְ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문예적 기교는?
- ② אֶפְסָא에 들어있는 정관사의 용법은?
- ③ אֶפְסָא לְדָרְכֵינוּ에서 אֶפְסָא와 이를 받는 접미대명사 ה'가 나타내는 것은?
- ④ אֶפְסָא의 문법적인 역할은?
- ⑤ 6 절의 אֶפְסָא와 12 절의 אֶפְסָא의 의미는?

3. 번역

- 사 53: 4**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아픔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가 대신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 5** 참으로 그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찢리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부서졌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을 맞았기에 우리가 치유를 얻었다.
- 6** 우리 모두는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다.

4. 문학적 분석

- 1) 버기(183-184)는 셋째연(53:4-6)의 반복된 단어들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단어 반복이 주는 문예적 효과를 설명한다.

- 4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아픔을[לִי] 그가 대신 짊어지고[אֶפְסָא]

우리의 슬픔을[מְאֵבֵנוּ] 그가 대신 담당하고[לְבַבִּי]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5 참으로 그는[אֵיךְ] 찢리었다[לָלַח]-우리의 범죄[עֲוֹנוֹ] 때문에

부서졌다[אֶבְרַח]-우리의 죄악[רְעוּלוֹ]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을 맞았기에 우리가 치유를 얻었다.

6 우리 모두는[כָּלֵנוּ]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와는 그에게 떠맡기셨다-죄악을-우리 모두의[כָּלֵנוּ].

① 셋째 연(53:4-6)을 한 단락으로 구분해 주는 단어 반복의 단서들이 있다.

- (*D'-E-C'-F*) 첫째 절(53:4)에 두 쌍의 병행 단어들, 곧 [홀리 “아픔”]-[마흐오브 “슬픔”]와 [나싸 “젊어지다”]-[싸발 “담당하다”]이 나온다.

- ($\omega^1-\omega^2$) 셋째 절(53:6)에 [콜라누 “우리 모두”]가 첫째 자리[주격]와 마지막 자리[속격]에 나오며 수미쌍관법을 이룬다.

② 53:3의 “슬픔-아픔(*C-D*)”이 53:4에서 “아픔-슬픔(*D'-C*)”의 역순으로 나오는 것은 종의 고난의 실상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 변화를 강조한다. 이것은 53:1-3의 [아도나이]-[이시]-[하샤브]가 53:4-6에서 [하샤브]-[이시]-[아도나이]의 역순으로 나오는 것(*II a- II b- II c- II c'- II b'- II a'*)에 의해서도 강조된다. 여호와[53:1 아도나이]는 슬픔의 사람[53:3 이시]을 그의 구원의 팔로 계시하셨지만 우리는 그를 귀중하게 생각하지[53:3 하샤브] 않았다. 실제로 우리는 그가 하나님에 의해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53:4 하샤브].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63:6 이시)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53:6 아도나이]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다.

③ 뛰어난 교환 곧 “우리” 대신 “그”가 이제 인정되고 있다. 종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이것은 셋째 연의 중앙 곧 53:5에 반복되는 두 쌍의 병행 단어의 반복에 의해 더욱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가 찢리고 부서진([므홀랄]-[므두카] *G-H*) 것은 우리의 범죄와 죄악([페샤]-[아본] *I-J*) 때문이었다. 단순한 반복의 집중 그리고 다른 연에서 또 사용되는 이 두 쌍의 병행 단어들의 반복은 종의 대속적 고난을 묘사의 엄숙함을 더해 준다.

2) 셋째 연은 네 번째 종의 노래의 중앙에서 중심축을 이루고 종이 고난 받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의 눈이 놓쳐 버린 것, 아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만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진술되고 있다.

① 53:4-5는 각각 4개의 콜론을 갖고 있고 53:6은 3개의 콜론을 갖고 있다.

- ② 이 부분에 고난의 종을 가리키는 “그”와 “우리”와 “여호와”가 나온다. 고난의 종을 가리키는 자립대명사 $\text{h}^1\text{-}2$ [후] ($\text{h}^1\text{-}2$ “그가, he”)는 4a 와 5a 의 주어로 나오고, 자립대명사 $\text{j}^1\text{-}8$ [아나흐누] ($\text{j}^1\text{-}8$ “우리가, we”)는 4c 의 주어로 나온다. 고난의 종을 받는 접미대명사 ($\text{h}^1\text{-}4$ 4c, 5cd, 6c)와 “우리”를 나타내는 접미대명사 ($\text{j}^1\text{-}8$ 4ab, 5abcd, 6ad)가 서로 대조되고 있다.
- ③ 접속사 바브가 붙어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4 절에는 자음 m [멤]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3 개 나온다. 5 절에는 자음 m [멤]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3 개 나오고 전치사 m [민]이 두 단어 앞에 붙어 있어서 단어 첫 자리에 자음 m [멤]이 5 번 반복된다.
- ④ 고통과 징벌을 나타내는 명사와 동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십자가 처형과 비교할 때 찌르는 것은 문자적으로 적합하고, 부수는 것은 비유적으로 적절한 용어이고, 이 둘은 채찍에 맞는 상처로 요약된다.

사 53:4 주해

사 53:4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아픔(들)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들)을 (그가 그것들을) 대신 담당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1. 여호와의 종은 슬픔과 아픔으로 특징지어졌으나 그것들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Young, 345). 이것이 바로 4-6 절이 3 절을 설명하는 방식이다(Motyer, 429).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종의 고난은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었고 우리에게 평강과 치유를 가져다주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종의 대속적 죽음은 길 잃은 양처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2. 4 절을 시작하는 m [아헨]에 대한 설명들은 다음과 같다.
 - 1) BDB(38)는 부사로 분류하고 두 가지 의미로 풀이한다.
 - ① 단언적(asseverative)인 의미, 즉 “surely, truly 실로, 정말로, 참으로”
 예: 창 28:16; 출 2:14; 삼상 15:32; 사 40:7; 45:15; 렘 3:23
 - ② 대조를 강조하는 의미, 즉 “but indeed, but in fact 그러나 실상은, 그러나 사실은”
 예: 사 49:4b[4a 와 대조]; 53:4[3 절 끝과 대조]; 렘 3:20[19b 와 대조]; 습 3:7b; 시 31:23b[23a 와 대조]; 66:19; 82:7[6 과 대조]; 욥 32:8[7 과 대조]
 - 2) KB(47)도 두 가지 의미로 풀이한다.
 - ① 기대하지 않은 것을 강조하는 감탄을 나타내는 “surely 실로, 정말로” (BDB 의 예들 + 렘 4:10; 8:8)
 - ② 강한 대조를 나타내는 “however 그러나” (BDB 의 예들과 같음)
- 3) 대부분의 영어 성경 “surely”와 개역/개역 개정의 “실로”는 BDB 와 KB 가 제시한 첫 번째 풀이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4) 모티어(430)는 אָהֵן[아헨]이 기대하지 않은 것을 강조한다고 설명하고, 오스왈트(385)는 전혀 새로운 것을 소개하며 긍정과 대조를 동시에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IBHS(39.3.5d)는⁸⁸ 바로 앞에 있는 진술을 제한하거나 뒤엎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5) 문맥을 따라 정리하면 4 절의 첫 단어 אָהֵן[아헨]은 3 절에서 사람들이 종의 슬픔과 아픔을 자신의 많은 문제 때문에 겪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멸시하고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과 대조되는 진실에 주목하고 실상을 보도록 인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אָהֵן[아헨]은 “실로, 정말로”라기 보다는 “그러나 실상은, 그러나 사실은, 그러나 실제로는”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3 절과 4 절에 역순으로 나오는 병행 단어의 쌍을 보기 위해 나란히 두면 다음과 같다.

3ab 그는 멸시를 당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슬픔(들)의 사람이요 아픔을 아는 자였다.

4ab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아픔(들)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들)을 그가 (그것들을) 대신 담당하고 있었다.

1) 4 절은 사람들이 종의 슬픔과 아픔을 보고 생각했던 것과 그 실상이 전혀 다른 것을 보여준다. 3 절에서 슬픔은 복수형이고 아픔은 단수형이지만 4 절에서 **아픔**과 **슬픔**은 모두 복수형이다. 3 절의 **슬픔-아픔**이 4 절에서 역으로 **아픔-슬픔**으로 나오는 역순대구를 고려하여 개역/개역 개정의 3 절에 “간고-질고”가 나오고 4 절에 “질고-슬픔”이 나오는 것은 “간고”와 “슬픔”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간고-질고 // 질고-간고” 혹은 “슬픔-질고 // 질고-슬픔” 혹은 “슬픔-아픔 // 아픔-슬픔”으로 통일하여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4 절의 첫째 컬론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אָהֵן	אִיֵּהוּ	אִיֵּהוּ	אָהֵן
[나싸]	[후]	[홀라에누]	[아헨]
짊어졌다	그가	아픔들을-우리의	그러나 실상은

이렇게 원문은 “아픔들”이란 명사에 붙어 있는 접미대명사 “우리”와 자립대명사 “그”를 나란히 오도록 함으로써 둘 사이에 뚜렷한 대조를 보도록 한다. 이러한 대조를 보다 잘 볼 수 있도록 영(345)은 “The sickness of **US** He bore.”라고 직역하였다.

3) 4 절의 둘째 컬론의 동사 אָהֵן[스발람]은 “우리의 슬픔들”을 받는 אָ, [암]이라는 3 인칭 복수 접미대명사를 가지고 있다. 둘째 컬론의 직역은 다음과 같다.

⁸⁸ [사 49:4]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녕히(אָהֵן[아헨])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IBHS는 אָהֵן[아헨]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 안에 원문에 없는 의역을 넣으며 사 49:4 을 I said, “I’ve in vain” . . . **but** [I was wrong to say that, because] my judgment is with YHWH.”라고 번역하고, 사 53:3d-4a 를 “We did not esteem him **but** [we are wrong because] he carried our weakness.”라고 번역하였다.

סָבַל	וָשָׂא
[스발람]	[우마흐오베누]
그가-담당했다-그것들을	그리고-슬픔(들)을-우리의

4. 동사 "וָשָׂא[나싸] **짊어지다**"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짐을 들어 올리거나 들어 올려 짊어지는 것(to lift up off someone; to lift up and carry)을 뜻하고, 동사 "סָבַל[싸발] **담당하다**"는 메거나 자신의 짐으로 삼는 것(to shoulder, to take as one's own burden)을 뜻한다(Motyer, 430). 여기 **짊어지는 것과 담당하는 것을** 표현하는 동사는 종의 대속적 고난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Oswalt, 386). 이것은 53:11-12 에 "죄악을 담당하고 죄를 짊어지고 범 죄자들을 떠맡으며 기도하는" 53:11-12 의 분명한 묘사를 통해 확인된다.

1) **짊어지는 것은** 레위기의 제사와 관련하여 빈번히 사용되었다. 희생 제사의 동물이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짊어지고 옮기어 버리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자는 그 죄를 더 이상 짊어질 필요가 없었다. 희생 동물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제사 드리는 자를 대신하여 죽었다. "[나싸 아본] 죄악을 짊어지다, to bear iniquity"라는 표현은 그 죄악에 수반되는 죄책과 형벌을 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레 5:1, 17; 10:17; 16:22; 17:16; 20:19; 민 9:13; 14:34).⁸⁹ 이와 비슷하게 **담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짐을 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을 나타낸다(애 5:7).⁹⁰

⁸⁹ Young(*Isaiah 53*, 43): "To bear a person's iniquity means, of course, to bear the guilt brought on by that iniquity. In the nature of the case it must be so. Iniquity in itself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borne. Iniquity, however, involves guilt and consequently liability to blameworthiness and to punishment." 레 5:17(וְאִם-לִפְנֵי כִי תִחַטָּא וְעִשְׂתָּהּ אַחַת מִכָּל-מִצְוֹת יְהוָה אֲשֶׁר לֹא תַעֲשִׂינָהּ וְלֹא יֵדַע וְאִשָּׁם)은 여호와의 금령을 알지 못하고 범했을 경우라도 죄책이 있어(아셈—he is guilty) 죄악을 짊어져야([나싸 아본] to bear the iniquity)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 53:11 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다, to carry the iniquity"를 표현할 때 동사 [나싸] 대신 [싸발]을 사용하고 있다.

⁹⁰ Smith(449)는 [나싸]와 [싸발]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짐을 짊어지는 것을 도와 함께 담당하는 참여의 의미를 갖기도 하고(출 18:22; 민 11:17 [싸발]), 다른 사람들이 짊어지는 짐을 대신 짊어지고 담당하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애 5:7 [싸발])고 설명한다. Smith 가 전자의 예로 언급한 사 46:7 은 사 46:4 과 함께 후자의 의미로 보는 것이 문맥에 더 적합한 것처럼 보인다. Smith 가 후자의 예로 든 사 40:24; 41:16 에는 [나싸]와 [싸발]이 나오지 않는다. 사 46:4-7 의 원문과 번역문들을 비교해 보라.

4 וְעַד-זְקֵנָה אֲנִי הוּא וְעַד-שִׁבְיָהּ אֲנִי אֶסְבֵּל אֲנִי עֲשִׂיתִי וְאֲנִי אֲשָׂא וְאֲנִי אֶסְבֵּל וְאִמְלֹט:
7 יִשְׂאֵהוּ עַל-כֶּתֶף יִסְבְּלֵהוּ וְיִנְחֵהוּ תַחְתָּיו וְיַעֲמֵד מִמְקוֹמוֹ לֹא יִמֵּשׁ אֶף-יִצְעַק אֵלָיו
וְלֹא יַעֲנֶה מִצָּרְתּוֹ לֹא יוֹשִׁיעֵנּוּ:

ESV: 4 even to your old age I am he, and to gray hairs I will *carry* you. I have made, and I will **bear**; I will *carry* and will save. (6. Those who lavish gold from the purse, and weigh out silver in the scales, hire a goldsmith, and he makes it into a god; then they fall down and worship!)

7 They **lift** it to their shoulders, they *carry* it, they set it in its place, and it stands there; it cannot move from its place. If one cries to it, it does not answer or save him from his trouble.
 개역개정 46:4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7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나싸]와 [싸발]이 나오는 구절들(53:4, 11, 12)과 [파가]가 나오는 구절들(53:6, 12)에 대한 개역과 개역개정에서 [싸발]이 4 절에서 “당하다”로 번역되고 11 절에서 “담당하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4 절의 [싸발]도 “담당하다”라고 번역하여 대리적 고난의 의미를 분명하게 들어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 [나싸]를 4 절에서 “지다”라고 번역하고 12 절에서 “담당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개역처럼 둘 모두 “지다”라고 번역한 것만 못하다. 개역개정은 6 절의 [파가]와 11 절의 [싸발]과 12 절의 [나싸]를 모두 “담당하다”로 번역함으로써 모두 같은 단어로 생각하게 할 수도 있다. HCSB 는 일관되게 [나싸]를 to bear 로 번역하고 [싸발]을 to carry 로 번역했으나 KJV/NIV/ESV/NASB 는 4 절의 [나싸]와 [싸발]은 bear-carry 로 구별했지만 11 절의 [싸발]과 12 절의 [나싸]를 모두 bear 로 번역했다.

6 절의 [파가]를 “담당하다”라고 번역한 개역과 개역개정의 경우 11 절의 [싸발] (“담당하다”)와 같은 단어로 생각할 수 있게 하므로 본 주해의 번역처럼 “떠맡다”와 같은 다른 단어를 선택하여 구별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니면 6 절과 12 절의 [파가]를 “담당하다”로 번역하고 4 절과 11 절의 [싸발]을 “떠맡다”로 통일하여 번역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래 부분에서 설명할 것이지만 [파가]의 히브일 어간 동사인 6 절의 [히프기아]는 고난의 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이고 12 절의 [야프기아]는 고난의 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인 것을 나타낸다.

	동사	개역 개정	개역	번역
53:4	나싸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아픔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싸발	우리의 슬픔을 <u>당하였거늘</u>	우리의 슬픔을 <u>당하였거늘</u>	우리의 슬픔을 그가 대신 <u>담당하고 있었다.</u>
53:6	파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u>담당시키셨도다</u>	우리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u>담당시키셨도다</u>	여호와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u>떠맡기셨다.</u>
53:11	싸발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u>담당하리로다</u>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u>담당하리라</u>	그들의 죄악을 친히 <u>담당할 것이다.</u>
53:12	나싸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고
	파가	범죄자를 위하여 <u>기도하였느니라</u>	범죄자를 위하여 <u>기도하였느니라</u>	범죄자들을 <u>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이다</u>

2) 레 16:21-22 에 의하면 속죄일에 아론은 두 염소 중 아사셀(총 4 번: 레 16:8, 10[2 번], 26)을 위해 제비 뽑힌 염소의 머리에 그의 양손으로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와 모든 죄악과 모든 죄를⁹¹ 고백하며 그것들을 그 머리에 둔 후 미리 정해진 사람에게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냈다. 그 염소는 자기 위에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되돌아 오기 불가능한 “끓어진 땅”(곧 아마도 깊은 계곡)으로 갔거나 절벽으로 가서 떨어져 죽었다.⁹² 아론이 그의 양손을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에 얹고 고백할 때 나오는 죄에 대한 명사들은 [아본]과 [페샤]와 [하타아]의 복수형이다. 이 세 용어를 통틀어 요약할 때 그들의 모든 죄악(כָּל־עֲוֹנוֹתָם [콜 아보노탐])이라고 하고 그 염소가 자기 위에 그것들을 짊어졌다고 “짊어졌다”고 할 때 사용된 동사는 [나싸]이다. 우리가 다루는 네 번째 종의 노래에도 명사 [아본]과 [페샤]와 [헤트]가 나오고 동사 [나싸]가 나온다. 종이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한 것(53:4), 종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53:11)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것(53:12), 하나님이 떠맡기신 우리 모두의 죄악을 떠맡아(53:6) 범죄자들 중 하나로 헤아려지고(53:12),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찢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박살난(53:5) 것은 속죄일의 아사셀을 위한 염소 곧 속죄 염소를 생각나게 한다.

⁹¹ 레 16:21 의 원문과 번역들을 비교해 보라. 죄에 대한 세 용어와 “모든”이란 단어를 직역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들과 그들의 모든 범죄들, 그들의 모든 죄들(-을, -에 대하여)”이다.

וְהִתְוַדָּה עָלָיו אֶת־כָּל־עֲוֹנוֹתָ בְּיָדָיו וְאֶת־כָּל־פְּשָׁעָיו לְכָל־אֲחֵיכֶם

개역개정: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새번역: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우리말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반역과 그들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써

NASB: and confess over it all the iniquities of the sons of Israel and all their transgressions in regard to all their sins

NIV: and confess over it all the wickedness and rebellion of the Israelites--all their sins--

ESV: and confess over it all the iniquities of the people of Israel, and all their transgressions, all their sins.

HCSB: and confess over it all the Israelites' wrongdoings and rebellious acts--all their sins.

ISV: and confess over it the sins of Israel, all their transgressions, and all their sins

JPS Tanakh 1917: and confess over him all the iniquities of the children of Israel, and all their transgressions, even all their sins

YLT: and hath confessed over it all the iniquities of the sons of Israel, and all their transgressions in all their sins

⁹² Gordon J.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9), 233-234. 웬함은 아사셀에 대하여 광야의 귀신의 이름, 온전한 파멸(complete destruction), 절벽(rocky precipice) 등의 견해가 있음을 제시하고 라시가 “끓어진 땅(הַרְזָה אֶרֶץ)”이 아사셀(לְאִזָּעַל)을 해석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 따른다면 아사셀은 “rocky, craggy”를 의미하거나 헤르츠나 호프만이 제안한 “온전한 파멸”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 3) 고난의 종은 우리의 아픔들을 자신 위에 들어 올려 짊어졌고, 우리의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친히 담당하였다. 이것은 종이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에 우리와 함께 동참한 것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뜻이 있다. 이것은 그 종이 원래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아픔들과 슬픔들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스스로 짊어지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고난들로부터 해방되도록 하였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종은 그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백성을 위해 대신하여 고난을 받은 것이다. 질고(아픔)와 간고(슬픔)는 우리의 것이었고, 무거운 짐처럼 우리를 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서 우리의 아픔(질고)과 슬픔(간고)을 자신 위에 짊어지고 자신의 짐으로 삼아 담당하심으로써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 위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해주셨다. 그는 우리가 짊어지고 담당해야 할 고난을 우리 대신 짊어지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대리자가 되었다. 종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짊어지시고 담당한(53:4)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종에게 떠맡기셨기(53:6) 때문이다.
- 4) 여기에는 한 사람("그")과 많은 사람("우리")의 양적인 대조뿐만 아니라 의인인 한 사람("그")과 죄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지닌 많은 사람("우리")의 질적인 대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Young, 345).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것을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마 8:16-17)이라고 설명하였다.
5. 셋째 콜론을 시작하는 **וְכִנְיָנוּ**[바아나흐누]("그러나 우리")에서 접속사 바브는 역접의 의미를 가지고, 1 인칭 복수 자립대명사는 앞에 나온 자립대명사 **אֲנִי**[후]와 뚜렷한 대조를 드러내며, 그 종을 그의 대리적 고난 속에 고립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여호와와 종이 실로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 종의 고난의 이유를 철저히 오해했다. 그가 슬픔을 많이 겪고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들이 그 자신의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였다.
- 1) 여기에 사용된 동사(**וְכִנְיָנוּ**[하샤브누후])에 붙어 있는 접미대명사(**אֲנִי**[후])는 동사의 직접목적어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분사형들은 모두 목적 보어 역할을 하고 있다(*GKC* 117ii). 문법적으로 **וְכִנְיָנוּ**[나구아]와 **וְכִנְיָנוּ**[무케]는⁹³ 수동분사이고, 둘 모두 한 번 쓰인 **אֱלֹהִים**[엘로힘] ("하나님")을

⁹³ *TWO*(1364)는 **וְכִנְיָנ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Hifil to hit an object with one, non-fatal strike; *to beat some object*, to strike dead, to kill; to attack and/or destroy a group of people: The OT law apparently allowed scourging for certain offenses (Dt 25:2-3; cf. 2 Cor 11:24). Jeremiah, however, was beaten by authorities although he was innocent (20:2; 37:15). So also was the Suffering Servant who gave his back to the smiters (Is 50:6 cf. Mt 26:67). Of particular importance is the fact that God is often the subject of **וְכִנְיָנוּ**. It is God who smites people with blindness (2 K 6:18) and plagues (Dt 28:22, 27-28, 35). He brings judgment upon man for his sin (1 K 14:15; Lev 26:24), even death (2 S 6:7).

의미상의 행위자로⁹⁴ 갖기 때문에, 두 병행구는 “하나님에 의하여 징벌받고” “하나님에 의해 매 맞으며”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재앙을 만난, 재앙을 당한, 징벌을 받은, 형벌을 받은”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עָנָה**[나구아]는 바로 뒤에 나오는 “[무케 엘로힘] **하나님께 맞는**”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 징벌 받는”이란 의미에서 “**천벌 받는**”으로 번역하였다. 지금까지 살핀 구문적 설명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עָנָה	אֱלֹהִים	עָנָה	עָנָה	הַשְּׂבִיחַ	וְאֵנָּה
목적보어 3	보어 1-2 의 행위자	목적보어 2	목적보어 1	동사(+주어) +목적어	주어
그리고 고난 받는	하나님에 의해	맞는	징벌 받는	(우리는) 그를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는

- 2) 어근 **עָנָה**[나가]는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을 묘사할 때(창 12:17), 여호와께서 웃시야를 문둥병으로 치신 것을 묘사할 때(왕하 15:5), 문둥병 자체가 아니라 문둥병의 발병(infliction, blow)에 관하여 묘사할 때(레 13-14 장에 60 번), 언약의 저주로 임한 “재앙”을 묘사할 때(왕상 8:37-28), 그리고 시인이 “재앙 당한” 것을 묘사할 때(시 73:14) 사용되었다.⁹⁵ 이 단어에 근거하여 메시아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바벨론 탈무드(*Sanhedrin* 98a)의 진술은 이 단어가 문둥병의 발병 뿐만 아니라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병이나 재앙을 가리키는 것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
- 3) 종의 고난이 그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오해한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에 싸여 있고 그러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4 절의 마지막 단어 **עָנָה**[므우네]는 합리적인 원인을 반영하며 실질적인 작위 개념을⁹⁶ 나타내는 작위 수동 분사(IBHS

⁹⁴ *GKC*(116 l)는 수동분사가 의존형으로 쓰인 경우 뒤 따르는 속격은 원인이나 행위자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원인을 나타내는 예로 **שָׂרְפוֹת אֵשׁ** *burnt with fire* 불에 탔고(사 1:7 cf. 창 41:6; 출 28:11; 신 32:24)를 들었고, 행위자/저자(author)의 예로 **בְּרֵכָה לַיהוָה** *blessed of the Lord*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창 24:31 cf. 시 22:7; 욥 14:1; 15:14; 25:4)와 접미대명사를 속격으로 갖는 **אֵלֶּיהָ** *her invited ones = those invited by her* 그의 객들(잠 9:18) 등을 들었다. cf. *GBH* 121p; *HebS* 45; *IBHS* 9.5.1b(subjective genitive); 37.3c(agency).

⁹⁵ *TWOPI*(1293)는 **עָנָה**[나가]가 하나님에 의로운 심판으로 악인을 치시는 것을 묘사하는 데(창 12:17; 32:25; 삼상 6:9) 쓰인 것과 시인(시 73:14)과 욥(19:21)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불평하며 재앙당하는 것을 묘사하는데 쓰인 것을 지적하고, 본절에서 고난의 종을 보는 자들이 그가 하나님에 의하여 공정하게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⁹⁶ 작위(factitive)는 영어의 enlarge 가 make large 를 의미하고 gladden 이 make glad 를 의미하는 것처럼 어떤 상태를 일어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히브리어 피엘 어간은 기본적으로 작위 개념을 표현하고 강세와 같은 다른 개념들도 나타낸다.

25.2a n. 4)로서⁹⁷ 종이 고난에 싸여 있는 것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종에 대하여 가졌던 잘못된 생각의 절정에 이르게 한다.⁹⁸

4) 종이 하나님에 의하여 징벌을 받고 매맞는(מִיָּדָיִךְ הַמָּוֶלֶת לְעַבְדֶּיךָ [나구아 무케 엘로힘]) 것은 종이 대상이 되는 측면 즉 그의 고난의 객관적 측면(objective side of his suffering)을 보여주는 반면 종이 고난을 받으며(מִיָּדָיִךְ[므우네]) 고난에 싸여 있는 것은 종이 주체가 되어 낮아지고 비하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측면 즉 그의 고난의 주관적 측면(subjective side of his suffering)을 보여준다(Motyer, 430). 하나님에 의하여 징벌을 받고 매맞고 고난에 싸여 있는(53:4)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며 부수시고 아프게 하셨기(53:10) 때문이다.

6. 여호와의 종은 슬픔과 아픔으로 특징지어졌지만(3 절), 실상을 말하면 우리의 아픔을 그가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가 담당하고 있었기(4 절)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가 종이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다고 생각한 것은 부분적으로 옳지만 그것이 종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다. 우리는 종의 고난의 진짜 이유를 오해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그러한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본절에서 선지자는 종에 관한 진상을 우리가 오만한 사실 자체와 그 잘못이 매우 큰 것을 두드러지게 묘사하지만 종의 고난의 본질과 이유에 대한 설명은 보류하였다. 이것은 5 절에 잘 설명되어 있다.

사 53:5 주해

사 53:5 그러나 [참으로] 그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찢리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부서졌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을 맞았기에 우리가 치유를 얻었다.

1. 선지자는 앞 절 즉 4 절의 후반부에서 종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견해를 표명한 후 이제 5 절에서 종의 고난의 본질과 참 이유를 밝히고 있다.

1) 4cd 와 5ab 를 나란히 두고 보자.

⁹⁷ IBHS 25.2a: *Qal* intransitive verbs form *Pual* factitives. Such a *Pual* may reflect a sensible causation and thus be a "real" factitive.

⁹⁸ TWOT(1652)는 어근 מוֹלַח가 "I 대답하다 to answer", "II 점령하다 to occupy", "III 강요하다, 강제로 굴복시키다 to force, to try to force submission", "IV 노래하다 to sing" 등의 네 가지 각각 다른 뜻을 가진다고 설명하며, 세번째 의미로 쓰일 때 강세/작위 어간에서 "괴롭히다, 벌을 주다, 고통을 가하다 to punish or inflict pain upon"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낮추시려고 고난을 사용하신다(예: 광야생활, 신 8:23; 포로생활, 시 102:23; 사 64:12; 숙 10:2). 고난을 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성도로부터 감사 표현을 받으신다(시 88:7; 90:15; 119:75; 애 3:33). cf. BDB 776 מוֹלַח III be afflicted 시 119:107; 사 53:7; 58:10.

4cd 그러나 우리는(אֲנִי וְעַמִּי[바아나흐누]) 그가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5 ab 그러나 그는(אֵלֵינוּ [브후])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찢리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부서졌다.

- ① 4 절의 셋째 콜론(4c)이 אֲנִי וְעַמִּי[바아나흐누]("그러나 우리")라는 접속사+ 자립 주격 인칭 대명사로 시작되듯이, 5 절의 첫째 콜론(5a)도 אֵלֵינוּ[브후]("그러나 그는")라는 접속사+자립 주격 인칭 대명사로 시작된다. 다시 한 번 "우리"와 "그"가 대조된다. 접속사 바브(ו)는 역접의 의미를 가지며 그 종을 바라보았던 자들의 잘못된 견해와 그의 고난의 실질적 이유 사이의 대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5 절의 자립대명사 אֵלֵינוּ[후]는 정말로 벌을 받아야만 했던 자들(4 절의 "우리")과 대조적으로 오히려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서두에 위치하고 있다(Young, 347). 고난의 종, 그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홀로 서 있었다. 강조를 위해 사용된 자립 주격 인칭 대명사 [후]는 종이 우리의 필요를 다루어가는 데 있어서 두드러지게 고립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Motyer, 430).
 - ③ 우리가 어떻게 종을 생각하느냐와 관계 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 그를 다루고 계셨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4 절에 묘사된 대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아픔을 짊어지고 슬픔을 담당하며(4ab) 5 절에 묘사된 대로 이제 더 깊은 데로 나아간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5 절에서 종은 우리의 죄악된 상태(5ab)를 다루고,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5c)를 다루고, 우리의 깨어진 인간성(5d)을 다룬다(Motyer, 430).
2. 우리는 그 종이 자신의 죄 때문에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다고 생각했으나(4c) 그가 천벌을 받은 실제의 이유는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즉 우리의 범죄와 죄악 때문이었다(5ab). 그는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찢리고 부서졌다. 그는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다루기 위해 찢림받아 죽고 박살났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징벌받고 매맞으며 고난당하고 죽는 징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우리로 평강을 누리게 했다. 그는 우리가 맞을 채찍을 대신 맞음으로써 우리의 깨어진 인간성을 회복하는 치유를 받게 했다.
3. 참으로 그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찢리었다(5a). 그가 찢림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었다.
- 1) "찌르다"는 어근은 보통 "치명적으로 찢르다(욥 26:13; 시 109:22; cf. 슥 12:10)"라는 의미를 갖는다. 겔 28:9 에는 "찌르다"가 "죽이다"와 병행으로 나오고, 겔 32:26 과 렘 14:18 와 애 4:9 에는 칼에 죽은 자가 언급되어 있다(Smith, 450 n. 375). 이사야에서 어근 "찌르다"는 죽음과 관련된 맥락에서 사용되었다(사 22:2; 51:9; 66:16; cf. 시 69:26[MT 27]). 이사야에서 이 어근의 분사형이 나오는 것은 여기 이외에 용에게 치명상을 입힌 여호와의 팔을 묘사하는 사 51:9 뿐이다. 모티어(430)가 지적한대로 [할랄]의 분사형이 나오는 51:9 과 53:5 을 연결지어 생각하면 "여호와의 팔이 용을 찢러 죽였던(תִּלְחֹלֵהוּ[므홀렐레트]) 일인 것을 회상하며 사람들이 여호와의 팔에게 깨어 다시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할 때 어떻게 그들이 그 팔더러 찢림을 받아(לְחִיּוֹן[므홀랄]) 죽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나 있었겠는가?”

2) 우리의 범죄로 인해 그는 찢림을 받아 죽었다.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그의 거룩하신 불변의 율법을 어긴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다. 우리의 범죄는 영원한 죽음을 형벌로 요구하는데 그 죽음의 형벌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종에게 떨어졌다. 그는 우리의 범죄의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대신 찢림을 받아 죽었다. 그의 찢림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었다. 그가 찢림을 받고 죽은 것은 우리의 죄책 때문이었다.

4.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부서졌다(5b). 여기 “כָּרַץ [므두카] 부서졌다”는 어근 כָּרַץ[다하] 강제수동(=푸알) 어간 분사이다. 이 어근의 강제능동(피엘) 어간 부정사(כָּרַץ[다크오])가 10 절에 한 번 나온다.

1) 강제능동(=피엘) 어간은 “상하게하다/타박상을 입히다(to bruise)”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지니며 “파쇄하다/부수다/으깨다/부스러뜨리다/으스러뜨리다(to crush), 박살내다/산산조각내다(break into pieces), 바수다/부서뜨리다/분쇄하다(to pulverize)” 등의 뜻을 갖는다(사 19:10; 욥 22:9).⁹⁹

2) 여호와와 종이 상하고 망가지고 으스러지고 박살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¹⁰⁰ 그가 부서진 것은 그가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임할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이다.

⁹⁹ NIDOTTE I, 944 (# 1917): “Two instances of *dk* are found in the Song of Servant (Isa 53). In place of the KJV’s rendering of “bruise,” the NIV accurately the violence of the Heb. The servant is “crushed for our iniquities” (v. 5), for it was the Lord’s will “to crush him and cause him to suffer” (v. 10). In this way, the servant is exposed to the violence of oppression (v. 7) so that those oppressed spiritually or physically might be free.” 어근 כָּרַץ[다카]의 강제수동(푸알 5 절)과 강제능동(피엘 10 절)에 대하여 한글 번역은 일관성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개역/개역 개정은 “상하다-상하게 하다”라고 번역하고, 현대인 성경도 “상처를 입다”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새번역은 5 절에서 “상처를 받다” 그리고 10 절에서 “상하게 하다”라고 번역하고, 공동번역은 “으스러뜨리다”와 “때리고 찌르다”라고 번역하고, 쉬운 성경은 “짓밟히다”와 “상처를 입히다”라고 번역하고, 우리말 성경은 “짓몽개다”와 “으스러지다”라고 번역하였다. 본 주해는 동사 [다카]를 영어의 bruise 와 가까운 “상하다-상하게 하다, 상처를 입다-상처를 입히다” 대신 영어의 crush 와 가까운 “부서지다-부수다” “파쇄되다-파쇄하다” “박살나다-박살내다” 등으로 번역하고 해석하였다

¹⁰⁰ TWOT I, ## 427-428: “어근 [다카]와 파생어들은 시 89:10[히 11]을 제외하고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자주 하나님은 주어로 사용된다. 하나님은 억압하는 자를 꺾으시고(시 72:4) 악한 자를 쓰러드리시지만(욥 34:25) 옥에 갇힌 자들을 발로 짓밟지(애 3:34) 않으신다. 욥은 하나님이 그를 부수시고(욥 6:9) 그의 불행을 끝내주시길 구했다. 사 53:10 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의 종을 정말 부수셨다. 사 53:5 에 의하면 그의 종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부서졌다.’ 이것은 종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면서 겪은 감정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강조한다(비교: 시 51:8[히 10]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כָּרַץ)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5. “**찢리다**”와 “**부서지다**”라고 번역되는 동의적 병행 동사의 짝(G-H) [할랄]—[다카]는 고난의 종이 잔인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한 것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가장 강한 표현에 속한다(Young, *Isaiah 53*, 48).

1) 고난의 종은 우리의 범죄와 죄악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토록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므로 종이 찢리고 상하고 파쇄되고 부서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와 죄악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¹⁰¹

① 사 53 장에서 죄를 묘사하는 단어로 [폐샤](5 절, 8 절, cf. 12 절에 같은 어근에서 온 [포시임]이 두 번 사용), [아본](5, 6, 11 절), [헤트](12 절)가 나온다. [헤트]의 어근 [하타]는 “to miss, to fall short of the standard 표적을 놓치다, 길을 잃다, 표준에 미달하다”는 의미를 갖고 구약에서 595 번 사용되었다. [아본]의 어근 [아바]는 “to deviate from the standard, to twist the standard 표준에서 벗어나다, 표준을 왜곡하다”는 의미를 갖고 229 번 정도 사용되었다. [폐샤]의 어근 [파샤]는 “to revolt against the standard, to rebel 표준을 거역하다, 의도적으로 어기다, 반역하다”는 의미를 갖고 135 번 정도 사용되었다.¹⁰²

② ABD 6:32 에 의하면 명사 [폐샤]는 “transgression 위반”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반역적인 행동”을 드러내지 못하는 흠이 있으므로 “반역, 반란, 모반, 역모 rebellion, revolt”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 본 주해는 “반역”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고의(故意)로 짓는 죄 곧 “고범죄”를 마음에 두며 “범죄”라고 번역했다. 공동번역은 [폐샤]를 “반역죄”라고 번역했다. 개역과 개역개정과 새번역과 쉬운성경과 우리말성경의 “허물”은 “잘못 저지는 실수, 과실(過失), 흠”등의 의미를 가지므로 “고의로 지은 죄, 고범죄, 반역”을 뜻하는 [폐샤]의 번역으로는 너무 약하다.¹⁰³

¹⁰¹ Grudem, *Systematic Theology*, 490: “We may define sin as follows: *Sin is any failure to conform to the moral law of God in act, attitude, or nature.* 죄는 행위나 태도나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법에 순응하는 데 실패한 모든 것이다.”

Berkhof, *Sytematic Theology*, 231-233: “1. Sin is a specific kind of evil. 2. Sin has an absolute character. 3. Sin has always relation to God and his will. 4. Sin includes both guilt and corruption. 5. Sin has its seat in the heart. 6. Sin does not consist exclusively in overt acts. In conclusion it may be said that sin may be defined as *lack of confromtity to te moral law of God, either in act, disposition, or state.* 죄는 행위나 기질이나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법에 순응하는 데 부족한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¹⁰² 어근의 횡수는 ABD 6:32 를 참고하였고 어근의 의미는 TWOT 1:277-278 을 참고하였다.

¹⁰³ [폐샤](53:5, 8)와 [포시임](53:12)의 번역을 비교해 보라.

	개역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쉬운성경	우리말성경	현대어성경
5 절	허물	허물	허물	반역죄	허물	허물	죄악

개역개정에서 사 43:25 과 44:22; 53:5, 8 은 [폐샤]를 “허물”로 번역하지만 사 50:1 은 “배역함”로 번역하고 있고, 동사 [파샤]는 “거역하다(사 1:2)”로 번역하고, 분사 [포셰아]를 “배역한 자(사 48:8)”로 번역하고, 분사 [포시임]을 “패역한 자(사 1:8; 46:8), 범죄자(53:12)”로 번역하고 있다.

- ③ ABD 6:32 에 의하면 명사 [아본]은 거의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도덕적 죄책 혹은 심한 불법/사악(moral guilt or iniquity before God)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모티어(430)은 [아본]이 “구부리다”는 어근 [아바]와 관련있는 명사로 인간성의 구부러짐 혹은 부패됨, 타락의 결과 그리고 죄의 늘 흐르는 원천(the bentness or pervertedness of the human nature, the result of the fall and the ever-flowing fount of sin)을 반영한다고 설명한다. 본 주해는 [아본]을 “죄악”으로 번역했다.
- ④ TWOT 1:278 에 의하면 어근 [하타]에서 파생된 명사는 남성 **הַטָּא**[헤트](35 번) 외에도 여성 **הַטָּאָה**[하타아](3 번), **הַטָּאָה**[하타아](8 번), **הַטָּאָה**[하타트](약 290 번)도 있다. 본 주해는 명사 [헤트]를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것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용어 “죄”로 번역했다.¹⁰⁴
- ⑤ 모티어(433)는 실패/과실로서 죄(“sin as failure” [헤트] 사 53:12)는 동정/연민만 필요하고, 윤리적 결함으로서 죄악(“sin as moral defect” [아본] 사 53:5, 6, 11)은 고민스럽긴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책망 받을 수 없지 않느냐고 항변할 수 있지만, 고의적 범죄로서 죄(“sin as willfulness” [폐샤] 53:5, 8, 12)는 하나님께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우리 죄성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⑥ 하나님께서 정하신 표준을 거스리거나 왜곡하거나 그런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범죄와 죄악과 죄는 하나님의 의로 정한 법을 어긴 것이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한 죽음으로써 그 형벌을 갚아야 하는 무서운 것이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을 낮게 보는 것을 수반하고 하나님을 낮게 보는 것은 항상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수반한다.

8 절	허물	허물	허물	반역죄	죄	죄악	허물
12 절	범죄자 2 번	범죄자 2 번	죄인/ 죄지은 사람들	반역자 2 번	죄인/ 죄지은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2 번	죄인/ 범죄자들

¹⁰⁴ [아본](53:5, 6, 11)과 [헤트](53:12)의 번역을 비교해 보라.

	개역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쉬운성경	우리말성경	현대어성경
5 절[아본]	죄악	죄악	악함	악행	죄	악함	범죄
6 절[아본]	죄악	죄악	죄악	죄악	죄짐	죄악	죄악
11 절[아본]	죄악	죄악	형벌	죄악	죄	죄악	죄의 벌
12 절[헤트]	죄	죄	죄	죄	죄	죄	형벌

2) 여호와와 그의 종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다(벧전 2:24).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고후 5:21). 여호와와 그의 종이 부요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됨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요하게 하려 함이었다(고후 8:9).

6. “범죄”와 “죄악”으로 번역되는 동의적 병행 명사의 짝(I-J) [페사—아본]은 병행 동사의 짝(E-F) [나싸—싸발]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반복되어 나온다(E-F-I-J[-J’-I’]-J’’+ F’-I’’[-(I’’’)]- E’ [-J’’’]).¹⁰⁵

1) E-F 53:4ab **לְכַרְכְּרֵנוּ וְלִמְכַאֲמֵנוּ שָׁנָה וְהָיָה וְנִלְכְּדָה** [나싸/싸발] “짚어지다/담당하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아픔을 그가 대신 짚어지고

¹⁰⁵ 동사 [나싸]와 [싸발] 그리고 명사 [페사]](5, 8 절, cf. 12 절), [아본](5, 6, 11 절), [헤트](12 절)의 번역을 비교해 보라.

	동사와 명사	개역 개정	개역	번역
53:4	나싸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아픔을 그가 대신 짚어지고
	싸발	우리의 슬픔을 <i>당하였거늘</i>	우리의 슬픔을 <i>당하였거늘</i>	우리의 슬픔을 그가 대신 <i>담당하고 있었다.</i>
53:5	페사 아본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을 인함이라	그러나 [참으로] 그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찢리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부서졌다.
53:6	파가 아본	우리 모두의 죄악 을 그에게 <u>담당시키셨도다</u>	우리 무리의 죄악 을 그에게 <u>담당시키셨도다</u>	여호와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 을 그에게 <u>떠맡기셨다.</u>
53:8	페사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을 인함이라	산 사람들의 땅으로터 그의 끊어짐이 내 백성의 범죄 로 말미암아 천벌이 그에게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53:11	싸발 아본	또 그들의 죄악 을 친히 <i>담당하리로다</i>	또 그들의 죄악 을 친히 <i>담당하리라</i>	그들의 죄악 을 친히 <i>담당할 것이다.</i>
53:12	나싸 포시임 헤트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 를 담당하며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 를 지며	그는 범죄자들 과 함께 자신을 헤아려지게 하였고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 를 짚어졌고
	파가 포시임	범죄자 를 위하여 <u>기도하였느니라</u>	범죄자 를 위하여 <u>기도하였느니라</u>	범죄자들 을 <u>떠맡으며 기도하기</u> 때문이다

우리의 슬픔을 그가 대신 담당하고 있었다.

2) I-J 53:5ab מְחַלְל מִפְשְׁעֵנוּ מְדַכָּא מְעֹנְתֵינוּ [페샤/아본] “범죄/죄악”
참으로 그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찢리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부서졌다.

3) [J'-I'] 53:6c-53:8d יָרַח [아본 53:6c]-עֲשָׂה [페샤 53:8d] “죄악/범죄”
여호와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다.
내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천벌이 그에게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4) J' + F' 53:11d וְעֹנְתָם הוּא יִסְבֵּל [아본-싸발] “죄악-담당하다”
그가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5) I'' 53:12d וְאֵת־פְּשָׁעֵי־נַמְנָה [포시임] “범죄자들”
그는 **범죄자들**과 함께 자신을 해아려지게 하였고

6) (I''')+ E' + J'' 53:12ef וְלִפְשָׁעֵי־נַפְגָּיעַ... אֲחֻזָּתֵי־רָגָזִים
[헤트-나싸/포시임] “죄-짊어지다/범죄자들”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고
범죄자들을 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이다

7. 사 53:4-5 의 종에 대한 묘사는 사 1:5-6 의 백성에 대한 묘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었고(사 1:4) 범죄로 인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다(사 1:5-6).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백성에게 요구된 것은 위선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고(사 1:10-15) 의로운 삶(사 1:16-20)이었다. 백성의 의로운 삶은 죄로 인한 상처 위에 약을 바르고 더 이상의 감염을 막으면 가능한가? 아니다. 이것은 쓰여진 단어들 위에 새로운 단어들을 쓰는 것이 먼저 쓰여진 단어들을 제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에서 그렇다. 더러움을 씻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 누군가 와야 한다(사 4:4). 누군가 병을 가져가고 건강을 돌려주어야 하고 누군가 상처를 가져가고 치유를 돌려주어야 한다.
8. 여호와와 종이 찢리고 부서진 것이 단순히 죄의 결과들을 나누어 짊어지는 참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Oswalt, 388). 종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범죄와 죄악 때문에 형벌을 받은(penal) 것이고 범죄한 “우리”에게 내려져야 하는 징벌이 종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대리적(substitutionary)이다(Smith, 451). 이제 범죄하고 불의하고 사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가 받았어야 할 형벌이 종에게 옮겨진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된 은택들이 묘사된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을 맞았기에 우리가 치유를 얻었다(5cd).

- 1) 범죄한 백성이 받아야 할 죄의 결과들을 대신 짊어지고 담당하며(4 절: 대리적 고난) 백성의 범죄와 죄악 때문에 찢리고 부서진(5 절: 형벌적 고난) 종은 백성을 위해 적극적인 결과들을 가져다주었다. 여호와와 종은 단지 백성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범죄의 결과로 더 이상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백성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죽음을 통하여 백성의 문제를 치워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 2) 이스라엘의 어떠한 선지자도 상하고 터지고 맞은 백성을 위해 그런 일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상하고 터진 이스라엘도 자신이나 이방을 위해 그런 일을 하지 못했다. 오직 여호와께 속하고 여호와를 위해 일하는 여호와와 종만이 여호와와 백성을 위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일을 하였던 것이다.
9. 그가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5c)는 콜론의 원문(וְעַל־כֵּן שָׁלוֹמֵנוּ) [무사르 실로메누 알라브])을 직역하면 **우리의 평강을 위한 징계 혹은 우리의 평강을 가져온 징계가 그 위에 내려졌다**가 된다.
- 1) “우리의 평강을 위한 징계”라는 직역은 속격이 의도된 목적을 나타낸 것으로 본 것이고(*GKC* 128q), “우리의 평강을 가져온 징계”라는 직역은 속격이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본 것이다(*HebS* 44; *IBHS* 9.5.2c “genitive of effect: directly causational; Construct causes Genitive”; *BDB*: “chastisement of (i.e. leading to) our peace was upon him”).
 - 2) KB 1:557 은 여기 **징계**로 번역된 단어 רָדַף[무사르]를 징벌(chastisement)로서 징계(discipline 잠 13:24; 23:13; 사 30:32; 53:5; 26:16 등), 훈육(training 신 11:2; 시 50:17; 욥 5:17; 잠 1:2; 3:11 등), 권면/경고(exhortation, warning, 겔 5:15; 욥 20:3; 36:10; 잠 1:8; 4:1 등)으로 풀이된다. *BDB* 는 처벌을 동반하는 징계의 예로 제시할 때 하나님(잠 3:11; 욥 5:17; 사 26:16; 53:5; 렘 2:30; 5:3; 7:28; 30:14; 호 5:2)과 사람(잠 15:4; 23:13; 13:24; 22:15; 7:22; 15:10)으로 나눈다. KB 와 *BDB* 는 하나님의 처벌을 동반한 징계 곧 하나님의 징벌의 예로 사 53:5 을 들고 있다. 언약의 종주님이신 여호와와 아버지로서(신 32:6) 봉신인 그분의 백성을 징계하신다. 자녀가 부모를 거역했을 때 부자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정의가 깨어진다. 상황이 무질서와 불균형에 빠졌기 때문에 평강이 없고 평화가 사라진다. 적절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는 아무리 좋은 의도적인 일이라도 깨어진 질서를 회복시킬 수 없다. 그러나 부모의 권위가 인정되고 정의가 실행될 때, 부자간의 질서와 균형이 회복되고 평강이 찾아온다. 이것이 고난의 종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일이다. 아버지로서 여호와와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사악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표준에 미달하는 그분의 백성을 다시 온전한 부자관계로 돌이키시기 위해 그분의 종을 보내시고 그 종으로 그들 대신 징벌을 받게 하셨다.
 - 3)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온전한 관계를 원하셨지만, 백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될 때까지 그런 관계를 가지실 수가 없었다. 고난의 종이 백성 대신 형벌을 받는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고난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종의 죽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이로써 여호와와 종은 백성 대신 극심한 형벌을 받으면서 여호와께서 의도적으로 거역하며 순종하지 않은 반역자들 같은 그분의 백성을 다루시는 자비로운 방식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언약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백성 대신 종이 찔림 받아 죽게 하심으로써 평강을 잃어버렸던 언약 파괴자들을 언약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화평/평강/평화의 언약(사 54:10)”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언약에 약속된 모든 복의 총화인 평강 곧 완전한 복을 누리게 하셨다.

- 4) 여호와는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사 48:8)”로 불린 이스라엘을 “멸절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참으시며(48:9)” “내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을(48:18)” 것이라고 안타까워하셨다. 여호와는 백성을 위한 구속이 이를 것을 알리시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을(48:22)”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할 자로 그의 종을 보내시고(사 49:5-6)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 종을 징벌하셨다(사 53:5). 종의 평강을 위한 죽음을 통해(사 53:5) 평강이 없던(48:22) 곳에 “화평(/평화/평강)의 언약(54:10)”이 세워질 것이다(Motyer, 431).
10.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5c)은 우리의 깨어진 인간성의 회복을 가져왔다(5d). **그가 채찍을 맞았기에 우리가 치유를 얻었다(5d).**

1) 5 절의 마지막 콜론 **וּבְרֵאשִׁיתוֹ נִרְפָּא לָנוּ** [우바하브라토 니르파 라누]는 비인칭구문(in his welts it was healed to us)이다.

① [우바하브라토]에서 접속사 [우] 다음에 오는 전치사 [브]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GKC* 119o “by means of”) 혹은 어떤 것을 사기 위해 치르는 댓가(*GKC* 119p **בְּ** *preti* [of price], “at the cost of, in exchange for”)를 나타낸다(Smith, 451 n. 378; Motyer, 431).

② 동사 [니르파]의 어간은 수동을 나타내는 니프알 어간이고 어형은 완료 3 인칭 단수이다.

③ 전치사 [르]에 1 인칭 공성 단수 접미대명사가 붙은 [라누]는 수동 의미를 갖는 [니르파]의 주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¹⁰⁶

④ 그러므로 이 콜론은 **그의 채찍 맞음으로써/그의 채찍 맞은 댓가로**([바하부라토]) **우리가**([라누]) **낫게 되었다**([니르파])라고 해석된다(*we were healed through his stripes*).

2) 범죄자의 등은 채찍질로 인한 피투성이의 자국으로 덮이게 되어 있다. “채찍 자국, 채찍 맞은 흔적 welt, wound, slash”을 의미하는 **וּבְרֵאשִׁיתוֹ/וּבְרֵאשִׁיתוֹ**[하부라]는 선지서에서 사 1:6 과 53:5 에만 사용되었다(Oswalt, 388). 범죄자의 등이 온전하려면 그가 맞을 채찍을 누군가 대신 맞아주면 될 것이다. 여호와와 종은 범죄한 백성이 맞을 채찍을 자기 등으로 대신 맞았다. 이것은 종이 그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범죄한 백성이 그들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려고, 죄가 없어서 채찍 맞을

¹⁰⁶ *GKC* 121a: 삼하 17:16; 애 5:5; *GBH* 128ba: 겔 16:34; 신 21:3; *GBH* 132f; *GBH* 152fa; *IBHS* 23.2.2e; 11.2.10g

필요가 전혀 없는 그 종이 채찍을 맞았던 것이다. 죄가 전혀 없었던 종은 범직한 백성이 맞을 채찍을 대신 맞음으로써 백성에게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었다. 종이 가져다 준 치유는 일차적으로 백성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대한 치유이지만 이차적으로 육체적 치유도 포함될 수 있다.¹⁰⁷

- 3) 예수님은 손바닥으로 맞고(마 26:27) 갈대로 맞고(마 27:30)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으셨고(마 27:26)¹⁰⁸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심으로써,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사 53:6 주해

사 53:6 **우리 모두는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다.

1. 여호와와 종의 고난과 죽음은 대리적 고난이요 대속적인 죽음이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였다(4 절). 그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찢리었고, 우리 죄악 때문에 부서졌다(5 절). 그가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을 맞았기에 우리가 치유를 얻었다(5 절). 이렇게 4-5 절이 종의 백성을 위한 대리적 고난을 설명하였다면, 6 절은 종의 대리적 고난을 필요로 했던 백성의 모습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호와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
 - 1) 종의 대리적 고난이 왜 필요했는가? 종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릇된 길로 갔으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길을 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제시해 놓은 길로 가려면, 우리의 범죄와 죄악이 수반하는 죄책을 떠맡아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하는 종이 필요했다.

¹⁰⁷ Smith, *Isaiah*, 451 (n. 379): “사 19:22 에 나오는 “치유”라는 단어가 재앙으로부터의 육체적 치유와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여호와께서 반응하시는 영적인 회복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전인적인 치유 곧 육적이고 영적인 치유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에 대하여 언급하는 구절들이 있다(사 25:7-8; 26:19; 30:19; 35:10; 51:11; 65:19).” Motyer(431)는 치유가 완전함과 온전함을 회복하는 고침이고 메시아 시대의 표시라고 하면서 사 19:22 과 30:26 을 들었다.

¹⁰⁸ 예수님은 자신이 채찍질 당할 것을 예언하신 대로(마 10:17; 막 10:33-34; 눅 18:33)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셨다(마 27:26; 막 15:15; 요 19:1). 로마 시민에게는 나무로 만든 채찍을 사용하였으나(cf. 고전 4:21; 고후 11:25; 행 16:22; 22:24-25) 노예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죽끈으로 만든 채찍을 사용했다. 가죽끈으로 만든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나 유리 조각이나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채찍에 계속 맞으면 온 몸이 상처와 피로 얼룩지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무자비한 로마 군병들에 의해 채찍질 당하신 예수님의 온 몸은 살점이 떨어져 나간 상처와 핏자국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었다.

- 2) 그런데 이미 죄를 짓고 그릇된 길로 가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백성을 위해 종으로 하여금 고난을 받도록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이셨다. 그러므로 종의 사명 완수는 바로 여호와의 작품이었다.
2. “우리 모두 **קָלָנוּ**[쿨라누]”로 시작해서 “우리 모두 **קָלָנוּ**[쿨라누]”로 마치는 6 절은 우리의 범죄와 죄악 때문에 찢리고 부서진 종의 대속적 고난이 필요했던 이유를 잘 보여준다. 선지자는 확장된 직유를 통하여 그의 백성의 문제점과 속수무책을 잘 지적하고 있다.
- 1) 6 절에서 전체 백성은 양에 비유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양과 같았다**. 양은 매우 단순하고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동물로 유명하다. 양은 그 마음이 다음에 먹을 풀에만 쏠려 있으며 놀라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든 도망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길을 잃기 쉽다(Oswalt, 389).
- 2) **우리 모두는 양처럼(כַּאֲמֹתַי)109 길을 잃고(6a) 각기110 제 길로(בְּדַרְכֵי)111 갔었다(6b)**. “길을 잃다”는 [타이누]와 “향하여 가다”는 [파니누]는 아름다운 각운을 이루고 있다. 여기 “**우리 모두**”와 “**각기**”는 공통적인 죄책과 개인적인 책임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Motyer, 431). 우리 인간은 양처럼 우리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며 그 결과들에 대하여, 특히 영원한 결과들에 대하여, 속수무책이다. 양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거역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각자 자기 중심적인 길을 갔다. 길 잃고 헤매는 양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선한 목자로부터 분리되고 그의 목양적 보살핌을 박탈당하고 버려진 채 고독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
3. 하나님은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를 보내셨다(cf. 요 10:11, 15). 종은 자신의 죄 때문에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은(4 절)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기(6c)** 때문에 우리 대신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매를 맞은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는 종의 대속적 죽음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백성의 모든 죄를 그에게 떠맡기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 1)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신** 것은 우리 모두를 양에 비유하는 부분처럼 이중 콜론(6ab, with two verbs)으로 표현되지 않고 단일 콜론(6c, with one verb)으로 표현되어 있다(Motyer, 431). 그리고 이 단일콜론에서 “**여호와**”란 주어는 앞의 주어 “**우리 모두**”와 대조되면서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범죄한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죄책에 따른 고난과

109 **כַּאֲמֹתַי**[카촌]은 비분리전치사+정관사+명사로 이루어져 있다. 비교에 있어서 비교되는 대상이 개별적으로 취급되지 않고 잘 알려진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명사에 정관사가 붙는다(GKC 126 o).

110 남 영신, *국어 사전*, 38 에 의하면 “각기”는 명사로서 “각자, 각각의 것, 각개”의 뜻을 갖고, 부사로서 “각각, 저마다”의 뜻을 갖는다. 원문의 **אִישׁוֹ**[이시]가 주어이고 이를 받는 접미대명사 **וְ**[오]가 분배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개역/개역개정처럼 [이시]를 명사 “각기”로 번역하고 접미대명사 [오]를 “제”라고 번역하였다.

111 *IBHS* 11.2.10b 는 **בְּדַרְכֵי**[르다르코]에 붙어 있는 전치사 라멧은 “향하여 toward” 나아가는 것을 표시하므로 allative 라고 설명했다.

죽음의 형벌이 우리에게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종에게로 떨어지도록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중 콜론 (6ab)					
콜론 2			콜론 1		
פָּנִינוּ	לְדַרְכּוֹ	אִישׁ	תָּלַינוּ	כְּצֹאן	כְּלָנוּ
파니누 갔다	르다르코 제(그의) 길로	이시 각기	타이누 길을 잃었다	카촌 양처럼	쿨라누 우리 모두는
כְּלָנוּ:	עֲוֹן	אֵת	בּוֹ	הִפְקִיעַ	הִהוּהָ
쿨라누 우리 모두	아본 -의 죄악	에트 을	보 그에게	히프기아 떠맡기셨다	바아도나이 그러나-여호와
단일 콜론 (6c)					

- 2) 어근 [파가]의 히프일 어간 [히프기아]는 “to cause to arrive at, to make to meet, 이르게 하다, 만나게 하다”는 의미를 갖는데 하나님의 [히프기아]라는 행위를 통해 종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위한 만남 점(meeting point for the iniquity of us all)이 된 것을 나타낸다. 종은 하나님의 준비이고 계획이었다(Motyer, 431).
- 3) 아브라함이 드릴 번제물로 이삭 대신 숫양을 준비하셨던 분은 여호와이셨다(창 22:12-13). 죄를 지은 백성 대신 희생 제물이 드러지는 제사 제도(레 1-7 장)를 세우신 분은 여호와이셨다. 여호와는 친히 종의 머리에 안수하여 우리 모두의 모든 죄악과 모든 범죄와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되도록 하는 제사장적 일을 친히 수행하고 계셨다고(레 16:21), 이것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고려하시고 받으실 만한 만족을 위한 길이었다(Motyer, 431). 하나님은 그의 종을 세상 죄를 지고갈 어린 양으로 보내셨고(요 1:29) 그가 백성의 죄짐을 짊어지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을 때 등을 돌리시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셨다(마 27:45-46; 막 15:33-34).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께서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선한 목자였다. 그 종은 길을 잃고 각자 제 길로 간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떠맡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일을 감당하였다(요 10:11, 15).
- 4)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백성을 위해 고난 받으신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신 대로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권면하였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져온 결과에 대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벧전 2:24-25).”고 말했다.

4. 영(Young, *Isaiah 53*, 57-58)은 사 53:6 이 생명을 주는 신학의 참된 요약(veritable compend of life-giving theology)으로 인간의 전적부패,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은혜로 인한 구원, 대속적 형벌, 만족과 속죄, 섭리 등의 교리를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다.

- 1) **우리 모두는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는 죄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우리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였다. 여기에 *전적부패*의 교리가 있다.
- 2) **여호와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종의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이셨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종은 자신에게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운 자이었는 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종에게 그 백성의 죄악을 떠맡기셨다. 그 종으로 당하지 않아도 될 형벌을 당하도록 하시고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가 있다.
- 3)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 종에게 떠맡기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종이 백성들의 죄악을 떠맡도록 하심으로써 백성들이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구원은 하나님의 공짜 선물이요 풍성한 은혜의 산물이다. 여기에 *은혜에 의한 구원*의 교리가 있다.
- 4) 죄는 마땅히 형벌을 통하여 죄값을 치러야 한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죄를 범한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그 대신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운 종에게 임했다. 의로운 종은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여 고난 받고 죽음의 형벌을 당했다. 그 종의 고난은 대리적 고난이었고, 그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였다. 여기에 *대속적인 형벌*의 교리가 있다.
- 5) 종은 그 백성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흠 없는 자신을 드렸다. 이러한 종의 대속적 죽음은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인들을 고소하는 모든 죄목들을 일일이 충족시켰다. 여기에 *만족과 대속*의 교리가 있다.
- 6) 종의 고난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만물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 여기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가 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 종에게 떠맡겨졌다. 특정한 모든 사람 우리와 한 분 종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으나 한 분 종이 그 죄들을 제거시켰다. 결국은 잘 되도록 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 종으로 이 놀라운 대속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5. 모티어(429)는 셋째 연(53:4-6)에 공통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1) 종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홀로 있었다.
 - ① 4 절에서 "그"와 "우리"가 주어로 나오지만 그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4ab) 그만이 홀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의 고난에 대하여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마땅히 받을 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4cd) 우리는 그와 떨어져 있고 그의 고난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

② 5 절에서 자립대명사 “그”가 강조적 주어(h²)로 찢림을 받는 주체가 되고 속격 접미 대명사로((h²⁻³) 징계가 내려지고 채찍 맞는 대상으로 묘사되며 철저히 홀로 고난을 받지만 “우리”는 주어적 속격의 접미 대명사로서(j³⁻⁴) 그의 고난의 원인이 되는 범죄와 죄악을 저지른 것과 속격 접미 대명사로서(j⁵⁻⁶) 그의 고난으로 인한 은택을 받는 것이 묘사될 뿐이다. “그는”(h²) 우리의(j³) 범죄 때문에 찢렸고 우리의(j⁴) 죄악 때문에 부서졌다. 우리의(j⁵) 평강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h²) 내려졌고 “그”의(h³) 채찍 맞음이 우리의(j⁶) 치유를 가져왔다.

③ 6 절에 “우리 모두(6a)”와 “여호와(6c)”가 주어로 나온다. 종이 고난을 당하는 동안 **우리 모두는** 각기 제길로 갔고,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다. 이렇게 종은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채 그리고 여호와와 구별되며 고난을 받았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 아래서 홀로 고난을 받았다.

2) 종은 대속을 위한 사역을 감당했다.

① 종은 자원하여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다(4ab).

② 종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찢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부서짐으로써 대속적 형벌을 당했다(5ab). 종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았고,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우리 대신 채찍에 맞았다(5cd).

③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직역: 모든 죄악과 모든 범죄와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듯이(레 16:21)”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종에게 떠맡기셨다(6c). 속죄일의 규례를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규례에 따라 백성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는 의식을 행하는 자는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으로 그 백성의 죄를 떠맡게 하시고(6c) 그 백성의 죄를 떠맡은 종을 치실 수밖에 없으셨다(5ab). 종의 고난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백성의 죄 때문에 당한 징벌이므로 형벌이면서 대속적인 것이다.

3) 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모두 다루며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였다.

① 여호와는 그 백성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아픔과 슬픔의 문제(4)를 해결하길 원하셨다. 이것은 채찍에 맞은 종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치유를 얻음으로써(5d) 이루어졌다.

② 여호와는 자신과 백성을 멀어지게 하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죄와 죄책의 문제(5)를 해결하길 원하셨다. 이것은 징계를 받아 찢리고 부서지는 종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됨으로써(5c) 이루어졌다.

③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동안(6ab) 여호와께서 종에게 우리의 죄악을 떠맡기셨을 때(6c) 그는 자원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여호와의 뜻을 이루셨다.

셋째 연(사 53:4-6) 요약 정리

1. 사람들은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차 있는 종이 그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며 그를 멸시하고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53:3).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아픔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가 대신 담당하고 있었다(53:4ab).** 여호와의 종은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차 있었지만, 그의 슬픔과 아픔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것이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간고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난의 종은 우리의 아픔들을 자신 위에 들어 올려 짊어졌다. 고난의 종은 우리의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취하여 친히 담당하였다. 죄로 인해 당하는 아픔과 슬픔, 질고와 간고는 우리의 것이었고, 무거운 짐처럼 우리를 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자신 위에 들어 올려 짊어지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여 담당함으로써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 위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해 주었다. 종은 우리가 짊어지고 담당해야 할 고난을 자신이 대신해서 짊어지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대리자, 대표, 대속주가 되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것을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마 8:16-17)이라고 설명하였다. 종이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를 위해 준비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버렸으므로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계 21:4).
2. 그러나 우리는 종의 고난의 진상을 오해하며 그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그러한 극심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53:4cd). 여기에 나오는 동사 [하샤브]는 3 절에 한 번 나온 것이다. BDB 에 의하면 3 절에서 [하샤브]는 “귀중하게 생각하다, 가치있게 여기다, to esteem, value, regard (예: 사 13:17; 33:8; 53:3)”의 의미로 쓰였고 4 절에서 [하샤브]는 “생각하다, 간주하다, to think, account(예: 사 10:17; 53:4)”의 의미로 쓰였다. 종이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이 대상이 되는 측면 즉 그 고난의 객관적 측면에 대한 생각이다. 종이 **고난을 받으며** 고난에 싸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이 주체가 되어 낮아지고 비하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측면 즉 그 고난의 주관적 측면에 대한 생각이다. 객관적 측면이든 주관적 측면이든, 종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우리의 생각은 진상을 오파한 것이므로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었다.
3. 우리의 오판과는 달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아픔과 슬픔을 짊어지고 담당한(4ab) 여호와의 종은 이제 더 깊은 데로 나아간다. 그는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다루기 위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찢리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부서졌다(53:5ab).** 종은 우리의 범죄의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찢림을 받아 죽었다. 그의 찢림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었다. 그리고 종은 우리의 죄악의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대신 내려침을 받아 죽었다. 그의 부서짐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난의 종은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임할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며 찢리고 부서지며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했다. 그는

우리의 범죄와 죄악을 심각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며 그토록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렀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종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다(벧전 2:24)”.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고후 5:21)”. 여호와의 종이 “부요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요하게 하려 는” 것이었다(고후 8:9). 여호와의 종이 찢리고 상한 것은 단순히 죄의 결과들을 나누어 짊어지는 참여가 아니라 백성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여호와의 종은 단지 백성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더 이상 범죄의 결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백성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죽음을 통하여 백성의 죄 문제를 치워버리고 있었다.

4. 이러한 종의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우리의 인간성이 깨어진 문제가 해결되는 적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을 맞았기에 우리가 치유를 얻었다(53:5cd)**. 우리는 우리의 범죄와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될 때까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종이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고난의 종이 그의 백성 대신 형벌을 받는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고난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은 범죄한 우리가 해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며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치유를 가져다주었다.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종이 우리가 해야 할 채찍을 대신 맞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죽음은 대리적 고난이요 대속적인 죽음이었다. 그의 대리적 고난과 대속적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인간성의 회복이란 치유를 가져다주었다.
5. 그런데 종의 대리적 고난과 대속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이다(53:6ab)**. 길을 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제시해 놓은 길로 가려면, 종이 우리의 범죄와 죄악이 수반하는 죄책을 자신의 것으로 떠맡아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만 하였다.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에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고 죄로 가득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 그래서 **여호와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다(53:6c)**. 여호와와 범죄한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죄책에 따른 고난과 죽음의 형벌이 우리에게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종에게로 떨어지도록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는 **주권적으로** 죄가 전혀 없는 종에게 우리의 죄악을 떠맡기셨다. 양처럼 길을 잃고 제 길로 가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 모두와 우리 각 개인을 위하여 종으로 하여금 고난을 받도록 하신 분은 여호와이셨다. 종의 대속적 죽음을 통한

백성의 죄 문제 해결이란 사명 완수는 바로 여호와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여호와는 죄 없는 종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운* 선물인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여호와는 친히 종의 머리에 안수하여 백성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되도록 하는 제사장적 일을 친히 수행하고 계셨다(레 16:21). 종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대속적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길이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종은 길을 잃고 제각각 흩어져 헤매는 우리 모두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일을 감당하였다(요 10:11, 15).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선한 목자이었던 것이다.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께서 백성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시려고 백성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 편의 중보이었다.

넷째 연: 사 53:7-9 주해

1. 본문

פִּי		פֶּתַח־		וְלֹא		נֶעְנָה		וְהוּא		נִגְשׁ		53:7ab		
(III) D ² (n ¹)		(m ¹)		(k ¹) f ⁷		(III) M ²		III(α)[후] h ³						
mscs0 < פֶּה		B20 < פתח				N50 < ענה				N10 < נגש				
α ¹														
נִאֲלָמָה		גִּזְזִיָּה		לִפְנֵי		וּכְרַחֵל		יּוֹבֵל		לְטֹבַח		כַּשֵּׁה		53:7cd
						(III) J ⁵						(III) J ⁴		
N11 < אלם		B57s1 < גזז				fsa < כ+1		HP20 < יבל		msa < ה+ל		msa < ה+כ		
פִּי:		פֶּתַח־		וְלֹא								53:7e		
(III) D ³ (n ²)		(m ²)		(k ²) f ⁸										
mscs0 < פֶּה		B20 < פתח												
α ²														
יְשׁוּחָם		מִי		דֹּרוֹ		וְאֵת־		לְקַח		וּמִמְשַׁפֵּט		מִעֶצֶר		53:8ab
D20 < שיח				mcs0 < דור				Dp20 < לקח		msa < מן+1		msa < מן		
				חַיִּים		מֵאֲרִיז		נִגְזֹר		כִּי		53:8c		
				mpa		fsc < מן		N10 < גזר						
		לָמוֹ:		נִגַּע		עֲמִי		מִפְּשַׁע				53:8d		
		g ²		(III) L ²				(I')						
		ל+s0		msa		mcs4 < עם		msa < מן						
בְּמַתְּוִי		עֲשִׂיר		וְאֵת־		קִבְרוֹ		רְשָׁעִים		אֶת־		וַיִּתֵּן		53:9ab
(III) O ¹														
mpcs0 < ב+מנות		msa				mcs0 < קרב		mpa < רשע				Bc20 < נתן		
בְּפִי:		מִרְמָה		וְלֹא		עֲשָׂה		חֲמָס		לֹא־		עַל		53:9cd
(III) D ⁴ (n ³)				(k ⁴) f ¹⁰						(k ³) f ⁹				
mcs0 < ב+פֶּה		fsa				B10		msa						

2. 본문 문제

1) 53:7

- ① נִגְשׁ의 어근과 어간 그리고 의미는?
- ② וְהוּא נֶעְנָה의 구문적 역할은? נֶעְנָה의 어간의 의미는?

③ 처음과 끝에 פִּתּוּחַ-פִּיּוּן가 두 번 나오는 이유는?

④ לְטָבַח וְיִבֹּל에서 관계절은?

⑤ לְפָנַי גְּזִיּוּתָהּ נֶאֱלָמָה에서 관계절은?

⑥ 직유를 두 번 거듭 사용한 이유는?

2) 53:8

① 두 번 מְעַצֵּר וּמְשַׁפֵּט(מֵעֶצֶר) 쓰인 전치사 מִן의 용법은?

② מְשַׁפֵּט와 מְעַצֵּר의 의미는?

③ מִן-אֶת-דָּוִד에서 אֶת-דָּוִד의 역할과 의미는? דָּוִד[도르]의 의미는 세대 (사람들)인가 아니면 후손인가?

④ 접속사 כִּי의 용법은?

⑤ מְשַׁפֵּעַ עַמִּי נָגַע לְמוֹ is 어떤 종류의 문인가?

⑥ לְמוֹ[라모]에 붙어 있는 접미대명사는 복수(them)인가 아니면 단수(him)인가?

3) 53:9

① 동사 וַיִּתֵּן의 주어는?

② 9 절에 두 번 쓰인 אֶת-דָּוִד의 용법은?

③ מְשַׁפֵּר의 의미는?

④ 전명구 מִן-מִתְּיָוָה에서 죽음이 복수형으로 쓰인 이유는?

⑤ 두 콜론 וַיִּתֵּן אֶת-רִשְׁעֵימֵי קָבְרוֹ and אֶת-עֲשָׂוִיר מִתְּיָוָה의 관계는 동의적인가 아니면 반의적인가?

⑥ 접속사 וְעַל의 용법은 이유/원인인가 아니면 양보인가?

⑦ 7 절의 초두에 있는 וַיִּפֹּ and 9 절의 마지막에 있는 וַיִּפֹּ(וְ)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문예적 기교는?

3. 번역

사 53:7 그는 학대를 받으면서도 고난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리고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8 그는 체포와 심문을 당하고 처형 받으러 끌려갔다.

그 세대 중에 어느 누가

산 사람들의 땅으로 그의 끊어짐이

내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천벌이 그에게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겠는가?

9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매장되었으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매장되었다.

그것은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이다.

4. 문학적 분석

- 1) 독특한 승귀와 독특한 고난이 독특한 진리의 주제임을 낚시 제시하는 첫째 연(52:13-15)의 수수께끼는 둘째 연(53:1-3)과 셋째 연(53:4-6)을 거쳐 지금 살피려는 넷째 연(53:7-9)에 이르러서야 풀리게 된다. 둘째, 셋째, 넷째 연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종의 고난과 죽음의 사실과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연(53:1-3)은 종의 출생과 삶을 통하여 목격되고 오해된 고난을 제시하고, 셋째 연(53:4-6)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며, 넷째 연(53:7-9)은 종의 출생과 삶을 묘사하는 둘째 연에 이어서 종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자발적으로 당하도록 자신을 내어 주며 죽어 장사되는 것을 묘사한다. 넷째 연이 강조하는 것은 종이 불평하지 않고 양처럼 죽음에 복종하는 것과 종이 다른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부당하게 죽임 당하는 것과 종이 무죄할지라도 죽어 장사 당하는 것이다. 넷째 연에서 종의 순종, 종의 무죄, 종에게 행해진 불의가 두드러진다.
- 2) 셋째 연과 넷째 연을 연결해 주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גָּבַח**[아나]("고난 받다")이다. 셋째 연(4 절)에서 종은 실로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천벌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받는다(**גָּבַחְנוּ**)[므우네] 푸알 어간 분사)고 생각했다고 묘사되었다. 넷째 연(7 절)에서 종은 자원하여 고난에 자신을 내어맡기며 자신을 고난당하도록 내어주었다(**גָּבַחְנִי**[나아네] 니프알 어간 분사). 인간의 눈은 종의 고난을 자신의 죄 때문에 천벌을 받는(4cd) 것으로 보았지만, 바른 신학적 눈은 종의 고난을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신(6c) 결과로 보았다. 이제 우리는 종 자신의 의식이란 매우 신성한 지점에 서서 종이 사건들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매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억제하며 기꺼이 고난을 받는데 자신을 내어주는(7a) 마음을 보게 된다(Motyer, 432).
- 3) 셋째 연과 넷째 연은 양의 직유를 공유하고 있지만, 셋째 연의 범죄한 백성과 넷째 연의 무죄한 종의 대조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가 양에 비교될 때는 양의 단순하고 길을 잃기 쉬운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었지만, 종이 양에 비교될 때는 유순하고 순종적인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종은 우리와 같은 성질을 가졌지만 그 종 안에서 그 성질이 변화를 일으켰다(Oswalt, 391). 사 53:6 에서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간 범죄한 많은 양들(백성)과 53:7 에서 학대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순종하는 한 양(종)이 대조를 이룬다(Smith, 452).
- 4) 모티어(432)는 {셋째 연에 이어} 넷째 연(53:7-9)을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닌 것으로 설명했다.

{**B**² Suffering explained (**53:4-6**) 설명된 고난}

B³ Suffering, voluntary and undeserved (**53:7-9**) 자발적이고 부당한 고난

A Procession. The Servant led out to die: his willingness (**7**)

진행. 종이 죽으러 끌려감: 그의 자발적인 의지

B Execution. The Servant's death: thoughtless contemporaries (**8**)

집행. 종의 죽음: 생각이 없는 동시대 사람들

C Burial. The mystery surrounding the burial of one who did not deserve to die (9)

장사.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될 종의 장사를 둘러싼 신비

① 모티어(432)는 넷째 연(53:7-9)은 각 절이 5 행(7 절), 4 행(8 절), 3 행(9 절)으로 줄어들면서 종이 장사되며 감소되는 효과(tailing off effect)를 보인다고 설명한다.¹¹²

② 종의 “입”에 대한 언급은 7 절 자체에서 수미쌍관법을 이를 뿐만 아니라(7b, 7d) 넷째 연 전체에서도 수미쌍관법을 이루고 있다(7b, 9d).

5) 버기(184)는 53:7-9 을 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는 단서들로 첫째 절에 두 번(53:7bd) 나오는 [כִּי לֹא פִּיבָהּ אֵת פִּי] 로 이프타흐 피브 “그가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표현의 반복, 그리고 셋째 절에 두 번(53:9ab) 나오는 부정어 [לֹא] 로의 반복(“강포를 행하지 않고, 거짓이 없다)과 첫째 절(53:7b)과 수미쌍관법을 이루며(53:9b) 나오는 [פִּיבָהּ] 피브(“그의 입”)의 반복을 들었다. 버기의 설명대로 부정어 [로]의 반복과 [피브 “그의 입”)의 반복은 종의 침묵과 무죄를 강조하면서 그를 잘못 다룬 사람들의 패역함을 드러내는 효과를 준다.

사 53:7 주해

사 53:7 그는 학대를 받으면서도 고난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리고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1. 여호와께서 종의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이신 것이 6 절에서 밝혀졌다. 그렇다고 하면 여호와의 종의 입장에서 그는 자신의 뜻과는 달리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했는가 아니면 종 자신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하여 7 절은 아주 분명하게 답을 준다. 7 절은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에 의하여 자기에겐 떠맡겨진 백성의 죄악 때문에 당하여야만 하는 고난을 어떻게 담당하였는지를 묘사하고 있다. 비록 여호와께서 그 종의 고난의 궁극적 원인이셨을지라도 그 종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 고난을 견디어 내셨다. 종의 고난은 대리적이고 대속적인 고난 곧 대리적 형벌을 당한 것이었으므로 자원적이고 자발적인 것이었다. 그러기에 종은 고난을 참으며 끈기 있게 짊어지셨다.
2. 원문의 구문을 분석하면 “**그는 학대를 받으면서도 고난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에서 “וַיִּשְׁתָּם[니가스] 그가 학대를 받았다.”라는 절은 주절이고 “וְכַמוֹת אֵילִם וְכַמוֹת צֹאן הַבָּשָׂר [브후 나아네 블로 이프타흐-피브] 그는 고난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절은 상황절이다.

¹¹² 7 절은 콜론이 5 개이고 8 절은 콜론이 4 개이며 9 절도 콜론이 4 개인데 Motyer 가 9 절을 3 행이라고 한 것은 “입”이란 단어에 의한 수미쌍관법을 말할 때 그가 7b 와 9d 를 언급한 것과 맞지 않는 것 같다. 아무튼 단어의 수를 보면 7 절이 16 단어이고 8 절이 15 단어이고 9 절이 14 단어로 점점 줄어든다.

- 1) 원문의 구문과 달리 개역/개역개정과 영어성경들은 원문의 한 개의 주절과 두 개의 상황절을 반영하지 못하고, 주절과 첫 번째 상황절을 병행하는 절로 보고 두 번째 상황절을 그것들과 상반되는 반의적 의미로 보는 것처럼 번역하고 있다.
- ① 개역/개역개정: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 ② NIV: He was oppressed and afflicted, yet he did not open his mouth;
 - ③ NKJV: He was oppressed and He was afflicted, Yet He opened not His mouth;
 - ④ ESV: He was oppressed, and he was afflicted, yet he opened not his mouth;
 - ⑤ NASB: He was oppressed and He was afflicted, Yet He did not open His mouth;
- 2) 그러나 원문의 주절과 상황절의 관계를 반영하는 직역은 “그는 학대받았다. 그가 자신을 고난당하도록 내어주고 그의 입을 열지 않으면서.”이다.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주절이 묘사하는 대로 그는 학대를 받았다. 그는 학대를 받으면서도, 상황절이 묘사하는 대로 그는 고난에 자신을 내어맡기고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바브를 “and”로 옮긴 Young의 번역은 직역이다. 두 번째 상황절 앞이 아니라 첫 번째 상황절 앞에 “yet”를 두는 NJPS의 번역은 주절과 상황절의 구분을 잘 보게 한다. ASV와 WEB도 주절과 상황절 사이의 구분을 “yet”로 하고 있고 상황절 자체를 종속절과 주절처럼 번역하고 있다.
- ① Young(350): He was oppressed, **and** he suffered himself to be afflicted, **and** he does not open his mouth.
 - ② NJPS: He was maltreated, **yet** he was submissive, he did not open his mouth.
Cf. JPS Tanakh 1917: He was oppressed, **though** he humbled himself And opened not his mouth;
 - ③ ASV(American Standard Version): He was oppressed, **yet when** he was afflicted he opened not his mouth;
 - ④ WEB(World English Bible): He was oppressed, **yet when** he was afflicted he opened not his mouth;
3. “וַיִּנְיָא[니가스] 그가 학대를 받았다”라는 주절은 6절 하반절의 묘사대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신 여호와”를 위하여 종으로서 그가 행하며 겪은 일을 한 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종은 여호와께서 떠맡기신 백성의 죄짐을 짊어지고 학대를 받았고 곤욕을 치렀다.
- 1) “학대하다”라는 어근(וַיִּנְיָא[니가스])이 다른 곳에서 사용된 경우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애굽의 간역자들 즉 공사감독관들(וַיִּנְיָא[노그싸브])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출 3:7).
 - ② 사무엘서에서 병거 삼만과 마병 육천이 있고 해변의 모래 같이 많은 블레셋 사람이 벤아웬 동편 믹마스에 진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황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וַיִּנְיָא[니가스])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는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되고(삼상 13:5-6), 사울이 블레셋을 칠 때 백성으로 저녁때까지 식물을 먹지 못하게 하여 백성이 육체적으로 힘들어 피곤한(שָׁנַן[니가스])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삼상 14:24).

③ 이사야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때 큰 빛이 비치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무겁게 멘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שָׁנַן[하노게스])의 막대기를 꺾으실 것(사 9:4[MT 3])을 예언할 때와 백성의 학대(사 3:5, 12)를 말할 때 그리고 금식하며 마음을 괴롭게 하였다(사 58:3)고 할 때 이 어근을 사용하였다.

2) 이런 용례에 비추어 보면 여기 “**학대 받다**”는 표현은 물리적 잔인함(physical brutality)을 내포하며 종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물리적으로 거칠게 다루어질 것을 나타내고 있다(Motyer, 433; Oswalt, 391).

4. 주절에 이어지는 두 개의 상황절(Young, 350; Oswalt, 391; cf. *GKC* 141e, g) 즉 “**그는 고난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절은 그 종이 학대를 받았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1) 첫 번째 상황절의 הָנַחַן[나아네]는 니프알 어간 분사로 재귀의 의미를 갖고 있다.

① 영(350)은 “he suffered himself to be afflicted 자신을 고난당하도록 내어주었다”라고 번역하였다. 모티어(432)는 “he, for his part, humbled himself 그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번역하며 재귀적 의미로 쓰인 출 10:3 을 지적했다. 오스왈트(391)는 “he was humbling himself 그는 자신을 낮추고 있었다”라고 번역하며 출 10:3 과 비슷하다고 하였다.¹¹³ 그러나 “he was afflicted 그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번역한 대부분의 영어 성경(NIV, RSV, KJV, NASB)은 이 분사의 재귀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② 애굽인 공사 감독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한 것처럼 중도 잔인한 재판관들에게 시달리며 학대를 계속 받고 받았다. 그러나 종은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지 않았다. 그것은 그 종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고난당하도록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종은 스스로 자원하여 고난에 자신을 내어맡겼다. 그는 고통을 당함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모티어(433)는 [나아네]가 분사인 것을 지적하며 “kept himself in a state of submissiveness 묵묵히 순응하는 상태로 계속 있었다”는 뉘앙스를 지적하였다.

③ 누가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 즉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을 기록하였다(눅 9:51). 예수님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¹¹³ [출 10:3]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경비하지 아니하겠느냐(עַד-מַתְּי מֵאַנְתָּ לַעֲנֹת מִפְּנֵי)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성길 것이라 לַעֲנֹת[레아노트]는 הֶעֱנַתָּ [르헤아노트] 에서 헤가 사라지고(*GKC* 51 [엘]) 모음 [에]가 전치사 르로 옮겨진 여형이다. 여기서 어근 עָנָה[아나]의 니프알 어간 부정사 자립형 הֶעֱנַתָּ [헤아노트]는 부정사 의존형처럼 사용되었다.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10:17-18)”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좇아,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결심하고(막 26:39, 42; 막 14:36; 눅 22:42), 자신을 고난당하도록 내어 주셨다.

- 2) 같은 사상이 두 번째 상황절 “**그가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에 의해서도 표현되어 있다. 학대받을 때 고역으로 인해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종은 학대를 받으면서 어떠한 항의나 자기 변호의 말을 하지 않았다. 종은 인내함으로써 고난을 받았다. 그는 온갖 굴욕을 당하면서도 참으며 입 한 번 열지 않고 침묵하였다. 이 말씀은 빌라도 법정에서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마 27:14).”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취를 생각하게 해 준다.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네 말이 옳다.”라고 대답한 것 이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빌라도는 심히 기이히 여길 수밖에 없었다(마 27:11-14). 자원하여 고난을 받은 종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벧전 2:23).”
- 3) 모티어(433)는 사 53:7 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제사에 드러지는 동물은 그림적 대리(*picture substitution*)를 보여줄 뿐이다. 사람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고 기꺼이 동의하는 의지만이 거역하는 의지를 대신할 수 있다. 종은 앞에 언급된 대리를 위한 필요 조건들을 충족시킨다. 그는 정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했고(53:4-5) 우리의 죄의 얼룩이 없었고(53:9)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었다(53:6, 10). 종은 또한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거나 할 수 없던 것 곧 대리 역할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의지를 더한다. 이사야 53 장, 특히 7-9 절에서 구약과 성경의 구원론이 절정에 이른다.”
5. 여호와의 종은 백성의 죄짐을 짊어지고 학대당하며 곤욕을 치를 때 자원하여 자신을 고난에 내어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이로운 모습 곧 “**그의 입을 열지 않은**” 모습은 양과 반복해서 비교됨으로써 더 생생하게 한번 더 그려진다. 종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¹¹⁴ 그리고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 1)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도살할 양, 잡힐 양, 잡으려는 양”이란 표현은 시 44:22[MT 23]; 렘 11:19; 12:3; 51:40; 슥 11:4, 7(cf. 잠 7:22 “푸주로 가는 소”)에도 나온다(Oswalt, 392 n. 22).
 - 2) 종은 여기에서 희생 당하기 위해 도살장으로 말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을 깎을 때 말없이 서 있는 양에 비유되었다. 이렇게 두 번의 직유를 사용한 것은 불필요한 반복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 말없이 묵묵히 인내하며 견디어 낸 종의 기이한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도수장의 어린 양과 털 깎는

¹¹⁴ לְטָבַח יִרְבֵּל כְּשֵׂה לְטָבַח יִרְבֵּל [카세 라타바흐 유발]에 대하여 GKC 155g 는 정관사가 있는 הַשֵּׂה [카세]보다 정관사가 없는 הַשֵּׂה [크세]가 더 좋은 독법이고 לְטָבַח יִרְבֵּל [라테바흐 유발]은 명사 הַשֵּׂה [세]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라고 설명한다.

사람 앞의 양은 무해하고 무력하고 순진하고 순결하다. 종의 결백과 인내를 묘사하는데 있어서 종을 양에 비교한 이러한 직유보다 더 좋은 회화적 묘사는 없을 것이다(Young, *Isaiah 53*, 60).

- 3) 이 직유들은 그 종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그 종이 전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확립시켜 준다.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신 그 종 자신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양처럼 순결하신 분이다. 선지자가 종을 양으로 비교하는 직유는 출애굽기 12:3의 희생당할 유월절 어린양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Young, 351)).
- 4) 세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라고 외치고 그 이튿날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34).”라고 말한 것은 본 구절을 근거로 하고 있다(Young, 351). 빌립은 구스 내시에게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한” 종이 예수님인 것을 설명하였다(행 8:32-35). 베드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고 말했다(벧전 1:18-19).
6. 양처럼 길을 잃고 각자 자기 길로 간 우리의 죄악을 떠맡으신 종은 기꺼이 고난을 향해 나아가 고난에 자신을 내어맡기고 고난 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면서 **입을 열지 않았고**, 죽임 당할 어린 양처럼 그리고 털 깎일 양처럼 항의하지 않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고, 그들을 잊으셨고, 베푸시던 자비와 긍휼을 그치셨고, 원통한 것이 수리하심을 받지 못하였다고 항의하였다(사 40:27; 49:14; 63:15). 그러나 종은 항의를 하려면 할 수 있는 더 큰 명분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다. 오스왈트(392)가 잘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이전에 묘사된 종의 모습과 일치한다(사 42:2-3; 50:5-7). 이것은 또한 종이 그의 사명이 실패한 것처럼 느끼도록 유혹받았을 때에도(사 49:4)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용기를 얻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였다(49:5-9)고 하는 묘사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종의 모습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렘 11:18-20; 12:1-3)과 비교되고 대조된다.
7. 오스왈트(392)가 잘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이 곤욕을 당할 때의 묘사와 놀랍게도 일치한다(마 26:63; 27:12-14; 막 15:5; 눅 23:9; 요 19:9). 예수님은 5 차례나 법정 심문을 받으셨다. 빌라도, 헤롯, 안나스,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여받은 권위를 악용하여 정죄하고 손을 씻으면서도 다른 사람들로 그를 죽음의 장소로 데려가게 하였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벧전 2:23)” 불평하지 않으시며 묵묵히 견디셨다.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34:23)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요 새로운 다윗인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이 된 양들을 위해 그의 목숨을 버리셨다. 그는 제사장인

목자의 자발성과 희생제물인 양의 순종을 결합하여서 단지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것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항구적인 메시아적 희생으로 바꿀 수 있었다.”¹¹⁵

사 53:8 주해

사 53:8 그는 체포와 심문을 당하고 [처형 받으러] 끌려갔다.

그 세대 중에 어느 누가 생각했겠는가?

그가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진 것이

바로 내 백성의 범죄 때문에 천벌이 그의 것이 된 결과임을.

1. 고난을 당함에 있어서 종이 자원하고 인내한 것을 강조하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그 고난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로 들어간다. 여기서 선지자는 자원하여 받은 종의 고난, 뛰어난 인내로 견디어 낸 종의 고난이 그렇게 쉬운 고난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그는 **체포와 심문을 당하고 [처형 받으러] 끌려갔다**. 종은 곤욕적인 체포를 당하였고 부당한 법적 절차에 의한 심문을 당하고 죽음당하기 위해 끌려갔다.

1) 여기 “체포”로 번역된 단어 קָבַץ [오체르]는 다른 곳에서 잠 30:16 과 시 107:39 에만 나온다.

2) KB(871)는 칠십인역과 별게이트역처럼 “distress, oppression, 재난, 고통, 억압, 학대”의 의미로 취하거나, 페시타역처럼 “captivity, imprisonment, 체포, 감금, 구금”의 의미로 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모티어(433-434)는 $\text{בְּיָמָיו וְעַתָּה}$ [메오체르 우미미시파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우 상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

1) קָבַץ [오체르]는 “restraint 속박, 제재, 구속”이란 뜻을 갖는다. [오체르] 앞에 붙어 있는 전치사 [민]의 의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뜻이 달라진다.

- בְּיָמָיו [민]을 분리(separative)로 보면 “without restraint (all ordinary restraints and protections removed) 구속 없이 = 일상적인 구속과 보호가 제거된 채”를 의미한다.

- בְּיָמָיו [민]을 원인(causative)으로 보면 “from restraint (from having been arrested and imprisoned) 구속당하여 = 체포 당하고 감금 당하여”를 의미한다.

2) בְּיָמָיו [미시파트]를 “사람의 권리(신 18:3; 21:17)”, “법의 시행 혹은 정당한 절차, 재판 혹은 판결(민 27:21; 신 1:17)”, “법적 제재 혹은 선고(출 21:1, 31)”, “소송제기(민 27:5)” 등의 4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 בְּיָמָיו [민]을 분리(separative)로 보면 “without justice (ignoring rights, without a proper trial) 공의 없이 = 권리를 무시하고, 적법한 재판 없이”를 의미하고

¹¹⁵ 이것은 Grogan, *Isaiah*, 801 에 인용된 U. E. Simon(*A Theology of Salvation: A Commentary on Isaiah 40-55*)의 말이다.

- **לְמִן**[민]을 원인(causative)으로 보면 “from justice (from the court of law, due trial and sentencing) 공의 때문에 = 법정으로부터 재판과 선고를 받아”를 의미한다.

3) 두 전명구 **מִן־מִשְׁפָּט וּמִן־מִשְׁפָּט** [메오체르 우미미시파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사실에** 치중하면 “from arrest and sentence 체포 당하고 선고 받아”로 번역할 수 있다.
- **희생자에** 치중하면 “without restraint and without right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개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로 번역할 수 있다.
- **불의/부정에** 치중하면 “without restraint and without justice 정상적인 구금과 적법한 재판 없이”로 번역할 수 있다.

3. 본 주해는 **מִן־מִשְׁפָּט וּמִן־מִשְׁפָּט** [메오체르 우미미시파트]에 대하여 전치사 **לְמִן**[민]을 원인(causative, causal)으로 보고 사실에 치중하며 이 어구를 “**체포와 심문을 당하고**”라고 번역하였다.¹¹⁶ 종은 결박 받아 강제로 끌려가는 곤욕적인 체포를 당하였고(cf. 요 18:12, 24), 부당한 재판 절차에 따른 유죄 판결 즉 사형 선고를 받았고(cf. 요 19:16), 죽임을 당하기 위해 **끌려갔다**.

1) 여기 “**끌려갔다**”라는 동사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וְהִתְקַהֵּחַ**)[바티카해후])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겔 33:4**의 말씀이나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לְמַתָּה לְקַחֵם**) [르쿠힘 라마베트]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는 잠언 24:11의 말씀에서처럼 처형받으려 끌려간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그가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다**.”라는 다음 구절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2) 예수님은 거짓 증언에 의해(마 26:59-61; 눅 23:2-4, 13-16)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처형을 받기 위해 끌려가셨다(마 27:22-31; 눅 23:23-26).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빌 2:5-8),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천국으로 옮겨 주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 곧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빌 1:13-14, 19-20).

4. “그는 체포와 심문을 당하고 [처형 받으리] 끌려갔다.”라는 콜론 다음에 나오는 세 개의 콜론 즉 **מִפְּשַׁע לְמוֹ עָמִי נִגְזַר מֵאֲרָץ חַיִּים // כִּי נִגְזַר מֵאֲרָץ חַיִּים // וְאֶת־דֹּרוֹ מִי יְשׁוּחָה**에 대한 번역과 해석이 다양하다. 결정해야 할 문제들은 불변화사 **אֶת**[에트]의 역할과 **דֹּר**[도르]의 의미 그리고 접속사 **כִּי**[키]의 역할 그리고 **לְמוֹ**[라모]에 붙어 있는 접미대명사의 수에 대한 것이다. 결정해야 할 것을 구체적인 질문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רִדְד**[도르]의 의미는 세대(사람들)인가? 아니면 후손/자손인가?
- 2) 불변화사 **אֶת**[에트]는 직접목적어를 표시하는 불변화사인가? 아니면 관심의 대격을 표시하는 불변화사인가?

¹¹⁶ 전치사 **לְמִן**[민]에 대한 용법 중 분리, 원인, 박탈에 대하여 Williams, *Syntax*, 315, 319, 321 그리고 Waltke-O'Connor, *Syntax*, 11.2.11 를 참고하라.

- 3) 접속사 'כי[키]는 영어의 that 처럼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을 인도하는가? 아니면 영어의 because, for 처럼 이유의 부사절을 인도하는가?
- 4) im7[라모]에 붙어 있는 접미대명사는 복수(them)인가 아니면 단수(him)인가?
5. 이런 문제들과 관련하여 다음 번역들을 비교해 보면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 1) 첫 번째 그룹은 [에트]를 직접 목적어 표시 불변화사로 보고 [키]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본다. 칠십인역과 이를 인용한 행 8:33 이 이 입장을 지지한다. 네 개의 콜론이 처형 당하러 끌려감—후손의 불가능—산 자의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천벌을 받음이란 역순대구(ABB'A')를 이루는 점에서 병행법이 밝히 드러나는 장점이 있다.
- LXX: ἐν τῇ ταπεινώσει ἢ κρίσις αὐτοῦ ἦρθη· τὴν δὲ γενεὰν αὐτοῦ τίς δηγήσεται; ὅτι αἴρεται ἀπὸ τῆς γῆς ἢ ζωὴ αὐτοῦ, ἀπὸ τῶν ἀνομιῶν τοῦ λαοῦ μου ἤχθη εἰς θάνατον. [Brenton] In [his] humiliation his judgment was taken away: who shall declare his generation? for his life is taken away from the earth: because of the iniquities of my people he was led to death.
 - Cf. 행 8:33 Ἐν τῇ ταπεινώσει [αὐτοῦ] ἢ κρίσις αὐτοῦ ἦρθη· τὴν γενεὰν αὐτοῦ τίς δηγήσεται; ὅτι αἴρεται ἀπὸ τῆς γῆς ἢ ζωὴ αὐτοῦ.
 - [NIV] In his humiliation he was deprived of justice. Who can speak of his descendants? For his life was taken from the earth."
 - [ESV] In his humiliation justice was denied him. Who can describe his generation? For his life is taken away from the earth.
 - [NASB] In humiliation his judgment was taken away; who will relate his generation? For his life is removed from the earth.
 - [NKJV] He was taken from prison and from judgment, And who will declare His generation? For He was cut off from the land of the living; For the transgressions of My people He was stricken.
 - [NIV] By oppression and judgment he was taken away. And who can speak of his descendants? For he was cut off from the land of the living; for the transgression of my people he was stricken.
 - [NRSV] By a perversion of justice he was taken away. Who could have imagined his future? For he was cut off from the land of the living, stricken for the transgression of my people.
 - [HCSB] He was taken away because of oppression and judgment; and who considered His fate? For He was cut off from the land of the living; He was struck because of my people's rebellion.
 - [ISV] "From detention and judgment he was taken away — and who can even think about his descendants? For he was cut off from the land of the living, he was stricken for the transgression of my people.

- [Oswalt] From oppression and from judgment he was taken, and his generation, who has considered it? For he was cut off from the land of the living; from the transgression of my people the blow is his.

2) 두 번째 그룹은 [에트]를 직접 목적어 표시 불변화사로 여기고 [키]를 명사절을 인도하는 접속사로 여기는 것이다. 종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그에 대한 속고가 없었던 탓이고 계시에 의해 그 의미를 깨달을 때만 종의 죽음이 대속을 위한 천벌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는 장점이 있다.

- [NASB] By oppression and judgment He was taken away; And as for His generation, who considered That He was cut off out of the land of the living, For the transgression of my people to whom the stroke [was due?]
- [RSV/ESV] By oppression and judgment he was taken away; and as for his generation, who considered that he was cut off out of the land of the living, stricken for the transgression of my people?
- [NLT] From prison and trial they led him away to his death. But who among the people realized that he was dying for their sins-that he was suffering their punishment?
- [Young] From prison and from judgment he was taken, and among his generation, who takes thought that he was cut off from the land of the living; for transgression of my people he was stricken [there was a stroke to him].
- [개역개정]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 [새번역] 그가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6. 네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자.

1) 먼저 명사 דור[도르]에 대하여 NIV는 “descendants 후손”으로, NRSV는 “future 미래”로, HCSB는 “fate”로 번역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어성경은 “generation 세대”로 번역하였다.

① 오스왈트(395)는 דור[도르]에 대하여 학자들이 제시한 “운명, fate (Driver: 아카드어와 아랍어의 동족어에 근거; D. Winton Thomas, H. Nyberg, Mowinckel, North 등의 지지),” “생명, life (V. de Leeuw),” “후손 line = descendants (Torrey: 신 32:19-20; 시 73:15; 112:2 에 근거)” 중에서 마지막 해석 곧 “후손”이 제일 좋은 것으로 여겼다. 오스왈트는 종이 체포와 심문을 당하고 죽음 당하러 끌려간 것과 (자손이 없이 죽는 것은 아주 헛된 삶을 산 것으로 여기는 문화 배경에서) 아무도 그 종이 후손이 없게 된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서로 병행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과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각각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과 임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과 잘 어울리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② 그러나 모티어(434)는 דָּוָר[도르]가 시 49:19[MT 20]; 73:15 에서처럼 어떤 공통적인 요인에 의하여 함께 모인 그룹(circle)을 의미하고, 창 6:9 에서처럼 동시대 사람들(contemporaries, the circle of his peers)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זָרַע[제라]처럼 "seed, descendants 씨, 후손"의 의미로 쓰인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③ 본 주해는 모티어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따라 דָּוָר[도르]를 여호와의 종의 동시대 사람들을 뜻하는 "세대"로 번역하였다.
- 2) 불변화사 אֶת[에트]가 직접목적어를 인도하는 것으로 보면 דָּוָר[도르]는 "후손, 자손, 운명, 미래" 등으로 번역된다(KJV, NKJV, NIV, NRSV, Oswalt). 그러나 אֶת[에트]가 관점의 대격을 인도하는 것으로 보면 דָּוָר[도르]는 "세대 (사람들)"로 번역된다(NASB, RSV, NLT, Young, Motyer). 전자는 "누가 그 후손을 생각했겠는가? 누가 그의 운명/미래를 생각했겠는가?"로 번역되고, 후자는 "그 세대 중에 누가 고려해보았겠는가?"로 번역된다. 본 주해는 אֶת[에트]가 관점의 대격을 인도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당시 사람들은 종의 죽음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 당대의 사람들은 종의 죽음을 전혀 숙고하지 않았다.
- ①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해/고려해 보았겠는가?"라는 질문은 그 세대 사람들이 마땅히 종의 죽음을 숙고했어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종은 체포되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죽었다. 사람들은 종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런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러나 종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백성의 죄 때문에 죽었다. 사람들은 의로우신 종이 불의한 백성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숙고했어야만 했다. 사람들은 종의 죽음과 죽음에 대한 해석을 함께 연결지어 숙고해 보았어야 했다.
- ② 이사야 선지자가 종의 죽음 자체에 대한 생생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종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다. 종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해석을 마땅히 알고 이해할 때 종의 죽음은 우리에게 크나큰 의미를 갖게 된다.
- 3) 접속사 כִּי[키]가 영어의 because 처럼 이유의 부사절을 인도한다고 보는 입장은 앞의 콜론을 "누가 그 후손을 생각했겠는가?"로 번역하고 그 이유로 뒤에 오는 두 콜론이 주어진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본 주해처럼 앞의 콜론을 "그 세대 중에 어느 누가 생각했겠는가/생각이나 해보았겠는가/고려해 보았겠는가?"라고 번역하면 접속사 כִּי[키]가 마땅히 숙고해야 할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영어의 that 처럼 명사절을 인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 ① 그가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다. "산 사람들의 땅"은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Motyer, 434: 시 27:3; 116:9; 142:5[MT 6]; 사 38:11; 렘 11:19). "끊어졌다"로 번역된 동사 נִקְצַץ[니그자르]는 어근 קָצַץ[가자르]의 니프알 어간으로 구약에 5 번 사용되었다. 애 3:54 에서 과장법적으로 사용되고, 에 2:1 에서 다른 범주이지만 문자적으로 사용되고, 겔

37:11 에서 이상 안에서 문자적으로 사용되고, 시 85:4-5[MT 5-6]에서 확실히 문자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파알(=칼) 어간으로 쓰인 8 번 중에서 5 번(왕상 3:25-26; 왕하 6:4; 합 3:17; 사 9:20[MT 19])이나 문자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Oswalt, 396). 이와 같은 “끊어졌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사 53:8 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어근 [가자르]는 에 2:1; 욥 22:28 에서 “결정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는¹¹⁷ 폭력적인(violent)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종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와이브레이(Whybray)나 끊어졌다(קָטַעַ[니그자르])는 것이 죽음을 나타내는 קָטַעַ[니흐라트](사 29:20)와 달리 거의 죽은 것처럼 느끼는 애통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소긴(Soggin)의 견해는 틀린 것이다(Oswalt, 394-396; Motyer, 434). 종은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다**. 다시 말하면 종은 이 세상에서 실제로 죽임을 당하였다.

- ② 종이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진 이유는 **바로 내 백성의 범죄 때문에 천벌이 그의 것이 되어** 그에게 내려졌기 때문이다.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범죄한 **내 백성**이므로 천벌이 내 백성에게 임해야 하는데 그러질 않고 오히려 그 형벌이 백성의 죄짐을 떠맡은 종에게 임했다. 내 백성이 받을 징벌이 그 종의 것이 되었다. 내 백성의 범죄 때문에 천벌이 그의 것이 되어 종은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다.
- ③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주체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는 입장도 있으나(Young), “내 백성”을 “우리”에 대한 시적 변형으로 사용된 동의어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Alexander, Oswalt, Motyer). “내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로 나오므로(사 40:1; 43:20; 47:6; 51:4, 16; 52:4-6), 선지자가 백성을 대표해서 말하는 사 53:8 에서 “내 백성”이 나오는 것은 좀 이상하다. 사해 사본 이사야(1QIs^a)는 “그의 백성”으로 읽고 있고 베스터만은 “우리의 백성”으로 정정하여 읽는다(Smith, 455). 그러나 정정할 필요 없이 모든 역본들이 지지하는 맛소라 본문대로 “내 백성”으로 읽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 네 번째 노래 안의 사 52:13; 53:11, 12 에서 대명사 “나”는 여호와를 가리키지만, 사 52:8 에서 대명사 “나”가 여호와라는 암시가 없고 사 53:10 에서 여호와가 “여호와”로 곧 3 인칭으로 언급되는 것은 사 53:8 의 “나”가 여호와일 가능성을 배제한다(Oswalt, 396). 삼상 5:10(אֲנִי וְעַמִּי וְאֶת־בְּנֵי יִשְׂרָאֵל) 개역개정: “우리, 우리 백성”; 영어성경 “us, our people” cf. JUB(Jubilee Bible 2000): me, my people)에서 “나”와 “나의 백성”이 동일한 대상이고, 슥 8:21 에서 “성읍 거민들”이 자신들을 지칭할 때 “우리”라고 한 것, 그리고 사 6:5(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다)에서 “나”와 “백성”을 동일시한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Oswalt, 396). 백성을 대표하여 말하는 이사야가 자신을

¹¹⁷ Motyer, 434 n. 5: 왕상 3:25f.(아이를 둘로 자름), 왕하 6:5(나무를 뱀), 대하 26:21(문둥병자를 여호와의 집에서 끊어지게 함), 시 88:5(MT 6, 여호와의 진노 아래 죽은 사람들의 사후에 여호와로부터 분리되는 것), 시 136:13(홍해를 가름), 사 9:20(MT 19, 때리고 잡는 습격), 애 3:54(갑작스런 죽음)

포함한 백성을 지칭하는 의미에서 “우리” 대신에 “내 백성”을 사용한 것으로 보면 문제될 것이 없다.

4) GBH 103f 에 의하면 לָמוֹ[라모]는 복수로서 “그들에게 to them”의 의미로 מִהֶם[라헴] 대신 50 번 사용되고, 단수로서 “그에게 to him”의 의미로 לוֹ[로]대신 5 번(GBH 창 9:26, 27; 신 33:2; 사 44:15; 사 53:8)사용되었다(cf. GKC 103f [53 번] 각주 3). לָמוֹ[라모]가 들어 있는 콜론의 직역은 “מִפְּשָׁעֵי [미페샤] because of the rebellion—עַמִּי [아미] of my people—נִגַּעְתָּ [네가] the blow—לָמוֹ[라모] to him/them”이다.

① לָמוֹ[라모]가 복수라면 백성을 받는 것으로 “because of the rebellion of my people whose was the blow/to whom the blow belonged 마땅히 천벌 받을 내 백성의 범 죄 때문에”로 번역되며 백성의 죄책을 강조한다. 이것은 관계사가 있는 לָמוֹ נִגַּעְתָּ עַמִּי אֲשֶׁר מִפְּשָׁעֵי [미파샤 아미 아세르 네가 라모]처럼 읽는 것이다. 한글 성경들은 대부분 לָמוֹ[라모]를 복수로 보았다.

② 그러나 לָמוֹ[라모]가 단수라면 종을 받는 것으로 “because of the rebellion of my people, the blow was to him/came to him 내 백성의 범 죄 때문에 천벌이 그의 것이 되었다/천벌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번역되며 종의 대리적 고난을 강조한다.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לָמוֹ[라모]를 단수로 보았다. 본 주해는 לָמוֹ[라모]를 단수로 보았다.

③ 여기 “천벌”이라고 번역된 명사 “עַנְיָ[네가]”는 출 11:1 에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묘사하는데 사용되고, 레 13:5 에서 문둥병의 환처를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 백성의 범 죄 때문에 종이 받은 천벌은 아픔과 폭행과 핍박의 고통이 결합된 것(the combination of the pain of illness, violence, and persecution)을 묘사하며, 신약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계 2:11)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당하는(시 22:1[MT 2]) 것을 가리킨다(Oswalt, 396).

④ 4 절은 종의 고난을 보고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은 것으로 보는(וַיִּשְׁבַּח ה' אֱלֹהֵינוּ מִגּוֹעַ מַכָּה אֲלֵהֵם [하샤브누후 나구아 무케 엘로힘]) 우리의 평가를 언급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평가는 8 절에서 천벌이 종의 것이 된 것이 바로 우리의 범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진술에 의하여 교정된다. 종이 천벌을 받은 것은 종 자신의 범 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범 죄 때문이었다(Motyer, 435).

7. 종이 고난당하는 것을 본 동시대 사람들은 그가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진 사실과 함께 그것이 바로 그 백성의 범 죄 때문에 종이 대신 천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의] 해석을 고려했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하였다. **종은 체포와 심문을 당하고 끌려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그가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진 것은 **우리의 범 죄 때문에 천벌이 그에게 내려진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의 범 죄 때문에 천벌이 종의 것이 되어 종은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다. 이것을 우리는 숙고해야한다. 그리스도는 범 죄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벧전 2:21),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벧전 2:24). 우리는 우리의 범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을 늘 묵상하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사 53:9 주해

사 53:9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배정되었으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배정되었다.
그것은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이다.

- 부당한 체포와 불법적 재판을 받고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진 종의 죽음을 말하는 8 절에 이어서 9 절은 바브계속법을 통하여 종의 장사에 대하여 언급한다. 이것은 사도신경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에 “장사되신”¹¹⁸ 것을 고백하는 것을 연상하도록 해 준다. 총칭적으로 일반 사람을 가리키는 영어의 “one”이나 “they”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주어는 3 인칭 남성 단수(*GKC* 144d, 창 11:9)나 3 인칭 남성 복수(*GKC* 144f, 창 29:2)나 2 인칭 남성 단수(*GKC* 144h, 사 7:25)나 분사의 복수(*GKC* 144i, 렘 38:23)나 수동구문(*GKC* 144k, 창 4:26)으로 표현된다. 9 절의 첫 동사 וְנִתְּנָהּ[바이텐]은 단수이지만 복수 וְנִתְּנָהּ[바이트누]처럼 총칭적으로 일반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면, וְנִתְּנָהּ [바이텐 키르보]는 “and one assigned his grave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배정했다”를 나타내므로 “and his grave was assigned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배정되었다”라는 수동의 의미로 번역할 수 있다. 악인들(רְשָׁעִים[르샤임])은 악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가리킨다. 9 절의 첫째 콜론은 종의 무덤이 악인들이 묻히는 곳에 할당되었다고 말한다.
- 이렇게 9 절의 첫째 콜론은 별 문제가 없으나 둘째 콜론과 셋째 콜론에 이르면 서로 연관된 해석상의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된다. 첫 번째 문제는 접속사 바브를 갖는 둘째 콜론이 첫째 콜론과 동의적 병행인지 반의적 병행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문제는 셋째 콜론의 접속사 וְעַל[알]의 정확한 의미가 보다 자주 쓰이는 이유나 원인(because [cf. *GKC* 158b])인지, 아니면 드물게 쓰이는 양보(even though, *GKC* 160c = notwithstanding that; *GBH* 171e; *HebS* 288, 531)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 NKJV 와 NASB 는 접속사 바브를 역접(but, yet)으로 보고 접속사 וְעַל[알]을 이유(because)로 보았다.
 - [NKJV] And they made His grave with the wicked--**But** with the rich at His death, **Because** He had done no violence, Nor was any deceit in His mouth.
 - [NASB] His grave was assigned with wicked men, **Yet** He was with a rich man in His death, **Because** He had done no violence, Nor was there any deceit in His mouth.

¹¹⁸ 한글 사도신경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부분에서 능동태로 번역된 “성령으로 잉태 하사”와 “장사 한 지”는 각각 “성령으로 잉태되사”와 “장사된 지”처럼 수동태로 번역해야 한다. 예수님이 자신을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아니고 죽임 당하신 후 예수님이 자신을 장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님은 죽임 당하신 후 장사되셨기 때문이다.

2) NIV, (N)RSV, ESV, HCSB, IVS 등은 접속사 바브를 순접(and)으로 보고 접속사 אַל[알]을 양보(although, though)로 보았다.

① [NIV] He was assigned a grave with the wicked, **and** with the rich in his death, **though** he had done no violence, nor was any deceit in his mouth.

② [RSV/ESV] And they made his grave with the wicked **and** with a rich man in his death, **although** he had done no violence, and there was no deceit in his mouth.

③ [NRSV] They made his grave with the wicked **and** his tomb with the rich, **although** he had done no violence, and there was no deceit in his mouth.

④ [HCSB] They made His grave with the wicked **and** with a rich man at His death, **although** He had done no violence and had not spoken deceitfully.

⑤ [IVS] Then they made his grave with the wicked, **and** with rich people in his death, **although** he had committed no violence, nor was there any deceit in his mouth."

3. 둘째 콜론의 원문(אַתְּעָשִׂיר בְּמָתְיוֹ [브에트-아시르 브모타브])에는 첫째 콜론의 동사(וַיָּתֵן [바이텐])와 목적어(קִבְרוֹ [키브로])가 없고 첫째 콜론의 אֶת־רְשָׁעִים [에트-르샤임]과 병행되는 אֶת־עָשִׂיר [에트-아시르]가 있고 בְּמָתְיוֹ [브모타브]가 첨가되어 있다. 둘째 콜론의 전명구 בְּמָתְיוֹ [브모타브]는 비분리 전치사([베트] "-에")+복수명사([마베트-모트 > 모팀-모테] "죽음들")+접미대명사([아브] "그의")로 이루어져 있다.¹¹⁹ 여기처럼 "죽음"이 복수로 쓰인 것은 겔 28:10 에만 나온다.¹²⁰ 여기 사용된 죽음의 복수형(מֹתִים [모팀] deaths)이 강세의 복수라면 종의 죽음의 끔찍한 성격이 부각되고, 탁월 혹은 장엄의 복수라면 종의 죽음의 숭고함이 부각된다(cf. Motyer, 436). 종의 죽음을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으로 잘못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 죽음의 끔찍한 성격이 드러날 것이고, 종의 죽음이 백성의 죄 때문에 백성 대신 죽임 당하는 대속적 죽음으로 바르게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 죽음의

¹¹⁹ Oswalt, 390 n.19 에 의하면 1QIS^a 는 בּוֹמְתוֹ bwmtw 를 갖고 있는데 Albright 는 בְּמָתְיוֹ의 원래의 장모음 오를 지닌 형 בּוֹמָה (KB, 136)에 접미대명사가 붙은 בּוֹמָתוֹ (his high place, his funeral shrine)로 읽었다. 그러나 사해 사본의 בּוֹמְתוֹ 는 בּוֹמָתוֹ의 첫 번째 모음 문자를 잘못 베긴 것으로 보면 "in his death"의 의미를 갖는다. 역본들은 모두 "죽음"으로 읽는다.

¹²⁰ GKC 124 는 "מֹתִים [파님] 얼굴"처럼 여러 외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표면 확장의 복수(plural of local extension)와 "מֹתִים [하임] 생명"이나 "מֹתִים [즈쿠님] 노년"처럼 내재해 있는 특성을 강화하고 영어의 -ness, -hood, -ship 으로 번역될 수 있는 추상의 복수(abstract plural)를 지적하고, 추상의 복수를 세분하여 "מֹתִים [오님] 힘"과 같은 강화/강세의 복수(plural of intensity or internal multiplication) 혹은 "מֹתִים [엘로힘] 하나님"과 같은 탁월 혹은 장엄의 복수(plural of excellence or majesty)를 지적한다. Motyer(435)는 "무덤"의 복수형 מִקְבָּרִים [크바림]이 욥 17:1 과 21:32 에서 확장의 복수 즉 묘지(graveyard, place of graves)의 의미로 쓰였고, 왕하 22:20(요시아왕)과 대하 16:14(아사왕)에서 탁월/장엄의 복수 즉 훌륭한 묘실/왕릉(splendid /royal grave)의 의미로 쓰인 것을 지적하였다.

숭고한 성격이 드러날 것이다. 영(*Isaiah 53*, 68)은 복수형으로 나타낸 종의 잔인하고 끔찍한 죽음과 죽은 후 그의 부자와의 연합이 대조된다고 하였다.

4. 첫째 콜론의 **רָשָׁעִים**([르샤임] 악인들)은 복수이고 둘째 콜론의 **רָשָׁעִי**([아시르] 부자)는 단수로서 서로 대조된다. 첫째 콜론과 둘째 콜론의 관계를 동의적 병행으로 보면 종이 범죄자들과 함께 묻히도록 의도되었고 종이 죽은 후에 의도된 대로 부자와 함께 묻히게 된 것을 언급하는 것이다.

1) 이 경우 “부자 **רָשָׁעִי**[아시르]”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부는 압제와 연관되고(시 49:5-6[MT 6-7]; 52:7[MT 9]; 잠 18:23; 28:6, 20; 렘 17:11; 미 6:12), 부자는 압제자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Oswalt, 398).

2) “부자”가 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학자들은 “부자 **רָשָׁעִי**[아시르]”를 “**רַעֲוֵי** [오세 라] doers of evil 행악자들”(Westermann, BHK) 혹은 “**דַּמְוִיִּם**[스이림] demons 귀신들”(BHS)로 고쳐 읽을 것을 제안하지만 고대 역본들은 모두 “부자”를 지지한다(Oswalt, 390 n. 18).

3) “부자”를 부정적인 의미로 볼 경우 셋째 콜론을 시작하는 접속사 **וְעַל**[알]은 드물게 쓰이는 양보의 의미를 지닌다(cf. 욥 10:7; 16:17; 34:6). 종은 그의 가장 충실한 동무들이었던 가난한 자와 함께 묻히지도 못하고, 죽어서도 그를 압제하고 그를 멸시하였던 부자들에 의해 둘러싸이게 되는 생애의 마지막 아이러니를 만난다.

4) 그렇다면 전체 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종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을지라도, 종은 악인들과 함께 묻히도록 계획된 대로 죽어서 부자 즉 압제자들에 의해 둘러싸이게 되었다(Oswalt, 398).”

5. 이와 대조적으로 첫째 콜론과 둘째 콜론의 관계를 반의적 병행으로 보면 종이 범죄자들과 함께 묻히도록 의도되었지만 죽은 후에 종이 부자와 함께 묻히게 된 것을 언급하는 것이다.

1) 이 경우 “부자 **רָשָׁעִי**[아시르]”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의로운 사람은 부유함을 상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시 112:1-3; 잠 10:22; 14:24).¹²¹

2) 이것은 셋째 콜론을 시작하는 접속사 **וְעַל**[알]의 일반적인 의미 즉 이유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cf. 왕상 16:7; 시 44:22; 69:7; 렘 15:5; 욥 34:36). 종의 의로움 때문에 종에 대한 원래의 장사 계획이 좌절된 것을 말한다.

3) 그렇다면 전체 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종은 원래 악인들과 함께 묻히도록 계획되었지만 그의 (숭고한) 죽음으로 부자와 함께 묻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종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종은 불명예스러운 죽음 이후에 그의 완전한 순결함 때문에 영예스러운 장사를 받았다. 종이 악행을 저지른 원수들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은 그 행악자들과 함께 수치스러운 장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부자와 함께 영예로운 장사를 받았다(Young, 353).”

¹²¹ 그러나 부가 곧 부자가 의인이라는 증거로서 보이는 것은 아닌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시 49:16-20[MT 17-21]; 잠 11:4; 28:11).

6.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예수님이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과 함께 매장되도록 작정되었을 것이지만 로마 지도자들에 의해 그의 시신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지고 그의 묘실에 묻히신 것(마 27:57-60)을 이 구절의 성취로 보고 성취된 사실의 관점에서 보면¹²² 동의적 병행(Oswalt)보다는 반의적 병행(Young)으로 보는 것이 옳다.¹²³

1)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배정되었다는 것은 종이 죄인처럼 죽고 죄인처럼 묻히도록 의도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종이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몰고 간 사람들의 계획은 종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배정되었다는 것은 종의 외견상 참혹한 죽음 후에 아니 사실을 말하면 자기 백성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한 종의 숭고한 죽음 후에 종은 부자를 위해 준비되었던 묘실에 묻혔다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종의 승귀와 영화는 그의 장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Young, *Isaiah 53*, 68).

2) 첫째 콜론과 둘째 콜론을 반의적 병행으로 보면 셋째 콜론을 시작하는 접속사 **לְעַלְמָא**은 보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유의 접속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종이 끔찍한 아니 숭고한 죽음 이후에 원래 의도되었던 악인들과 함께 묻히지 않고 부자의 묘실에 묻히게 된 것은 바로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이다.

① “강포, 포악, 폭행”을 뜻하는 히브리어 **חָמָס**[하마스]는 사람들에게 대한 계획된 악행(“악인” 잠 10:6, 11)이나 저질러진 악행(“잔해” 창 49:5) 혹은 죄악된 세상의 삶의 특징(“강포가 가득함” 창 6:11, 13)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 종은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공공연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② 게다가 종은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 “입에 있는 거짓/궤사”는 말로 표현된 마음의 악함, 궁극적인 나쁜 동기를 언급한다. 성경에서 삼가는 말이나 조심스러운 말은 좋으나(잠 22:21; 마 5:37), 거짓말은 금지되고(레 19:11; 골 3:9), 허는 복된 것(잠 12:14; 벰전 3:10)으로 묘사되기도 하나, 위험스러운 것(욥 5:21; 약 3:6)으로 묘사되기도 하며, 말은 마음의 가늠자(마 15:18)이고, 두 마음의 표시(약 3:9-10)이기도 하고, 심판 날에 심문의 대상(마 12:36-37)이고, 완전함의 증거(약 3:2)이기도 하다(Motyer, 436 n. 6)).

¹²² Motyer(436)는 사 52:13-15에서 가장 깊은 비하에서 가장 높은 승귀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수수께끼, 사 53:1-3에서 그렇게 인간에 불과한 듯한 자가 어떻게 여호와의 팔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수수께끼에 이어서, 사 53:9에서 정죄받은 사람이 어떻게 부자의 장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수수께끼가 제시된다고 하였다. Motyer는 North나 Wade가 이 구절을 예수님의 장례와 연결지어 읽는 것을 정당화하기 힘들다고 한 것과 Delitzsch가 성취가 보여주는 해설없이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비교하며 다른 수수께끼들처럼 이 수수께끼가 기록된 것은 사건의 진행을 통해 설명될 때 우리가 여호와의 종의 임재 가운데 서있음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¹²³ Motyer(436)는 셋째 콜론의 접속사 **לְעַלְמָא**의 의미를 악인과 함께 배정되었다고 하는 첫째 콜론과 연결지어 양보의 의미로도 볼 수 있고 부자와 함께 배정되었다고 하는 둘째 콜론과 연결지어 이유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③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기 때문(사 3:8)”이라고 말하였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고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로다(사 6:5).”라고 탄식하였다. 이사야의 죄책과 백성의 죄책이 드러나게 한 것은 거짓된 허이었다면 여기서 이사야가 종의 완전함을 강조하기 위해 그 입에 궤사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분명히 여호와의 종은 죄인들을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 되는데 필수적인 도덕적 위엄을 지니고 있었다(Motyer, 436). **그 입에 거짓이 없었고 강포를 행하지 않은** 종은 죄가 전혀 없었다. 종은 외적 행위나 내적 마음에 있어서 온전하였고 언행에 있어서 완전하였다. 종은 그의 백성을 죄 문제를 해결할 완전 무결하고 무흠한 대리자이었다.

3) 예수님 당시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다.

- 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요 8:46-47).”라고 말씀하셨다.
- ②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마 27:24; cf. 눅 23:14-15).”라고 말했다.
- ③ 빌라도의 아내는 사람을 보내 재판석에 앉아 있던 빌라도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마 27:19).”라고 말했다.
- ④ 마태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마 27:54; cf. 막 15:39).”라고 기록했다.
- 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눅 23:39)”고 비방하던 다른 강도를 꾸짖으며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눅 23:40-41).”고 말했다.
- ⑥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고 말했다.
- ⑦ 베드로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벧전 2:22-25).”고 말했다.

넷째 연(사 53:7-9) 요약 정리

1. 종은 백성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신(53:6) 여호와의 뜻을 따를 때 자신의 뜻과 달리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했다. 종은 물리적 잔인함이 내포된

학대를 받았다(주절). 종은 학대를 받고 곤욕을 치를 때 자원하여 **고난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며** 희생 제물로 죽임 당할 **어린 양처럼** 그리고 털 깎일 **양처럼** 어떠한 항의나 자기변호의 말도 하지 않고 **그 입을 열지 않고(53:7)** 인내하였다(상황절). 이것은 예수님이 곤욕을 당할 때의 묘사와 놀랍게도 일치한다(마 26:63; 27:12-14; 막 15:5; 눅 23:9; 요 19:9). 종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이고,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벧전 1:18-19)이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처럼 순결하신 종은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원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종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벧전 2:23).

2. 그러나 종이 자원하여 받으며 뛰어난 인내로 견디어 낸 고난은 그렇게 쉬운 고난이 아니었다. 그는 **체포와 심문을 당하고 처형 받으러 끌려갔다(53:8ab)**. 종은 결박 받아 강제로 끌려가는 곤욕적인 체포를 당하였고(요 18:12, 24), 부당한 재판 절차에 따른 유죄 판결 즉 사형 선고를 받고(요 19:16), 죽임을 당하기 위해 끌려갔다. 종은 체포당하고 선고받았으나(사실적인 측면), 정상적인 구금과 적법한 재판이 없는 불의를 겪었고(부정 불의적인 측면),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개인의 권리 행사도 못한 채 희생을 당했다(희생적인 측면). 이러한 종의 죽음에 대하여 그 당시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해/고려해 보았겠는가?(53:8c)**”라는 질문에서 암시된다. 종은 이 세상에서 실제로 죽임을 당하며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다(53:8d)**. 종이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진 이유는 바로 **내 백성의 범죄 때문에 천벌이 그의 것이 되어 그에게 내려졌기 때문이었다(53:8e)**. 백성의 범죄 때문에 종이 받은 **천벌**은 아픔과 폭행과 핍박의 고통이 결합된 죽음이고, 둘째 사망이고(계 2:11),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시 22:1; 마 27:46; 막 15:34) 것이었다. 종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다. 종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천벌이 그의 것이 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을 마땅히 알고 이해할 때만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스도는 범죄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벧전 2:21),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벧전 2:24).
3. 부당한 체포와 불법적 재판을 받고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진 종은 장사되었다. 종은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배정되었으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배정되었다(53:9ab)**. 종은 원래 악인들과 함께 묻히도록 계획되었지만 자기 백성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한 숭고한 그의 죽음으로 인해 부자와 함께 묻히게 되었다. 예수님은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과 함께 매장되도록 의도되었지만, 죽어 장사될 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묻히셨다. 종이 끔찍한 죽음(강제 복수) 아니 숭고한 죽음(장엄 복수) 후에 원래 의도되었던 악인들과 함께 묻히지 않고 부자의 묘실에 묻히게 된 것은 바로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않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이다(53:9cd)**. 종은 정말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셨다.

4.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필수적인(necessary) 일이고, 바라는 일이고(desire), 중심적인(central) 일이고, 그의 시간 의식을 지배하는(dominating time-consciousness) 일이고, 기념(memorial)이 되는 일이었다.¹²⁴
- 1)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고난이 구약 성경이 바라보는 것이고(눅 24:44-46)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필요 불가결한 일이므로([가이사라 빌립보] 마 16:21/막 8:31/눅 9:21; [변화산] 눅 9:31; [수난예고] 막 9:31; 10:33; 눅 13:33; 마 21:33-41; [베다니 시몬의 집] 막 14:8; [만찬의 잔] 막 14:24)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며 죽을 것이라고(막 10:45) 가르치셨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필수적인 일로서 그의 전망(outlook)을 형성하고 있었다.
 - 2) 예수님은 필수적인 십자가를 그의 뜻에 반하여 억지로 받아들이거나 수동적인 자세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들였다(cf. 히 12:2).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의 소원이 다 성취될 때까지 이루기 위해 답답해 하시며(feeling pent-up and hampered 눅 12:51) 그의 길을 묵묵히 걸어 가셨다. 예수님은 그의 때가 되었을 때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길을 가셨고(요 10:11), 밀알처럼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가져올 것을 아셨고(요 12:24),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며(요 15:13)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셨다. 이렇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소원이고 바람이었다.
 - 3) 예수님은 변화산에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십자가를 통한 별세를 말씀하셨고(눅 9:31),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에도 십자가의 잔을 말씀하셨다(마 26:39, 42; 막 14:36). 이렇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에서 중심적인 일이었다.
 - 4)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늘 염두에 두시고 그의 때에 대하여 생각하시며 말씀하셨다. 그의 때가 되기 전에 아무도 예수님을 해치지 못했다(눅 13:31-33). 예수님은 그의 때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다(요 19:30). 이렇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시간 의식을 지배하였다.
 - 5)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그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기념으로 삼으셨다. 그의 가르침과 능하신 사역들의 가치에 대하여 무슨 생각을 하셨든 간에 예수님은 그의 몸과 흘린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그를 기억하는 수단이 되는 결정적인 일인 것을 강조하시고 역설하셨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기념비적 사건이다(cf. 고전 11:24-26).
5. 우리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죄 없으신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한 것을 늘 묵상하며 기념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¹²⁴ Everett F. Harrison, *A Short Life of Christ* (Grand Rapids: Eerdmans, 1968), 229-230.

다섯째 연: 사 53:10-12 주해

1. 본문

[IQ]sa ^a [ויחללהו]	החלי	נכאז	חפץ	ניהנה	53:10a	
[G]	(D'')	H'	(b)	(a) (III) G ³		
[D20s0+1 <חלל]	H10 <חלה	D65s0 <דכא	B10			
	נפשו	אשם	תשים	אם-	53:10b	
	(III) P ¹ o ¹					
	fscs0 <נפש	msa	B21 <שים			
	ימים	נאריד	זרע	יראה	53:10c	
			(III) H ²	ω ¹ (p ¹)		
	יום <mpa	H20 <ארד	msa	B20 <ראה		
	יצלח:	בידו	ניהנה	וחפץ	53:10d	
			(III) G ⁴ (a')	(b)		
	B20 <צלח	יד <ב+fscs0		חפץ <1+msc		
בדעתו	ישבע	<אור>	יראה	נפשו	מעמל	
III(ω)[Ω] (III) K ²			ω ² (p ²)	(III) P ² o ²		
fscs0+ב <דעת	B20 <שבע	msa	B20 <ראה	fscs0 <נפש	עמל <מן+msc	
יסבל:	הוא	ועונתם	לרבים	עבדי	צדיק	53:11cd
F'	(s ¹) h ⁴	J''	(IV) C ³ (r ¹)	(IV) A ²	α ² (q ²)	
B20 <סבל		mpcs5+1 <עון	mpa+ה+ל <רב	mscs4 <עבד	msa	
					H20 <צדק	
		ברבים	לו	אחלק-	לכו	53:12a
		(IV) C ⁴ (r ²)	g ³	(r')		
		רב <ב+ה+mpa	ל+s0	D24 <חלק		
	שקל	יחלק	עצומים	ואת-		53:12b
		(r ²)				
	msa	D20 <חלק	mpa <עצום			
	נפשו	למות	הערה	אשר	פחת	53:12c
	(IV) P ³ o ³	(IV) O ²				
	fscs0 <נפש	מות <ל+ה+fsa	H10 <ערה			
		נמנה	פושעים	ואת-		53:12d
			ω ¹ /'' (u ¹)			
		N10 <	B55 <פשע			
יפגיע:	ולפושעים	נשא	רבים	חטא-	והוא	53:12ef
(IV) N ²	ω ² (I''') (u ²)	E (IV) B ³	(IV) C ⁵ (r ³)	(J''')	(s ²) h ⁵	

H20 <פגע	B55+ה+ל+ו <פשע	B10	mpa <רב	msc <אטן		
----------	----------------	-----	---------	----------	--	--

2. 본문 문제

1) 53:10

- ① 첫째 콜론의 וַיְהִי וַיִּהְיֶה וַיִּהְיֶה 와 마지막 콜론의 וַיִּהְיֶה וַיִּהְיֶה가 보여주는 두 가지 문예적 기교는?
- ② 접속사 없이 연결된 부정사 וַיִּהְיֶה와 동사 וַיִּהְיֶה의 관계를 설명하면?
- ③ וַיִּהְיֶה 대신 וַיִּהְיֶה로 읽는 IQIsa^a의 동사의 어근은?
- ④ 동사 וַיִּהְיֶה은 3 인칭 단수인가 아니면 2 인칭 단수인가? וַיִּהְיֶה이 3 인칭이라면 그 주어는? וַיִּהְיֶה이 2 인칭이라면 그 주어는?
- ⑤ (다섯째 연에 3 번 나오는) 명사 וַיִּהְיֶה의 성은?

2) 53:11

- ① 첫 단어 וַיִּהְיֶה에 붙어 있는 전치사 וַיִּהְיֶה의 용법과 명사 וַיִּהְיֶה의 의미는?
- ② וַיִּהְיֶה [אור] וַיִּהְיֶה에 대한 본문 비평상의 문제는?
- ③ 맞소라 본문 그대로 볼 경우 וַיִּהְיֶה וַיִּהְיֶה에 대한 해석은?
- ④ וַיִּהְיֶה에 붙어 있는 악센트는? וַיִּהְיֶה에 붙어 있는 악센트는? 붙어 있는 악센트에 따르면 וַיִּהְיֶה는 앞에 있는 וַיִּהְיֶה와 함께 가는가? 아니면 뒤에 오는 동사 וַיִּהְיֶה와 함께 가는가?
- ⑤ 맞소라 본문 그대로 볼 경우 וַיִּהְיֶה에서 속격은 주어적 속격(subjective genitive)인가 아니면 목적어적 속격(objective genitive)인가?
- ⑥ אור가 전승상 빠진 것으로 보고 병행법을 고려할 경우 וַיִּהְיֶה는 앞의 וַיִּהְיֶה와 함께 가는가 아니면 뒤에 오는 동사 וַיִּהְיֶה[야츠디크]와 함께 가는가?
- ⑦ וַיִּהְיֶה에 붙어있는 1 인칭 단수 접미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 ⑧ וַיִּהְיֶה는 형용사로 쓰인 것인가 아니면 명사로 쓰인 것인가? וַיִּהְיֶה와 וַיִּהְיֶה의 관계는?
- ⑨ וַיִּהְיֶהם에서 전치사 라멧의 용법은?
- ⑩ וַיִּהְיֶהם הוא קטל의 어순이 보여주는 것은? 이 절은 상황절인가 아니면 주절인가?

3) 53:12

- ① וַיִּהְיֶה이 받는 내용은?
- ② וַיִּהְיֶה에서 전치사 וַיִּהְיֶה의 용법은? וַיִּהְיֶה의 의미는?
- ③ וַיִּהְיֶהם-עצומים에서 וַיִּהְיֶה의 용법은?
- ④ וַיִּהְיֶהם의 뜻은?
- ⑤ וַיִּהְיֶהם-פְּשָׁעִים에서 וַיִּהְיֶה의 용법은? וַיִּהְיֶה의 어간의 의미는?
- ⑥ 마지막 두 콜론 וַיִּהְיֶהם וַיִּהְיֶהם를 시작하는 접속사 וַיִּהְיֶה의 용법과 대명사 וַיִּהְיֶה의 역할은?

3. 번역

- 사 53:10 여호와와 뜻은 그를 부수시며 그를 아프게 하시는(혹은 찌르시는) 것이었다.
그의 영혼이 속건제를 드리면
그가 씨를 보며 날들을 길게 할 것이고
여호와와 뜻이 그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 11 그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그는 빛을 볼 것이고
자기 지식으로 인해 그는 만족해 할 것이다.
의로운 자인 나의 종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 12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그 많은 사람을 차지하게 하고
그는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는 그가 그의 영혼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범죄자들과 함께 자신을 헤아려지게 하였고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고
범죄자들을 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이다.

4. 문학적 분석 (cf. Motyer, 436-438)

- 1) 네 번째 종의 노래의 다섯째 연(53:10-12)은 노래 전체에 흐르는 모든 중심 사상들이 모여드는 저수지 같다. 그렇지만 다섯째 연은 첫째 연(52:13-15)과 셋째 연(53:4-6)과 주된 연결을 이룬다.
- 2) 먼저 첫째 연과 다섯째 연을 비교하면 이렇다. 첫째 연(52:13, 15)의 슬기로운 행위를 통한 사명 완수와 승귀라는 주제는 다섯째 연에서 종이 그의 날들을 길게 하고(53:10c), 여호와와 뜻이 그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10d), 개인적 성취에 대하여 만족해하고(11b), 전리품을 차지하고 나누어 줄(12ab) 때 다시 부각된다. 첫째 연(52:14-15)의 “רַב־אָדָּם[라빔] 많은 사람/민족”의 주제가 53:11-12 에 세 번 반복되어 나오며(11c 많은 사람; 12a 많은 사람; 12e 많은 사람) 수미쌍관법을 이룬다.
- 3) 셋째 연(53:4-6)과 다섯째 연(53:10-12)을 비교하면 많은 어휘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 ① 53:3 의 אֲנִי וְעַד־יְהוָה[여두아 홀리] “아픔을 아는 자”와 53:4 의 אֲנִי וְעַד־יְהוָה[홀라에누] “우리의 아픔”과 53:10 의 אֲנִי וְעַד־יְהוָה [헤헬리] “그가 아프게 하셨다”는 모두 같은 어근에서 온 것이다. 4 절의 “그가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한 것”은 10 절의 “여호와께서 그를 부수시며 심히 아프게 하시기로 뜻하신” 결과이다.
 - ② 53:4-6 에서 종의 고난이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받고 찢리고 부서지고 징계 받고 채찍 맞은 것”으로 표현된 것은 52:14 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없도록 망가진 모습과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도록 망가진 모양”의 확대이고 53:11a 의 가장 깊은 내면에 스며든 고통 즉 “그의 영혼의 수고”로 정리 요약된다.

③(52:15 의 “많은 민족들에게 피를 뿌림”에서 나온) 희생의 주제는 53:4-6 에서 죄를 담당하는 것(4 절: 아픔을 짊어지고 슬픔을 담당함), 대리적 형벌(5 절: 찢리고 부서지고 징계 받고 채찍 맞음), 하나님과의 화목(5 절), 백성의 죄를 떠맡는 중보(6 절) 등으로 표현되어 있고 53:10-12 에서 반복되어 나온다.

- 4 절의 짊어지다(נָשָׂא[나싸] 4a)—담당하다(נָשָׂא[스발람] 4b)는 11-12 절에서 역으로 담당하다(נָשָׂא[이스불] 11d)—짊어지다(נָשָׂא[나싸] 12d)로 나온다.
- 대리적 형벌(5 절)은 속건제물(10b)로 표현된다.
- 화목과 죄를 떠맡기심(5-6 절)은 하나님의 뜻이고 기쁨(10 절)이었고 이러한 종의 사역은 여호와를 만족시켰고 온전한 상을 받는다(12 절).
- 53:6 의 마지막 동사(נָשָׂא[히프기아] 그에게 떠맡기셨다)와 53:12 의 마지막 동사(נָשָׂא[야프기아] [그들의 죄악을 떠맡으며] 기도한다)는 같은 어근이다. 6 절에서 여호와는 종에게 그 백성의 죄악을 떠맡기셨고 12 절에서 종은 그가 죄악을 떠맡은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므로 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6 절)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12 절)이다.

4) 다섯째 연(53:10-12)은 3 인칭 묘사(53:10-11ab)와 1 인칭 증언(53:11cd-12)으로 2 구분할 수 있다. 3 인칭 묘사가 나오는 53:10 은 נָשָׂא נִהְיֶה([바아도나이 하페츠] 여호와께서 뜻하셨다)와 נָשָׂא נִהְיֶה([브헤페츠 아도나이] 여호와의 뜻)에 의하여 수미쌍관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3 인칭 묘사가 나오는 53:11ab 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종의 위치(11a)와 종의 사역에 대한 만족(11b)을 언급한다. 여호와께서 종을 “나의 종”으로 부르며 말씀하시는 1 인칭 증언(53:11cd-12)은 종의 의로움(11 절)과 종의 죽음의 대리적 성격으로 인한 상(12 절)에 대하여 언급한다.

5) 다른 한편으로 다섯째 연(53:10-12)은 종의 נָשָׂא[네페시] (“영혼”)가 3 번(10b, 11a, 12c) 나오는 것에 주목하며 3 구분할 수도 있다.

- ① 다섯째 연의 첫 네 쿨론(10a-d)에서 종은 여호와의 뜻을 행하고 있고 마지막 네 쿨론(12c-f)에서 종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있으며 중앙의 여섯 쿨론(11abcd-12ab)에서 종은 그 자신의 고유의 가치의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다.
- ② 세 부분을 통일시키는 주제는 종의 죽음을 속건제(10b)로 이해하고, 죄를 제거하고 의를 전가하는 대속적 희생(11-12ab)으로 이해하며, 자발적인 동일시와 중보(12c-f)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52:13-15 에서 제기된 수수께끼가 풀린다. 53:1-3 의 종의 삶과 고난에 대한 사실이 53:4-6 에서 설명되고, 53:7-9 의 종의 자발적이고 부당한 죽음에 대한 사실이 53:10-12 에서 설명된다.
- ③ Motyer(438)가 다음과 같이 정리한 것처럼 a² 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종이라는 사상(10d, 11a)에 의하여 a¹ 과 연결되고, a³ 는 사실(12ab)에 첨가된 설명으로서 a² 와 연결된다.

A² Solution: exaltation through sin-bearing suffering (53:10-12) 해답: 대속적 고난을 통한 승귀

The explanation of the Servant's suffering (10-11b) 종의 고난에 대한 설명과

merging into the Lord's testimony to his Servant (11c-12) 여호와의 종에 대한 증언

A The meaning and effects of the Servant's death (10) 종의 죽음의 의미와 결과

a¹ The servant's soul ①: 종의 영혼

Divine pleasure (10a) 하나님의 기쁨

His death as a guilt offering (10b) 속건제로서 종의 죽음

The Servant's family (10c) 종의 가족

The executor-Servant (10d) 여호와 뜻의 성취자

B The Lord's testimony to his Servant (11-12) 여호와의 종에 대한 증언

a² The servant's soul ②: 종의 영혼

His death as personal suffering (11a) 개인적 고난으로서 종의 죽음

The Servant satisfied (11b) 종의 만족

Righteousness provided (11c) 의의 제공

By sin-bearing (11d) 죄악 담당

Issuing in victory (12ab) 승리로 귀결

a³ The servant's soul ③: 종의 영혼

His death as voluntary (12c) 자발적인 종의 죽음

Voluntary identification (12d) 자발적인 동일시

Personal sin-bearing (12e) 개인적 죄악 담당

Mediatorial interposition (12f) 중보기도

6) 버기(185)는 세 번째 스탠자(Third stanza)의 두 번째 스트로피(second strophe)인 53:10-11b 에 반복된 단어들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반복이 주는 문예적 효과를 설명한다.

10 여호와[יהוה]는 뜻하셨다[רָצוּן]-그를 부수시기로[שִׁבְרָא]
 그리고 그를 찌르셨다[לְיִשְׂרָאֵל וְיִהְיֶה לְעֵלֶיךָ וְיִשְׂרָאֵל].
 그의 영혼이[רוּחַ] 속건제를 드리면
 그가 씨를 보며[רֹא] 날들을 길게 할 것이고
 뜻이[רָצוּן]-여호와의[יהוה] 그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11 그의 영혼의[רוּחַ] 수고 때문에 그는 빛을 볼[רֹא] 것이고
 그는 만족해 할 것이다.

① 53:10-11b 는 거의 동일한 순서로 반복되어 나오는 4 개의 단어에 의해 묶여진 한 단락을 이룬다. [아도나이]-[하페츠]-[나프쇼]-[라아](53:10a-c) 그리고 [헤페츠]-[아도나이]-[나프쇼]-[라아] (53:10d-11b)에 주목하라. [아도나이]-[하페츠]의 역순적 반복과 (53:5 의 “찌르다”와 “부수다”가 역순으로

나오는) “부수다”와 “찌르다”의 병행 단어의 반복은 종의 고난이 여호와와의 뜻인 것을 강조하고 [나프쇼]와 [라아]의 반복은 종의 영혼이 속건제물이 되었을 때 그가 그의 고난의 열매를 다시 보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

② 불변화사 [에트]를 제외한 단어 수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게 “우리” 부분인 53:1-6 에는 70 개의 단어가 나오고 “그” 부분인 53:7-11b 에는 62 개의 단어가 나오는 것에 유의하면 반복이 큰 단락을 구분하고 묶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3:1-6 은 [미]-[미]로 시작하여(53:1) [쿨라누]-[쿨라누]로 마치고(53:6), 53:7-11b 는 [로 이프타흐 피브]의 반복으로 시작하여(53:7) [라아]의 반복으로 마친다(53:10-11).

③ 53:1-6 과 53:7-11b 에는 14 개의 단어가 반복되어 총 40 개 단어를 이루고 있다. 단순한 반복, 동의적 병행 단어 반복, 재담적 단어 반복을 들면 다음과 같다.

- מִי [미] “누구?” 53:1(2 번), 8
- זְרוּעַ [즈로아] “팔” 53:1b vs. צֵרַע [제라] “씨” 53:10c
- לִפְנֵי [리프네] “앞에” 53:2, 7
- אֲרֶץ [에레츠] “땅” 53:2, 8
- לֹא [로] “아니다” 53:2(3 번), 3, 7(2 번), 9(2 번)
- הוּא [후] “그” 53:4, 5, 7
- הָרָא [라아] “보다” 53:2d, 10c, 11a
- נָגַע [나가] “천벌/징벌/형벌받다” 53:4c, 8d // עָנָה [아나] “고난받다” 53:4d, 7a
- חָלַל / דָּכָא [할랄/다카] “찌르다/부수다” // [다카 /할랄] “부수다/찌르다” 53:5ab, 10a
- עָוֹן / פְּשָׁע [페샤/아본] “범죄/죄악” // [아본/페샤] “죄악/범죄” 53:5ab, 6, 8d
- עַל [알] “에게, 위에, 때문에/일지라도” 53:1, 5, 9
- יְהוָה [아도나이] “여호와” 53:1, 6, 10(2 번)

7) 버기(185)는 네 번째 스텐자(fourth stanza)인 53:11c-12 에 반복된 단어들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반복이 주는 문예적 효과를 설명한다.

- 11 c 자기 지식으로 인해-의롭게 할 것이다(יִצְדִּיק)-의로운(צְדִיק) 내 종이-많은 사람을(רַבִּים), 그들의 죄악을(עֲוֹנוֹתָם) 그가(הוּא) 친히 담당할 것이다(יִסְבֵּל).
- 12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그 많은 사람을(רַבִּים) 차지하게 하고(חָלַק) 그는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חָלַק). 이는 그가 그의 영혼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범죄자들과(פְּשָׁעִים) 함께 자신을 헤아려지게 하였고 그 자신이(הוּא) 많은 사람들의(רַבִּים) 죄를 짊어졌고(נָשָׂא) 범죄자들을(פְּשָׁעִים) 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이다.

- ① 53:11c-12 에 많은 반복적이고 수사학적인 장치들이 사용되고 있다. 두 신적 선언 부분(52:13-15; 53:11c-12)이 틀을 형성하는 수미쌍관법이 반복을 통해 이루어진다. “אָבְדִי[아브디] 나의 종”(52:13a; 53:11c)에 의해 도입되는 서언과 결언은 각각 7 개의 다른 단어를 포함한다. “רַבִּינִי[라빔] 많은”이란 단어가 52:14-15 에 2 번 나오고 53:11-12 에 3 번 나온다. 어근 [나싸]가 재담적으로 52:13 에서 승귀를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53:12 에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비하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반복되는 이 세 가지 단어들은 차례로 “나의 종”의 신적 기원과 고귀, 그의 고난을 통해 은택을 입는 “많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의 지상적 “죄를 짊어짐”과 그의 천상적 “승귀”를 강조한다.
- ② 53:11c-12 에서 5 개의 단어들 곧 קָדַח[차다크]-רַבִּינִי[라빔]-אָבְדִי[후]-קָלַח[할라크]-פָּשַׁע[파샤]가 반복되고 있다. 53:11c-12 는 어근 [차다크] (“의롭다”)의 반복으로 시작하고 어근 [파샤] (“범죄하다”)의 반복으로 마친다. 이 반복은 종이 의인이고 그가 고난받으며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범죄자인 것을 분명하게 대조하는 효과를 준다. [라빔] (“많은”)이 세 번 반복된 것은 종이 성취하는 것의 범위에 주목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종의 차지가 될 것인데 그것은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이다.
- ③ 53:4 의 [나싸]-[싸발] (“짊어지다”-“담당하다”)과 53:5 의 [페샤<파샤]-[아본] (“범죄”-“죄악”)이 다시 53:11-12 에서 [싸발]-[나싸] (“담당하다”-“짊어지다”)와 [아본]-[포시임<파샤] (“죄악”-“범죄자들”)처럼 역순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종의 대속적 고난을 상기시켜주며 종의 의롭게 하는 특권과 상급이 이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혀 주기 위한 것이다.
- ④ 53:11-12 에서 이 동의적 단어들이 병행적으로 나란히 나오지 않고 서로 떨어져 나오는 것은 중앙에 오는 종의 자기 희생적 죽음에 대한 상급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설명하면 [아본]-[싸발] (“죄악”-“담당하다”)과 [나싸]-[포시임] (“짊어지다”-“범죄자”)이 서로 떨어져서 역순대구를 이루면서 틀로서 중앙에 두 번 반복되는 [할라크] (“차지하다”)를 감싸고 있다.

사 53:10 주해

사 53:10 **여호와와 [자신이] 그를 부수며 아프게 하는(혹은 찌르시는) 것을 뜻하셨다.**
그의 영혼이 속건제를 드리면
그가 [그의] 씨를 보며 [그의] 날들을 길게 할 것이고
여호와와의 뜻이 그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1. 10 절의 첫째 콜론을 시작한 접속사 바브는 이접적(disjunctive) 접속사로 앞의 9 절과 대조를 표현한다. 이 바브가 접두된 주어 여호와와 강조되고 있다.

1) 종은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입에 거짓이 없었고 죄가 없었다(9 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와 [자신이] 그를 부수며 아프게 하는(혹은 찌르시는) 것을 뜻하셨다**(10a). 동사 [하페츠]는 “KB, 340: to take pleasure in, desire, delight in, be willing to 기뻐하다, 원하다, 뜻하다, 기꺼이 하려고 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사해 사본(1QIs^a)은 어근 [할라]의 히프일 어간 [헤헬리] (“그가 [그를] 아프게 하셨다”)로 읽지 않고 어근 [할랄]의 피엘 어간 [비할레후] (“그가 그를 찌르셨다”)로 읽는 독법을 갖고 있다. 사해 사본의 독법에 의하면 53:5 의 [므홀랄]과 [므두카]가 병행 단어로 쌍을 이루는 것처럼 역순으로 [다크오]와 [비할레후]가 병행 단어로 쌍을 이루고 있다.

- 2) 종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부서지도록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이셨다. 종의 죽음은 불의한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Young, 354). 종의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은 여호와 자신이었다. 여호와와 종이 부서지는 것을 원하셨고 종이 파쇄되는 것을 기뻐하셨고 종이 부서지며 아파하기(혹은 찢려 죽임당하기)를 뜻하셨다. 종이 부서지는 것은 여호와의 목적이요 소원이요 기쁨이었다.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종에게 떠맡기시고(53:6)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한 종(53:4)을 부수시고 아프게 하시고 찢으셨다(53:5, 10). 5 절에 묘사된 대로 종이 부서지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10 절에 밝혀지는 대로 종을 부수시는 것은 백성의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뜻이었다. 다시 말하면 종이 박살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종을 박살내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주님의 뜻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종을 파쇄하는 것이었다.
- 3) 오스왈트(400 n. 50)는 부정사(יִכְרֹץ[다크오] 그를 부수는 것)와 정형동사(יָחַל[헤헬리] 그가 [그를] 아프게 하였다)¹²⁵가 접속사 없이 결합되어 있는 것에 유의하여 이를 중언법으로 보고 “to crush painfully 심히 아프도록 부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모티어(439)도 비슷하게 “(he willed/was pleased) to bring him to weakness by crushing him 그를 부스러뜨림으로써 그를 아프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하여 그 종이 부서지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자신이 그 종을 파쇄하시고 아프게 하시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종에게 백성의 죄악을 떠맡기신 여호와는 종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를 부수시면서 그로 아프게 하심으로써 종이 백성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는 것을 원하셨고 기뻐하셨다.
- 4) 3 절에 묘사된 대로 여호와의 종은 아픔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4 절에 묘사된 대로 여호와의 종은 우리의 아픔을 짊어졌고, 10 절에서 밝혀지는 대로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뜻에 따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대신 아픔을 겪었던 것이다. 여호와께서 객체인 종에게 내려치심을 부과할 때 종은 주체가 되어 아픔을 견디었다.¹²⁶ 여호와께서 종을 아프게 하셨다고 하는 묘사는 그 종에게 임했던 전반적인 비하의 간결한 명명이며 이 동사와 함께 종의 비하와 고난에 대한 묘사가 끝이 난다(Young, 354). 이 후에 오는 단어들은 종의 승귀를 묘사하기 시작한다.

¹²⁵ 어근 חָלַל[미근-해동사]에서 유래한 것처럼 보이는 יָחַל[헤헬리]는 어근 יָחַל[미근-알레동사]의 사역능동어간 יִכְרֹץ[헤헬리] 대신 쓰인 것이다(GKC 74k; 왕하 13:6; GKC 75ii).

¹²⁶ Motyer, *Isaiah*, 439: “The objective, divine imposition of crushing was subjectively endured.”

2. 신실하신 하나님은 무죄한 의인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임하도록 하지 않으시는 분이데 어찌하여 여호와와 이 종을 파쇄하시길 원하셨고 이 종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시길 원하셨는가? 종이 겪어야 하는 끔찍한 일들을 통하여 확보해야 하는 더 좋은 선이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Oswalt, 400). 여호와께서 종을 부수시며 종을 아프게 하시려고(혹은 찢러 죽이시려고) 뜻하신 이유는 둘째 콜론(조건절)과 셋째 콜론(귀결절)에 잘 나타나 있다. **그의 영혼이 속건제를 드리면(10b 조건절) 그가 씨를 보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다(10c 귀결절).**

1) 스미스(408-409)는 둘째 콜론을 인도하는 접속사 [임]이 미완료와 함께 미래에 이루어질 조건을 매우 자주 나타내지만(*GKC* 159n-s) 종이 이미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었으므로 가정적 혹은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이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NRSV 처럼 시간(when) 혹은 NIV 처럼 양보(though, *GKC* 160a, 사 1:18)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영어 성경의 접속사 [임]의 번역을 분류하면 NASB, YLT, DRA, WYC, Oswalt 등은 “if”로 번역하고, ESV, HCSB, NKJV, NRSV, Young 등은 “when”으로 번역하고, NIV 는 “though”로 번역했다.

2) 백성의 구원을 위해 종을 부수고 아프게 하고 찢러 죽이는 것을 원하시는 여호와의 뜻에 따라 종의 영혼이 속건제를 드리면 그가 씨를 보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라고 진술하는 것을 고려하면 충족될 필요가 있는 조건의 “if”(when 과 비슷한 뉘앙스)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Oswalt, 401). 모티어(438)는 둘째 콜론과 셋째 콜론의 관계를 “If and when . . . then . . .”로 번역했다.

3. 조건절의 동사 **אֶפְשָׁה**[타쌌]은 문법적으로 3 인칭 여성 단수로 볼 수 있고 2 인칭 남성 단수로 볼 수 있다. 2 인칭 남성 단수로 볼 경우 암시된 주어는 “여호와” 혹은 선지자가 염두에 둔 “독자, 청중”이 되고, 3 인칭 여성 단수로 볼 경우 조건절에 명시된 “אֶפְשָׁה”[나프쇼] 그의 영혼”이 주어가 된다. 조건절 **אֶפְשָׁה אֶפְשָׁה אֶפְשָׁה**[타쌌 아쌌 나프쇼]의 번역은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1) 동사 [타쌌]—2 인칭 남성 단수, 암시적 주어—“여호와”

① 암시적 주어를 명시적으로 여호와로 밝히는 번역들이 있다.

- NIV: and though the LORD makes his life an offering for sin
- NOG(Names of God Bible): When **Yahweh** has made his life a sacrifice for our wrongdoings
- NCV(New Century Version): The LORD made his life a penalty offering

② 암시적 주어를 여호와로 보고 “you”를 주어로 하는 번역들이 있다.

- NKJV: When **You** make His soul an offering for sin
- HCSB: When **You** make Him a restitution offering
- NRSV: When you make his life an offering for sin
- ISV: Although you make his soul an offering for sin

③ 모티어(439)는 이 번역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10 절의 주된 사상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에게 행하신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오 주여 당신님이 하실 때/하실지라도”로 연결된다. “영혼”은

희생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고 죽음에 내어놓는 생명자체이다(레 17:11). . . 49:2 에서 여호와께서 임무를 위해 그분의 종으로 준비시키는데 동사 [씻]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그 임무의 완성을 묘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④ 여호와를 주어로 볼 경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Young, 354).

- 첫째, 본 구절에서 누군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일이 없으며 כִּי־שָׁחַט [타빔]의 앞과 뒤에 하나님이 3 인칭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
- 둘째, 희생 제사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드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러지는 것이었다. 비록 여호와께서 그 종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셨지만 여호와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
- 셋째, 12 절에서 종이 자기 사역에 대한 상을 받는데 이것은 희생 제사를 드린 주체가 바로 종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 동사 [타빔]—2 인칭 남성 단수, 암시적 주어—“청중”

① LXX: “ἐὰν δώτε περὶ ἁμαρτίας, ἡ ψυχὴ ὑμῶν ὄψεται σπέρμα μακρόβιον If ye [=plural you] can give an offering for sin, your soul will see long-lived seed

② Oswalt: if you make his soul a guilt offering,

- 오스왈트(401-402)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까지 독자에게 간접적으로 말해 온 선지자가 독자를 포괄적인 “우리, 우리 모두” 안으로 부드럽게 끌어들이고 있다. 선지자는 더 이상 우리가 종을 멀리서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종의 사역이 독자/청중 자신에게 효과가 있도록 종이 “당신”을 위해 제공하는 찢리고 상한 종 자신을 취하여 “당신”이 그 종 자신을 속건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 모티어(439-440)는 암시적 주어가 속건제를 필요로 하는 청중 개개인을 가리킨다면 이 네 번째 노래에서 2 인칭 단수로 말하는 유일한 경우가 되지만 반대할 논증이 없고 그런 의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해석은 개개인이 종의 대속적 죽음의 은택들을 적용할 때 종이 그의 씨를 보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것은 단번에 드러진 종의 희생 제사가 개개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는 개인이 하나씩 하나씩 종의 가족으로 모여지는 것을 강조한다.
- 그러나 선지자가 정말 독자/청중을 이렇게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가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3) 동사 정정 [야빔]—3 인칭 남성 단수, 암시적 주어—“종”¹²⁷

① Peshitta(Syriac): “he laid down his life as a sin offering”(Oswalt, 401 n. 51)

② Vulgate: “he shall lay down his life for sin” (Oswalt, 401 n. 51)

③ NASB: If He would render Himself as a guilt offering

¹²⁷ 인칭 접두요소 타브(ת)가 3 인칭 남성 단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문제에 대하여 *IBHS* 31.1.1a n. 2 를 참조하라.

④ RSV: when he makes himself an offering for sin

⑤ AMP: If He would give Himself as a guilt offering [an atonement for sin]

⑥ NLT: Yet when his life is made an offering for sin

4) 동사 [타쌘]—3 인칭 여성 단수, 주어—[나프쇼] “종의 영혼”

① ESV: when his soul makes an offering for guilt

② Young: when his soul shall place an offering for sin

③ 이 해석은 무엇이 드러지고 있는 것인지 명시되지 않아 다소 좀 이상한 구문 해석으로 보이지만 문제될 것은 없다. 모티어(440)는 이 해석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그의 영혼을 주어로 보는 것은 레 5:17 에 속건제를 드릴 주체로 נַפְשׁוֹ[네페시] (“영혼”)가 언급되는 것과 똑같다.¹²⁸ 이 해석은 종이 보상의 임무(속건제)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맡기는 것을 강조하는데 어쩌면 이사야가 7-9 절에 이어 10-12 절에까지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 했는지 모른다.
- 사 50:7 에서 종은 여호와께서 도우시므로 부끄러워 아니하고 순종의 힘든 과업에 그 얼굴을 부딪들 같이 굳게 하였고(set his face to the grim task of obedience) 여기 사 53:10 에서 종은 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set his soul to the completion of the task).¹²⁹
- 여호와께서 종을 부수기로 뜻하시고 아프게 하신 것(10a)과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종이 그의 영혼 즉 그 자신을 대속적 희생 제사로 기꺼이 내놓는 것(10b)은 아주 잘 어울린다.

5) 모티어(440)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세 가지 해석을 제시한 후 각 해석이 그 나름대로 적절한 색채를 띠고 있고 이사야가 그것을 그렇게 남겨두었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 주해는 그의 영혼을 주어로 보는 입장을 취했다. נַפְשׁוֹ [타쌘]의 주어를 여호와로 보든지(NIV, NKJV, NRSV, HCSB, ISV), 혹은 독자/청중으로 보든지(LXX, Oswalt), 혹은 그의 영혼으로 보든지(ESV, Young), 아니면 [타쌘]을 [아쌘]으로 고치고 종을 주어로 보든지(페시타역, 벌게이트역, NASB, RSV, AMP, NLT), 오스왈트(402)가 지적한 대로, 분명한 것은 종의 고난의 의미가 종이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여호와의 의도 안에서 밝혀져야 한다는 점이다.

4. 종은 그의 영혼 즉 그의 생명 자체를 희생 제물로 드렸다. 참혹한 죽음에 의하여 종으로부터 취해진 그의 영혼 즉 그의 생명 자체가 속건제물이 되었다.

¹²⁸ [레 5:17-19] (17)만일 누구든지(נַפְשׁוֹ[네페시] “soul” “a person”) 여호와의 금령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18)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 흘 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19)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¹²⁹ 아래 두 구절에 나오는 [쌘]에 유의하며 비교해 보라.

사 50:7 שָׁמַתִּי כְּפַתְלִיטַי [쌘티 파나이 카할라미시] ESV: “I have set my face like a flint.”

사 53:10 נַפְשׁוֹ אֶשְׂמֵן לְעֹלָתָא [타쌘 아삼 나프쇼] ESV: “his soul makes an offering for guilt”

- 1) 속건제는 이웃이나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에 적용되고 제사와 함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제사이다(레 5-6 장). 속건제의 두드러진 특징은 “배상”을 통한 “만족”을 강조하는 점이다(레 5:16; 6:14). 종의 생명의 피가 쏟아진 죽음은 대속적 희생으로서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 계획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Young, *Isaiah 53*, 70). 종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편의 필요를 만족시켜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깨어진 법과 거스러진 거룩함과 관련하여 하나님 편의 요구/필요를 만족시켜준다(Motyer, 439).
- 2) 종의 죽음이 희생 제사였다고 말하는 것은 종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종은 자기 백성의 죄책을 담당하고 기꺼이 자기 자신까지 희생 제물로 바친 의로운 제사장이다. 종은 자신이 속건 제물이고 자신이 제사장이신 분이다. 따라서 종이 드린 제사는 모세 율법에 언급된 동물 제사와는 달리 죄 없는 자기 자신을 직접 드린 제사로서 그 자체 이외에는 다른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희생 제사이다(Young, *Isaiah 53*, 71).
- 3) 종이 드린 속건제는 다른 어떤 희생 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제사이며 모형이었던 모든 제사들의 진정한 원형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요일 2:2; 4:10).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리신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히 9:26, 28).
- 4)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성감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막 10:45)”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마시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8)”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cf. 롬 3:25; 8:3)”고 말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히 9:11-14)”라고 말했다.
5. “**종의 영혼이 속건제를 드리면**”이란 조건절(둘째 콜론) 다음에 나오는 귀결절(셋째 콜론)은 종 자신이 대속적 희생 즉 속건제를 드릴 때만 가져올 수 있는 결과들을 묘사하고 있다. 첫째, **그가 [그의] 씨를 볼 것이다**. 둘째, **그가 [그의] 날들을 길게 할 것이다**.

1) 종의 대속적 죽음의 첫째 결과로 그는 **씨를 볼 것이다**. 여기에서 그가 볼 것이다(ܐܝܪܐ?) [이르에])라는 동사는 종이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린 죽음 후에 죽은 채로 남아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산 자로서 그의 씨를 볼 것을 분명하게 해 준다(Young, 355).¹³⁰

① 그의 씨란 그의 대속적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죄책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속받은 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그가 피를 뿌린 많은 사람들이고(52:15), 그가 찢리고 부서짐으로 죄를 대신 담당해 준 사람들이고(53:5), 그가 위하여 자기 영혼을 속건제로 드린 사람들이고(53:10), 그가 의롭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고(53:11), 여호와에 의해 그에게 떠맡겨진 사람들이고(53:6) 그가 떠맡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53:12)이다.

② 모티어(440)가 설명한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사 49:21)”라고 묻던 시온의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종은 사 54:1-3, 13-14 이 입증하는 대로 모든 영적 자녀들을 볼 것이다. 종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 후 아무도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무리들을 보게 될 것이다(cf. 시 127:3-5; 128:6; 잠 17:6). 시 22:30 에 기록된 대로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후세의 자손이 주님께 대해 들어 알게 될 것”이다.

③ 만물이 그분을 통해 만들어지고 만물이 그분을 위해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신 것은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히 2:10). 종이 보게 될 씨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갈 3:26-29).

④ 영(355)은 헝스텐베르그의 제안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종의 대속적 죽음의 희생이 없었다면 구속받은 백성도 없고 교회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헛되고 실패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충실히 선포되는 곳에 진정한 교회가 발전한다.”

2) 종의 대속적 죽음의 둘째 결과로 그는 **[그의] 날들을 길게 할 것이다**.

① 영(356)은 “날들을 길게 하는 것”이 종의 왕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모세는 왕이 평생 율법을 옆에 두고 읽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을 지키면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을 말했다(신 17:20).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왕상

¹³⁰ 오스왈트(403)는 영처럼 종의 부활을 주장할 필요를 의문시하며 씨나 날들의 장구가 비유적인 것으로서 종의 삶이 결국에 있어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가장 생생한 언어로 묘사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But whether Isaiah intends to speak of resurrection or not, this much is clear, as Westermann points out: it is only on the other side of the Servant’s death that his deliverance and ours may be realized.”

- 3:14.”고 말씀하셨다. 종이 날들을 길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씨에게 주셨던 약속(삼하 7:13, 16; 시 21:4[MT 5]; 89:4; 132:12)을 고려하면 그가 영원히 살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 ② 모티어(440)는 “to prolong days 날들을 길게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은 구약에서 신 5:30[MT 33]을 포함하여 21 번 사용되고 “length of days 장수”는 신 30:20 을 포함하여 9 번 사용되었고 이 어구는 거의 항상(시 23:6 예외) 지상 삶의 장구함과 관련지어 사용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 어구가 여기에서처럼 죽었던 자에 대해 사용된 것은 유례가 없다.
- ③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구약의 일관된 가르침이므로(욥 19:25-26; 시 49:15; 73:24-25; 잠 23:13-14; 사 26:19; 단 12:2; cf. 겔 37:1-4)¹³¹ 죽은 종이 살아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죽음은 신자들에게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상태에 들어가게 했지만 종의 경우 죽음은 그로 주권적 권위와 능력을 갖는 입문이 되게 하여 그가 여호와와 그의 구원의 목적들을 그의 손으로 성취하며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게 했다.
- ④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계 1:17-18).”고 말씀하셨다. 종이 그의 날들을 길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앎이로라(롬 6:9).”는 바울의 말을 연상하게 해 준다.
6. 여호와께서 종을 부수시며 심히 아프게 하신 것을 묘사하는 첫째 콜론(10a)과 함께 [중앙의 조건절(10b 속건제)과 귀결절(10c 씨와 영생)을 감싸며] 수미쌍관법을 이루는 넷째 콜론(10d)은 종을 심히 아프도록 부수시기를 기뻐하셨던 **여호와와 뜻이 종의 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말한다. 이것은 그 종의 사역에 대한 해석을 요약하는 것이다.
- 1) 그 종의 손에 의하여(즉 그의 대체사장적 중보 사역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일(곧 죄인들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는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Young, 356).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정하신 것을 성취하고 충만하게 성취할 자는 바로 그 종이다. 그러므로 그 종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며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종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속의 축복이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 2) 종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 종에게 약속된 일들(사 42:4; 49:5-6; 50:7-9; 52:13)이 일어난다. 이것은 종의 설교의 결과도 아니고, 종의 모범적 삶의 결과도 아니고, 종의 역경 가운데의 인내의 결과도 아니고, 오직 종의 대속적 죽음의 희생의 결과이다(Oswalt, 402). 종은 흠없는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림으로써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고, 이방의 빛이 되고,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¹³¹ 구약의 이 구절들은 Grudem, *Systematic Theology*, 830 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다.

3)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 17:4-5)”라고 말씀하셨다.

사 53:11 주해

사 53:11 그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그는 [빛을] 볼 것이고 자기 지식으로 인해 만족해 할 것이다. 의로운 자인 나의 종은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친히 그들의 죄악들을 그가 담당하면서.

1. 이사야 선지자는 10 절에서 여호와께서 뜻하신 대로(10a), 여호와의 뜻대로(10d) 백성을 대신하여 부서지며 아픔을 당하며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린(10b) 종이 그의 사역의 결과로 그의 씨를 보고 영원히 살며(10c)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 것을 묘사한 후(10d) 11 절에서도 계속해서 그 결과들을 묘사한다. 그 결과들은 먼저(11ab) 종의 관점에서 진술되고 다음으로(11cd) 백성의 관점에서 진술된다(Oswalt, 403).

1) 11 절을 시작하는 전치사 **כִּי**[민]을 **시간**의 전치사로 보면 **נֶפְשׁוֹ מֵעַמּוֹ** [메아말 나프쇼]는 “**그의 영혼의 수고 후에**”라고 번역된다. 그러나 종의 죽음이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목적이 있는 사건으로 보는 전체의 문맥을 고려할 때 전치사 **כִּי**[민]을 **원인**의 전치사로 보고 “**그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바른 해석으로 보인다(Young, Oswalt, Motyer).

2) 여기 “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 **עָמַל**[아말]은 *NIDOTTE*(3:436)에 의하면 전도서에 22 번, 욥기에 8 번, 시편에 13 번 등 구약에 총 53 번 사용되었다.

① 전도서에 [아말]은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1:3)”라는 질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람들이 힘을 들여 애써 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② **עָמַל**[아말]은 수고와 관련된 어려움과 짐을 강조하여 “고난, 불행, 역경”을 의미하기도 하고(창 41:51; 신 26:7; 삿 10:16; 렘 20:18; 욥 3:10; 7:3; 11:16; 16:2; 시 107:12; 25:18; 73:5), 좁혀서 악에 의하여 야기된 고난 혹은 악 자체를 나타내기도 하며, 가끔 고난과 악을 의미하는 **אָבֵן**[아벤]과 함께 쓰인다(욥 15:35; 시 7:15[MT 15]; 10:7; 55:10[MT 11]; 90:10; 사 10:1; 59:4; 합 1:3; 민 23:21).

3) 이사야(10:1)는 불의한 법령(**חֻקֵי אֲבֵן**[히크케 아벤] unjust laws)과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מִכְתָּבֵי עָמַל**[므하트빔 아말] decrees that produce oppression; oppressive decrees)을 만드는 자들을 비난하였다. 그리고 이사야(59:4)는 잔해(**עָמַל**[아말])를 잉태하고 죄악(**אָבֵן**[아벤])을 생산하는 불경건한 자를 비난하였다(cf. 욥 15:35; 시 7:14[MT 15]). 이러한 악의에 의해 야기된 고난을 여호와의 종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견디어 내었다. “그의 영혼의 수고”란 어구는 지금까지 묘사한 백성을 위한 종의 사역을 간단히 요약하여 한 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2. 그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들을 언급하는 부분은 본문 전승상의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다. 레닌그라드 사본을 대본으로 하는 BHS 에는 동사 **רָאָה**[이르에]의 목적어로 **אֹר**[오르]가 없다.

לָרְגִים	עֲבָדֵי	צַדִּיק	יְצַדִּיק	בְּדַעְתּוֹ	יִשְׁבֶּעַ		רָאָה	נִפְשׁוֹ	מַעֲמָל
라라빔	아브디	차디크	야츠디크	브다토	이스바		이르에	나프쇼	메아말
결과 2 그의 지식으로 의로운 자인 나의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결과 1 그가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원인 그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יִסְבֹּל:	הוא	וְעֹנָתָם		
					이스볼	후	바아보노탐		
					결과 2 의 상황절 그가 친히 그들의 죄악들을 담당하면서				

- 1) 만일 맛소라 본문 그대로 즉 **רָאָה**[오르]라는 목적어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볼 때 나란히 오는 두 동사 즉 **יִשְׁבֶּעַ רָאָה** [이르에 이스바]는 중언법(hendiadys)을 이루는 것으로 해석된다.¹³²
- ① 모티어(441)는 “그가 봄으로써 만족해 할 것이다 혹은 그가 보는 것에 만족해 할 것이다(he will be satisfied seeingly or he will be satisfied with what he sees.)”라고 번역하였다.
- ② 영(*Isaiah 53, 72*)은 “그는 풍성하게 볼 것이다 혹은 그는 풍성한 만족감을 가지고 볼 것이다(he shall see abundantly or he shall see with abundant satisfaction.)”라고 번역하였다.
- ③ *GKC*에 의하면 두 동사의 중언법의 경우 두 번째가 중심 사상을 나타내지만(*GKC 120g*) 특별한 이유로 첫 번째 동사가 중심 사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GKC 120h*, 사 53:11 과 렘 4:5). *GKC 120h* 는 사 53:11 을 “*he shall see, he shall be satisfied* (sc. with the sight), for the satisfaction does not come until after the enjoyment of the sight.”라고 풀이했다. 그리고 렘 4:5 의 **מְלֵאוּ מְלֵאוּ** 를 “*cry, fill, i.e., cry with a full (loud) voice.*”라고 풀이했다.

¹³² 두 동사가 이루는 중언법이란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를 수식하며 부사처럼 번역하는 것이 좋은 것을 말한다. Lambdin(*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 173)은 중언법으로 첫 번째 동사 자리에 와서 부사처럼 번역되는 것들 중 가장 흔한 동사로 **וַחֲזַר**와 **וַחֲזַר** “다시”, **וַחֲזַר** “기꺼이, 제발”, **וַחֲזַר** “빨리”, **וַחֲזַר** “일찍”, **וַחֲזַר** “많이” 등을 들었다. 중언법으로 쓰인 **וַחֲזַר**과 **וַחֲזַר**는 직역하면 매우 어색하다. 개역개정에서 에서가 이삭에게 “[창 27:19] **일어나 앉아서**(... 잡수시고... 축복하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번역한 것은 중언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Lambdin 은 “*arise and sit*”가 아니라 “*come now and sit*” 곧 “어서 앉으사”로 번역하고 있다. Bush(*Ruth and Esther*, 75)가 설명한 것처럼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인 룻 1:8 의 **וַחֲזַר וְחֲזַר**는 중언법으로 “*Come, return!* 자 어서, 돌아들 가라”는 의미이지만 룻 1:12 에 역순으로 나오는 **וַחֲזַר וְחֲזַר**[쇼브나 브노타이 레흐나]는 두 동사가 각각 그 고유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go back, my daughters! Go! 돌아들 가라, (어서 돌아) 가거라!*”로 번역해야 한다.

- ④ 이와 다르지만 또 하나의 해결책으로 BHS 는 동사 **הִאֲרִי**[이르에]의 어근을 **הִאֲרָא**[라아](to see 보다)로 보지 않고 **הִאֲרָבָא**(to saturate 흠뻑 적시다)로 볼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고난의 깊은 잔을 마셨다 after he has drunk deep of affliction (Clines).” 혹은 “그가 빛으로 흠뻑 적실 것이다 he will be bathed in light (G. R. Driver).”라고 번역된다(Motyer, 441).
- 2) 그러나 4Q15^d 을 포함한 모든 사해사본과 칠십인역(**δειξαι αὐτῷ φῶς to shew him light**)처럼 목적어 **רִאִי**[오르]가 전승 과정에서 앞에 나오는 동사 **הִאֲרִי**[이르에]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생략된 것으로 본다면 **הִאֲרִי**[이르에]의 어근을 **הִאֲרָא**[라아]와 다른 것으로 보거나 뒤에 오는 동사 **עָשָׂבָא**[이스바]와 중언법을 이루는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
- 3) 맛소라 본문의 악센트를 보면 **עָשָׂבָא**[이스바](그가 만족해 할 것이다)에는 자켵카톤이 붙어 있고 **רִאִי**[브다토](그의 지식에 의해)에는 르비아아가 붙어 있다.
- ① 자켵카톤이 르비아아보다 끊는 힘이 강하므로 악센트는 **רִאִי**[브다토](그의 지식에 의해)가 앞에 있는 **עָשָׂבָא**[이스바](그가 만족해 할 것이다)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오는 동사 **יִאֲרִי**[야츠디크](그가 의롭게 할 것이다)와 함께 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이 악센트 체계는 “보다”라는 동사에 “빛”이란 목적어가 없어서 두 동사 “보다”와 “만족하다”가 중언법을 이루며 하나의 콜론을 이루는 것으로 본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4) 만일 맛소라 본문 그대로 **רִאִי**[브다토](그의 지식에 의해)가 뒤에 오는 동사 **יִאֲרִי**[야츠디크] (그가 의롭게 할 것이다)와 함께 가는 것으로 보면 “그의 지식으로”란 어구에 나오는 접미대명사는 주어적 속격(subjective genitive)으로도 볼 수 있고 목적어적 속격(objective genitive)으로도 볼 수 있다.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라는 묘사와 관련하여 “그의 지식”이 주어적 속격이면 “종이 아는 것”을 나타내고 목적어적 속격이면 많은 사람이 “종을 아는 것”을 나타낸다.
- ① 목적어적 속격으로 보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종을 아는 것”의 혜택이다. 종이 의롭게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유한 지식은 종이 누구이고 종이 이루어 놓은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적 이해는 물론이고 종이 이루어 놓은 일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택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Young, *Isaiah 53, 74*).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이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지식이듯이 종을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아는 지식을 통하여 많은 사람은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신약의 가르침을 떠오르게 한다.
- ②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수단으로 언급되는 “믿음” 대신 “지식”을 사용하는 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종으로서 그가 무엇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종은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종이 바라는 결과를 위해 어떻게 행할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일하여 사명을 완수할 것으로 시작한 것(52:13)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종 자신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묘사하는 것을 고려하면 하나님이 죄에 관련하여 요구하시는 것과 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종 자신의 지식 즉 종만이 소유하는

지식으로 보는 것이 문맥에 더 잘 어울린다(Motyer, 441). 종에게 지혜와 지식의 신이 임하고(11:2), 종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11:4-5), 종이 아픔을 잘 아는 자(53:3)이고, 종의 영혼이 속건제물을 드리고(53:10), 종이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했다(53:11)는 묘사들은 종만이 소유할 수 있는 지식이란 해석을 지지한다. 만일 “그의 지식”이 목적어적 속격으로 “종을 아는 지식”이라면 지식이 신자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실질적인 칭의에만 국한되어 버리고 주어적 속격을 나타내는 “종이 아는 지식”으로 볼 때처럼 종의 대속적 사역에 대한 것을 가리킬 수 없기 때문에 목적어적 속격으로 보는 해석은 문맥에 맞지 않는다(Murray, *Romans*, 381-382).

3. 레닌그라드 사본을 대본으로 하는 BHS 에는 [אור] 오르가 없으나 4QIsa^d 를 포함한 모든 사해 사본에 “אור[오르] 빛”이 나오며 칠십인역도 여호와께서 종에게 빛을 보여 주실 것(δεῖξαι αὐτῷ φῶς [데익싸이 아우토 포스])이라고 번역하였다. 본 주해는 사해사본과 칠십인역에 근거하여 “빛”을 의미하는 목적어 אור[오르]가 본문 전승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보고 “그가 빛을 볼 것이다”라고 번역하였다. 그렇다면 종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누인다.

בְּדָתוֹ	יִשְׁבָּ?	[אור]	אֵרָא?	נִפְשׁוֹ	מַעֲמָל
브다토	이스바	[오르]	이르에	나프쇼	메아말
결과 2 그가 자기 지식으로 인해 만족할 것이다		결과 1 그가 빛을 볼 것이다		원인 그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יִשְׁבֹּל?	הוא	לְרַבִּים	עֲבָדִי	צָדִיק	יִצְדִיק?
이스볼	후	라라빔	아브디	차디크	야츠디크
결과 3의 상황절 그가 친히 그들의 죄악들을 담당하면서		결과 3 의로운 자인 나의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 1) **종은** 그의 수고의 열매로 **빛을 볼 것이다**. 개역/개역개정版的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는 번역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목적어로 보고 번역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한다. 그의 수고 때문에 종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한/가득한” 것을 볼 것이고(사 11:9; 합 2:4),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교회를 볼 것이고(엡 5:27), 의가 영원히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것이다(사 65-66).
- 2) יִשְׁבָּעַ יִשְׁבָּעַ?[이스바 브다토]를 함께 가는 것으로 보면 “그가 그의 지식에 의하여 만족해 할 것이다.”라고 번역되고 **종이 그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빛을 보게 될 것**이란 앞의 콜론과 병행되는 콜론이 된다. 그렇다면 이 콜론은 종이 그의 지식 즉 그의 경험의 행복한 결과 때문에 만족해 할 것을 나타낸다. 종의 지식은 종의 체험을 말하며 그가 어떠한 어려운 고난을 견디어 내야만 했던 간에 그의 희생 제사의 결과가 구원받은 많은 사람의 삶에서 보여 질 수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빛으로 대치된 것을 가리킨다.¹³³ 종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그 구원 계획에 따라 그가 해를 받은 후에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체험으로 인하여 종은 만족해 할 것이다.

4. 친히 종을 내리치시고 부서뜨리며 종을 아프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여호와와 뜻대로 종이 자기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 결과로—한 마디로 말하면, 종의 영혼의 수고의 결과로—종은 빛을 볼 뿐만 아니라 종은 자기의 지식 즉 해를 받은 후 영광에 들어가는 자기 체험의 행복한 결과로 인해 만족해 할 것이다. 이를 보시고 여호와와 그의 백성이 누릴 결과를 밝히시며 “의로운 자인 나의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11c). 친히 그들의 죄악들을 담당하면서(11d).”라고 말씀하신다. 번역을 위하여 상황절-주절의 순서를 바꿀 수 있지만 원문은 주절(11c 셋째 콜론)-상황절(11d 넷째 콜론)의 순서로 되어 있다.

상황절(11d 넷째 콜론)			주절(11c 셋째 콜론)		
וְעָבַדְתִּי	אֶת	אֱלֹהֵי	אֲנִי	עֲבָדְתִּי	אֶת
동사	주어	직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동격 주어	동사

1) 셋째 콜론(11c)의 주어는 한정 형용사가 명사로 쓰인 “אֲנִי[차디크] 의로운 자”와 뒤따르며 동격을 이루는 명사 “עֲבָדְתִּי[아브디] 나의 종”이다(*GKC* 132b; *IBHS* 14.3.3c: 사 10:30; 23:12; 민 11:25).¹³⁴

- ① 첫째 연에서처럼(52:13) 다섯째 연에서도 여호와와 종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신다. “나의 종” 앞에 “의로운 자”를 둬으로써 여호와와 자기 종이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자인 것을 밝히신다.
- ② 사역어간 동사 אֲנִי[아브디](의롭게 하다)는 보통 직접목적어 앞에 불변화사 אֶת를 붙이거나(cf. 신 25:1) 접미대명사를 동사에 붙이는데(cf. 삼하 15:4), 여기에는 직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라멧(?)이 붙어 있다. 이 경우 전치사 라멧(?)은 간접 목적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동작의 방향이나 동작을 받는 대상을 표현하며¹³⁵ 직접 목적어를 지배하고 있다(*IBHS* 11.2.10g cf. 레 19:18; 삼상 23:10).
- ③ 이 콜론에서 다시 한 번 “의로운 자” 한 분과 의로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대조가 부각된다. 많은 사람들은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고 의로움이라곤 하나도 없다. 그러나 여호와와 종은 진실로 의로운 분이고 죄악이라곤 전혀 없는 분이다.

¹³³ Oswalt, *Isaiah 40-66*, 403: “This is the Servant’s experience: whatever he may have had to endure, that darkness is replaced with light now that the fruition of his offering can be seen in redeemed lives.”

¹³⁴ *IBHS* 11.4.3b(그리고 이에 대한 각주 127)는 형용사가 한정 형용사로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명사로 동격을 이루는지 문법적으로 모호한 경우로 사 53:11의 אֲנִי עֲבָדְתִּי[차디크 아브디]가 “the Righteous One, (who is) my servant” 혹은 “my servant (who is) righteous”로 번역될 수 있고, 아 4:9, 10, 12; 5:1의 אֲחֵי קָהָל [아호티 할라]가 “my sister, (my) bride” 혹은 “my sister-bride”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을 들었다.

¹³⁵ *GKC* 117n: “in relation to, in direction of”; *WHS* 273: “specification: with respect to”; Motyer, 442: “to bring righteousness to; provide righteousness for”.

- ④ 의로운 분으로서 여호와와 종은 많은 죄인들을 의롭게 한다. 그 많은 사람은 종의 의로움을 받고 종은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받았다. 이것은 여호와 뜻에 의한 복스러운 교환이고 은혜 총만한 사건이고, 백성의 죄책이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백성에게 전가되는 교리를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의 죄악이 일어나 그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은 그 죄악들의 죄책 때문에 종이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Young, 358).
- ⑤ 많은 사람들이 종의 의를 받고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고 용납되기 때문에 그들이 의롭다고 선언된다. 하나님은 그들에 관하여 그들에게 더 이상 죄악이 없다고 하시며 종의 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2) 위의 구문 분석에서 보았듯이 “**그가 친히 그들의 죄악들을 담당하면서**”라는 네 번째 콜론 אָבֹרְחַן לְבָרְךָ אֱלֹהִים [바아보노탐 후 이스불]은 “**의로운 자인 나의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라는 셋째 콜론의 상황절이다(Oswalt, 405). 이 상황절은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란 주절에 대하여 “어떻게?”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 다시 말하면 상황절은 주절의 근거 혹은 이유를 제공해 준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모티어(442)는 다른 문법 용어를 사용하여 접속사 바브가 설명적(explicative) 바브라고 하면서 이유를 나타내는 “for 혹은 you see”의 의미이며 의롭다 하심을 줄 수 있는 것이 죄를 담당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① 이 상황절은 접속사 바브(בְּ)와 목적어(אָבֹרְחַן[아보노탐] 그들의 죄악들) 다음에 자립 인칭대명사 주어(אֲנִי[후] 그가) 그리고 동사(לְבָרְךָ[이스불] 담당하다)가 나오는 어순을 갖고 있다. 이 어순은 각각 절 초두에 오는 목적어와 밝힐 필요 없지만 밝히고 있는 자립 인칭 대명사 주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Oswalt, 405 n. 60). 이러한 강조를 반영하여 설명하면 “그가 친히” 담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이다.
- ②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종 자신이 직접 취해서 담당함으로써 제거하신다. 반대로 그는 자신의 완전한 의를 그들에게 돌려주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악을 담당할 필요가 없고 죄악을 소유하지 않으며 오히려 종의 의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이 제거되고 종의 온전한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 의로운 자인 종은 친히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면서 그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의로운 자인 종이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의로운 종이 능동적으로 율법을 다 지켜 이룬 의를 덧입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양면의 사실이 속죄의 본질이다.
- ③ 이사야 40 장부터 “의로움”은 보다 넓은 범위에 적용되어 구원과 동의어로 쓰인다(참고, 사 46:12-13; 51:4-6).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여호와와 종은 백성에게 약속된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구원자이다(Oswalt, 404). 사 51:1 에서 남은 자들은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로 묘사되는데 여기에서 여호와와 종은 그들의 추구의 끝이 되고, 사 51:5 에서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가는” 것이 선언되는데 여기에서 그 약속의 숨은 깊이가 들어 있다(Motyer, 442). 종의 완벽한 대리(perfect substitution)와 종의 완벽한 죄악 담당(perfect sin-bearing)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perfect righteousness)를 가져온다(Motyer, 442).

5. 모티어(442)는 사 53:11 이 속죄 교리의 진술 중 가장 완벽한 구절들의 하나라고 하며 다음 6 가지 사실을 언급하였다.

- 1) 종은 충족되어야 할 요구와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지를 안다.
- 2) “의로운 자, 나의 종”으로서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분노하셨던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만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지정되었다.
- 3) 의로운 자로서 종은 우리의 죄에 의하여 오염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 4) 종은 친히 자신을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동일시하였다.
- 5) 강조를 위해 쓰인 자립 인칭 대명사 “그”는 종이 이 역할에 친히 헌신한 것을 두드러지게 한다.
- 6) 종은 부정적으로 백성의 죄를 담당함으로써 그리고 긍정적으로 백성을 의롭게 함으로써 그의 임무를 완전히 완수하였다.

6. 부활은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¹³⁶

- 1)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예언하신 대로(눅 9:22)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 일만에 살아나신(눅 24:5-7) 일로서 그의 신실하심을 확증한다. 여러 번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예, 막 8:31; 9:9, 30-31; 10:34; 눅 9:22, 24; 마 17:22-23 등). 천사들은 무덤에 온 여자들에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눅 24:5-7).”고 말했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정말로 그분은 부활하셨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빛을 보시고 그의 씨를 보시고 그의 날들을 영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사 53:10-11).”
- 2)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주장하신 대로(요 10:36; 17:3)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옹호해 준다(롬 1:4). 여러 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요 3:17; 5:36, 38; 6:29, 57; 7:29; 8:42; 10:36; 11:42; 17:3; 20:21)고 주장하셨다. 부활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은 그가 보내신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백성들 가운데서 베푸시며 백성들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지만(행 2:22)” 백성들은 거절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써 그들이 내렸던 잘못된 판결을 뒤집으셨다(cf. 행 4:10-11).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끝장났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도록(롬

¹³⁶ E. F. Harrison, *A Short Life of Christ*, 242-245.

1:3) 하셨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cf. 롬 8:3; 딤후전 3:16; 요일 4:9, 10, 14).

- 3)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선언하신 대로(요 19:30) 그의 사명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롬 4:25; 요 16:10) 것을 증거한다.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었지만 원수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저주 가운데 죽고 말았다. 따라서 십자가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는 일과 전혀 무관하며 정말 거리끼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말씀하셨다. 이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활짝 열린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큰 사건이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관계가 수립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부활하셨다(롬 4:25). “우리는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롬 5:9).”
- 4)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설명하신 대로(눅 24:26) 그가 해를 받으신 후 영광에 들어가신 것을 입증한다(벰전 1:11).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눅 24:26)”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였다(벰전 1:11).”고 말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높아지셨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WSC 28: 고전 15:3-4; 행 1:9; 엡 1:19-20; 행 1:11, 17:31).”
- 5)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수고하여 얻으신 대로(사 53:11; 빌 2:6-8)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선언한다(빌 2:9-11). 예수님의 말씀이나 복음서 기록을 보면 부활하기 전에 “주님”이란 칭호는 드물게 사용되지만 부활 이후부터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적절한 칭호로 사용된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행 2:36).”고 설교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증언은 초대 교회의 첫 번째 고백 형식이었다(행 2:36; 10:36; 롬 10:9; 고전 12:3).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을 때 “주님”이란 칭호를 쓰며 경의를 표시했다(눅 24:34; 요 20:25, 28). 예수님은 부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으로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고(마 28:18-19), 개개인의 봉사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셨다(요 21:15-23).

사 53:12 주해

사 53:12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그 많은 사람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그는 전리품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는 그가 그의 영혼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범죄자들과 함께 자신을 헤아려지게 하였고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악을 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이다.

1. 네 번째 종의 노래의 마지막 절(53:12)을 시작하는 “לְרַחֵם”[라헴] 그러므로, 이러므로”는 11 절의 두 번째 이중 콜론의 귀결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는 여호와와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며 그들을 의롭게 하였던(11cd) 사역 이후에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과 이로 인해 종이 행할 일을 결론적으로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¹³⁷ 종이 자원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이제 여호와 자신이 할 일로 “אֶחָדָה לְרַחֵם” [아할레크-로 바라빔](12a)이라고 선언하시며, 그 종이 할 일로 “אֶחָדָה לְרַחֵם אֶת־עַצְמוֹתַי” [브에트-아추뮴 여할레크 샬랄](12b)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여호와 자신이 하실 일을 언급하는 첫째 콜론과 그로 인해 종이 할 일을 언급하는 둘째 콜론은 병행을 이루고 있다.
2. 여호와와의 하실 일과 여호와와의 종이 할 일을 표현하는데 사용된 동사는 둘 다 어근과 어간이 같고 “차지하게 하다. 나누어 주다”라는 의미의 קָח[할레크]이다. 이 두 콜론에 대한 번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첫째 그룹

- ① [NIV] Therefore I will give him a portion *among* the great,
and he will divide the spoils **with** the strong,
- ② [NKJV] Therefore I will divide Him a portion *with* the great,
And He shall divide the spoil **with** the strong,
- ③ [RSV] Therefore I will divide him a portion *with* the great,
and he shall divide the spoil **with** the strong;
- ④ [ESV] Therefore I will divide him a portion *with* the many,
and he shall divide the spoil **with** the strong;
- ⑤ [NASB] Therefore, I will allot Him a portion *with* the great,
And He will divide the booty **with** the strong;
- ⑥ [Oswalt] Therefore, I will apportion for him *among* the many,
and **with** the mighty he will divide spoil,

¹³⁷ 여기 לְרַחֵם[라헴]이란 단어는 빌 2:9의 “διὸ[디오] 이러므로/그러므로”를 상기시켜준다.

[빌 2:5-11] (5)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 ⑦ [Young] Therefore I shall divide to him *among* the many
and **with** the powerful he will divide the spoil,
- ⑧ [개역] 이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 ⑨ [개역개정]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 ⑩ [표준새번역]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2) 둘째 그룹

- ① [NLT] I will give him the honors of a victorious soldier,
- ② [ICB=International Children’s Bible] For this reason I will make him a great man among people.
He will share in all things with those who are strong.
- ③ [GNT] And so I will give him a place of honor, a place among the great and powerful.
- ④ [쉬운 성경]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 주며,
강한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나누어 가지게 하겠다.

3) 셋째 그룹

- ① [Motyer] Therefore I will allocate/apportion to him *the many*,
and **the strong** he will allocate/apportion as spoil.
- ② [HCSB] Therefore I will give Him *the many* as a portion,
and He will receive **the mighty** as spoil,
- ③ [우리말 성경]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몫으로 나눠 주고
강한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나눠 주겠다.

4) 첫째 콜론의 מַרְבֵּי[라빔]은 “the many, the great, 존귀한 자, 많은 사람들” 등으로 번역되어 있고
둘째 콜론의 חֲזָקִים [아추빔]은 “the strong, the mighty, the powerful, 강한 자들, 강한 사람들”
등으로 번역되어 있다.

5) NLT 를 제외한 모든 영어 번역들은 첫째 콜론의 주어와 여호와를 가리키는 “I”인 반면 둘째 콜론의
주어가 종을 가리키는 “he”인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NLT 와 모든 한글 번역은 첫째 콜론과 둘째
콜론의 주어를 모두 “나”로 간주한 것처럼 번역하였다. NLT 를 제외한 영어 번역들이 한글
번역들보다 원문이 보여주는 첫째 콜론의 1 인칭과 둘째 콜론의 3 인칭을 바르게 반영하고 있다.

3. 의역에 가까운 둘째 그룹을 배제하고 첫째 그룹과 셋째 그룹을 비교하면 “나누어 주다, 차지하게
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아주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첫째 콜론의

“מְרַבֵּי[라빔] 많은 사람들” 앞에 붙어 있는 전치사 כּ[브]와 둘째 콜론의 “מְצַוֵּי[아추밈] 강대한 사람들” 앞에 붙어 있는 단어 “אֶת[에트]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 1) 첫째 그룹의 번역들은 전치사 כּ[브]를 장소/위치(among, in 가운데, 안에) 혹은 동반(with 함께)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기고 단어 “אֶת[에트]도 전치사로서 동반(together with)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았고 “מְרַבֵּי[라빔] 많은 사람들”과 “מְצַוֵּי[아추밈] 강대한 사람들”이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 2) 셋째 그룹의 번역들은 첫째 콜론의 전치사 כּ[브]를 “본질의 베트(beth essentiae)”로 보고 “מְרַבֵּי[라빔]”을 동사의 직접목적어로 보았고, 둘째 콜론의 단어 “אֶת[에트]를 직접 목적어 앞에 붙는 불변화사로 여기며 “מְצַוֵּי[아추밈]”을 동사의 직접 목적어로 보고 שָׂלַל[살랄]을 목적 보어로 보았고 “מְרַבֵּי[라빔]”과 “מְצַוֵּי[아추밈]”이 같은 대상이 아니라 반대되는 대상으로 보았다.
4. 본 주해는 첫째 콜론에 대하여 셋째 그룹처럼 번역하였지만 둘째 콜론에 대하여는 셋째 그룹과 다른 번역을 하였다.

1) 본 주해는 첫째 콜론 “מְרַבֵּי כֹּהֲנֵי לְוִי אֶחָד־לָהֶם [아할레크-로 바라빔](12a)”이란 여호와의 선언을 모티어(442: “I will allocate to him the many = I will apportion to him the many”)처럼 **나는 그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줄 것이다/차지하게 할 것이다.**”라고 번역하였다.

① 이것은 “מְרַבֵּי[하라빔]”을 “the great 존귀한 자들”로 번역하며 “Therefore I will give/divide him a portion among the great.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할 것이다.”라는 대부분의 영어 번역과 개역/개역개정과 다르게 “the many 그 많은 사람들”로 번역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티어(442)가 지적한 대로 종이 존귀한 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받는다는 것은 종이 자기 몫들을 받는 그 존귀한 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들과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처구니없는 격조 저하(anticlimax)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종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구원하려는 모든 사람들 즉 **그 많은 사람들을** 종 자신의 것으로 받도록 해 주실 때 종은 참으로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실 것이다.

② 첫째 콜론의 “מְרַבֵּי[하라빔] **그 많은 사람들**”은 바로 앞 절에서 종이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며 고난 당하고 죽음으로써 의롭게 할 “מְרַבֵּי[하라빔] 그 많은 사람들(11c)”이다. 첫째 연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두 번째 삽입절(52:15a)에서 종이 그 피를 뿌린 “많은 민족들”이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다. 여호와는 사명을 완수한 종에게 “많은 사람들” 곧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모든 백성을 그의 몫, 그의 기업, 그의 소유로 주실 것이다.

③ 이러한 해석은 **“많은 사람들**” 앞에 붙어 있는 전치사 כּ[브]를 장소/위치 혹은 동반의 베트로 보지 않고 “본질의 베트(beth essentiae)”로 보며 **“많은 사람들**”을 동사의 직접목적어로 여기는 것이다. 첫째 콜론의 구문은 [비록 사용된 어간이 작위능동(피엘) 어간이 아니라 기본능동(칼, 파알)

어간이어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욥기 39:17(הַרְבֵּי הָאֲנָשִׁים לְאֵלֹהִים [블로-할라크 라흐 바비나] “그리고 그가(=하나님이) 그것(=타조)에게 **총명을** 주지 않으셨다.”)의 구문과 비슷하다.¹³⁸

2) 본 주해는 שָׁלַלְתָּ לְהַרְבֵּי אֲנָשִׁים [브에트-아추밈 여할레크 샬랄]이란 둘째 콜론에 대하여는 모티어의 해석을 따르지 않고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그는 전리품을 나누어 줄 것이다/차지하게 할 것이다**”라고 번역하였다.

① 모티어(442)의 “I will allocate/apportion to him the many, and the strong he will allocate/apportion as spoil. 나는 그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강한 자들을 전리품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라는 번역은 오스왈트(406)가 이해하는 것처럼 “God will give to the Servant the *many* whom he has redeemed, and the *mighty* who have opposed him, as the spoils of victory. 하나님은 그 종에게 그가 구속한 그 **많은** 사람들을 줄 것이고 그를 반대하던 **강한** 자들을 승리의 전리품으로 줄 것이다”라는 의미가 된다.¹³⁹ 모티어는 접속사 바브 다음에 오는 אֶת [에트]를 “함께”라는 뜻의 전치사가 아니고 אֲנָשִׁים [아추밈]이 직접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불변화사로 간주하였다.¹⁴⁰

¹³⁸ 욥 39:17의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KJV] neither hath he imparted to her understanding.

[NKJV] And did not endow her with understanding.

[NIV] (for God did not endow her with wisdom) or give her a share of good sense.

[NASB] And has not given her a share of understanding.

[RSV/ESV] and given her no share in understanding.

[NLT] He has given her no understanding.

¹³⁹ Oswalt(406)는 사 34:17의 וְיָדוּ חֲלָקָתָהּ לְהֵם בְּקוֹל [할레크]를 참고하며 동사 חָלַק [할레크]가 전치사 베틀과 더불어 목적어를 취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고 보고 [바라빔]을 “among the many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로 번역하고 [에트 아추밈]을 “with the mighty 강한 자들과 함께”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였다. Oswalt가 참고로 제시한 사 34:17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NIV] He allots their portions;

his hand distributes(חָלַקָתָהּ[힐카타]) them by measure(בְּקוֹל[바카브])

[NASB] He has cast the lot for them,

And His hand has divided it to them by line

[ESV] He has cast the lot for them;

his hand has portioned it out to them with the line;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띠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¹⁴⁰ 불변화사 אֶת [에트]는 한정된(정관사를 취하거나 접미대명사를 취하거나 고유명사인) 직접 목적어 앞에 붙는다. 여기 אֲנָשִׁים [아추밈]에 정관사가 없는 것은 자음 ר [레시], א [알렙], ע [아인] 앞에 올 정관사가 음조(euphony)상의 이유로 생략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GKC 126z: cf. 수 16:1; 민 14:37; 28:4; 겔 10:9; 21:19) אֲנָשִׁים [아추밈] 앞에 정관사가 없는 것만 가지고 불변화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② 모티어가 "רַבִּים[라빔] the many"과 둘째 콜론의 "חַיִּים צוֹמִים[아추밈] the strong 강한 자들"을 서로 다른 대상으로 보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첫째 콜론의 "많은 사람들"과 둘째 콜론의 "강대한 사람들"은 종의 사역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백성을 지칭하며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¹⁴¹ 이것은 구약에 31 번 사용된 형용사 צוֹמִים[아춤]이 흔히 רַבִּים[라브](many, great)와 병행을 이루며 동일 대상에 대하여 수의 힘(numerous) 혹은 능력의 힘(strong, mighty)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사실(cf. 욥 2:11; 암 5:12)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NIDOTTE 4:490-495).¹⁴²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에게 적용될 때나(창 18:18; 출 1:9; 민 22:6; 신 9:14; 26:5; 시 35:18; 미 4:3-7)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쫓아내실 가나안 7 족속에 대하여 언급하실 때나(복수형: 신 4:38; 7:1; 9:1; 11:23; 수 23:9) צוֹמִים[아춤]은 גָּדוֹל[가돌](great)과 רַבִּים[라브](many, great) 등과 함께 동일 대상을 언급하는데 쓰인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③ 더 나아가 여기처럼 작위능동(피엘) 어간 동사 חָלַק[할레크]와 명사 שָׁלַל[살랄]이 결합된 경우(창 49:27; 출 15:9; 사 5:30; 사 9:3[MT 2]) שָׁלַל[살랄]이 목적어이고 "탈취물/노략물/전리품을 나누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¹⁴³ 이것은 종이 [그를 반대하던] "강한 자들"을 탈취물로 차지한다고 하는 모티어의 해석보다는 종이 (죽음으로써 사단과 그를 따르는 원수들을 패배시키고 죽음을 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11cd) 전리품/탈취물을 (여호와께서 차지하게 함으로써 자기 소유가 된 12a) 그 많은 사람들 즉 "חַיִּים צוֹמִים[아추밈] 강대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대한 사람들 즉 종의 백성들은 종으로부터 죄와 사망과 지옥과 사탄에 대한 승리를 전리품으로 나누어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¹⁴¹ 본 주해와 구문 분석은 다르지만 개역 개정의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라는 번역도 "[라빔] 존귀한 자"와 "[아추밈] 강한 자"를 동일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

¹⁴² [욥 2:11]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라브])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아춤]) 여호와와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

[암 5:12] 너희의 허물이 많고([라브]) 죄악이 중함([아추밈])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¹⁴³ 논의하고 있는 둘째 콜론 וְאֵת-עֲצוּמֵי חֵלְקֵךְ שָׁלַל [브에트-아추밈 여할레크 살랄](사 53:12b)과 비슷한 구문 잠언 16:19 에서 볼 수 있다

טוֹב שְׁפִלְרוּת אֶת-כַּחַשׁ עֲנָוִים [ק=עָנָוִים] מִחֵלֶק שָׁלַל אֶת-גְּאִים

[토브 시팔-루아흐 에트-아나임 메할레크 살랄 에트-게임]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④ 둘째 콜론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종의 사역 즉 많은 민족(מִיְקָרְיָם[고임 라빔])에게 피를 뿌리는 종의 대속적 죽음의 은택들을 깨닫고 경탄하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왕들(מְלָכִים[몰라힘] 52:15)과 여기 מִיְקָרְיָם[라빔]과 מִיְמִצְרָיִם[아추뎀]을 연관지어 생각하도록 해 준다.

- 3) 본 주해처럼 첫째 콜론과 둘째 콜론을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그는 전리품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고 번역하면 첫째 연의 מִיְקָרְיָם[라빔] 주제를 반영하며 3 번 나오는 다섯째 연의 מִיְקָרְיָם[라빔]을 일관되게 “많은 사람들”로 번역할 수 있다. 이 경우 여호와께서 종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주시고, 종이 (그 많은 사람들, 즉)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구원의 혜택을 주시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된다. 종이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러 보게 된 씨요(10bc), 종이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며 의롭게 한(11cd) 많은 사람들을 그의 기업으로 여호와께서 주실 때(12a), 종은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러 열어 놓은 구속의 은총의 열매들을 그 많고 강대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12b).
5. 다섯째 연은 이제 마지막 네 개의 콜론(12cdef)을 통하여 그 종이 왜 이렇게도 영광스러운 승귀를 얻게 되었는지를 요약함으로써 마친다. 이 네 가지 진술은 종이 그 많은 사람을 자기 기업으로 받고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구속의 은택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그가 그의 영혼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12c) 자신이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려지게 하였고(12d)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고(12e)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악을 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이다(12f).
6. 이 진술들은 “~에 대한 보상으로 in recompense for (GBH 170g)”라는 뜻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אַחַר תַּחַת[타하트 아세르]의 지배를 받고 있고, 서술된 사건이 일어나도록 종 자신이 허용하는 측면을 보이는 전반 두 진술(12cd 이중콜론)과 종 자신이 능동적으로 행하는 일을 보이는 후반 두 진술(12ef 이중콜론)이 대조된다.¹⁴⁴

נָמְנָה	פְּשָׁעִים	אֶת־	נִפְשׁוֹ	לְמָוֹת	הָעֶרָה	אַחַר	תַּחַת
남나	포시임	브에트	나프쇼	라마베트	헤에라	아세르	타하트
콜론 2			콜론 1			접속사	
자신이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려지게 하였다			그가 그의 영혼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에 대한 보상으로, ~때문에	
אֶת־	לְפָשָׁעִים		אֶחָד	מִיְקָרְיָם	הֵטָה	אֶחָד	
야프기아	브라포시임		나싸	라빔	헤트	브후	
콜론 4				콜론 3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악을 떠맡으며] 기도한다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다			

¹⁴⁴ Oswalt(406)에 의하면 첫째 이중 콜론(12cd)은 종의 행위를 묘사하고 둘째 이중 콜론(12ef)은 그 행위에 대한 이유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반 두 서술(12cd)은 중심절이 되고 후반 두 서술(12ef)은 상황절이 된다.

- 1) 하나님이 종을 지극히 높이신 첫 번째 이유는 행위자와 대상(both agent and substance)으로서 행위자인 **종이** 대상인 **그의 영혼 즉 자기 자신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이다**(Motyer, 443). 사역어간 “הָרַגְתִּי[헤에라] 내던지다, to pour out, to outpour”는 “드러나게 하다, 벌거벗게 하다, to bare, to cause to be naked”라는 의미로 생존을 위한 자연적인 본능을 부인하고 가장 소중한 물리적인 생명을 내던지는 것을 나타낸다(Oswalt, 406). 종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종의 목숨을 빼앗아 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종이 자원하여 자기 목숨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신 대로(눅 22:42) 자신의 의지의 독립적인 행사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며 자기를 비우시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게 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셨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요 10:18)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빌 2:8).
- 2) 하나님이 종을 높이신 두 번째 이유는 종이 **범죄자들과 함께 자신이 헤아려지게 하였기 때문이다**. 종은 친히 자신을 그가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던 범죄자들과 동일시하였다. 니프알 어간 동사 הִנְחִילָה[님나]는 “헤아려지다”라는 수동(passive)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헤아려지게하다, 자신이 포함되도록 허용하다”라는 재귀(reflexive, Young: “to permit himself to be numbered”) 혹은 묵인(tolerative, Motyer: “to let himself be numbered”) 혹은 자원(voluntative, Oswalt: “to permit himself to be listed”)의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종은 그의 생명을 잃는 것 뿐만 아니라 그의 명예를 잃는 것까지 감수하며 보는 자들에 의하여 “범죄자”로 간주되도록 허용하였다. 종은 의로운 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죽음을 선고한 부당한 재판에 승복하고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그 시대 사람들의 눈에는 종이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예수님은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고 자신에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의식하고 계셨다(눅 22:37).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종이 자신을 범죄자들 중의 하나로 헤아려지도록 허용한 것에 속한다. 종은 의인들의 하나로 헤아려지게 하는 대신 종 자신만이 줄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의 하나로 헤아려지게 하였다.
- 3) 하나님이 종을 지극히 높이신 세 번째 이유는 종이 범죄자들과 함께 자신이 헤아려지게 하였을지라도 실상은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나 종은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친히 그들의 죄책을 짊어졌고(cf. 히 9:28), 속죄일에 아사셀을 위해 제비뽑힌 희생 염소가 그 백성의 모든 범죄와 모든 죄악과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갔듯이(레 16:8, 21-22) 많은 사람들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시 103:12) 옮기며 치워버렸다. 예수님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벧전 2:24).

4) 하나님이 종을 지극히 높이신 네 번째 이유는 종이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악을 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이다**. 종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 중보는 단순히 위하여 기도하는 행위를 넘어 종이 친히 개입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사 59:16 이 밝혀주는 대로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 것을 보여준다. 여기 중보는 기도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짊어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 ① 병행되는 앞의 세 콜론의 동사가 완료형(הִכְרִיתָ[헤에라]/הִכְרַתְּ[님나]/אֶשְׂרֹף[나싸])인데 비하여 네 번째 콜론의 동사는 미완료형(אֶפְרָחָה[야프기아] 그가 그들의 죄악을 떠맡으며 기도한다/할 것이다)이다. 세 개의 완료형들은 이미 성취된 것을 묘사하는 반면 한 개의 미완료형은 계속되는 것을 묘사한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비추어 말하면, 자기 자신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범죄자들과 함께 범죄자로 헤아려지도록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미 겪으신 것이라면, 범죄자들의 죄악을 떠맡으며 기도하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도 죄인들의 용서를 빌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속죄 사역의 결과를 적용하며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시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히 7:24-25).
- ② 6 절의 마지막 동사(אֶפְרָחָה[히프기아] 그에게 떠맡기셨다)와 12 절의 마지막 동사(אֶפְרָחָה[야프기아] [그들의 죄악을 떠맡으며] 기도한다/할 것이다)는 같은 어근 פָּחַח[파가]의 사역능동 어간이다. 이 어근의 사역능동 어간의 기본 뜻은 “to cause to reach 이르게/도달하게 하다”이고 여기에서 “to cause someone's plea to reach someone's ears = to intercede 중보기도하다” 혹은 “to introduce someone into someone's presence = to mediate 중재하다”란 의미로 발전된다(Motyer, 443).
- ③ 6 절에서 여호와와 그 백성의 죄악이 종에게 이르게 하여 떠맡기셨고, 12 절에서 종은 그가 죄악을 떠맡은 그 백성의 탄원을 하나님의 귀에 도달하도록 그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한다. 그러므로 종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내게 하였던 우리 죄악을 떠맡기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중보일 뿐만 아니라(6 절), 우리의 죄책을 떠맡아 해결하고 자발적으로 우리와 함께 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이다(12 절). 종은 우리의 죄를 그에게 떠맡기시려는 하나님 편의 중보일 뿐만 아니라(6 절), 우리의 죄 문제를 떠맡아 해결하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편의 중보이다(12 절).
- ④ 종은 제사장으로서 흠 없는 자신을 단번에 드린 대속적 죽음의 공로를 하나님이 그가 위하여 죽은 범죄자들을 용납하시는 유일한 근거로 삼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는 하늘에 계시는(히 9:24) 예수님의 영원한 기도(롬 8:34)와 변호(요일 2:1)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파괴될 수 없는

만큼 확실하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기도는 그분의 온전한 희생 제사에 기초하여 온전하게 기도하시므로 항상 응답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계속적인 중보 기도에 의해 구원을 받고 있다.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히 12:1)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연(사 53:10-12) 요약 정리

1. 종이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입에 거짓이 없었음(53:9)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뜻은 **[자신이 직접] 그를 부수시며 그를 아프게 하시는[찢어 죽이시는] 것이었다**(53:10a). 여호와와 친히 그를 부수시며 그로 아프게 하기를[찢어 받아 죽임 당하기를] 기뻐하셨다. 여호와와 종에게 백성의 죄악을 떠맡기시며 그가 백성의 아픔을 짊어지길 원하셨고 친히 그를 파쇄하시며 그로 심히 아프도록 하셨다. 여호와께서 객체인 종에게 부서짐을 부과할 때 종은 주체가 되어 아픔을 견디었다. 사실 종이 고난당한 궁극적인 원인은 여호와 자신이었다. 여호와께서 종으로 고난 당하도록 하신 이유는 바로 **그의 영혼이 속건제를 드리면 그가 씨를 보며 날들을 길게 할**(53:10bc)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뜻이 **그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질**(53:10d) 것이기 때문이었다.

- 1) 종은 그의 영혼 즉 그의 생명 자체, 그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 참혹한 죽음에 의하여 종으로부터 취해진 그의 생명 자체, 즉 **그의 영혼이 속건제물**이 되었다. 종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편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깨어진 법과 거스러진 거룩함과 관련하여 하나님 편의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켜준다. 종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기 백성의 죄책을 담당하고 기꺼이 자기 자신까지 희생제물로 바친 의로운 제사장이다. 종은 자신이 속건제물이고 자신이 제사장이신 분이다. 따라서 종이 드린 제사는 모세 율법에 언급된 동물 제사와는 달리 죄 없는 자기 자신을 직접 드린 제사로서 그 자체 이외에는 다른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희생 제사이다.
- 2) 종은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린 죽음 후에 죽은 채로 남아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산 자로서 **그의 씨를 볼 것이다**. 그의 **씨**란 그의 대속적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죄책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속받은 자들을 말한다. 종의 대속적 죽음의 희생이 없었다면 구속받은 백성도 없고 교회도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충실히 선포되는 곳에 진정한 교회가 생겨나고 발전한다.
- 3) 종은 대속적 죽음 후에 살아나서 그 자신의 많은 씨를 볼 것이고 **[그의] 날들을 길게 할 것이다**. 종이 날들을 길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씨에게 주셨던 약속(삼하 7:13, 16; 시 21:4[MT 5]; 89:4; 132:12)에 따라 그가 영원히 살며 다스릴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종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 4) 종의 희생제사가 받아들여지면 종 자신을 위한 일 즉 종이 그의 씨를 보고 영원히 사는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한 일 즉 **여호와**의 뜻이 **그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53:10d). 그 종의 손에 의하여 즉 그의 중보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곧 죄인들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는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2. 더 나아가 종의 대속적 죽음의 희생의 결과로 인해 그는 그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빛을 볼 것이고 자기 지식으로 인해 만족해 할 것이다(53:11ab). 여기 “그의 영혼의 수고”는 지금까지 묘사한 종의 자기 백성을 위한 사역을 간단히 요약하여 한 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그 영혼의 수고로 인해 **좋은 빛을 볼** 뿐만 아니라 **그의 지식으로 인해 만족해 할** 것이다. 종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와 관련하여 요구하시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일하여 사명을 완수하며 그로 인해 만족해 할 것이다. 종만이 소유하는 지식 곧 충족되어야 할 요구와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해를 받은 후에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체험의 행복 때문에 그는 만족해 할 것이다. 이를 보시고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자인 나의 종이 친히 그들의 죄악들을 담당하며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53:11cd).”라고 말씀하신다. 다시 한 번 “의로운 자” 한 분과 의로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대조된다. 많은 사람들은 의로움이라곤 단 하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여호와의 종은 죄악이라곤 단 하나도 없는 의인이다. “**의로운 자, 나의 종**”으로서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의하여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지정되었다. 의로운 자로서 여호와의 종은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며 제거하시고 그가 능동적으로 율법을 다 지켜 이론 완전한 의를 그들에게 돌려주신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양면의 사실이 속죄의 본질이다. 이것은 여호와께 의한 복스러운 교환이고 은혜 충만한 사건이다.
3. 종은 부정적으로 백성의 죄를 담당함으로써 그리고 긍정적으로 백성을 의롭게 함으로써 그의 임무를 완전히 완수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나)는 종(=그)에게 그 많은 사람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종은(=그는) 전리품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53:12ab). 이것은 여호와께서 종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주시는 것과 종이 (그 많은 사람들, 즉)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구원의 혜택을 주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종이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려 보게 된 씨요(10bc) 종이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며 의롭게 한(11cd) 많은 사람들을 그의 기업으로 여호와께서 주실 때(12a) 종은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열어 놓은 구속의 은총의 열매들을 그 많고 강대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12b). 여호와께서는 종의 사역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백성을 그의 몫, 그의 기업, 그의 소유로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종이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게 된 모든 사람들 즉 **그 많은 사람들을** 종 자신의 것으로 받도록 해 주셔서 종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고 참된 만주의 주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이다. 한편 종은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곧 여호와께서 차지하게 함으로써 자기 소유가 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으로써 사단과 그를 따르는 원수들을 패배시키고 죽음을 죽게 하는 전리품을 나누어 줄 것이다. 고난의 종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 의롭게 된 많은 사람들은 강대한 자들로서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의와 생명과 천국으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며 왕 노릇할 것이다.

4.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도 영광스러운 승귀를 얻게된 이유는 무엇인가? 종이 그 많은 사람을 자기 기업으로 받고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구속의 은택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그의 영혼 [=자기 자신]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자신이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려지게 하였고(53:12cd)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악을 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이다(53:12ef). 이 진술은 서술된 사건이 일어나도록 종 자신이 허용하는 측면을 보이는 전반 두 콜론(12cd)과 종 자신이 능동적으로 행하는 일을 보이는 후반 두 콜론(12ef)으로 되어 있다.

1) 종의 승귀는 허용의 측면에서 행위자인 종이 대상인 자기 영혼 즉 자기 자신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들과 함께 자신이 헤아려지게 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종은 자기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요 10:18)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빌 2:8). 종은 자원하여 자기 목숨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 종은 그의 생명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의 명예를 잃는 것까지 감수하며 그가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던 범죄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보는 자들에 의하여 범죄자로 간주되도록 허용하였다.

2) 종의 승귀는 능동적 행위의 측면에서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악을 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나 종은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친히 그들의 죄책을 짊어지셨다. 종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을 떠맡으며 위하여 기도한다. 종은 제사장으로서 흠 없는 자신을 단번에 드린 대속적 죽음을 하나님이 범죄자들을 용납하시는 유일한 근거로 삼고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다(cf. 롬 8:34; 요일 2:1; 히 9:24). 이 중보는 단순히 위하여 기도하는 행위를 넘어 종이 친히 개입하는 일로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사 59:16)” 것이다. 고난의 종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내게 하였던 우리 죄악을 떠맡기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중보이요(53:6), 고난의 종은 우리의 죄책을 떠맡아 해결하시고 자발적으로 우리와 함께 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이다(53:12).

5. 네 번째 종의 노래(52:13-53:12)를 통하여 선지자가 말하는 고난의 종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위대한 구원주이고 구속주이시다.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주님의 사역에 대한 이 놀라운 묘사를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마다 예수님이 그의 선지자요, 그의 왕이요, 그의 제사장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하며(롬 10:9)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계 5:12).”라고 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스웨덴의 Carl Gustaf Boberg(1859-1940) 목사의 시 “O Store Gud (O Great God)”를 번역하고 4 절을 추가한

Stuart K. Hine(1899-1989)의 영어 찬송(“How Great Thou Art”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3-4 절 가사를 음미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 삼아 힘차게 불러 보자.

<p>And when I think, that God, His Son not sparing; Sent Him to die, I scarce can take it in; That on the Cross, my burden gladly bearing, He bled and died to take away my sin. Then sings my soul, My Saviou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u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p>	<p>3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 주셨네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p>
<p>When Christ shall come, with shout of acclam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n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u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u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p>	<p>4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p>

참고 문헌

주석

Alexander, Joseph Addison. *The Prophecies of Isaiah*. Grand Rapids: Zondervan, 1953. A reprint of a commentary that first appeared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a classic, but quite outdated in historical and linguistic matters, offering no insight to the last hundred years of scholarship.

Baltzer, Klaus. *Isaiah 40-55*. Hermeneia. Fortress, 2001. Careful linguistic analysis of the chapters, assumes the rhetorical form of a Greek drama.

Beyer, Bryan E. *Encountering the Book of Isaiah: A Historical and Theological Study*. Encountering Biblical Studies. Baker, 2007. A very helpful and wide-ranging, illustrated introduction with good side discussions and charts on a variety of theological themes. Conservative Evangelical.

Blenkinsopp, Joseph. *Isaiah 1-39*. AYBC. Yale University, 2000. *Isaiah 40-55*. AYBC. Yale University, 2000; *Isaiah 56-66*. AYBC. Yale University, 2003. A careful and balanced analysis of the language and forms of Isaiah.

Brueggemann, Walter. *Isaiah 1-39 and Isaiah 40-66*. Westminster John Knox, 1998. Canonical approach focused on ascertaining how the text speaks with power to modern realities.

Childs, Brevard S. *Isaiah: A Commentary*. OTL. Westminster John Knox, 2001. The founder of the canonical approach comments with theological and literary sensitivity as well as an appreciation for the history of its interpretation.

Clements, R. E. *Isaiah 1-39*. NCB. Sheffield, 1980. Evangelical with a moderate higher criticism.

Clines, D. J. A. *I, He, We and They. A Literary Approach to Isaiah 53*. JSOTSup 1. Sheffield: U. of Sheffield, 1976.

Goldingay, John. *Isaiah*. UBCS. Baker Books, 2001. Readable and insightful in a compact format.

Goldingay, John. *The Message of Isaiah 40-55: A Literary-Theological Commentary*. London: T. & T. Clark, 2005. Careful exposition with theological and literary sensitivities. Designed to complement forthcoming volume in ICC series. Critical evangelical.

Goldingay, John and David Payne. *Isaiah 40-55*, volume 1. ICC. T. & T. Clark, 2006. Exhaustive linguistic, philological, and text critical study with extensive bibliographies typical of this series. Technical, helpful exegesis. First of two volumes.

Grogan, G. W. *Isaiah*. REBC 6. Zondervan, 2008. One of the best short commentaries on the Prophet Isaiah.

Hayes, John, and Stuart Irvine. *Isaiah*. Nashville: Abingdon, 1987. One of the more recent liberal treatments that argues for the unity of chapter 1-33 (where some scholars divide the book rather than after chapter 39) in the eighth century B.C.

Holladay, William. *Isaiah: Scroll of a Prophetic Heritage*. New York: Pilgrim, 1988.

Lindsey, F. Duane. *The Servant Songs*. Chicago: Moody Press, 1985. A thorough analysis of the Servant material from a conservative perspective.

MacRae, Allan A. *The Gospel of Isaiah*. Chicago: Moody Press, 1977. A conservative treatment of chapters 40-56.

Motyer, J. Alec. *The Prophecy of Isaiah: An Introduction & Commentary*. InterVarsity, 1993. Attention to textual details within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book. Evangelical.

Oswalt, John N. *The Book of Isaiah*. 2 volumes. NICOT. Eerdmans, 1986, 1998. Solid Evangelical exposition of the biblical text. Introduction could be stronger. // solidly conservative and well researched.

Oswalt, John N. *The Book of Isaiah*. NIVAC. Zondervan, 2003. Helpful theological and applicational sections. Author also has published technical commentary on Isaiah. Evangelical. // commendable scholarly study. Sensitive exegete & sensitive pastor

Paul, Shalom M. *Isaiah 40-66: Translation and Commentary*. EEC. Eerdmans, 2012. Exceptional commentary by a foremost Israeli scholar with wealth of textual, literary, and comparative details.

Ridderbos, J. *Isaiah*. BSC. Zondervan, 1985. Translation of a Dutch original in 1950/51. Oriented toward the minister.

Seitz, C. R. *Isaiah 1-39*. Interp. Westminster John Knox, 1993. The best moderately critical approach.

Smith, G. V. *Isaiah 1-39, Isaiah 40-66*. NAC 15A, 15B.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7, 2009. Detailed exposition with careful attention to exegetical details. Theological reflections for discussion of each unit. Evangelical.

Sweeny, M. A. *Isaiah 1-39 with an Introduction to Prophetic Literature*. FOTL. Eerdmans, 1996. Best source for up-to-date introduction to the form criticism of Isaiah. Too technical for lay readers and conservative readers will not like some of his conclusion but excellent work.

Webb, Barry G. *The Message of Isaiah*. BST. InterVarsity, 1996. Good Evangelical exposition with an eye to literary structure, historical background, and broader canonical connections.

Williamson, H.G.M. *Isaiah 1-5*. ICC. London: T. & T. Clark, 2006. Exhaustive linguistic, philological, and text critical study with helpful exegesis. Redaction critical approach. First of three volumes to cover chs. 1-27.

Walton, John H. "Isaiah 7:14: What's in a Name?" *JETS* 30 (1987): 289-306. A treatment of the interpretation of Isaiah 7:14 and a discussion of the hermeneutical issues involved.

Wolf, Herbert M. *Interpreting Isaiah*. Grand Rapids: Zondervan, 1985. A conservative work with a textbook approach that provides a very useful summary of Isaiah.

Young, E. J. *The Book of Isaiah*. Grand Rapids: Eerdmans, 1972. A conservative classic in three volumes.

Young, E. J. *Isaiah Fifty-Three: A Devotional and Expository Study*. Grand Rapids: Eerdmans, 1957. (= E. J. 영. **이사야 53장**. 윤 영탁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0.)

논문

Allen, L. C. "Isaiah LIII 2 again." *VT* 21 (1971): 490.

Barrick, William D. "Penal Substitution in the Old Testament." *TMSJ* 20/2 (Fall 2009): 1-21.

Battenfield, J. R. "Isaiah LIII 10: Taking 'If' out of the Sacrifice of the Servant." *VT* 32 (1982): 485.

Bergey, Ronald. "The Rhetorical Role Of Reiteration In The Suffering Servant Poem (Isa 52:13-53:12)." *JETS* 40/2 (1997): 177-188.
 = http://www.etsjets.org/files/JETS-PDFs/40/40-2/40-2-pp177-188_JETS.pdf

Gordon, R. P. "Isaiah LIII 2." *VT* 21 (1970): 491-492.

Hugenberger, G. P. "The Servant of the Lord in the 'Servant Songs' of Isaiah: a Second Moses Figure" from P.E. Satterthwaite, R.S. Hess, G.J. Wenham, eds., *The Lord's Anointed. Interpretation of Old Testament Messianic Texts* (Baker, 1995) 105-140.
 = http://www.obinonet.ro/docs/tpnt/tpntrex/hugenberger_messiah.pdf
 = <http://www.parkstreet.org/sites/default/files/papers/christintheot.pdf>

Lindsey, F. Duane. "Isaiah's Songs of the Servant Parts 4 and 5: The Career of the Servant in Isaiah 52:13-53:12." *BSac* 139 (1982): 312-329; 140 (1983): 21-39.

=https://faculty.gordon.edu/hu/bi/ted_hildebrandt/otesources/23-isaiah/text/isa-articles/lindsey-careerofservant-isa52-bs2.htm

Litvak, Kenneth D. "The Use of Quotations from Isaiah 52:13-53:12 in the New Testament." *JETS* 26/4 (1983): 385-394.

= http://www.etsjets.org/files/JETS-PDFs/26/26-4/26-4-pp385-394_JETS.pdf

Murray, H. "An Approach to the Fourth Servant Song." *Compass* 13 (1979): 43-46.

Payne, D. F. "Recent Trends in the Study of Isaiah 53." *IBS* 1 (1979): 3-18.

Raabe, Paul R. "The Effect of Repetition in the Suffering Servant Song." *JBL* 103/1 (1984): 77-81.

Willamson, H. G. M. "DA'AT in Isaiah LIII 11." *VT* 28 (1978) 118-22.

Willamson, H. G. M. "'The Sure Mercies of David': Subjective or Objective Genitive?" *JSS* 23 (1978) 31-49.

부록: 휴겐버거(G.P. Hugenberger)의 논문: 이사야의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여호와와 종: 제 2 의 모세(The Servant of the Lord in the “Servant Songs” of Isaiah: a Second Moses Figure)¹⁴⁵

요약(Summary)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여호와와 종의 정체에 관한 어떤 설명도 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것은 없다. 이 연구는 “종의 노래들”을 그것들의 근접 문맥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둠과 다른 학자들에 의해 추진된 사 40-66장의 절단을 거부함으로써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해보려고 한다. 배어있는 제이 출애굽 주제에 의해 지배되는 바로 그 문맥을 고려하며 이 논문은 이사야서의 종이 기대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신 18:14-22; 34:10-12)”와 동일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은 특별히 사 52:13-53:12의 해석을 풍성하게 해 주고 흔히 행해지는 메시아 해석을 전제함이 없이도 신약의 메시아적 해석에 대하여 근거있는 지지를 제공한다.

I. 서론(Introduction)

이사야서의 소위 “종의 노래들”(42:1-4 [9]; 49:1-6 [13]; 50:4-9 [11]; and 52:13-53:12)에 나오는 여호와와 종을 정체를 밝히려는 학자들의 시도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이론도 학자들의

¹⁴⁵ 이 논문은 1994년 7월 5일에 영국 Swanwick, Derbyshire에서 열린 Tyndale Fellowship의 연례 모임 가운데 구약 분과 그룹 앞에서 읽혀졌다.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¹⁴⁶ 다른 한편으로, 신약의 메시아적 해석은 소위 제이 이사야에¹⁴⁷ 대해 가정되는 어느 역사적 맥락으로부터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의도된 지시 대상으로서 여전히 설득력이 없다. 종의 정체에 대하여 흔히 제안되어 온 몇 가지 견해를 개관한 후에 본 연구는 중요한 예외들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최근의 학계에서 무시되어 온 더 이른 견해 곧 종을 신 18:14-22와 신 34:10-12에 언급된, 기대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동일시하는 견해를 복귀시키려고 한다.

II.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종의 정체에 대한 선택적인 견해들(Alternative Identifications of the Servant in the Servant Songs of Isaiah)

1.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종은 집합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킨다(The Servant in the Servant Songs of Isaiah refers to corporate Israel)¹⁴⁸

행 8:32-35에서 분명하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이 개인을 가리키고 있음이 자명하다고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많은 해석자들은 사 52:13과 53:11에서 “[아브디] 내 종”으로 불리는 인물이 집합적인 대상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 혹은 이상적인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¹⁴⁹ 집합적 지시 대상임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단수로 나오는 용어들 곧 “나의

¹⁴⁶ 종의 정체를 밝히려는 시도들에 대한 요약을 위해 C.R. North, *The Suffering Servant in Deutero-Isaiah. An Historical and Critical Study* (2nd ed.; Oxford: OUP, 1956 [1st ed. 1948]); H.H. Rowley, *The Servant of the Lord and other Essays on the Old Testament* (2nd ed.; Oxford: Blackwell, 1965 [1st ed. London, 1952]); D.J.A. Clines, *I, He, We and They: A Literary Approach to Isaiah 53* (JSOTS 1; Sheffield: University of Sheffield, 1976); C.G. Kruse, “The Servant Songs: Interpretive Trends since C.R. North,” *Studia Biblica et Theologica* 8:1 (1978) 3-27; D. F. Payne, “Recent Trends in the Study of Isaiah 53,” *Irish Biblical Studies* 1 (1979) 3-18 등을 참고하라.

¹⁴⁷ 정경에 들어 있는 이사야서의 문학적 통일성에 대한 증거들이 증가되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제이 이사야(Deutero-Isaiah)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단지 학자들의 관습을 따른 것에 불과하다. 이사야서에 대한 어떤 특별한 연대 체계나 저작 역사가 전제된 것은 아니다.

¹⁴⁸ 긴스버그(H.L. Ginsberg, “The Oldest Interpretation of the Suffering Servant,” *VT* 3 [1953] 400-404)는 단 11:33-35; 12:3 이 이사야서의 종에 대한 가장 이른 해석이 집합적인 해석이었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것은 이 구절들이 안티오크스 시대의 신실한 유대인들을 “(사 52:13 을 넌지시 암시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J. Day, “DA”AT “Humiliation” in Isaiah LIII 11 in the Light of Isaiah LIII 3 and Daniel XII 4, and the Oldest Known Interpretation of the Suffering Servant,” *VT* 30 (1980) 97-103; J.J. Collins, *Daniel*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385, 393; R.J. Clifford, “Isaiah, Book of (Second Isaiah),” *ABD*, 3, 490-501, 특히 500 등을 참고하라.

¹⁴⁹ 예를 들어, 종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는 밀렌버그(J. Muilenburg, “The Book of Isaiah, Ch. 40-66,” *Interpreter’s Bible*, 5 [New York: Abingdon Press, 1956] 381-773, 특히 406-414)와 좀 더 명확하게 종을 주전 597년과 (아마도 역시) 586년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인과 동일시한 스네이스(N.H. Snaith,

종[아브디]”과 “그의 종[아브도]”과 “종[에베드]”이 이사야서에서 25번 나오는 것을 들기도 한다.¹⁵⁰ 이 중에서 12번(모두 사 40-53에 나오는 12번)의 경우 의도된 지시 대상은 이스라엘인 것 같다.¹⁵¹ 예를 들면 사 41:8-9은 다음과 같다.

(사 41:8-9) 그러나 **나의 종[아브디]**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아브디]**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게다가 이사야서의 다른 곳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어구들이 종의 노래들에서 종을 묘사하고 지칭하는데 여러 번 사용되고 있다. 특별히, 첫 번째 종의 노래를 시작하는 사 42:1에서 “나의 종”을 수식하는 “내가 붙드는[בְּרַחֲמַי אֶת־מַחֲבוֹ] 에트마흐-보”이란 어구는 사 41:10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Isaiah 40-66: A Study of the Teaching of Second Isaiah and Its Consequences,” in *Studies on the Second Part of the Book of Isaiah* [VTS 14; Leiden: E.J. Brill, 1977] 135-264, 특히 170)를 참고하라. 그리고 J.E. Rembaum, “The Development of a Jewish Exegetical Tradition Regarding Isaiah 53,” *HTR* 75 (1982) 239-311를 참조하라.

이러한 집합적 접근의 중요한 변형은 종을 이스라엘에 대한 풍유적 상징으로 보는 린드블롬(*The Servant Songs in Deutero-Isaiah: A New Attempt to Solve an Old Problem* [Lund: C.W.K. Gleerup, 1951] 46-51, 102-4.)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리고 L.E. Wilshire (“The Servant-City: A New Interpretation of the “Servant of the Lord” in the Servant Songs of Deutero-Isaiah,” *JBL* 94 [1975] 356-67.)와 K. Jeppesen (“Mother Zion, Father Servant: A Reading of Isaiah 49-55,” in *Of Prophets’ Visions and the Wisdom of Sages. Essays in Honour of R. Norman Whybray on his Seventieth Birthday*, H.A. McKay and D.J.A. Clines, eds. [JSOTS 16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109-125.) 등을 참고하라.

¹⁵⁰ 이사야서에서 “나의 종[아브디]”는 15번 곧 20:3; 22:20; 37:35; 41:8, 9; 42:1, 19; 43:10; 44:1, 2, 21a; 45:4; 49:3; 52:13; 53:11에 나온다. “그의 종[아브도]”은 4번 곧 44:26; 48:20; 50:10; 63:11(*cf. BHS*)에 나온다. “종[에베드]”은 6번 곧 24:2; 42:19; 44:21b; 49:5, 6, 7에 나온다. [역자 주: 사 63:11의 경우 저자처럼 페시타역과 소수 사본처럼 모세와 동격이 되도록 [아브도]로 정정하면 총 4번이지만 맛소라 본문의 [아모] “그의 백성”을 따르면 [아브도]는 총 3번 나온다. 맛소라 본문의 독법을 따르면 단수형은 총 25번이 아니라 총 24번 나온다.]

¹⁵¹ 사 41:8, 9; 42:19 (두 번); 43:10; 44:1, 2, 21 (두 번); 45:4; 48:20; 49:3. 복수형 “종들”은 이사야 53 장 이전의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는다[역자 주: 저자의 설명과 달리 이사야서에서 복수형 “종들”이 53 장 이전인 14:2; 36:9, 11; 37:5, 6, 24 에도 나오고 있다.] 사 54:17 로부터 시작하여 (단수형을 제외하고) 복수형이 11 번 나오는데 모두 사 56:6 (*cf. 56:3*)에서처럼 개종한 이방인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

비슷한 약속 곧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אֶחָזְקֶךָ אֲנִי אֱמֹר אֶחָזְקֶךָ 아흐-크마흐티하]”는 어구와 병행을 이룬다. 또한 사 42:1에 나오는 “내가 택한 [בְּחִירִי בְּחִירִי 브히리]”이란 어구는 사 43:20; 45:4; 65:9, 15, 22 (cf. 대상 16:13; 시 105:6, 43; 106:5)에서 온 이스라엘에 대하여 사용된 지칭이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종의 노래를 시작하는 사 49:1에 나오는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מִבֶּטֶן מִבֶּטֶן 미베텐 크라니]”란 어구는 사 44:2, 24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진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었다[בְּרָאָהּ בְּרָאָהּ! 브요체르하 미베텐]”이란 어구와 병행을 이룬다. 이 외에도, 사 49:1에 나오는 “그가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שָׁמַר הִזְכִּיר 히즈키르 시미]”란 어구는 사 43:1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진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다[קָרָאתִי בְּשִׁמְךָ 크라티 브심하, cf. 개역개정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와 병행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 49:6에 나오는 “이방의 빛[אֹר לְגוֹי 오르 고임]”은 사 51:4 에서 온 이스라엘에 대하여 사용되었고, 개인을 가리킬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도 사 42:6에서도 온 이스라엘에 대하여 사용되었을 것이다. [역자 주: 둠은 첫 번째 노래의 범위를 사 42:1-4로 한정했지만 휴겐버거는 42:1-4[9]이라고 표시함으로써 42:9까지 확대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확대된 첫 번째 종의 노래에 속한 42:6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은 두 번째 종의 노래에 속한 49:6의 “이방의 빛”처럼 종 개인에게 사용된 어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 42:6의 “이방의 빛”은 “백성의 언약”과 병행을 이루는 것이므로 종이 “백성을 위한 언약”이고 49:6처럼 “이방을 위한 빛”이라고 한다면 42:6과 49:6에서 “이방의 빛”이 되는 종은 개인이다. 저자는 나중에[website PDF 페이지로 6쪽] 42:6의 “백성의 언약”과 49:8의 “백성의 언약”과 연결지어 설명한다. 그리고 저자는 나중에[website PDF 페이지로 30쪽에 나오는 “42:7[6으로 정정해야 함] (and 49:6)”에서] 사 42:6과 49:6의 “이방의 빛”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 저자의 “개인을 가리킬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도 42:6에서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설명은 삭제하는 것이 일관성에 있어서 좋을 것 같다.]

종이 고난 당하고 죽고 그러나 분명 다시 살아나는(사 53:10-11) 네 번째 종의 노래와 관련하여, 에스겔 3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들이 비유적인 죽음과 부활을 수반하는 것으로 비슷하게 묘사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죽음”은 얼마든지 열국에 유익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¹⁵² 이것은 이사야 53장의 이미지가 암시하고, 다니엘과 에스더와 모르드개와 같은 포로기의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참고: 예, 에 8:17; 슥 2:11; 사 2:1-4) 입증되었다. 게다가 사 53:7에서 도수장으로 가는 양으로 묘사되는 이미지가 시 44:22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사용된다. “그가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לְגֹאֲלֵנוּ! הוא יְוֹנֵתָם 바아보노탐 후 이스볼]”라는 주목할 만한 표현도 종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하는 것을 배제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반드시 대리적 고난의 관념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애 5:7의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¹⁵²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려면 H.M. Orlinsky, “The So-Called “Servant of the Lord” and “Suffering Servant” in Second Isaiah,” in *Studies on the Second Part of the Book of Isaiah* (VTS 14; Leiden: E.J. Brill, 1977) 3-133을 참고하라.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נִלְבָּ֑דוּ מִיִּזְרָתֵיהֶם (קָוָנוּ) [כָּוָנוּ] (바)아나흐누 아보노테헴 싸발누]”란 말씀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은 아주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범죄의 결과로 인해 고난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종을 집합적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는 견해는 매력 있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심각한 반대에 부딪힌다. 첫째로, 사 53:9에 의하면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을지라도” 종은 고난 당하고 죽는다. 이와 비슷하게 사 50:5에서 종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정의가 종말의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어 있을지라도(참고, 사 1:26f.; 32:16f.; 53:11; 60:21; 61:3, 10f.; 62:2, 12), 제이 이사야는 반복적으로 당대의 이스라엘이 그들 자신의 범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죄 많은 백성인 것을 강조한다(사 40:2; 42:18-25; 43:22-28; 47:7; 48:18f.; 50:1; 54:7; 57:17; 59:2ff.). 이 점은 구체적으로 사 43:22; 46:3, 12; 48:1, 8; 53:6, 8; 55:7; 58:1ff.; 63:17; 64:5-7에 나오는 남은 자들과 관련지어 지적된다.¹⁵³

둘째로, 둠(B. Duhm)이 지적한 대로 종의 노래들 밖에서는 “종”이 분명하게 집합적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반면 각각의 종의 노래 안에서는 “종”이 개인으로 보인다는 사실에 의해 종의 노래들 자체가 명백하게 구별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¹⁵⁴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두 번째 종의 노래를 안내하는 사 49:1이하이다. 여호와와 종은 사 49:3에서 “이스라엘”로 불리지만 사 49:5-6에서 문맥상 회개하는 남은 자만을 언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스라엘”과 구별된다.

(사 49:3-6) **3** 그가[=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4**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음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5**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데도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6**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¹⁵⁵

¹⁵³ 이사야는 바벨론이 자비 없이 행동했던 것을(사 47:6; 참고, 슥 1:15) 인정하지만, 이스라엘의 집단적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들보다 더 심한 것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며 오히려 심판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누그러뜨려졌음을 강조한다(참고, 예: 사 1:9; 44:22; 48:9; 57:16).

¹⁵⁴ B. Duhm, *Das Buch Jesaja übersetzt und erklärt* [HKAT 3/1, 4th ed.;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22 (1st ed. 1892)] 311.

¹⁵⁵ 맛소라 본문에서 사 49:3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진정성 문제는 논란이 있을지라도(*cf.* S.O.P. Mowinckel, *He That Cometh* [ET of *Han som kommer*, Copenhagen, 1951; New York and Nashville: Abingdon, n.d.] 462-464; H.M. Orlinsky, “The So-Called “Servant of the Lord” and “Suffering Servant”

구약의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이란 용어가 족장 개인이나 그가 선조였던 백성을 가리킬 수 있는 확립된 이중 용법이 있다면, 이사야 안에서도 비슷하게 “이스라엘”이란 용어가 개인이나 집단을 가리키는 이중 용법이 있다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다.

더구나, 종의 노래들 안에서 종이 그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회개하는 남은 자와 구별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예들이 적어도 네 개는 있다. 사 42:3 에서 종은 빈곤하고 연약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그가 꺾지 아니하는 “상한 갈대”, 그가 꺾지 아니하는 “꺼져가는 등불”)과 구별된다.¹⁵⁶ 비슷한 대조가 사 42:6 과 49:8 에 의해 암시되는데 여기서 종은 그가 “백성을 위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약속받는다. 마지막 예는 사 53:8 에서 발견된다. “. . . 누가 고려해 보았겠는가? 그가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진 것이 바로 내 백성[**יְמִי** 아미]의 범죄 때문에 천벌이 그의 것이 된 결과임.” 문맥상 “[아미] 나의 백성”은—“나의”가 여호와를 가리키든지 아니면 선지자를 가리키든지—하나님의 용서받고 회복된 백성을 언급하는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끊어졌던” 그가 “나의 백성”과 동일한 지시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종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하는 것은 배제된다.¹⁵⁷

종의 노래들에서 종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반대는 사 53:1 이하에서처럼 이사야 전반에 걸쳐서 일인칭 복수 대명사(“우리가,” “우리의,” “우리를,” 등)가 갑자기(곧 사 2:3; 3:6; 4:1 등에서처럼 화자들에 대한 분명한 정체를 밝히지 않고) 소개될 때마다 그것은 항상 그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말하는 선지자를 가리킨다(사 1:9f.; 16:6; 24:26; 33:2, 20; 42:24; 59:9-12; 63:15-19; 64:3-11 등)는 관찰에서 볼 수 있다.¹⁵⁸ 따라서 사 53:1 이하에서 일인칭 복수 대명사(“우리가” 혹은 “우리를”)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는 선지자를 가리킨다면, 이 동일한 구절들의 삼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그가” 혹은 “그를”)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급일 수 없다.

이 관찰과 일치하는 다른 고려 사항들도 사 53:6(“**우리 모두**는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다.”)에 나오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in Second Isaiah,” 79-89.), “이스라엘”은 *Kenn* 96을 제외한 모든 히브리어 맛소라 본문들, 사해 사본 1QIsa^a and 1QIsa^b, (ισραελ 이스라엘 대신 ιαχωβ 야곱으로 읽는 LXX^{Q.534}을 제외한) 칠십인역, 타르굠크역, 별게이트역, 페시타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더 어려운 독법이 원본이라는 원리에 의해서도 선호된다.

¹⁵⁶ 참고: 사 40:28-31; 51:4; 61:3. 이에 대한 대안으로 멜루긴(R. F. Melugin, *The Formation of Isaiah 40-55* [BZAW 141; Berlin and New York: de Gruyter, 1976] 99.)은 사 42:3이 사 19:6; 36:6; 43:17에 비추어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멜루긴에 의하면 사 42:3은 종의 타협하지 않는 충성을 강조한다. 곧 그는 “상한 갈대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을 꺾어버릴 것이고, 꺼져가는 심지에 의존하지 않고 꺼버릴 것이다.”

¹⁵⁷ 맛소라 본문을 수정하여 사해 사본 1QIsa^a처럼 “나의 백성[**יְמִי** 아미]” 대신 “**יְמִי** 그의 백성[아모]”으로 읽는 것을 선택하든 안 하든 이 결론은 그대로 유지된다.

¹⁵⁸ 참고, F. Delitzsch, *Isaiah*, 2 vols. (Edinburgh: T. & T. Clark, 1873 [reprinted in one volume, Grand Rapids, MI: Eerdmans, 1982]) II: 310.

언급으로 해석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스라엘 백성과 길을 잃은 양을 비교하는 잘 알려진 병행구절들(시 95:7-10; 119:176; 렘 50:6.15)이 있다.¹⁵⁹ 이사야서 안의 여러 곳에서 선지자는 그 자신의 많은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총체적인 죄를 둘 다 인정한다(참고, 사 6:5; 59:11-13; 64:5-9). 따라서 선지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래서 일인칭 복수로 언급하며 포괄성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 모두[אנחנו] 쿨라누”)로 절의 처음과 끝에 두 번 나오는) 사 53:6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사 53:6의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급이 될 수가 없다.¹⁶⁰

요약하면, 집합적 이스라엘을 종으로 언급하는 본문에 의해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종은 죄가 없지만 백성의 범죄 때문에 자원하여 고난을 받고(사 53:4-12),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가져오고 야곱/이스라엘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될 수 없다. 종의 노래들에서 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과 “종”이란 지칭을 공유하고 심지어 한 구절 곧 사 49:3에서 “이스라엘”이란 지칭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선지자는 이 종이 원래 이스라엘이 부름받은 역할을 신실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하는 모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¹⁶¹

2.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종은 개인으로서 역사적인 인물, 미래의 인물, 혹은 이상적인 인물을 가리킨다(The Servant in the Servant Songs of Isaiah as an Historical, Future, or Ideal Individual)

A. 선지자적인 종: 종은 제이 이사야 자신이었다(A Prophetic Servant: The Servant was Deutero-Isaiah himself.)

종이 오로지 집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될 수만은 없다면, 종은 어떤 개인 곧 저자의 선배나 동료 혹은 선지자 자신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¹⁶² 이것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생각이었다. “내가 묻노니

¹⁵⁹ 다른 본문들(민 27:17; 왕상 22:17; 대하 18:16; 슥 10:2)은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으로 비유한다.

¹⁶⁰ 종을 집합적(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하는 추가적인 논증들을 위해 J. Fischer, *Das Buch Isaias, II Teil* (HSAT; Bonn: Peter Hanstein, 1939) 10f을 보고, C.R. North, *The Suffering Servant in Deutero-Isaiah*, 6ff도 참고하라.

¹⁶¹ 자주 인용되는 델리치(F. Delitzsch, *Isaiah*, II: 174f.)의 피라미드(각뿔) 유추를 참고하라. 이 유추에 의하면 “종”이라는 칭호는 이스라엘 전체(피라미드의 밑변)에 대하여 사용되고,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피라미드의 중간 부분)에 대하여도 사용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화신인 오실 구원자(피라미드의 정점)에게도 사용된다.

¹⁶² 네 개의 종의 노래에 나오는 종이 선지자 자신이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여러 학자들이 있다. 그 중에서 특히 J. Begrich (*Studien zu Deuterjesaja*, BWANT 4/25; Stuttgart: Kohlhammer, 1938), R.N. Whybray (*Isaiah 40-66* [NCB; Grand Rapids, MI: Eerdmans and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1975] 71, 171-183), 그리고 K. Elliger (*Deuterjesaja in seinem Verhältnis zu Tritojesaja* [BWANT 63; Stuttgart: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나 자기를 가리킴이나 타인을 가리킴이나(행 8:34 개역개정)?” 그러나 만일 종이 개인으로서 그의 백성의 대표 혹은 모범으로 의도되었다면 간접적으로 그가 백성을 가리키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¹⁶³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 [יְהוֹשֻׁעַ, יְצָי א브디 여사야후]가 삼 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는 사 20:3의 말씀에서 이사야가 “나의 종”으로 분명하게 불리는 사실은 종을 선지자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와 비슷하게 “**그의 종**[יְצָי 아브도]의 말을 세워 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라는 사 44:26의 말씀은 “그의 선지자”란 용어를 이사야나 적어도 한 부류로서의 선지자에 적용한다.¹⁶⁴ 그러나 종이 제이 이사야와 동일시될 수 있는 가장 주목할 만한 증거는 종의 노래들 중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일인칭 대명사 언급들이 있다는 사실이다(예: 사 49:1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 . .”).¹⁶⁵

종에 관한 다른 세부 사항들도 선지자와 동일시하는 것을 지지해 준다. 예를 들면, 세 번째 종의 노래와 네 번째 종의 노래(사 50:6-9; 53:3-12; cf. 42:4; 49:4, 7)에 나오는 거절과 고난의 주제들이 바로 그렇다. 그러한 거절은 사 6:10에서 이사야 자신에 대하여 예언되었고 많은 선지자들의 공통된 경험이었다. 사 53:7의 종의 경우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의 이미지는 렘 11:19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난을 묘사하는데 사용된다. 이와 비슷하게 사 53:4이하에서 종이 백성이 받을 형벌을 짊어지듯이 겔 4:4-6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형벌을 짊어지도록 지시받는다. 더구나 사 53:12에서 “그 자신이 많은

Kohlhammer, 1933]; *idem, Deuterocesaja. 1. Teilband: Jesaja 40,1-45,7* [BKAT XI/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198-221) 등을 참고하라. 물론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들이 있음을 유의하라.

¹⁶³ 이것은 신약 저자들의 논리인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예수님과 교회를 하나를 보기 때문에 종의 노래들의 세부 사항들을 예수님과 교회에 적용함으로써 종의 노래들에 대한 집합적인 해석과 개인적인 해석을 결합한다. 예를 들면, 사 53:9의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라는 말씀은 벰전 2:22에서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반면 계 14:5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사 49:6이 어떻게 행 26:23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행 13:47에서는 바울과 실라에게 적용되는지 주목하라. 이와 비슷하게 롬 8:33 이하에서 바울은 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 취한 사 50:8-9을 교회에 적용한다.

¹⁶⁴ 이사야서 밖에서 종이란 칭호는 여러 선지자들에 대하여 사용된다. 예를 들어 왕상 14:18의 아히야, 왕상 18:36의 엘리야, 왕하 14:25의 요나 등을 참고하라.

¹⁶⁵ 예를 들어 J. Begrich, *Studien zu Deuterocesaja*, 132; A. Bentzen, *King and Messiah (ET of Messias - Moses redivivus - Menschensohn)*, Zürich, 1948; London: Lutterworth, 1955), 67을 참고하라.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고 범죄자들을 떠맡으며 기도한다.”라고 예언된 종의 중보 사역은 선지자임을 암시한다. 중보 사역의 예를 위해 창 20:7; 삼상 12:23; 렘 7:16; 27:18 등을 보라. 사 42:1에서 종이 성령을 받은 것을 강조하는 것은 종을 선지자와 동일시하는 것과 조화된다(참고, 사 61:1; 민 11:25-29; 느 9:30; 슥 7:12 등). 사 42:4에서 그의 사역이 율법을 선언하는 것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참고, 사 8:16). 따라서 종은 사 49:2에서 “그가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셨다...”라고 고백한다. 이 선지자적 모습은 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 50:4, 10 개역개정) 4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 . . 10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 접근의 장점들과 종의 묘사에 선지자적인 특징들이 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종을 어떤 선지자와 동일시하는 것과 조화될 수 없는 다른 특징들이 있고, 종을 제이 이사야와 동일시하려는 시도는 설득력이 없다. 두 번째 노래와 세 번째 노래에서 종을 일인칭 대명사로 언급하는 것이 나오는 것은 주목할 만하지만 제이 이사야와 동일시하는 것을 확립하는데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이론은 두 번째 노래와 세 번째 노래 못지 않게 자서전적이라고 칭할 수 있는 첫 번째 노래와 네 번째 노래에서 종을 삼인칭 대명사로 언급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기 때문이다.¹⁶⁶ 더욱이 선지자의 담화 안에서 소개되지 않은 채 일인칭으로 언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나 선지자를 가리킨다는 설명이 언제나 사실인 것만은 아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관행이긴 하지만 사 61:10과 같은 충분한 수의 반대 예들도 있다. “주의[=당신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라는 사 61:10에서 예고 없이 등장하는 화자는 의인화된 시온처럼 보인다. 더 나아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사 53:1-6처럼 이사야서에 일인칭 복수 대명사(“우리가, 우리의, 우리를”)가 갑자기 나올 때마다 그것은 항상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말하는 선지자이다. 따라서 사 53:1-6에 나오는 일인칭 복수 대명사인 “우리가,” “우리의,” “우리를” 등이—사 53:6(역자 주: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쿨라누] “우리 모두”)의 강조적 포괄성이 요구하는 것처럼—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말하는 선지자를 가리킨다면, 이 동일한 구절들에 나오는 삼인칭 단수 대명사인 “그가,” “그를” 등은 선지자에 대한 언급일 수가 없다.¹⁶⁷

¹⁶⁶ 참고, C.R. North, *The Suffering Servant in Deutero-Isaiah*, 196f.

¹⁶⁷ 사 53:6 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선지자가 자신의 죄와 개인적인 무자격을 인정하는 사 6:5; 59:12, 16; 64:6 와 같은 다른 본문들의 지지를 받는다.

더 나아가, 사 42: 1, 3-4 에 나오는 “공의를 베풀고/시행할” 종의 임무는 선지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¹⁶⁸ “보라! 나의 종이 슬기롭게 행할 것이니 높아지고 받들어지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 52:13 에 나오는 종의 승귀와 사 52:15(참고, 49:7)에 나오는 “많은 민족들”과 “왕들”에 대한 종의 영향력에 대한 언급도 제이 이사야의 경험이나 사실상 어느 다른 선지자의 경험과 조화시키기 어렵다. 이 후자의 어려움은 종을 선지자와 동일시하는 입장을 선호하는 많은 해석자들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그 결과로 올린스키와 와이브레이 등은 사 52:13 의 “나의 종”은 이스라엘인 반면 사 53:11[역자 주: 12 는 오류임]의 “나의 종”은 제이 이사야이므로 사 52:13-15 이 이스라엘의 운명의 반전을 약속하는 독립된 신탁이고 사 53:1-12 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⁶⁹ 그러나 이런 제안은 사 52:15b 와 사 53:1a 의 밀접성 그리고 사 52:13-53:12 의 전체가 갖는 인상적인 중앙집중적인 역순대구 구조(A-B-X-B'-A')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다.¹⁷⁰ 특히, “나의 종”(사 52:13 과 53:11)이란 용어가 수미쌍관법을 이루고, 종의 승귀라는 주제가 두 개의 A 단락 곧 사 52:13-15 와 사 53:10-12 의 수미쌍관법을 이루고 있다. 이 A 단락들은 “나의,” “내가,” “많은” 등의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구별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두 개의 B 단락 곧 사 53:1-3 과 사 53:7-9 은 종의 거부를 강조하고, 중앙 단락 곧 사 53:4-6 은 종의 고난의 의미를

¹⁶⁸ 와이브레이(R.N. Whybray, *Isaiah 40-66*, 72f.)는 사 42:1, 3의 “공의를 가져온다/베풀다[טִפְּחֵנִי אֲצִיִּי יוֹצֵי מִשְׁפָּטִים]”와 사 42:4의 “공의를 수립하다/시행하다[טִפְּחֵנִי אֲצִיִּי אֲצִיִּי מִשְׁפָּטִים]”란 어구들이 단지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공포하고/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그의 주장을 확립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אצִיִּי 야차]의 히프일어간, to bring forth justice, 공의를 가져오다/베풀다”라는 어구는 다른 곳에서 발견되지 않을지라도 이 전통적인 번역은 [אצִיִּי 야차]의 칼/파알 어간이 [טִפְּחֵנִי 미시파트]와 함께 나오는 사 51:4; 합 1:4, 7; 시 17:2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공의를 수립하다/시행하다[טִפְּחֵנִי אֲצִיִּי אֲצִיִּי מִשְׁפָּטִים]”라는 표현은 출 15:25(“법도와 율례를 정하시오”); 수 24:25(“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삼상 30:25(“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사 28:17(“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에도 나오는데 이 중 그 어느 것도 와이브레이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다.

¹⁶⁹ H. M. Orlinsky, “The So-Called “Servant of the Lord” and “Suffering Servant” in Second Isaiah,” 17-23; R. N. Whybray, *Isaiah 40-66*, 169f.

¹⁷⁰ 각각 3 절로 이루어진 다섯 단락을 포함하는 네 번째 노래의 중앙집중적 구조를 인정하는 문헌으로 F.D. Kidner, “Isaiah,” in *The New Bible Commentary Revised*, D. Guthrie and J.A. Motyer, eds. (Grand Rapids, MI: Eerdmans, 1970) 588-625, 특히 618 와 G.W. Grogan, “Isaiah,” in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6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6) 1-354, 특히 300 와 J. D. W. Watts, *Isaiah 34-66* (WBC 25; Waco, TX: Word Books, 1987) 229 등을 참고하라.

강조하고 “우리가,” “우리의” 등을 사용한다.¹⁷¹ 그러므로 사 52:13 에 묘사된 승귀가 그 본문에 나오는 종을 선지자로 동일시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역자의 번역]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그 많은 사람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는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 53:12 의 병행되는 승귀도 그보다 덜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¹⁷²

마지막으로, 맥켄지가 관찰한 대로,¹⁷³ 사 40-66장의 문맥을 보면 종을 선지자와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종의 노래들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개인으로서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기대되는 일이 전혀 아니다. 그의 방대한 작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의 메시지 뒤에 매우 철저히 자신을 숨기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사야서는 가장 작은 분량의 전기를 갖는 선지서에 속한다.

B. 왕적인 종(전통적인 메시아 견해 포함)(A Royal Servant [including the traditional Messianic View])¹⁷⁴

종의 인물 묘사에서 선지자적인 요소들을 지지하는 인상적인 증거들의 목록을 손상시키지 않고, 다른 학자들은 종의 사역에서 다양한 왕적인 측면들을 인정하는데 똑같이 설득력이 있는 논증을 제시하였다. “종[עֶבֶד 에베드]”이란 칭호는 이사야서와 다른 책들에서 왕적인 인물들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나 여호와와 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דָּוִד דָּוִד 다비드 아브디]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는 사 37:35에서 다윗은 “내 종”으로 불린다. 또한 시 18:1; 36:1에서 다윗은

¹⁷¹ 사 52:13-15를 네 번째 노래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논거로 이 수미쌍관법을 드는 것을 보기 위해 C. Stuhlmueller, “Deutero-Isaiah and Trito-Isaiah,” in *The New Jerome Biblical Commentary*, R.E. Brown *et al.*, ed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90) 329-348, 특히 342을 참고하라.

¹⁷² 사 49:7 을 참조하라. 그리고 종이 미래의 인물 외에 다른 인물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H.H. Rowley를 참고하라. 로울리는 “선지자가 그 자신이 친히 이 사명을 성취하도록 운명지어졌다는 확신을 가졌지만 그것을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노래들을 공허한 이기주의로 돌리는 것이다(*The Servant of the Lord and other Essays on the Old Testament*, 52f.)”라고 말한다.

¹⁷³ *Second Isaiah* (AB; Garden City, NY: Doubleday, 1968), xlvi. Cf. G.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II: 238.

¹⁷⁴ 특별히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의 종의 왕적인 성격을 위해, W.A.M. Beuken, “*Mišpaṭ* : The First Servant Song and Its Canonical Context,” *VT* 22 (1972) 1-30, esp. 2-4; R.J. Clifford, “Isaiah 40-66,” in *Harper’s Bible Commentary*, J.L. Mays, ed.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8) 571-596, 특히 575. 등을 참고하라. 카이저(O. Kaiser, *Der königliche Knecht: eine traditionsgeschichtlich-exegetische Studie über die Ebed-Jahwe-Lieder bei Deuterijosaja* [FRLANT, N.F. 52;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59] 18-31)는 첫 세 노래들에서 종 안에 있는 왕적인(다윗적인) 특성들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카이저는 이 종이 왕직을 물려받은 이스라엘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여호와와 종”으로 불리고, 수많은 구절들에서¹⁷⁵ 다윗은 여호와를 가리키는 접미대명사가 붙은 종(곧 예를 들어 “나의 종,” “당신님의 종,” “그분의 종”)이라고 불린다. 마찬가지로, 사 42:1에서 종에 대한 “나의 택한 사람[בְּחִירִי 브히리]”이란 칭호 또한 왕적인 존재를 암시한다. 왜냐하면 이 용어가 시 89:4 [한글 3]에서 다윗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종에게 주셨다는 사 42:1의 진술이 왕적인 존재와 조화되기는 하지만(참조, 사 11:1-3) 그것은 반드시 왕적 존재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영을 주신 것의 의도된 결과는 왕적인 존재를 지지한다. 곧 종은 사 42:1, 3에서처럼 “공의를 가져올/베풀” 것이고 사 42:4(참조, 사 51:4)에서처럼 “땅에 공의를 세울” 것이다.

또한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 땅의 왕들이 종에게 드리는 반응을 묘사하는 본문(52:14-15)과 종의 승리와 승귀를 약속하는 본문(52:13; 53:12)도 종의 왕적인 정체를 지지한다. 사 49:7에서 왕들과 고관들이 종을 보고 “일어서고” 그에게 “경배함”으로써 존경을 표하며 인정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사 53:2에서 한 쌍의 연한 순[요네크]과 뿌리[쇼레시]의 은유도 함의는 덜 분명하더라도 왕적 인물을 암시할 수 있다. 이 함의를 지지하는 것은 (비록 어휘가 사 53:2와 다르긴 하지만) 사 11:10에 나오는 “이새의 뿌리[쇼레시 이사이 יֵשׁוּעַ שֹׁרֵשׁ]”에 대한 언급이다. 그리고 사 11:1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에 대한 “가지[רֹאשׁ נֶחֱמֶר]”나 렘 23: 5; 33:15; 숙 3:8; 6:12에 나오는 “순[נֶחֱמֶץ 체마흐]” 이미지와도 비교하라.¹⁷⁶ [역자 주: 저자는 사 11:1에 히브리어 [네체르]를 언급하지 않고 다른 구절들처럼 [체마흐]가 나오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이것을 정정하여 번역하였다.]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종과 사 44:28-45:13(cf. 41:1-7, 25; 48:14)에 나오는 고레스의 묘사 사이에 두드러지는 병행들이 있다. 이 두 인물은 탄생 전에 예언(사 42:9; 49:1 // 사 44:26ff.)이 주어진 것이 비슷하다. 사 42:1에서 여호와께서 종에게 그의 영을 주셨다고 한 것과 사 45:1에서 고레스를 여호와와 기름 부음[נִשְׁמַח 마샤흐]을 받은 자로 부르는 것은 조화를 이룬다. 이 두 인물은 여호와에 의해 “부름 받고”(사 42:6 // 사 45:4 [אָרָא 카라]), 여호와에 의하여 “선택되었다”(사 49:7 // 사 42:1 בָּחַר 바하르), [역자 주: 저자가 (종을 묘사하는) 42:1을 고레스의 예로 든 것은 오류이다. 따라서 “선택된”이란 어구는 종과 고레스 사이에 병행되는 예로 나오지 않는 것에 유의하라.]. 그리고 여호와와 두 인물의 “손을 [각각] 붙드셨다”(사 42:6 [בְּיָמֵינוּ קָחָהּ בְּיָמֵינוּ] 브야흐제크 브야데하 // 사 45:1 בְּיָמֵינוּ הִחֲזִיקָהּ הֵהֱזִיקָהּ 헤헤자크티 비미노): [בְּיָמֵינוּ/דְּ הִחֲזִיקָהּ 헤헤지크 야드/야민]). 이스라엘은 고레스와 종의 해방 사역의 수혜자이고(사 42:7; 49:5f. // 사 45:4, 13), 하나님께서는 두 인물이 성공하고 영예를 누리도록 해 주실 것이다(사 42:4; 49:4f.; 50:7, 9;

¹⁷⁵ 예를 들어 삼상 23:10; 삼하 3:18; 7:5, 8, 20, 26; 24:10; 왕상 3:6; 8:24, 26, 66; 11:13, 32, 34, 36, 38; 14:8; 왕하 8:19; 19:34; 대상 17:4, 7; 17:7, 18, 24; 21:8; 대하 6:15, 16, 17, 42; 시 78:70; 89:4, 21 [ET 3, 20]; 144:9; 렘 33:21, 22, 26; 겔 34:23, 24; 37:24, 25 등을 참조하라.

¹⁷⁶ 민 1:2 에 대한 Midrash Tanhuma 를 참고하고 G.W. Grogan, “Isaiah,” 16 도 참고하라.

52:12; 53:10, 12 // 사 44:28-45:5). 특별히 사 48:1-5과 50:4-10에서 종의 여호와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사 45:4 이하에서 반복적으로 고레스가 여호와를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이 대조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병행들은 정체의 증거를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분명 왕적 인물이기 때문에 종의 왕적 정체를 지지해 준다.¹⁷⁷ 따라서 여러 학자들은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종을 웃시아, 히스기야, 요시아, 여호야긴, 고레스, 다리오, 스룹바벨 등과 동일시하는 주장을 해왔다.¹⁷⁸

종의 노래들에 대한 전통적인 메시아적 해석은 위에서 논의된 왕적 이미지의 증거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종이 이사야 7, 9, 11장에 언급된 다윗의 약속된 자손이라고 주장한다.¹⁷⁹ 이 본문들을 종의 노래들의 관심사와 연결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 55:3-5이다. 사 55:3은 “영원한 언약[עוֹלָם תְּכַרְבֵּת אֱלֹהִים]”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וְיִשְׁרָאֵל וְיִהוּדָה וְכָל בְּנֵי יִשְׂרָאֵל] 하스데 다비드 하네에마님, ESV: my steadfast, sure love for David; NASB: the faithful mercies shown to David]”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있다. 종의 노래들이 종의 사역의 국제적인 범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사 55:4-5은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고 역설하신 것을 진술하고 있다.¹⁸⁰ 이 약속은 삼하 22:44 이하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생각나게 한다. 사 55:3-5이 다윗과 맺은 여호와의 언약의 내용을 백성 전체로 옮기는 것이라고 때때로 제안될지라도, 이것은 분명하지 않을

¹⁷⁷ 이사야 44-45 장에서 그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고레스는 그 어느 곳에서도 “나의 종” 혹은 여호와와 “종”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이것은 근접 문맥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리는 것과는 다르다. 사실, 고레스의 이름이 사 44:28; 45:1,13 에서 언급된 것은 아마도 그가 다른 곳에서 의도된 그 종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¹⁷⁸ C.R. North, *The Suffering Servant in Deutero-Isaiah*, 39-42, 49, 56, 89을 참고하라. 와츠(John D.W. Watts, *Isaiah 34-66* [WBC; Waco, TX: Word Books, Publisher, 1987])는 여기 제안된 여러 왕들과 종을 결합시킨다. 와츠의 견해에 따르면 사 42:1 이하에 나오는 “종”은 고레스이고, 사 49:5 이하; 52:13; 53:11에 언급된 “종”은 다리오 1세이고, 사 50:4-9에도 나오고 사 52:14; 53:1, 3-10a, 12에서 고난 당하고 죽는 종은 스룹바벨을 가리킨다.

¹⁷⁹ 예를 들어 D.H. Odendaal, *The Eschatological Expectation of Isaiah 40-66 with Special Reference to Israel and the Nations* (Nutley,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0) 129-135; E.J. Young, *The Book of Isaiah, Vol. III: Chapters XL-LXVI*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1972) 110, n. 5; G.W. Grogan, “Isaiah,” 16-20 등을 참고하고, 또한 P. D. Wegner, *An Examination of Kingship and Messianic Expectation in Isaiah 1-35* (MBS; Lewiston, NY: The Edwin Mellen Press, 1992)도 참고하라.

¹⁸⁰ 사 2:2-4; 51:4-5 등도 참조하라.

뿐만 아니라 사 55:3에서 그 언약의 영원성이 강조되고 사 55:4-5에서 단수형들(“그를,” “증인,” “인도자,” “명령자,” “너”)이 사용되는 것에 의해 선호되지 못한다.¹⁸¹

종의 노래들에서의 종의 이미지에 대한 원천으로 다윗을 보는 전통적인 메시아적 해석을 반대하도록 하는 것은 이사야 1-39장에 널리 퍼져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사야 (55장을 제외한) 40-66장 전반에 걸쳐서 다윗의 왕적 이미지가 실제로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¹⁸² 이런 부재는 아마도 역사적 현실 곧 포로기와 후포로기에 이스라엘이 정복당한 상태에서 왕의 프로필을 지닌 약속된 구원자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¹⁸³ 어쨌든, 애굽으로부터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왕정이 수립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초하면(cf. 신 17:14), 이런 새로운 현실에 필요했던 것은 새로운 다윗이 아니라 새로운 모세 혹은 새로운 여호수아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종과 동일시되는 왕적 존재가 역사적이든, 이상적이든, 메시아적이든, 종을 전적으로 왕적 존재와 동일시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려움들이 들어있다. 특히, 앞에서 종의 선지자적 역할에 대한 근거 구절로 언급된 것들은 이런 견해를 반박하는데 상당한 무게를 실어준다. 특히 종의 말들의 운유하고 지속적인 효과에 대한 강조가(사 42:4f.; 50:4; cf. 49:2) 그렇다. 만일 종이 왕이라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사 42:2)”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게 보일 것이다. 그것의 빈번한 입증에도 불구하고 “교훈[*ἡγήνη* 토라]”(사 42:4)은 그 밖의 다른 곳에서 왕들에게 돌려진 적이 없다. 마찬가지로, 종의 다양한 사역, 구체적으로 말해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42:7),” “(이것이 사 52:15[역자 주: 저자가 52:13이라고 잘못 표시한 것을 바로잡음]의 바른 번역이라면) 민족들에게 피를 뿌리고[*ἡ!* 야제],” 곧 사 53:10 등에서 고난 당하고 자신을 “속건제[*ῥύξ* 아삼]”로 드리는 사역에는 왕권에 대한 명백한 암시가 전혀 없다. 시므이 등으로부터 다윗이 받은 모욕이 사 50:6에서 종이 때리는 자들에게 기꺼이 등을 맡기는 것과 병행을 이를 가능성을 줄 지 모르지만, 그러한 행위는 왕권의 특징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사 49:7에서 종을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베드 모실림]”로 묘사한 것은 앞으로 올 다윗의 어느 후손에게도 이상하게 보인다.

C. 제사장적인 종 (A Priestly Servant)

다른 견해를 피력하는 어떤 학자들은 종의 사역의 다양한 제사장적 측면들을 더 크게 정당화하려고 애쓰며 종이 제사장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나 역시 제사장겸 선지자였던 에스겔이나 에스라나 오니아스나 어떤

¹⁸¹ 예를 들어 F.D. Kidner, “Isaiah,” 619 를 참고하라.

¹⁸² W.J. Dumbrell, *Covenant and Creation*, 190 을 참고하라.

¹⁸³ 이사야서의 다른 곳에서 여호와와의 왕권에 대한 강조로 인해(사 6:5; 24:23; 33:22; 41:21; 43:15; 44:6; 52:7; 66:1 등) 궁극적인 왕적 존재로서 종의 이미지를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서 안에 들어 있는 R. Schultz, “The King in the Book of Isaiah”를 참고하라.

다른 당대의 제사장이라고 주장한다.¹⁸⁴ 제이 성전기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고양된 종교적이고 시민적인 지도자 역할은 이런 접근에 매력을 더해 준다. 사 42:1; 49:3 의 “나의 종 [עַבְדִּי אֲבִרְדִּי]”이란 칭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내 종 싹 [עַבְדִּי אֲבִרְדִּי] 아브디 체마흐”을 예표한다고 하는 속 3:8 에 비추어 보면 제사장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 42:1; 49:7 에서 종이 여호와에 의해 “택함 받은[רַחֵם]” 것처럼 시 105:26(cf. 신 18:5)에서 아론은 여호와에 의해 택함 받았다(רַחֵם).

종을 제사장적 존재로 볼 수 있는 다른 암시들에는 섬들이 양망하는 종의 “교훈[תּוֹרָה 토라] (사 42:4; cf. 말 2:6-9),” 종이 세울 “정의[צְדָקָה 미시파트] (사 42:1, 3f.; cf. 신 17:9f.; 왕하 17:27; 대하 19:8),” “속건제(사 53:10),” 민족들에게 “뿌리는[נָחַץ] [야제 <나자] 사 52:15; cf. 출 29:21; 레 4:6, 17; 5:9; 14:7, 16, 27, 51; 16:14, 15, 19; 민 19:4, 18, 19)” 사역,¹⁸⁵ 중보사역(사 53:12; cf. 시 106:30; 렘 7:16) 등이 포함된다. 제사장들이 백성의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 때 그 희생 제물이 백성의 죄를 여호와 앞에 속죄하기 위한 것임을 되돌아보는 것(참조, 레 10:17; 스가랴 3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 53:4-6에서 이스라엘의 죄책이 종에게 떠맡겨지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특별한 주목을 받을 만하다.¹⁸⁶ 특히, 사 53:4이하에서 종이 백성의 형벌을 짊어진 것은 겔 4:4-6에서 선지자겸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의 경험을 반영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고, 사 53:10-12에서 종의 죽음이 속죄를 가져오는 것은 민 35:25, 28, 32와 수 20:6에서 대제사장의 죽음이 가져오는 상징적 속죄를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상 이 모든 제안들이 동일하게 설득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종을 전적으로 제사장적 존재와 동일시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이런 특징들의 일부 곧 “나의 종”, “택한 자”라는 칭호 등은 그것들의 함의에 있어서 모호하다. 다른 특징들 곧 종의 거절당함과 고난(사 42:4; 49:4, 7; 50:6-9; 53:3-12) 혹은 종의 승귀(사 49:7; 52:13-15; 53:12)와 같은 반복되는 주제들은 즉시로 제사장적 존재를 제안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종의 노래들에는 제사장적 존재가 아니라 보다 더 자연스럽게 선지자적 존재 혹은 왕적 존재로 보게 하는 다른 특징들이 너무 많다.

¹⁸⁴ 예를 들어 C.R. North, *The Suffering Servant in Deutero-Isaiah*, 20f., 39, 41, 56f.나 M. Treves, “Isaiah LIII,” *VT* 24 (1974) 98-108을 참고하라.

¹⁸⁵ 다른 곳에서 “뿌리는 것[נָחַץ] [나자]”은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사역이다(예: 출 29:21; 레 4:6, 17; 5:9; 14:7, 16, 27, 51; 16:14, 15, 19; 민 19:4, 18, 19).

¹⁸⁶ 특별히 N. Kiuchi, *The Purification Offering in the Priestly Literature* (JSOTS 56; Sheffield, England: JSOT Press, 1987)을 참고하라.

III. 제이 모세로서의 종(The Servant as a Second Moses)

이러한 상반되는 결과들에 직면하여 사람들은 원래의 문맥의 관점에서 종의 정체성을 밝히려는 어떠한 해결책에도 실패할 수 있다. 사실상 그의 묘사하는 복합적인 그림을 위해 이사야 선지자가 매우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끌어냈기 때문에 종의 정체성을 밝히려는 어떤 시도도 필연적으로 지나친 단순화 경향을 떨 수밖에 없다.¹⁸⁷ 그러나 그러한 이미지의 풍부함을 줄이지 않고, 종의 정체성의 근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적이고 왕적이고 제사장적인 특징들의 융합을 정당화시켜 주는 가장 유력한 이미지가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여기서 제안되는 것은 이 가장 유력하고 융합하는 이미지가 제이 모세의 이미지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종은 신 18:14-22 그리고 34:10-12에 약속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이다.

이 해석은 마땅히 알려져야 할대로 잘 알려진 것은 아닐지라도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 견해의 가장 이른 피력 혹은 적어도 그것의 변형은 탈무드 소논문 *b. Soṭah* 14a에서 볼 수 있다.¹⁸⁸ 랍비 심라이는 사 53:12을 인용하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출 32:32에서 언급된 대로 자신의 생명을 제공하며 그 백성의 죄를 보상하려고 할 때 어떻게 그가 “자신을 쏟아부어 죽음에 이르렀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는지”를 설명했다. 심라이는 모세가 광야 세대의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죽도록 정죄받았기 때문에 “범죄자들과 함께 해아림을 받았고,” 모세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자비를 구했기 때문에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심라이가 이사야가 직접 모세를 가리키고 있었다고 생각했든지 아니면 근거에 있는 모세의 모형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을 모세에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했든지, 이 본문은 종의 노래들 안에 들어 있는 모세의 암시에 대한 이른(주후 3세기, 아모라임 학파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탈무드의 영향일 것이지만, 다른 유대인 해석자들도 (그들이 전형적으로 그리고 약간 일관성이 없이 다른 곳에서 종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했을지라도) 사 53:12에 있는 (그리고 아마도 사 53:9-12에 있을) 모세에 대한 암시를 인정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주후 12세기의 김히(David Kimchi, 주후 13세기의 알쿠트(Yalqut) 2:338, 주후 13세기의 조하르, [키 테체] 부분(the Zohar, Section אַרְבָּעָה עָשָׂר), 주후

¹⁸⁷ 클라인즈(D.J.A. Clines, *I, He, We, and They. A Literary Approach to Isaiah 53*, 25-27, 33)는 사 52:13-53:12 의 시로서의 힘은 종의 정체와 관련하여 그것의 불명확, 은닉, 다의성에 있을 것이라고 제의했다. 다른 학자들도 비슷한 견해들을 피력했다. 그들은 종의 노래들이 미래의 성취를 가리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호하다고 결론내린다. 예를 들어 H.W. Wolff, “Wer ist der Gottesknecht in Jesaja 53?” *Evangelische Theologie* 22 (1962) 338-342 을 참고하라.

¹⁸⁸ 11QMelch 18-25 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밝히는 사 52:7 에 나오는 사자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연결하는 것은 있을 법하다. N.A. Dahl, “Messianic Ideas and the Crucifixion of Jesus,” in *The Messiah. Developments in Earliest Judaism and Christianity*, J.H. Charlesworth, ed. (Minneapolis, MN: Fortress, 1992) 382-403, 특히 386 을 참고하라.

16세기의 모세 엘-샤이흐(Moses el-Shaikh), 그리고 주후 16세기의 실로모 레비(Sh"lomoh Levi) 등의 견해이다.¹⁸⁹

종의 노래들 안에서 모세의 암시들이 있음을 인정하는 가장 최근의 학자들의 대부분은 이런 암시들이 이른 시기의 학자들에 의해 평가되었던 것보다 더 폭넓은 것으로 생각하고 역사적인 모세보다는 당대의 혹은 기다려지는 제이 모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¹⁹⁰ 그러나 세 가지 요인들이 이러한 진전들을 망가뜨렸다. 첫째로, 어떤 영향력 있는 학자들 사이에 종의 노래들에서 단지 산발적인 모세의 암시들만을 인식하고, 이런 인식을 위에서 논의한 보다 더 관습적인 견해들의 하나와 결합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면, 맥켄지(J.L. McKenzie)는 종이 "또 하나의 모세"로 나타나는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만 모세의 암시들을 인정한다.¹⁹¹ 맥켄지는 제이 이사야서의 편집자가 종이 제이 이사야 자신이라고 믿었다고 제안했다.¹⁹² 그러나 맥켄지는 노래들이 원래 현재의 문맥과 연관이 없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종은 후포로기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하는 모습의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복합적인 이상적인 인물로 더 잘 이해된다고 주장한다.¹⁹³ 클리포드(R. Clifford)의 해석은 종이 후포로기 이스라엘을

¹⁸⁹ 이 자료들을 위해 S.R. Driver and A. Neubauer, *The Fifty-Third Chapter of Isaiah According to the Jewish Interpreters*, 2 vols. (reprint. New York: Ktav, 1969) II: 10, 15f., 56, 261, 270-274, 287-289 을 참고하라.

¹⁹⁰ 종의 노래들 안에서 모세를 암시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종을 제이 모세로 보는 것을 지지하는 최근의 학자들 중에는 G.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2 vols., tr. by D.M.G. Stalker (ET of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Munich, 1957-1960; Edinburgh: Oliver & Boyd and New York: Harper & Row, 1962-1965) II: 261f.; C. Chavasse, "The Suffering Servant and Moses," *Church Quarterly Review* 165 (1964) 152-163; H. Blocher, *Songs of the Servant* (London: Inter-Varsity Press, 1975); D. Michel, "Deuterojesaja," *TRE* 8 (1981) 510-530, at 521ff.; H. Schmid, *Die Gestalt des Mose: Probleme alttestamentlicher Forsch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r Pentateuchkrise*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6) 64f.; P.D. Miller, "Moses My Servant. The Deuteronomic Portrait of Moses," *Interpretation* 41 (1987) 245-255, at 251-253; G.W. Coats, *The Moses Tradition* (JSOTS 16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133f.; 136f.; 141; 182-189; D.C. Allison, Jr., *The New Moses. A Matthean Typ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68; and S. Hafemann, *Paul, Moses, and the History of Israel* (WUNT; Tübingen: J.C.B. Mohr [Paul Siebeck], 1995) 등이 있다.

¹⁹¹ J.L. McKenzie, *Second Isaiah* [AB 20; Garden City, NY: Doubleday, 1968] 38, xlv, xvii, liii. 리델보스(J. Ridderbos, *Isaiah* [Bible Student's Commentary; ET of *Jesaja*, KVHS; Kampen, 1950-51;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4] 374.)는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종이 선지자와 율법 수여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노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¹⁹² *Second Isaiah*, xli, xlii.

¹⁹³ *Ibid.*, lv.

나타내거나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 맥켄지의 해석과 비슷하다.¹⁹⁴ 맥켄지와 대조적으로, 클리포드는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만 모세의 암시들을 발견한다. 모빙켈(S.O.P. Mowinckel)같은 다른 학자들은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만 모세의 암시들이 있음을 강조한다.¹⁹⁵

잠재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릴 이 통찰을 무시하는데 기여한 두 번째 요인은 노래들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모세의 암시들과 후에 버리긴 했지만 버리기 전에 프로이드(Sigmund Freud)에게 확신을 주었던 젤린(E. Sellin)의 좀 믿기 어려운 견해와 혼동하는 경향이었다.¹⁹⁶ 그 후에 프로이드는 그의 책 **모세와 유일신론(Moses and Monotheism)**을 통해 이 견해를 대중화했다. 젤린의 견해로는 모세가 바알 브올의 사건 후에 그의 자신의 백성에 의해 살인을 당했는데 재앙을 멈추게 한 것은 바로 민수기 25장의 무명의 시므리의 죽음이 아니라 모세의 죽음이었다. 젤린은 “여호와의 종,” “나의 종,” “그의 종” 등과 같은 칭호가 현저하게 모세에게 적용되고 모세가 사 63:11에서 그렇게(“그의 종”으로) 불린다고 설명한다.

[역자 주: 사 63:11에서 페시타역과 소수 사본에서 모세와 동격으로 ‘그의 종[아브도]’이 나온다. 그러나 맛소라 본문은 모세 다음에 접속사 없이 ‘그의 백성[아모]’이 나온다. 다음 번역을 비교해 보라.

KJV: Then he remembered the days of old, **Moses, and his people**

ESV: Then he remembered the days of old, of **Moses and his people**

NASB: Then **His people** remembered the days of old, of **Moses**

=개역개정: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ISV: Then they remembered the days of old, **of Moses his servant.**

=_새번역: 그들은, 지난날 곧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종의 경우처럼 민 12:3은 모세의 탁월한 온유함을 강조한다. 젤린이 제안한 대로 출 15:25이하가 모세가 무서운 애굽의 병을 앓은 것을 암시한다면, 여기에 사 53:2 이하에 나오는 묘사에 대한 배경이 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무덤이 광야에 숨겨진 것처럼, 종의 무덤이 사 53:9에 따르면 광야의 “수염소 귀신들”과 함께 있었다(젤린은 자기 마음대로 עֲשִׂיר [아시르 “부자”])를 [יםִיִּשְׁרָאֵל] 스이림 “염소

¹⁹⁴ “Isaiah 40-66” 572, 580f.

¹⁹⁵ 모빙켈(*He That Cometh*, 232)은 제이 이사야 이후의 어느 때에 살았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와 종을 동일시할지라도 그 시인겸 선지자가 종의 묘사에 있어서 모세의 증보기도와 여호와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를 한 것에 대한 전승들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한 방식은 모세가 “모든 선지자들을 위한 패턴”이었다는 확신을 반영한다

¹⁹⁶ E. Sellin, *Mose und seine Bedeutung für die israelitisch-jüdische Religionsgeschichte* (Leipzig: A. Deichert, 1922); *idem*,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ET of 3rd German ed.; London and New York: Hodder and Stoughton, 1923) 143f.; *idem*, *Geschichte des israelitisch-jüdischen Volkes*, I (Leipzig: Quelle & Meyer, 1924) 76ff., II (1932) 67f.; S. Freud, *Moses and Monotheism*, tr. by K. Jones (reprinted New York: Random House, 1967 [1939]). Cf. C.R. North, *The Suffering Servant in Deutero-Isaiah*, 53-55.

귀신들” <רִשְׁפֵּי>로 정정하고 있다.). 노르트(C. R. North)는 젤린의 견해가 설득력이 없는 이유를 요약하여 말하길 “이러한 유추들의 어떤 것도, 아니 그 모든 유추들을 합쳐도, 정체 확인의 증거가 되지 못하고, 그것들 중 많은 것은 동일하게 예레미야나 욥에게도 잘 적용될 것이다.”라고 했다.¹⁹⁷

현대의 학자들로 종이 제이 모세일 가능성을 간과하게 한 세 번째 요인은 뉘(B.Duhm)이래로 종의 노래들을 근접 문맥으로부터 떼내어 생각하는 관행이다.¹⁹⁸ 보다 더 최근의 학자들의 연구들, 특히 메팅거의 작품은 이 이른 대다수의 의견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¹⁹⁹ 종의 노래들이 사실상 그것들의 문맥에 불가결한 것이라고 시인된다면, 종을 모세와 동일시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그 무시된 문맥일 것이다.²⁰⁰

1. 제이 출애굽(Second Exodus)

이사야 40-55장이 그것의 복잡성과 다면적 이미지에 있어서 몹시 풍부할지라도, 이 장들의 지배적이고 지속적인 주제가 제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²⁰¹ 이미 이사야 1-39장(예: 4:2-6; 10:24-26;

¹⁹⁷ C.R. North, *The Suffering Servant in Deutero-Isaiah*, 55.

¹⁹⁸ B. Duhm, *Die Theologie der Propheten* [Bonn: A. Marcus, 1875]; *idem*, *Das Buch Jesaja* (1892). 학자들의 습관의 힘으로 인해 종의 노래들의 정경적 문맥을 축소하는 경향은 그것들의 독립된 저작을 주장하는 뉘의 견해를 부인하는 해석자들 중에서도 관찰된다. 예를 들어 R.N. Whybray, *Isaiah 40-66*, 70f를 보라.

¹⁹⁹ T.N.D. Mettinger, *A Farewell to the Servant Songs: A Critical Examination of an Exegetical Axiom* (Lund: Gleerup, 1983). 종의 노래들과 그것들의 문맥의 밀착성을 강조하는 다른 학자들은 J. Muilenburg, “The Book of Isaiah, Ch. 40-66,” *Interpreter’s Bible*, 5 (New York: Abingdon Press, 1956) 381-773; W.A.M. Beuken, “*Mis}pa\>: The First Servant Song and Its Canonical Context*,” *VT* 22 (1972) 1-30; R.F. Melugin, *The Formation of Isaiah 40-55* (1976); J. Scullion, *Isaiah 40-66* (OTM 12; Wilmington, Delaware: Michael Glazier, 1982); J.L. McKenzie, *Second Isaiah* (1968); R.J. Clifford, *Fair Spoken and Persuading* (NY 1984); *idem*, “Isaiah 40-66” (1988) 571-596; H.G.M. Williamson, “First and Last in Isaiah,” in *Of Prophets’ Visions and the Wisdom of Sages. Essays in Honour of R. Norman Whybray on his Seventieth Birthday*, H.A. McKay and D.J.A. Clines, eds. (JSOTS 16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95-108 등이다.

²⁰⁰ 종이 제이 모세라는 가설을 무시하는 관행의 네 번째 요인도 주목할 만하다. 노르트는 그의 고전적인 책 *The Suffering Servant in Deutero-Isaiah*의 널리 인용되는 서문에서 제이 모세 가설을 간과한다. 그는 그 서문에서 1948년까지의 종의 정체에 대한 학자들의 접근들의 거의 완전한 조사를 요약한다. 많은 후속 작품들도 이러한 생각을 반복한다. 예를 들어 노르트의 작품을 갱신한 작품 곧 종의 정체에 대한 주요 접근들에 관한 클라인즈의 그 밖의 점에서는 유익한 조사(*I, He, We, & They*, 25-27)를 참고하라.

²⁰¹ Cf., e.g., G.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II: 239ff.; B.W. Anderson, “Exodus Typology in Second Isaiah,” *Israel’s Prophetic Heritage*, B.W. Anderson and W. Harrelson, eds. (New York: Harper and Bros., 1962) 177-95; *idem*, “Exodus and Covenant in Second Isaiah and Prophetic Tradition,” in *Magnalia Dei*:

11:11, 15-16; 35:5-10)에 나오는 제이 출애굽 주제의 중요성이나 이사야 56-66장(예: 58:8; 60:2, 19; 63)에서 그것의 지속적인 사용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제이 출애굽 주제는 이사야 40-55장에 거의 어디서나 나오고 이 장들의 수미쌍관법(40:1-11; 55:12-13)을 이루고 있다.²⁰² 종의 노래들을 위한 근접 문맥을 제공하는 사 40-55장에 관하여, 앤더슨은 제이 출애굽 이미지를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본문으로 최소한 10개(곧, 사 40:3-5; 41:17-20; 42:14-16; 43:1-3, 14-21; 48:20-21; 49:8-12; 51:9-10; 52:11-12; 55:12-13)를 지적했다.²⁰³ 사 42:13; 44:27; 54:3, 13 등을 포함한 다른 가능한 예들도 있다. 선지자가 제이 출애굽의 약속을 원래의 출애굽의 실재(사 51:9f 등 참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출애굽에 대한 언급들(사 41:4, 9; 44:2, 7f.; 46:3f.; 48:8; 52:4)도 적절하게 여기에 추가될 수 있다.

이 인상적인 목록에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것은 구속, 재창조, 신현,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의 순례/하나님의 승리의 행진 등과 같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언급들이다. 이 주제들은 각기 관련이 없거나 서로 경쟁하는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최근의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이 네 가지 주제들 모두가 제이 출애굽 주제의 자세한 설명으로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²⁰⁴ 그러므로 예를 들어, 사 43:1-2은 창조와 구속의 언어가 제이 출애굽의 이미지의 맥락에서 나오는 분명한 예를 제공한다.

The Mighty Acts of God; F.M. Cross et al., eds. (Garden City, NY: Doubleday, 1976) 339-360; J. Blenkinsopp, "Scope and Depth of the Exodus Tradition in Deutero-Isaiah, 40-55," *Concilium* 20 (1966) 41-50; C. Stuhlmüller, *Creative Redemption in Deutero-Isaiah* (An.Bib. 43; Rome: Biblical Institute, 1970) chapter 4; D. Baltzer, *Ezechiel und Deuterjesaja* (BZAW 121; Berlin: de Gruyter, 1971) 1-26; J.D.W. Watts, "Excursus: Exodus Typology," in *Isaiah 34-66* (1987) 80f.; H.M. Barstad, *A Way in the Wilderness. The "Second Exodus" in the Message of Second Isaiah* (JSSM 12; Manchester: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1989).

²⁰² 앤더슨(B.W. Anderson, "Exodus and Covenant in Second Isaiah and Prophetic Tradition," 359, n. 26)처럼 사 1-39장 안에 있는 제이 출애굽의 암시들을 끼어든 것으로 취급하여 버릴 필요가 없다. 구속의 모델로서 출애굽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이사야 40장 이하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호 2:16f. [한글 14f.]; 미 7:14f.; 렘 16:14f.; 23:7f.; 겔 20장 등을 참조하라.

²⁰³ "Exodus and Covenant in Second Isaiah and Prophetic Tradition," 339-360.

²⁰⁴ 이사야의 구속의 이미지 사용과 그것의 제이 출애굽과의 밀접성을 위해 F. Holmgren, *The Concept of Yahweh as Gô'el in Second Isaiah* (Diss. Union Theological Seminary, New York: University Microfilms, 1963); *idem*, *With Wings As Eagles: Isaiah 40-55, An Interpretation* (Chappaqua, NY: Biblical Scholars Press, 1973) 71-96; W.C. Kaiser, Jr., *Toward an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MI: Zondervan, 1978) 214; and J.D.W. Watts, "Excursus: lag "Redeem"," in *Isaiah 34-66* (1987) 106f 등을 보라.

이사야의 창조의 이미지 사용과 그것의 제이 출애굽과의 밀접성을 위해 G.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II: 241; C. Stuhlmüller, *Creative Redemption in Deutero-Isaiah* (1970); J.D.W. Watts, "Excursus: arb "Create"/"Creator"," in *Isaiah 34-66* (1987) 93f.; R.J. Clifford, "Isaiah 40-66," 582 등을 보라.

이사야의 신현의 이미지 사용과 그것의 제이 출애굽과의 밀접성을 위해 D.A. Patrick, "Epiphanic Imagery in Second Isaiah's Portrayal of a New Exodus," in *Hebrew Annual Review Volume 8, 1984*:

(사 43:1-2)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 . . (cf. 사 51:9-11)

제이 출애굽에 대하여 창조의 주제들을 사용하는 다른 본문들에는 사 43:1, 15; 55:12f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사 51:9-11과 같은 단락은 제이 출애굽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애로의 순례/승리의 행진에 나오는 원래의 패턴(참조, 사 41:17-20; 42:14-17; 43:1-7; 52:7-12; 56:6-8; 57:14; 60:4-7; 62:10; 66:20-23)을 반영하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선지자가 사용하는 제이 출애굽의 이미지의 매력과 적절성은 투명하다. 하나님은 나라들 가운데 흠어져 있는 그분의 백성을 억압 당하는 것으로부터 구원하시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사 63:11-15에 의하면, 백성은 그들의 유배 생활의 관점에서 새로운 출애굽이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임을 인정했다.

A. 원래의 출애굽의 많은 세부 사항을 제이 출애굽에 적절한 확대 상승과 함께 재적용하는 것(The reapplication, with appropriate escalation, of many of the details of the original exodus to the second exodus)

선지자의 제이 출애굽이란 주제 적용은 하나님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구속, 재창조, 승리의 행진 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원래의 출애굽과 연관된 보조적인 많은 세부 사항들이 적절한 확대 상승과 함께 제이 출애굽에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원래의 출애굽의 결과를 규정하는 여호와와 주권적인 예언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반복적으로 있는 것 같이(창 15:13f.; 50:24; Ex. 3:12, 17; 6:6f. 등), 제이 출애굽에 관한 여호와와 주권적인 예언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동일하게 있다(44:6-8; cf. 41:22f., 26; 42:9; 43:9, 18; 44:25ff.; 45:21; 46:9-11; 48:3-6, 14). 사실상, 사 43:18에 비추어 보면, 오래 전에 예언되었던 “이전 일들[תַּיִשָּׁאָר 리쇼노트]”(사 41:22; 42:9; 43:9; 46:9; 48:3 [cf. 44:7; 65:17])은 현저하게 출애굽의 구속을 가리킨다.²⁰⁵ 따라서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계시되고 있는 “새 일(들)[

Biblical and Other Studies in honor of Sheldon H. Blank, R. Ahroni, ed.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1985) 125-41 등을 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순례/승리의 행진의 이미지 사용과 그것의 제이 출애굽과의 밀접성을 위해 G.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II: 239; R.N. Whybray, *Isaiah 40-66*, 168; E.H. Merrill, “Pilgrimage and Procession: Motifs of Israel’s Return,” in *Israel’s Apostasy and Restoration: Essays in Honor of Roland K. Harrison*, A. Gileadi, ed. (Grand Rapids, MI: Baker, 1988) 261-272등을 보라.

²⁰⁵ Cf. A. Bentzen, “On the Idea of “the Old” and “the New” in Deutero-Isaiah,” *Studia Theologica* 1 (1947) 185; G.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II:247; B.W. Anderson, “Exodus Typology in Second Isaiah,” 187f.

תַּיִשׁוּבָה/ הַשְׁבָּתָה 하다샤/하다쇼트]”(사 42:9; 43:19; 48:6; cf. 41:23)은 새 출애굽에 대한 언급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길에 빛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호와께서 친히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실 것이다(사 42:16; 52:12). 원래의 출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 자신과 언약을 맺도록 의도되었던 것처럼 이 제이 출애굽도 사 61:8(cf. 사 42:6; 49:8; 59:21)에 의하면 “영원한 언약”으로 귀착될 것이다.²⁰⁶ 원래의 출애굽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소명과 뒤따른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직의 수립으로 귀착된 것처럼 이 새 출애굽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되는 새로운 소명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놀랄만한 새로운 선택으로 귀착된다.

(사 66:21) 나는 그[=다시스, 룯, 두발, 야완, 섬/그리스]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더 나아가, 사 48:20-21이 분명하게 밝혀주듯이 여호와께서 원래의 출애굽에서 기적으로 그의 백성에게 물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비슷한 공급이 제이 출애굽에 보증된다.

(사 48:20-21)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 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굽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모두가 동일한 설득력을 갖지는 않을지라도 비슷한 예들은 얼마든지 쉽게 추가될 수 있다.

B. 제이의 바로로서의 고레스(Cyrus as a second Pharaoh)

한 가지 특별히 흥미로운 추가적인 예는 사 44:28-45:13(cf. 41:1-7)에 나오는 고레스에 대한 설명과 관계가 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고레스와 종 사이에는 많은 병행이 있다. 이 두 인물을 동일시하는 것은 거부되었지만, 선지자가 이 병행들을 통해 종을 고레스가 다소 제한된 위상적(位相的 세속적) 수준에서 시작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할 인물로 제시하려고 의도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배적인 제이 출애굽의 관점 곧 근접 문맥(사 44:25, 27; 45:2, 7 등)에서 증거가 매우 많은 제이 출애굽의 관점에서 보면 고레스의 묘사에 바로를 생각나게 해 주는 많은 세부 사항들이 들어있다는 것은 여기서 부연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레스는 새로운 모세로 올 종의 부분적인 예표일 뿐만 아니라 대조 인물로도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²⁰⁷

²⁰⁶ 사 55:3에서 “영원한 언약”에 대한 언급은 시인겸 선지자가 다윗의 이미지와 출애굽의 이미지를 쉽게 병합하는 이미지들의 유동성을 제시한다.

²⁰⁷ 제이 이사야에서 새로운 출애굽이란 주제가 널리 퍼져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그덴(G.S. Ogden, “Moses and Cyrus,” *VT* 28 [1978] 195-203)은 고레스가 “새로운 모세”인가 하고 묻는다. 오그덴이

특별히 출 5:2에서 바로는 이스라엘로 떠나도록 허락해 달라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며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הַיְהוָה אֲתָּה יְדַעְתִּי לֹא לוֹ יָדָאֲתִי אֶת-אֲדֹנָאִי]”라고 말한다. 이 바로의 반응을 반영하긴 하지만 종(사 49:1-5; 50:4-10)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는 고레스에 대하여 두 번(사 45:4, 5; cf. 19:21) “너는 나(= 여호와)를 모른다([יְדַעְתִּי לֹא בְּלוֹ יֵדָאֲתָנִי])”라고 언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 7:5에서 여호와는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הַיְהוָה יֵאָמְרֵי כִּי אֵינִי אֲדֹנָאִי](cf. Ex. 7:17; 8:6 [한글성경 10]; 14:18 등) 알도록[עֲדֵי יָאֲדָ] 하기 위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계시하신다. 이 동일한 궁극적인 목적이 사 45:3에서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다루시는 것과 관련하여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הַיְהוָה יֵאָמְרֵי כִּי אֵינִי אֲדֹנָאִי] 알게[עֲדֵי יָאֲדָ] 될 것이다.”라고 되풀이된다.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방 국가들의 지도자였던 바로와 고레스 사이에는 명백한 일반적인 유사점이 있다. 게다가 출애굽기와 이사야서는 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온 천하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 세움 받았음을 강조한다(출 9:16과 사 45:4-5의 유사점에 유의하라).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애굽의 지혜로운 자들[חֲכָמִים 하하밈]을 물리치셨던 것처럼(출 7:11), 이 영광스러운 구원은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 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חֲכָמִים 하하밈]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신(사 44:25)” 여호와의 능력을 예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강압에 의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바로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냈던[נָשַׁל 실라흐] (출 3:20; 6:1; 14:5 등) 것처럼, 사 45:13은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값움이 없이 놓으리라[נָשַׁל 실라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선언한다.

C. 첫 번째 종의 노래(사 42:1-4[9])의 문맥에 있는 제이 출애굽 이미지(Second exodus imagery in the context of the first servant song (Isaiah 42:1-4 [9]))

제이 출애굽 이미지는 각각의 종의 노래의 근접 문맥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종의 노래 전에 출애굽 이미지가 나오는 사 41:17-20에서 여호와는 곤고한 자들에게 광야에서 물과 서늘한 그늘을 제공하는 많은 나무들을 제공하실 것을 약속하신다(cf. 출 15:27; 17:1-7; 민 20:1-13). 첫 번째 종의 노래 다음에 다시 출애굽 이미지가 나오는 사 42:13-16에서 여호와는 전사(אַיִשׁ מְלַחֵמֹת) 같이 나가시어 그분의 대적들을 크게 치시고(참조, 출 15:3 “전사” אִישׁ מְלַחֵמָה [이시 밀하마]), 강을 마르게 하시고(출 14:16-29), 그분의 맹인같은 백성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실(cf. 출 13:21f.) 것을 약속하신다.

더욱이 사 42:6-7에서 “갠 자(אַסִּיר [아씨르])”를 “감옥에서(מִבֵּית כְּלָא [미베트 켈레])” “나오게 하는(הוֹצִיא [호치])” 종의 사역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집에서(מִבֵּית עֲבָדִים [미베트 아바딤])”

고레스의 노래(44:24-45:13)가 출애굽기의 처음 장들에 문학적인 의존을 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다섯 가지 요점을 논의할지라도 이것들 중 어느 것도 고레스를 모세와 동일시하는 제안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오게 하실(אֵלֹהִים הוֹצִיא [호치])” 때(출 13:3, 14; 20:2; 신 5:6; 6:12; 7:8; 8:14; 13:5,10 등) “감힌 자들(מִיָּרֵי־אֵלֹהִים [아씨림])을 인도하여 내신(אֵלֹהִים הוֹצִיא [호치])”(시 68:7 [한글 6]) 출애굽을 반영한다.²⁰⁸

D. 두 번째 종의 노래(사 49:1-6 [13])의 문맥에 있는 제이 출애굽 이미지(Second exodus imagery in the context of the second servant song (Isaiah 49:1-6 [13]))²⁰⁹

두 번째 종의 노래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들 곧 사 48:20-22도 똑같이 제이 출애굽 이미지의 예를 제공한다. 이 본문은 사 48: 20a에서 백성에게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라(cf. 출 11:8; 12:31; 14:5).”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한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야곱을 구원하셨다.”라고 땅 끝까지 반포하라는 사 48: 20b(cf. 출 6:6; 15:13)의 구속의 의기 양양한 선언 후에 사 48:21에서 원래의 출애굽에 대한 명백한 암시가 나온다.

(사 48:21)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 종의 노래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 곧 사 49:8-12도 비슷하게 땅이 재분배되고(민 32:33; 수 13:8, 15ff., 32ff.) 잡혀 있는 백성이 “나오라” (cf. 출 11:8; 12:31)고 하는 명령을 받을 “구원의 날”에 대하여 말한다. 출애굽 암시는 다음과 같은 약속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49:9b-10)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cf. 출 15:27; 16:4ff.; 17:6 등)

E. 세 번째 종의 노래(사 50:4-9 [11])의 문맥에 있는 제이 출애굽 이미지(Second exodus imagery in the context of the third servant song (Isaiah 50:4-9 [11]))

세 번째 종의 노래도 역시 그 바로 앞에 원래의 출애굽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사 50:2-3)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견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베로 덮느니라.

이와 동일한 논리가 다시 나오는 사 51:9-11에서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전적으로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위한 기초로서 원래의 출애굽을 다시 상기시킨다.

(사 51:9-11) 9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저미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10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²⁰⁸ Cf. C. Chavasse, “The Suffering Servant and Moses,” 157.

²⁰⁹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 종을 제이 모세로 보는 입장을 지지하는 것을 보기 위해 A. Bentzen, *King and Messiah*, 66; G. Vermes, “Die Gestalt des Moses an der Wende der beiden Testaments,” in *Moses in Schrift und Überlieferung*, R. Bloch and G. Vermes, eds. (Düsseldorf: Patmos-Verlag, 1963) 61-93, 특히 80을 참고하라.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11 여호와께 구속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F. 네 번째 종의 노래(사 52:13-53:12)의 문맥에 있는 제이 출애굽 이미지(Second exodus imagery in the context of the fourth servant song (Isaiah 52:13-53:12))

사 52:2-4에 출애굽과 특별히 북쪽 지파들의 앗수르 유수에 비유되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거주에 대한 암시가 있다.

(52:2-4) 2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앗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4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앗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다른 곳에서처럼 이 역사적 회고는 여호와께서 다시 한 번 “까닭 없이 사로잡혀 간(사 52:5)”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제이 출애굽 이미지는 네 번째 종의 노래 바로 앞에 나오는 세 절에 다시
나온다.

(사 52:10-12) 10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cf. 출 6:6; 15:16;
민 14:13; 신 1:30-33; 4:34]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11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12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원래의 출애굽에서처럼(출 19:14) 여기서도 이스라엘인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 받는다. 한 번 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에서 호위하실 것이다(사 52:12; cf. 출
13:21f.; 14:19-20).” 그러나 “너희가 황급히[חֲרָטָהּ 브히파존]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번에는 백성이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와 함께 차분하게
떠날 것이다.²¹⁰ 출 12:11과 신 16:3과 대조해 보라. 사실 “황급히[חֲרָטָהּ 브히파존]”란 용어는 이 세
본문에만 나오고 다른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는다.

²¹⁰ 사 58:8도 보라. 올린스키(H.M. Orlinsky, “The So-Called “Servant of the Lord” and “Suffering Servant”
in Second Isaiah,” 21, 22)는 이사야 50장에서 시작하는 제이 출애굽 주제를 사용하여 사 52:13-14[역자
주: 52:13-15]이 앞선 부분에 속하고 그러므로 53:1-12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제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전의 논의를 참고하라. 네 번째 종의 노래와 그 문맥의 일관성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2. 제이 모세(Second Moses)

폰 라드가 설명한 대로²¹¹ 제이 이사야에서 제이 출애굽 주제의 두드러짐은 여호와의 종을 제이 모세와 동일시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지는 않을지라도 정중히 요청하고 있다. 사 63:11-19은 이 연관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다. 그들의 절박한 상황에서 백성은 새로운 출애굽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적어도 암시적으로는, 새로운 모세를 위해 부르짖는다.

(사 63:11-13) 11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참고, 새번역: 그들은, 지난날 곧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12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13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역자 주: BHS 본문과 사 63:11에 대한 영어 번역 비교]

וַיִּזְכֹּר יְמֵי-עוֹלָם מֹשֶׁה עִמּוֹ אִיָּהּ | הַמַּעֲלִים מִיָּם אֶת רֵעֵי צֹאֲנוֹ אִיָּהּ הַשָּׁם בְּקִרְבּוֹ אֶת-רֵוִחַ
:קֹדֶשׁוֹ

KJV: Then **he** remembered the days of old, **Moses, and his people**, saying, Where *is* he that brought them up out of the sea with the shepherd of his flock? where *is* he that put his holy Spirit within him?

NASB: Then **His people** remembered the days of old, of **Moses**. Where is He who brought them up out of the sea with the shepherds of His flock? Where is He who put His Holy Spirit in the midst of them,

NIV: Then **his people** recalled the days of old, the days of **Moses and his people**-- where is he who brought them through the sea, with the shepherd of his flock? Where is he who set his Holy Spirit among them,

ESV: Then **he** remembered the days of old, of **Moses and his people**. Where is he who brought them up out of the sea with the shepherds of his flock? Where is he who put in the midst of them his Holy Spirit

HCSB: Then **He** remembered the days of the past, the days of **Moses and his people**. Where is He who brought them out of the sea with the shepherds of His flock? Where is He who put His Holy Spirit among the flock?]

제공하며 멜루긴(R.F. Melugin, *The Formation of Isaiah 40-55*, 168)은 사 51:5, 9; 52:10; 53:1에서 여호와의 “팔[יָדוֹ] 즈로아”의 반복과 사 49:7; 52:10, 15에서 동사 “보다[ראה] 라아”의 반복에 주목한다.

²¹¹ G.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2:261.

ISV: Then **they** remembered the days of old, of **Moses his servant**. Where is the one who brought up out of the sea the shepherds of his flock? Where is the one who put his Holy Spirit among them,

이러한 문맥에 의해 종을 오래 기다려 온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인식하게 되면 종의 노래들은 이 동일시에 대한 확실적인 증거를 풍부하게 산출한다.

1) 첫째로, 다윗을 제외하고 모세보다 더 자주 주님의 “종[에베드]”으로 불린 사람이 없다. “종”이란 칭호는 모세에게 40회 사용된다. 특히 총 23번 나오는 “여호와와 종[에베드 아도나이]”이란 칭호는 18번이나 모세에게 사용되었다.²¹² 총 4번 사용된 “하나님의 종[에베드 하엘로힘]”이란 칭호는 모두 모세에게 사용되었다.²¹³ 이외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접미 대명사를 가진 종 곧 “עַבְדֵּי” 그분의 종[아브도],”²¹⁴ “עַבְדִּי” 나의 종[아브디],”²¹⁵ “עַבְדֵּי/עַבְדֵּי” 당신님의 종[아브드하/아브데하]”으로²¹⁶ 각각 6번씩 불리었다. ‘종’이란 칭호가 특별히 모세에게 더 독특하도록 만든 것은 민 12:6-8이다. 여기서 여호와와 모세를 단순히 선지자인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시며 모세를 “나의 종”이라고 두 번 부르신다.

2) 둘째로, 종이 신 18:14-22와 34:10-12에 언급된 약속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면, 종의 왕적, 제사장적, 특히 선지자적 특징들에 대하여 앞에서 인용된 모든 증거가 쉽게 설명된다.²¹⁷ 사실상, 이 본질적으로 다른 직무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모세와 같은 인물을 가정할 때만 이 이미지의 풍부한 다양성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선지자들보다 더 많은 계시를 받는 특권을 즐겼을지라도(민 12:6-8) 모세는 분명히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cf. 신 18:15, 18]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한 신 34:10에서 선지자로 확인되고 있다.

²¹² 신 34:5; 수 1:1, 13, 15; 8:31, 33; 11:12; 12:6 (두 번); 13:8; 14:7; 18:7; 22:2, 4, 5; 왕하 18:12; 대하 1:3; 24:6. 나머지 다섯 번은 수 24:29; 사 2:8; 사 42:19; 시 18편과 36편의 표제에 나온다.

²¹³ 대상 6:34 [한글 49]; 대하 24:9; 느 10:30 [한글 29]; 단 9:11.

²¹⁴ 출 14:31; 수 9:24; 11:15; 왕상 8:56; 사 63:11([아브도] ‘그의 종’으로 정정; cf. BHS 아모 ‘그의 백성’; 시 105:26.

²¹⁵ 민 12:7, 8; 수 1:2, 7; 왕하 21:8; 말 3:22 [한글 4:4].

²¹⁶ 출 4:10; 민 11:11; 왕상 8:53; 느 1:7, 8; 9:14.

²¹⁷ 예를 들면, 베스터만은 사 42:1 에서 종의 왕적 특징들과 사 42:2-4 에서 종의 선지자적 특징들에 주목한다. 베스터만(C. Westermann, *Isaiah 40-66* [OTL; ET of *Das Buch Jesaia, 40-66*, ATD 19, Göttingen, 1966;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9] 97)은 자주 “종”이라고 불리운 모세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게 한 개인 안에 이러한 특징들이 병합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종”이란 칭호가 정밀하게 선택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베스터만은 이 통찰을 더 발전시키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모세는 그의 거룩함과 성막 안에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감(출 33:9; 40:31 등; cf. 민 16장), 그의 중보 기도와 속죄의 사역(출 32:30; 민 14:5 등), 그의 희생 제사와 피 뿌림의 주관(출 24:6-8; 레 8 장), 그의 백성에게 축복한 일(출 39:43; 레 9:23; 신 33:1)에 있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라는 시 99:6의 말씀도 보라.

모세가 왕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백성의 지도자로서(cf. 출 2:14) 그들에 대한 왕적(곧, 탁월한 사법적) 권위를 행사했다. 그는 백성을 인도했고, 전쟁에서 그들을 지휘했고, 그들을 재판했고, 공의를 시행하는데 그를 돕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임명했다(출 18장; 민 11장; 신 1장).²¹⁸ 모세가 기꺼이 여호와께 그의 후계자를 임명해 주실 것을 요청할 때 그 임무에 대한 묘사는 왕의 임무와 거의 다름이 없다.

(민 27:16-17)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cf. 왕상 3:7)

3) 셋째로, 종을 제이 모세와 동일시하는 것은 종이 집합적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개인적 존재이냐 하는 문제에 쉬운 해결책을 제공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따라 모세는 그의 백성의 대표였다(출 20:18-19). 더 나아가, 모세는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모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의 본보기를 제공했다. 모세의 소명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것이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출 2:1-10에 나오는 것처럼 물의 시련을 받았으나 애굽인들의 손에 의해 확정된 죽음으로부터 구출되었다. 출 2:3, 5에서 갈대(גִּזְרַיִם [수프])의 언급은 출 15:4 등에 나오는 갈대 바다(יַם-סוּף [암-수프])와 언어적 연결을 제공한다. 이와 비슷하게 모세가 그를 죽이려는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도망한 것은(출 2:15)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예표이었다. 이와 흡사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계시하신 곳인 호렘의 가시떨기(הַר-סֵינַי [스네])에서 불 가운데 임한 신의 현현에 대한 모세의 경험은(출 3장) 온 이스라엘을 위해 시내산(הַר-시나이)에서 불 가운데 임한 신의 현현을 예견하는 것처럼 보인다(출 19장; cf. 출 3:12). 다시 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위에서 가정된 종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비슷하다. 종은 그의 백성의 대표이고 모델이다. 그들은 여호와와 종, 이방의 빛이 되라는 공통의 소명을 공유한다.

4) 넷째로, 종의 노래들에서 “종”이란 칭호 외에 사용된 두 가지 칭호는 제이 모세 가설을 지지해 준다고는 할 수 없어도 최소한 그것과 모순되지는 않는다. 첫 번째 칭호는 사 42:1에 나오는 “나의 택한 자[יְהוָה בְּרִי]”인데 모세는 시 106:23에서 “그의 택한 자[יְהוָה בְּרִי]”로 불리운다. 두 번째 칭호는 사

²¹⁸ 왕상 3:9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예 의하면 왕의 탁월한 책임은 백성을 재판하는(שֹׁפֵט + אֵם[사파트+암]) 것인데 바로 이 표현이 출 18:13에서 모세에게 사용되었다.

49:3(“나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운 적이 없지만 여호와께서 표현하신 소원대로 행하셨더라면 세 번의 경우에 [전멸 후에 새로 시작하는] “이스라엘”로 불릴 수 있었다. 이들 중 첫 번째 경우는 출 32:9-10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직후였다.

(출 32:9-10)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뻗뻗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창 12:2(cf. 창 17:20; 18:18; 21:18)에 나오고 창 46:3에서 야곱/이스라엘에게 다시 사용되었던 아브라함 언약의 어휘를 사용하시며, 여호와와 모세에게 그가 이제 그 언약의 유일한 후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것이었다. 비슷한 결과가 두 번의 다른 경우에도 일어날 뻔하였다. 그 한 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고(민 14:12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 다른 한 번은 덜 구체적이지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의 결과 때문이었다(cf. 민 16:20-33).

5) 다섯째로, 사 42:1에서 종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민 11:17이하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것에 대한 강조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선지자가 레 25:10에서 발견되는 해방의 희년의 어휘를 사용하는 사 61:1-7(cf. 렘 34:8, 15, 17; 겔 46:17)에도 모세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²¹⁹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신의 애굽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경험을 따라 만들어졌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것은 레위기 25장과 27장에서처럼 출 19:13에서의 나팔[요벨] 사용과 같은 부수적인 언어적 병행을 설명해 줄 수 있다.

6) 여섯째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공의[צדקה 미시파트]와 율법[תורה 토라]을 세웠는데(cf. 출 18; 21:1; 24:3; 민 11; 27:5; 신 1; 4:1, 13; 7:11f.; 10:4), “공의[צדקה 미시파트]”를 세울 종의 소명은 사 42:1, 3, 4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사 42:4의 “섬들이 그의 교훈[תורה 토라]을 앙망하리라”는 약속과 병행되고, 그것의 우주적인 적용에서 적절하게 원래의 모세의 사역을 확대 상승시킨다. 이사야서의 종처럼, 모세는 선지자 그 이상이었다.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였다. 물론 원래의 출애굽에서 율법이 차별없이 비 이스라엘인 거류민에게 적용되어야 하고(출 12:49; 레 24:22; 민 15:16, 29) 열국들을 감동시키도록 되어 있었다는(신 4:8) 점에서 이미 초기 보편주의가 있었다. 사실상, 바라보고 있는 열국은 모세가 완고한 이스라엘을 위해 드린 중보 기도 중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는 열국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여호와와

²¹⁹ 뜻 깊게도 11QMelch 은 레 25:13 과 신 15:2 을 결합하는 인용들로 시작하는데 그것들을 사 61:1 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적용한다. 사 61:1-7 은 종의 노래들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상 침멀리를 비롯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은 종을 개인으로 해석하는(“παῖς θεοῦ” TDNT, V, 666, n. 67) 가장 이른 증거를 제공할지 모른다. 종과 사자가 그들의 사역을 위해 임한 영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임무와 메시지도 비슷해 보인다. 사 42:7 과 49:9 을 보라. 또한 사 61:2 의 “צִוְּתָנוּ [시나트-라촌] 은혜의 해”와 사 49:8 의 “עַתָּה [에트-라촌] 은혜의 때”를 비교해 보라.

진노를 그분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의 증거로 잘못 볼까 염려했다(출 32:12; 33:16; 민 14:13-16). 더구나 “수많은 잡족도 그들과 함께 하였다[cf. 민 11:4].”라는 출 12:38의 말씀에 의하면, 원래의 출애굽의 수혜자들 곧 모세의 가르침의 수용자들 안에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로부터 온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²²⁰ 분명하게 이스라엘로 영입된 외국인들 곧 그나스 사람들(민 32:12; 수 15:13), 미디안 사람들(민 10:29ff; 참조, 수 1:16; 4:11에 언급된 겐 족속), 심지어 절반은 애굽인(이스라엘인 어머니와 애굽인 아버지)인 사람이 있었던 것은 이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다. 더 나아가, 사 42:6[역자 주: 저자의 42:7은 오류이므로 바로잡음]과 49:6에 나오는 “이방(열국)의 빛[오르 고임]”이 될 소명에 대하여 다른 배경들도 들 수 있지만, 이 비유적인 조명에 대한 약속을 출 34:29-35의 설명 곧 모세가 백성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전할 때 그의 얼굴이 문자적으로 광채가 났던 일과 연결짓는 것은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cf. 42:16). 이를 지지하는 근거 구절이라 할 수 있는 사 60:1-3은 빛을 여호와의 영광과 동일시하고 있다.²²¹

7) 일곱째로, 사 49:1이하에 나오는 종의 소명 내러티브가 렘 1:4-10과 중요한 병행을 보이지만, 예레미야에 있는 내러티브 자체가 모세의 소명 기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²²² 더욱 더 특별하게, 사 49:4에서 종의 사명에 대한 반대와 수고가 헛되다는 의식과 사 53:1 이하에서 종의 유망하지 못한 기원은 출 3:11에서 자신을 의심하며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말하는 불평에서 그럴듯한 선례를 발견한다.²²³ 마찬가지로 사 42:2-3a에 나오는 종의 처신과 선언이 보여주는 온유함이란 주제는 적어도 그 자신의 평가대로라면 모세의 인상적이지 못한 말 솜씨(출 4:10; 6:12, 30; cf. 민 12:3)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여호와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종을 지으시고(사 49:1, 5) 종의 입을 만드시고(사 49:2), 종의 혀를 교훈하시고 종의 귀를 여신다(사 50:4-5)는 보완적인 시인은 출 4:11-12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하신 반응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²²⁰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모든 족속이 그들과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창 12:3; 22:18)과 그들이 “많은 백성들, 백성들의 총회”가 될 것(창 35:11f.; 48:4)이라고 하신 약속들을 참고하라.

²²¹ 그러나 사 51:4의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אֲנִי אֶפְרָיִם לְאוֹר עַמִּים) [미시파티 르오르 아빴] 세우리라”는 어구에도 주목하라. 실로모 아스트럭(Sh“lomoh Astruc)은 종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할지라도 사 52:14에서 종의 얼굴의 광채가 출 34:30에서 모세의 광채를 상기시키고 능가한다고 주장한다(S.R. Driver and A. Neubauer, *The Fifty-Third Chapter of Isaiah According to the Jewish Interpreters*, II: 130).

²²² W.L. Holladay, “The Background of Jeremiah’s Self-Understanding,” *JBL* 83 (1964) 153-164; “Jeremiah and Moses: Further Observations,” *JBL* 85 (1966) 17-26; J.A. Thompson, *The Book of Jeremiah*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1980) 148; R.J. Clifford, “Isaiah 40-66,” 580.

²²³ Cf. 출 3:13; 4:1 등.

8) 여덟째로, 사 42:6과 49:8에서 여호와와 그의 종에게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주겠다[**אָתְּךָ וְאֶתְּ בְרִית** **עִם** 브에텐하 리브리트 암].”라는 주목할 만한 주장을 하신다. 이 표현의 두 가지 점이 해석자들을 괴롭혀 왔다. 첫째로, **עִם בְּרִית**[브리트 암]이란 어구는 직역하면 “백성의 언약”인데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어구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사 42:6에서 **עִם בְּרִית** [리브리트 암]과 병행되는 **לְאוֹר מַיִם** [르오르 고임]이 직역하면 “열국의 빛으로”이지만 “열국을 위한[열국의 유익을 위한] 빛으로”라고 번역되므로 [리브리트 암]도 “백성을 위한[백성의 유익을 위한] 언약으로”라고 번역되는 것이 선호된다. 두 번째 어려움은 [리브리트 암]과 그 앞에 나오는 동사 [브에텐하](내가 너에게 주었다)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 언약[**בְּרִית** 브리트]과 저주[**אֶלֶּה** 알라]의 의미적 근접성에 기초하여 네일러는 민 5:21; 렘 29:18; 42:18; 44:12에서 병행 어구 **נָתַן לְאַלֶּה** [나탄 르알라]가 “저주로 주다/제공하다”는 의미를 갖는 것처럼 **נָתַן לְבְרִית** [나탄 리브리트]가 “언약으로 주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곧 강조적인 환유의 예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²⁴ 따라서 민 5:21에서 저주 받은 여인이 그 저주의 화신이었던 이 사야서에서 여호와와 종은 언약이 수반하는 모든 것의 화신이고 개인적인 실존화(personal existentialisation)를 구성한다.²²⁵ “언약으로 주다/제공하다”는 표현이 어느 곳에서도 원래의 모세에게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 표현은 시내산 언약의 중보자였던 모세(출 24장; 25:22)를 모델 삼아 그의 역할이 정해진 사람인 종을 묘사하는데 매우 적절해 보인다.²²⁶ 모세를 순종하는 것은 언약을 순종하는 것이었다(출 20:19; cf. 16:8; 17:2). 모세에 대한 믿음은 언약의 주님에 대한 믿음과 동등한 것이었다(출 14:31; 19:9). 다른 한편으로, 모세는 백성과 매우 철저히 동일시되었으므로 출 34:27에서 언약은 모세가 이스라엘에 추가되었는지 아니면 더 그럴듯하게 모세가 그들의 대표로서이었는지 모세와 맺어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출 34:2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אֶתְּ בְרִית וְאֶתְּ יִשְׂרָאֵל**)[카라티 이트하 브리트 브에트-이스라엘] 하시니라.²²⁷

²²⁴ P.J. Naylor, “The Language of Covenant.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Semantic Field of **בְּרִית** in Biblical Hebrew,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Book of Genesis” (D.Phil. diss., Oxford University, 1980) 380-395.

²²⁵ “The Language of Covenant,” 394. Cf. also W.J. Dumbrell, *Covenant and Creation*, 193.

²²⁶ 맥켄지(J.L. McKenzie, *Second Isaiah*, 40)는 “종은 언약이라고 불리운다. 이 상징의 참뜻은 종이 여호와와 민족들 사이에 중보자로 사역하고 종이 연합의 끈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A. Gelin, “Moses im Alten Testament,” in *Moses in Schrift und Überlieferung*, R. Bloch and G. Vermes, eds. (Düsseldorf: Patmos-Verlag, 1963) 31-57, 특히 55도 참고하라.

²²⁷ 참고, 출 34:10-1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역자 주: 저자의 간단한 설명(... with you and [or perhaps, 'that is'] with Israel)을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이렇다. 여기서 “너와([אִתְּךָ 이트하])”라는 전명구와 “이스라엘과([אֶת־יִשְׂרָאֵל 에트-이스라엘])”라는 전명구를 잇는 접속사 바브(! [브])는 추가(“그리고”)의 의미로 보는 것보다 동격(“즉, 다시 말하면”)의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좋다. 그렇다면 출 34:27은 “나는 너와, 곧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백성의 대표로 삼아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가 된다.]

시내산 언약의 중보자로서 모세의 사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암시는 맛소라 본문이 유지된다면 사 52:15에 나오는 진술에 의해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²²⁸ 사 52:15의 맛소라 본문 מִי־בָרַךְ מִי־לֹאֵ הִזְיָן [켄 야제 고임 라빔]은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뿌릴(sprinkle)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참고, NRSV는 “그가 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할[startle] 것이다.”라고 번역한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별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단에 피를 뿌리도록(קָרַר) 지시받았다(출 29:16, 20; 레 8:19, 24).²²⁹ 또한 모세는 그들의 사역을 위해 성별하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피와 기름을 뿌리고(출 29:21; 레 8:30) 레위인들에게 물을 뿌렸다(민 8:7). 그러나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는 선택된 개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전 백성에게 뿌렸다. 특별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עַל־הָעָם וַיִּזְרֹק] 바이스로크 알-하암]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는 출 24:8을 보라. 사 52:15은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 아홉째로, 종의 경험이 원래의 모세의 경험과 병행되는 것이라면 백성에 의한 종의 거절당함, 종의 고난, 종의 반대에 대한 묵묵한 순응과 같은 반복적인 주제들은 제이 모세와 분명한 관련성을 갖는다. 사 42:4과 49:4에서는 종이 직면한 어려움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 49:7은 종을 “. . . 사람들에게 의해 깊이 멸시 받고 미움 받는” 자로 언급한다. 사 50:6의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에서 이런 거절과 종의 묵묵한 순응은 더욱 더 명백해진다. 이 본문은 단순히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²²⁸ 맛소라 본문 [הִזְיָן 야제](“그가 뿌릴 것이다”)는 사해 사본 1QIsa^a, 1QIsa^b, 그리고 타르굼(בְּדִר', “he will scatter”)에 의해 지지를 받을지라도, 칠십인역의 독법 곧 οὐτως[Brenton: οὕτω] θαυμάσονται ἔθνη πολλὰ ἐπ’ αὐτῷ (“많은 민족들이 그를 보고 놀랄 것이다”)에 근거하여 다양한 미심쩍은 정정들이 제안되어 왔다.

²²⁹ 민 19:19-20 은 문맥을 통해 נָזַח[나자 “to sprinkle 뿌리다”]와 קָרַר[자라크 “to sprinkle or dash 뿌리다 혹은 끼었다”]가 동의어인 것을 보여준다. [역자 주: “(민 19:19-20) 19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הִזְיָן)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20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와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קָרַר)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개인적인 적대와 모욕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때리는 것과 수염을 뽑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잘 입증된 형사 처벌이었다(느 13:25; cf. MAL A §§18, 19). 마찬가지로 모욕과 침 뱉음도 사법적 문맥에서(전적으로 그런 문맥에만 한정되지는 않더라도) 발견된다(신 25:9; 막 10:34). 그러나 뒤따라 나오는 구절들인 사 50:8-9은 사 50:6의 경우에 하나님의 중재를 요구하는 종에 대하여 법적 고소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거절, 고난, 종의 묵묵한 순응의 주제들은 네 번째 종의 노래 전반에 걸쳐서 강조된다.

(사 53:3, 7-8 사역) 3 그는 멸시를 당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슬픔의 사람이요 아픔을 아는 자였다. . . . 7 그는 학대를 받았다. 고난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리고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8 그는 체포와 심문을 당하고 처형 받으러 끌려갔다. 그 세대 중에 어느 누가 생각했겠는가? 산 사람들의 땅으로 그의 끊어짐이 내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천벌이 그에게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모세의 경험은 이에 딱 들어맞는다. 모세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해 특징적으로 거절당하고 멸시당했다(출 2:14; 4:1; 15:24; 16:2-12; 17:2f.; 민 12:1ff.; 14:2; 16:2ff.; 16:41f.; 20:2f.; 21:5; 26:9).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 대하여 법적 고소도 했고(출 17:2과 민 20:3에서 ḡr[리브]를 사용한 것을 참조하라), 적어도 한 번은 사법적 집행을 시도하며 모세를 돌로 치려고도 했다(출 17:3f.; cf. 민 14:10).²³⁰ 그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옹호를 요구했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cf. 민 16장). 다른 한편으로, 이사야서의 종과 비슷하게(사 42:2-3; 50:5-6; 53:3-4, 7) 모세는 민 12:3에 “운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מַאֲבָד אֲנִי 아나브 므오드)”고 묘사되어 있다. 민수기의 문맥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묘사된 것은 그가 그의 적대자들 앞에서 특징적으로 잠잠하였고 그의 변호를 여호와께 맡기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cf. 출 15:24f.; 16:3f.; 민 16:41f.; 20:2-

²³⁰ 사 53:8a 은(참조, 사 53:9 또한) 종이 공의의 실패로 인한 희생자임을 암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 53:8a 의 מֵעַרְוֹת וּמִשְׁפָּט לְקָחָהּ [메오체르 우미미시파트 루카흐]라는 절은 NIV 에 “By oppression and judgment he was taken away(개역개정: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그는 끌려갔다).”로 번역되어 있으나 “After arrest and sentence he was taken away(체포와 선고 후에 그는 끌려갔다).”라고 번역될 수 있다. Cf. H. Blocher, *Songs of the Servant*, 64.

[역자 주: Motyer(*Isaiah*, 433-434)는 מֵעַרְוֹת וּמִשְׁפָּט [메오체르 우미미시파트]에 대하여 사실에 치중하면 “from arrest and sentence 체포당하고 선고받아”로, *희생자*에 치중하면 “without restraint and without right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개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로, *불의/부정에* 치중하면 “without restraint and without justice 정상적인 구금과 적법한 재판 없이”로 번역할 수 있다고 했다.]

6; 21:5). 게다가 적어도 두 번의 경우 모세는 그의 비난자들 앞에 엎드렸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치려는 자들에게 그의 등을 내미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민 14:5; 16:4; 비교, 사 50:6).²³¹

사 53:9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진술이 나온다. 여기서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언급은 거절과 (종의 고난과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공의의 명백한 실패라는 주제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아니면 그것은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 세대가 죽도록 정죄 받았던 장소(미 26:65; 32:13; 신 4:21f. 등; cf. b. *Sotah* 14a), 곧 광야에 있는 모세의 장지를 생각나게 해 주는 것 같다.

10) 열째로,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사 53:12의 “. . .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고 범죄자들을 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끝난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라는) 시 99:6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종이 기대되는 제이 모세라는 견해와 일치를 보이며 그의 제사장적 소명의 두드러진 측면으로 모세의 중보 사역을 강조한다. 렘 15:1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는 말씀도 비슷한 관점을 보여준다. 시 106:23도 보라. 이러한 평가를 모세 오경이 지지하는 것은 모세가 처음에는 애굽인들을 위해 드렸고(출 8:8f., 29f.; 9:33; 10:18) 나중에는 그의 받을 자격 없는 친 백성을 위해 드렸던(출 32:11ff.; Nu. 11:2; 12:11; 14:5; 16:4; 20:6; 21:7; 신 9:18-29) 중보 기도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통해 확인된다.²³²

11) 열한째로, 사 53:5(“그가 채찍을 맞았기에 우리가 치유를 얻었다.”)에서 종을 통해 오는 치유도 역시 제이 모세라는 주제를 지지하는 것 같다.²³³ 모세 오경은 모세의 치유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예들을 제공한다(민 12:13; 21:9; cf. 출 15:26; 신 28:60f.). 이것 또한 제이 모세로 널리 인식되던 엘리야 사역에서 치유가 강조된 것에 기여하였을 것이다.²³⁴

²³¹ 사 52:2-4에 묘사된 종의 혐오스러운 모습과 고난은 학대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른 시기의 해석자들(cf., 예를 들면 b. *Sanhedrin* 98b 와 사 53:4의 *וַיִּקְרַע*에 대한 아퀼라의 ἀφαιρεμενον[‘leprous’ 나병에 걸린]이라는 번역)과 둠이 제안한 대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과한 나병이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출 4:6 이하에 나오는 모세의 나병에 대한 경험은 이러한 기대에 대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Cf. D.C. Allison, Jr., *The New Moses*, 69.

²³² Cf. J. Muilenburg, “The Intercession of the Covenant Mediator (Exodus 33.1a, 12-17),” in *Words and Meanings*, P. Ackroyd and B. Lindars, eds. (Cambridge: CUP, 1968) 159-181; G.W. Coats, *The Moses Tradition*, 63-75; D.C. Allison, Jr., *The New Moses*, 25, n. 45.

²³³ G.W. Coats, *The Moses Tradition*, 135-150 (Chapter 12: “Healing and the Moses Traditions”).

²³⁴ Cf., e.g., S.J. DeVries, *1 Kings* (WBC 12; Waco, TX: Word Books, 1985) 209f.; H. Schmid, *Die Gestalt des Mose*, 60. Cf. also discussion of Malachi 4:5 [MT 3:23] in G.P. Hugenberger, “Malachi,” in *New Bible*

12) 열두째로, 네 번째 종의 노래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의 중보 사역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속죄하려는 그의 노력에서 모세가 여호와와 의 당연하신 진노를 자신에게 내려달라고 했던 사실일 것이다(출 32:30-35). 제이 출애굽에서 원래의 출애굽보다 확대 상승된 많은 예들이 있다면(참조, 출 12:11과 대조적으로 사 52:12에 “서두름”이 없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경험과 소명에서의 비슷한 확대 상승은 당연히 기대되는 일이다.²³⁵

원래의 모세가 그의 범죄한 백성 대신 여호와와 의 진노를 견디도록 허용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제이 모세는 “참으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찢어졌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부서졌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을 맞았기에 우리가 치유를 얻었다(사 53:5; cf. 53:8b, 10, 11b, 12b).”²³⁶ “여호와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דִּישָׁן* 아삼]로 삼으실(사 53:10a)” 것이라는 약속을 고대하며, 선지자는 “우리 모두는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와 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다(사 53:6).”라고 고백한다. 슈틀뮐러가 잘 본 것처럼 백성의 부주의로 인한 죄들이 아니라 백성의 고의적인 죄를 위한 속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레위기 4-5장에 묘사된 제사보다 더 큰 제사가 요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²³⁷ 모세의 자기 희생이 시내산에서 거절되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민 20:2-13; 27:12-14에 언급된 므리바에서 그의 백성이 반역한 결과로 그의 백성을 위해 정말로 고난을 당했다. 민수기의 설명은 모세가 반석을 두 번째로(*דְּבַר* [파아마임], 가정상 출애굽기 17장을 첫 번째 경우로 언급함) 쳤을 때 범죄했다고 인정한다.²³⁸ 이 범죄에 대한 형벌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고 죽는 것이었다. 사 53:4에 묘사된 종의 고난들의 경우처럼 모세가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은” 것은 바로 모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역자 주: 저자의 입장은 제이 모세가 원래의 모세보다 나은 확대 상승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민 20:12와 신

Commentary: 21st Century Edition, D.A. Carson et al., eds. (Leicester, England an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4).

²³⁵ 슈미트(H. Schmid, *Die Gestalt des Mose*, 64f.)가 종을 제이모세와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모세가 백성을 위해 대리적으로 고난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반대는 출 32:30-35 에 나오는 모세 자신의 분명한 바람과 위에서 논의한 모형에서 대형으로 확대 상승되는 패턴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²³⁶ 제이 이사야는 모세의 열망들을 이스라엘의 종말론의 명백한 기초로서 사용한 점에 있어서 유일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민 11:29 에 표현된 소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율 2:28-29 을 참고하라.

²³⁷ C. Stuhlmueller, “Deutero-Isaiah and Trito-Isaiah,” 342. 크루제만(F. Crusemann, “Jahwes Gerechtigkeit im Alten Testament,” *Evangelische Theologie* 36 [1976] 427-450)은 이 절이 칭의 개념의 가장 빠른 분명한 표현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²³⁸ Cf. 시 106:32-33: “32 그들이 또 므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33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명령되이 말하였음이라도” [역자 주: [파아마임]은 양수로서 차례상 “두 번째”를 나타낼 수도 있고(나 1:9) 횡수로 “두 번”을 나타낼 수 있다(창 27:36; 43:10; 41:32; 삼상 18:11; 왕상 11:9).]

32:51은 분명하게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신명기의 언급들(신 1:37; cf. 또한 신 3:26; 4:20-22)은 모세의 실패를 불러일으켰던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역자 주: 이스라엘의 반역이 모세의 실패와 죄를 불러일으킨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죄를 엄히 물으시고 그 죄책을 감당하게 하셨다.].

(신 1:37)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וְהָיָה לְכַלְכַּלְתִּי אֶתְכֶם)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역자 주: 비교, 신 3:26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וְהָיָה לְכַלְכַּלְתִּי אֶתְכֶם); 신 4:21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וְהָיָה לְכַלְכַּלְתִּי אֶתְכֶם)]

[역자 주: 저자가 언급한 신 1:37; 3:26; 4:20-22에는 “너희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모세의 말이 나오고, 신 31:2에는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하는 모세의 말이 나오는데 네 번 모두 1인칭 시점의 묘사이다. 그러나 신 32:48-52; 34:1-4은 이 사건에 대한 3인칭 시점의 묘사이다. 1인칭 시점의 묘사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곧 백성 때문에 모세에게 진노하시므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3인칭 시점의 묘사(신 32:51)는 “너희[아론과 모세]가 신 광야 가데스의 므리바 물 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에 “네(=모세)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신 1:37; 3:26; 4:21과 신 32:51은 상반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세 번이나 “너희 때문에”라고 한 말은 반역하는 백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죄 없는 모세가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신 32:51-52에서처럼 반역하는 백성이 계기를 제공하므로 모세가 범죄했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상충되지 않는다. Cf. Grisanti, “Deuteronomy” in *REBC* 2, 514: “Moses is not affirming that he was blameless and punished despite his innocence; rather, Israel’s rebellious conduct at Meribah (Nu 20) may have occasioned Moses’ sin, but their behavior did not excuse his departure from God’s clear instructions about striking the rock. Although Moses was affected by Israel’s rebellious heart, he himself had sinned against Yahweh (Nu 20:12; Dt 32:51). Whether Israel provoked him or not, God held Moses accountable for his own sin.”]

마지막으로, “그가 씨를 보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다[וְרָאָה זָרַע יִאֲרִיךְ יָמִים] 이르에 제라 야아리흐 야밈].”라는 약속은 원래의 모세의 경험의 추가적인 확대 상수를 암시한다. 클리포드가 관찰한 것처럼 여기 “날들을 길게 하다”라는 표현이 신명기(참고, 22:7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וְהָאֲרָכְתָּ יָמִים] 브하아라흐타 야밈)에서 갖는 의미를 갖는다면,

제이 모세는 약속의 땅에서 생명을 즐기도록 허락받을 것이다.²³⁹ 더욱이, 근접 문맥에서 “씨[제라]”라는 용어가 비유적으로 이스라엘을 언급하는데 사용된 충분한 증거를 생각하면(사 43:5; 44:3; 48:19; 54:3 등; cf. 49:20f.) 제이 모세는 출 32:10에서 모세로부터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겠다는 여호와의 취소된 약속/위협을 실현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Conclusion)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종의 정체에 대한 현재의 해석학적 교착 상태에서부터 빠져나올 길을 제안한다. 종의 노래들을 그것들의 근접 문맥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둠과 다른 학자들에 의해 추진된 사 40-66장의 인위적인 절단을 거부하고, 일반적으로 무시되어 온 통찰 곧 노래들 안에 모세의 암시들이 있다고 하는 탈무드의 통찰을 도움을 받아, 본 연구는 종의 정체를 신 18:14-22와 신 34:10-12에 언급된 바 기대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동일시하는 것을 주장했다. 제이 모세 가설이 종의 노래들의 중요한 해석학적 문제들의 해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입증될지라도, 그것이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준다는 뜻은 아니다.²⁴⁰ 그러나 종을 제이 모세로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에 의해서만, 종의 노래들과 제이 출애굽의 이미지들이 지배하는 그것들의 문맥 사이의 통일성, 다른 상황에서는 당혹스러운 결합 곧 집합적 백성과 개인의 결합, 그리고 종의 묘사에 나오는 선지자적, 왕적, 제사장적 특징들의 결합 등이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본 논문의 주장이다. 요약하면, 정확하게 종이 오래 기다려온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종의 정체에 관한 이전 연구들의 대부분에 상당한 수준의 진실이 들어있다. 신약에서 종의 노래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한 것을 검토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²⁴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노래들에 대한 이 접근법은 흔히 행해지는 메시아적 해석을 전제함이 없이 신약의 메시아적 해석에 대하여 근거있는 지지를 제공하는 멋진 결과를 낳는다.

²³⁹ R.J. Clifford, “Isaiah 40-66,” 584. Cf. 또한 신 4:26, 40; 11:9 등.

²⁴⁰ 모세가 전형적인 선지자이기 때문에(신 18:14-22; cf. 또한 호 12:14 [한글 13]) 그 이후의 많은 선지자들에 대한 성경적 설명들의 채색에 제이 모세의 색조가 있다. 그들의 소명 내러티브들은 전형적으로 그를 따라서 형성되었다. 그들의 거절과 고난의 경험들에서 비슷한 점들이 있다. 드보라,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등은 분명한 예들을 제공한다. 이들 중 아무도 기대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신 34:10-12의 평가가 아직도(특히 여호와의 진노를 막기 위한 모세의 의도적인 자기 희생에 관하여) 성립한다면, 마지막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종을 묘사하는 어떤 세부 사항들은 제이 이사야 자신을 포함한 더 이른 선지자들의 경험들로부터 유래되거나 강화되었을 것이다.

²⁴¹ Cf., e.g., M.N. Hooker, *Jesus and the Servant. The Influence of the Servant Concept of Deutero-Isaiah in the New Testament* (London: S.P.C.K., 1959); W.A. Meeks, *The Prophet-King: Moses Traditions and the Johannine Christology* (NTS 14; Leiden: E.J. Brill, 1967); R.T. France, “The Servant of the Lord in the Teaching of Jesus,” *Tyndale Bulletin* 19 (1968) 26-52; *idem.*, *Jesus and the Old Testament: His Application of Old Testament Passages to Himself and His Mission* (Grand Rapids, MI: Baker, 1982); D.C. Allison, Jr., *The New Moses* (1993).

